

南北對話年表

2002

統 一 部
南北會談事務局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北韓 主要動向·周邊情勢 動向 등을 綜合整理한 것으로서 南北會談 對策 수립 및 南北關係 研究를 위한 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作成한 것임.

目次

1月	1
2月	33
3月	57
4月	84
5月	110
6月	145
7月	171
8月	202
9月	235
10月	267
11月	304
12月	343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	<p>김대중 대통령, 1.1 신년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 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화시키고 국민의 여론의 바탕 위에서 서두르거나 쉬지 않고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 	<p>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시설」(당보·군보·청년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빛내이자」 제목으로 '4대 제일주의(수령, 사상, 군대, 제도)을 제시하며 이를 철저히 구현할 것 등을 강조 <p>당·정 간부 및 장병·주민들, 새해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방문</p> <p>* 참배 : 김영남, 홍성남, 전병호, 김철만, 최영림, 한성룡, 백학림, 김용순 등</p>	<p>스페인, 2002년 상반기(임기6개월) 유럽연합(EU) 의장단 수임</p> <p>유로貨 공식 유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간 현 통화 병행사용 후 3.1부터 유일 법정통화로 통용
1. 2	<p>홍순영 통일부 장관,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 과제 언급</p> <p>* 통일부 시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정책 추진의 3대 과제로 ▲국민적 지지 확보 ▲국제적 지원 확보 ▲북한에 대한 평화 프로세스 교육 강조 <p>'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방북 대표단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한 대표단 관계자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등의 관계자들과 만나 2월 초에 설맞이 행사를 연다는 데 대해 큰 틀에서 	<p>중방, '공동시설은 뜻깊은 올해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적 기치'라고 보도</p> <p>중앙방송위 방송문예창작단, 텔레비존 2부작 '불타는 노을' 창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복공장 여지배인의 형상을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촉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	<p>합의했으며, 참가규모·행사구성·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께 다시 한번 실무 접촉을 갖고 확정키로 했다고 전언</p>		
1. 3	<p>통일부, 2001년도 남북 이산가족 교류동향 집계 발표 * 전년대비 생사확인 77%, 상봉은 66% 수준으로 다소 감소, 서신교환은 1.2배로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도 이산가족교류는 생사확인 952건, 서신교환 1,202건, 제3국 상봉 165건, 방북·방남 상봉 205건 - 이중 당국차원의 생사확인인 744건, 방북·방남 상봉은 200건, 서신교환은 623건 - 민간차원의 생사확인인 208건, 제3국상봉 165건, 방북상봉 5건, 서신교환 579건으로 집계 <p>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김정일 위원장 답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야 소장개혁과 의원모임인 '정치개혁을 위 	<p>평방, '민족단합의 위대한 강령' 제하로 민족대단결 5대 방침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는 현 시기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 <p>노동신문 정론, '라남의 봉화를 더 높이 추켜들고 새해 총진군 앞으로' 제하로 김일성 출생 90돌 및 인민군 창건 70돌 대비 경제성과 독려</p> <p>연단, '청년들은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용감히 싸우자' 제하로 6.15 공동선언 및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남한 청년학생들의 투쟁 선동</p> <p>신년공동시설 관철을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들 쫓기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일철과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 장령, 	<p>「지니」미 중동특사, 중동지역 방문 (1.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휴전 이행과 중동평화회담 재개방안 논의 <p>「다나카」일본 외상, 구주 4개국 순방 (1.3-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방국 : 영국·스페인·포르투갈·터키 -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 지원문제 등 협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	<p>한 의원모임'은 1.3 새해의 전환기'로 만들 것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지키지 못한 서울 답방 약속을 올해에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p>	<p>군관, 군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에서는 조명록의 보고와 장령들의 토론이 있었음. 	
	<p>국가정보원, 2001년도 탈북자 583명으로 집계 확인</p>		
1. 4	<p>통일부, 2001년도 북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동향 자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금년도에 종래의 매우 작은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건설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금년도에는 현재 건설중이거나 향후 건설 계획인 중소형 발전소가 370여개, 완공한 발전소가 대략 80개(도합 1.8만 KW)정도로 추정 <p>통일부, 금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 분석·평가 자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는 금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이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설정된 	<p>신년공동시설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에는 10만여명의 각 계층 근로자들과 함께 흥성남내각총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한성룡, 최태복, 정하철, 김중린비서들, 광범기내각 부총리를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 - 평양시인민위원회 량만길 위원장은 보고에서 올해 공동시설은 전당, 전군, 전민을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총 진격으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라고 지적 <p>중방, 이탈리아와의 외교관계 설정 2돌 즈음 '지중해의 나라이탈리아' 제하로 보도</p> <p>노동신문 사설, '올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강성대국 건설</p>	<p>독일 외무부 대변인, 헤르트람프 주북한 독일대사 부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2001년 3월 1일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3월 1일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0개월만에 도리스 헤르트람프가 정식 대사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확인 <p>니혼게이자이신문, 중·일 안보 협의 차관급으로 격상 재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일 양국 정부는 외교·방위 당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p>것으로 평가하면서, 지난해 보다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위를 높임으로써 김일성 생일 90돌 및 군 창건 70돌에 즈음,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분석</p> <p>- 따라서 북한의 금년도 경제시책은 지난해에 추진하여 왔던 경제건설사업을 지속추진하는 가운데 경공업, 농업, 축산 등 주민생활 관련 부문의 생산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p> <p>북한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p> <p>-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경비정 1척이 이날 낮 12시15분께 서해 연평도 서방 7.5마일 해상에서 NLL을 3마일(5.4km) 가량 넘어 30여분간 기동한 뒤 북으로 돌아갔다고 밝히고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자 우리 해군 고속정편대가 즉각 출동해 대응했으며, 북측의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었다고 확인</p>	<p>의 자랑찬 열매로 빛내이자' 제하로 4대제일주의 관철을 강조</p> <p>- 오늘 우리 인민은 커다란 환희와 혁명적 열정에 넘쳐 뜻깊은 올해를 반만년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영광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 진군길에 들어섰다고 강조</p> <p>-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따라 신심과 낙관에 넘쳐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 민족적 융성번영의 일대 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p> <p>평방,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수는 것은 민족자주통일의 근본 요구'제하로 대남 비난</p> <p>- 남조선당국이 반테러 명목 밑에 외세와 공조하면서 새 전쟁책동을 벌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비난함.</p> <p>중통, 주적론 철회 요구</p> <p>- 어떤 경우에도 피를 나눈 동족이 주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주적론 철회 주장</p>	<p>국자간 안전 보장 협의를 종래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재개키로 했다고 보도</p> <p>제11차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 정상회의(1.4-6 네팔 카트만두)</p> <p>* SAARC회원 7개국 :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몰디브·네팔·부탄</p> <p>-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 역내 경제·안보력 강화 방안 논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p>통일부, 2001년도 북한의 정치사상적 상징물 건설 동향 분석 결과 발표</p> <p>- 통일부는 2001년도 북한의 정치적 상징물 건설 건수를 51건으로 집계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국차원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보강공사를 대대적으로 착수한 점, 시기적으로는 10월 이후부터 상징물들의 건설이 두드러지게 많이 이루어진 점 등이 특징이라고 분석</p>	<p>- 동족을 주적으로 하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과적으로 진척될 수 없음.</p> <p>민주조선, 일본 경찰청 보고서 비난</p> <p>- 우리의 테러위협을 내걸어 놓고 저들에게 쏠리는 세계적인 경계의 눈초리를 돌려세워 보자는 데 있음.</p> <p>-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저들의 반공화국 적대시책동이 어떤 후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난</p>	
1. 5	<p>오홍근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1월 14일 오전 10시) 계획 발표</p>	<p>김정일, 김중태 전기기관차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노동계급들을 고무·격려</p> <p>평방, '공동선언 이행에 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제하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등 강조</p> <p>- 6.15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마련한 민족통일의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자주통일이며, 오랜 대결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고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데 북남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 <p>시사논평, '사대와 매국을 드러낸 망언' 제하로 외교통상부장관의 2002년도 시무식시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외교당국자가 그 무슨 시무식이라는데 나타나서 앞으로의 외교정책방향을 개괄하면서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이를 6.15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난 	
1. 6	<p>정부 당국자, '1월말 한미 외무장관회담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승수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회담을 갖기로 미측과 합의했으며 현재 회의장소 및 세부일정을 조정중이라고 언급 	<p>평방, '번함없는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 제하로 6.15선언의 이행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함. -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방 	<p>일본, 북한 화물선 수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에노시마 앞바다에서 잠수복을 입은 5 내지 6명이 육지로 몰래 상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일본 해상보안청이 순시선을 동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6		<p>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2향은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는 데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임.</p>	<p>북한선적 화물선 '소나무호'를 수색</p>
1. 7		<p>시사논평, '북침을 노린 위험한 무력증강 책동' 제하로 '국방부의 2004년까지 지상대지상 미사일 111기 도입 결정 보도' 관련 대남 비난</p>	<p>멜리사 플래밍 IAEA 대변인, '내주 북한 방문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팀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영변 핵관련 시설을 방문할 것임. - 실제사찰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시설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임.
1. 8	<p>「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설맞이 행사 제2차 실무접촉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민화협」에 팩스를 보내 1.12 또는 1.15 평양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 - 남북은 지난해 31일 금강산 여관에서 제1차 실무접촉을 갖고 2월초 설맞이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행사명칭·장 	<p>평방, '보안법은 반통일 파쇼악법' 제하로 동법의 즉각적 철폐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 북남사이의 접촉과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을 그 정신에 맞게 이행할 수 없음." - 시대와 민족의 요구대로 반민족적이고 파쇼적이며 반 	<p>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북미관계 조만간 호전될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총회 연설 - 북한은 지금 북미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조만간 북미관계가 호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8	<p>소·참가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2차 실무접촉에서 확정키로 한 바 있음.</p>	<p>통일적인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폐해야 함.”</p> <p>노동신문 논평,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고립압살 기도를 버려야 한다’ 제하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포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p>	<p>될 것으로 보고 있음.</p>
1. 9	<p>통일부, 2001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규모: 2000년 대비 5.2%감소, 4억296만 달러 - 방북 남한 국민(8,551명, 2000년 대비 17.5% 증가, 금강산 관광객 제외) - 남한 방문 북한주민(191명, 2000년 796명 대비 대폭 감소) - 금강산관광객(57,285명) 	<p>평방,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 제하로 ‘6.15 공동선언 이행 및 민족자주통일’을 강조</p> <p>* 노동신문 논설 ‘공동선언 옹호고수에 애국이 있다’(1.8, 중통), 대담 ‘북남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1.9, 중방) 등 같은 내용 보도</p> <p>평방,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분열주의 세력의 온갖 시도들을 배격하는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고 보도</p>	
1.10	<p>대통령 주재 2002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지난해를 테러사태 등 국제정세가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일관성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 	<p>노동신문, ‘강도적 논리를 버리라’ 제하 기사에서 ‘미국이 남북화해를 달가워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조선 강경정책으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 	<p>미 CIA, ‘북한의 대포동 2호시험발사 가능성’ 주장</p> <p>* 상원정보위 제출 보고서 ‘2015년 미국에 대한외국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0	<p>북정상회담으로 마련된 남북간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을 모색한 해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화해와 협력증진」을 2002년도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실질협력관계 증진」,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전방위 안보태세 유지」를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키로 함. - 4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북간 실질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공존과 공영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켜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 통일에 나가는 것을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임. <p>중통, '미군철수는 미룰 수 없는 문제' 제하 보도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대화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고립, 압살정책은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반도 냉전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포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미국은 말로만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화 분위기와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미군을 철수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사거리 1만km 이상, 탄도중량 수백kg으로 미국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다단계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디자인을 개선중인 것으로 추측 <p>북미 고위급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잭프리처드 대북협상담당 특사가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와 회담 가졌음. - 두 사람의 만남은 상견례로 정례적인 외교접촉의 일환임.
1.11	<p>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설맞이 공동행사 관련 북측 「민화협」 회신 접수 발표</p>	<p>비전향장기수 신인영씨 장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은 서장구락부(북한 고위간부의 전용 장의예식장)에서, 영결식은 형제산 	<p>백악관, 부시대통령 2.19-21 방한 공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대통령이 2.16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	<p>- “북측 민화협이 2월 20 일께 새해맞이 통일대회를 열 것과 2차 실무접촉을 1월말께 하자고 제안해왔음.”</p> <p>- “북측은 2차 실무접촉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 겠다며 대회 이름도 2 차 실무접촉에서 논의 하자고 밝혔음”</p> <p>합참, 표류 북주민 구조 러시아 선박 입항 발표</p> <p>- 러시아 상선이 북한 청진 동쪽 31마일 동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북한 민간인 3명을 구조해 12 일 진해항에 입항할 예정이다.</p>	<p>구역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진행</p> <p>중통, ‘지난해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실패와 좌절로 특징지어진 한 해’라고 주장</p> <p>- 지난해 미국은 유엔의 인권 및 마약통제기구에서 탈락하고 ABM협정 탈퇴와 MD 체제 실험으로 국제적 항의에 접했음.</p> <p>- 미국은 세계지도자로 자처하며 힘을 믿고 날뛰었지만 지난해의 국제정세 흐름을 마음대로 주도하지 못했음.</p> <p>- 패권주의, 지배주의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면 국제적 고립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미국의 침략적 대외정책의 총화임.</p>	<p>워싱턴을 출발, 도쿄(18-19), 서울(19-21), 베이징(21-22)에서 잇따라 3개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다.”</p> <p>- 부시대통령은 3개국을 방문하는 동안 테러전쟁 공조, 경제회복, 역내 동맹관계 강화 등과 다른 상호 관심사들을 논의할 것임.</p>
1.12	<p>서영훈 한적총재, 북적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 발송</p> <p>* 남북직접자간 제3차 지원의 추가지원분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협의회 등 3개 단체 기탁의류 등 1억 8,490만원 상당</p> <p>- 금년도 한적 제1차 지원 물자 전달계획을 통보</p>	<p>평방,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무모한 행동’ 제하로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 및 남조선 호전세력들의 통일애국세력 탄압’ 등 비난</p>	<p>미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침몰 괴선박 북한 선박 확산’ 언급</p> <p>- 괴선박과 북한이 연루된 필로폰사건을 간과해서는 안됨.</p> <p>- 북한이 일본 영해내에 침입, 필로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			<p>밀수 등의 활동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음.</p>
1.13		<p>노동신문, 미국 특수미사일 부대 창설 비난</p> <p>- 미국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위협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하며 남조선을 미사일방위 체계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선제공격으로 우리를 덮치어 전 조선을 지배하며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타고 앉아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 쥐려는데 있다고 폭로</p> <p>평방,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 제하로 보도</p>	
1.14	<p>대통령 연두기자회견</p> <p>- 금년도 국정추진방향 4 대과제의 하나로 「남북 관계 개선」을 설정하고, 여타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p> <p>- 특히 남북간 실천과제로 기합의한 경의선 복원·</p>	<p>공동시설 관련 내각전원회의 개최</p> <p>- 지난해 경제계획 이행실태를 결산하고 김일성 90회 생일, 군창건 70돌을 맞아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촉구</p> <p>노동신문, '위협천만한 미사일 공격 시도' 제하 논평에서 남</p>	<p>미 WP지, 'MD 추진 위해 북 미사일 과장' 보도</p> <p>-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론이 증폭된 것은 미사일 방어 추진을 둘러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4	<p>금강산육로관광·개성공단 건설·이산가족상봉·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개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언명</p>	<p>한이 MD체제에 참여한다면 '사태는 매우 복잡하고 엄중해질 것이며 민족의 장래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p>	<p>국내정치의 파워 게임 산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과정에서 CIA의 정보가 정치논리에 따라 왜곡되었으며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한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와 미 정계에 대한 로비가 크기 작용했음.
1.15	<p>통일부장관, 남북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K-TV 대담프로그램 「e-코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정상간의 약속으로 북측도 지킬 것으로 기대함. 김위원장의 방문을 통해 평화공존의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임. - 올해 남북간 현안중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북측은 이 문제를 전체적인 남북관계와 연계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현안과 분리해서라도 추진하고 싶음. -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 	<p>평방,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을 짓부수는 것은 화해와 단합, 통일의 필수적 과제'제하로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날 '외세와의 공조는 반민족 반통일 행위' 제하로도 '남한 당국자들의 외세존 책동 분쇄' 주장 <p>민주조선, 일본총리의 유사시법제 정비 역설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유사시법제 정비논음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에로의 군사력진출을 위한 팽창정책의 연장이라고 역설 - 만약 유사시법제가 성립되는 경우 일본반동들은 	<p>IAEA 전문가, 북한의 핵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평양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5-18간 북한의 영변지역 핵시설 방문 및 동위원소 실험실 최초 조사 예정 <p>독일 헤르트람프 주북한 초대대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 제정</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5	<p>간 평화사업으로 어떻게 든 유지되어야 함.</p> <p>한적, 표류 북한인 3명 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에서 표류중 러시아 상선에 의해 구조된 북한인 3명을 오전 11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 	<p>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해외침략전쟁수행에 마음껏 동원, 이용할 수 있게 됨.</p>	
1.16	<p>납북자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당시 41세) 등 납북자12명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p>평방,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노린 생트집' 제하 북한의 '국제테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테러문제에 관해 미국과 여러차례 협상했으며 테러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 - 지난해에는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 데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인질 반대국제협약에도 가입했음. - 우리가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임. -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다음 반테러전쟁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미국 호전광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음. 	<p>일 산케이 신문, '북 김영남 2월 동남아 3국 순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월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할 예정임. <p>일 조선신보, '북 4대 제일주의는 반테러전 반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새해 정초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4대 제일주의는 미국의 반테러전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제일주의는 군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내부를 결속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1.17	<p>NSC 상임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홍순영 통일부장관 주재하에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올해 대북정책과제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 <p>대통령, '북 경의선 연결조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일선공무원 초청 오찬시 - 북측이 경의선 공사용막사를 수리하는 등 경의선 철도 연결조짐이 보이고 있음. <p>외교부 당국자, 'TCOG회의 1.25 서울 개최' 언급</p>	<p>박길연 유엔주재 대사, 주한미군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에 서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유엔의 깃발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 <p>노작 주체문학론 발표 10돌 기념 주체적 문예사상연구모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에서는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병훈의 보고와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대학 은종섭을 비롯한 여러 명이 토론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일성의 노작은 급변하는 세계 정치정세와 인류문학실태, 작가들의 동향을 예리 	<p>일 도쿄신문, '부시 일본 방문때 북한에 대화제의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부시 미 대통령은 도쿄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7	<p>- 한·미·일 3국의 올해 대북정책 방향조율 등을 위해 1.25 서울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p> <p>국정원, 북한 이탈주민 12명 입국 발표 * 2002년 탈북자 누계 : 21명</p> <p>- 북한이탈주민 이정봉(38, 가명) 가족 등 12명이 제3국을 통해입국, 탈북 및 입국경위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중임.</p>	<p>하계 포착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다운 문학창조의 길을 뚜렷이 밝혀준 우리 시대문학발전의 등대로 되고 있다고 강조</p>	
1.18	<p>김윤규 현대아산사장, 방북 * 1.20 설봉호편으로 귀환 예정</p> <p>-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대북협의를 위해 속초항에서 설봉호편으로 방북</p>	<p>평방, '통일애국에 칼질하는 반통일세력' 제하 보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p> <p>- 온겨레가 6.15북남공동선언을 받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에서는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는 반통일 책동들이 벌어지고 있음.</p> <p>-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것은 반시대적 행위가 아닐 수 없음.</p>	<p>러시아 외무부, '러시아 외무부장관의 주러 북한대사관 방문' 발표 * 이에 앞서 1월 6일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을 방문</p> <p>-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박의춘 대사와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였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9	<p>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북한 올 상반기 후반 긍정변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전략연구원 주최,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하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 - 북한의 대남, 대미정책은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군창건 70주년 행사가 끝나는 올 상반기 후반부터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 북한은 미국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음. -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일로 상정,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과 한미공조가 필요함. 	<p>중방, 아리랑 축전 준비상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창조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전례없는 독특한 내용과 형식, 방대한 규모로 창작되는 이 작품은 본격적인 향상단계에 들어섰음. - 집단체조 예술공연 창작가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대형구도와 체조수법, 체조동작 하나 하나를 특색있게 창작하기 위해 온갖 정열을 쏟고 있음. <p>중방, "농근맹", 제7기 41차 전원회의 1.18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41차 전원회의가 1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음. - 회의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논문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과업 집행방안과 올해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의 실천방안이 논의된 뒤 결정서를 채택했음. <p>중통, '일본의 북한 화물선 수색은 주권침해' 주장</p>	<p>데니스 해스터드 미 하원의장,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 존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1.17-20)에 앞선 기자회견시 - 북한은 미사일 수출능력 뿐아니라 생화학전, 핵운반능력을 보유한 위협세력임. 그러나 북한이 한국에 대해 위협을 가할 경우, 북한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내가 아는 한 북한은 어떠한 특정 테러에도 개입된 적이 없으며, 그 증거도 없음. <p>유엔 인도조정국, 긴급구호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한사람당 하루 배급량이 2000년 200g에서 지난해 250g으로 늘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해상보안청은 1.7 순시선을 동원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에노시마 앞바다에서 북한선적 「소나무」호를 수색 - 이러한 책동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며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이골이 난 자들의 분별없는 도발행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만명의 북한주민이 세계식량계획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0만5천 톤의 지원으로 올 초 위기상황을 넘겼지만 춘궁기인 4-6월에는 또다시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음.
1.20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방북대북 협의내용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이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음. -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음. 관광특구 지정은 김정일위원장이 약속한 만큼 날짜만 기다리면 된다고 봄. 상반기를 넘겨서는 안되며 그 이전에 되어야 함.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14호, 이회창 규탄 보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지난 17일에 이른바 연두기자회견이러는데 나타나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고 우리를 걸고드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814호를 발표 - 이회창은 자기의 반민족적 죄행에 대해 민족 앞에 똑똑히 사죄하여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아리랑 축전 관련 대북협약 내용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윤규 사장은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대북협약을 위해 1.18-20 방북 -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협상에서 북측 아리랑 관계자가 금강산 관광객에게 아리랑 공연을 개방하겠다고 제의 - 북측이 조만간 숙박, 비용, 이동경로 등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음. <p>김성호 민주당 의원, 김윤규 사장으로부터의 특문사항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호의원 등 새벽21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금강산관광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선상토론회에 참석차 김윤규 사장과 동행 - 북한이 아리랑축전 기간에 남한측 관광객에게 금강산-원산-평양의 육로를 개방하겠다는 제의를 남측에 했다는 사실을 김사장에게서 확인하였음. 	<p>노동신문 사설, 김정일의 인덕정치 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자의 정치가 위대하고 영도자를 받드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굳건하기에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임. - 모두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새 세기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 인덕정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금강산관광 정부지원 반대' 언급</p> <p>* 통일부장관의 금강산관광사업 지원문제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한 한나라당 방문시</p> <p>- 금강산관광사업은 경제적 채산성도 있어야 함.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1.22		<p>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제시하고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p> <p>* 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p> <p>- 3대 호소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 △북남관계 진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제거</p> <p>- 3대 제의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올해)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6.15)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5-8월)</p>	<p>스칼라피노 교수, '보스워스 전 주미대사 등 6명의 유력인사 방북 협의중' 언급</p> <p>- "3-4일전 이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음."</p> <p>- "방북기간이 2월 19일부터 22일 또는 23일까지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방북 가능성이 크다 (probable)는 것 뿐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		<p>중통, '올해 북한주민들이 실천해야할 주요구호'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의 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음. - 구호들에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역사와 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려는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가 담겨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도널드 그레그, 리차드 워커, 윌리엄 글라이스틴, 제임스 릴리, 제임스 레이니전 주한 미대사 등이 초청되었으며 릴리대사는 건강문제로 불참할 뜻을 밝혔으며, 나머지는 방북을 희망하고 있음. <p>메가와티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3.28-30 방북, 남북관계 중재여부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후 서울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스웨덴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남북한을 연쇄 방문하는 정상이 될 전망이다.
1.23	<p>정부, 「금강산관광 지원방향」 발표</p> <p><기본방침></p>	<p>사민당 김영대 위원장, 「3대호소」 지지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 당국은 물론 민간차원 	<p>방콕주재 미대사관 대변인, '북한과 방콕에서 실종미군 관련 협상 진행'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지원 - 관광공사-현대간 합의를 존중, 관광공사가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 북한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 경주,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 개최도 고려 <p><지원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공사 보조 -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01.6.29) 상환조건 완화 -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p>금강산사랑연대, 한나라당 비난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의 '금강산관광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련 민족의 이익을 전혀 	<p>에서도 6.15공동선언 정신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야 함. 합동회의에서 밝힌 3대호소와 3대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호소 3대제의가 올해 기어이 북남관계 진전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또하나의 큰 자욱을 내디뎌 온겨레의 강력한 지향과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지름길을 명시하고 있는 애국적 발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중 실종미군수는 8,000여명이며, 96년부터 27차례의 북미공동작업을 통해 미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총 152구의 유해를 발굴(2001.11 미 국방부 발표) - 미 국방부 대표단과 북한측 대표단은 실종미군 유해발굴작업 재개방안을 협의중이며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 유해발굴단의 북한내 탐사발굴활동의 일정이 잡혀지길 기대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3	<p>고려하지 않고 시장논리만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시각교정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사업은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 민족평화를 펴오는 사업이며 평화피오기인 금강산 평화관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족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 		
1.24	<p>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합동회의」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당국간 대화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언제라도 당국간 대화를 해나갈 것임. 남북대화는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중단됨이 없이 계속 되어야 함. - 남과 북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그동안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화해협력과 평화를 	<p>「범민련」 북측본부, 제10차 총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민련 북측본부는 24일 평양에서 제10차 총회를 열고 올해 과제 등에 관해 논의 - 새해 공동사설과 「합동회의」에서 나온 호소를 철저히 관철해 올해를 우리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내는데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 <p>한민전 중앙위, 한미전쟁공조 규탄 성토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전 중앙위원회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 사이의 노골화되는 전쟁공조책을 단죄규탄하는 성토 	<p>존 볼턴 미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북한에 NPT 위반' 경고</p> <p>* 2002년도 유엔군축회의 기조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과 기술의 확산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비밀리에 진행되는 핵개발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IAEA의 핵안전조치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IAEA의 핵사찰제도를 강화해야 함. - 외부의 감시를 피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4	<p>정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p> <p>통일부장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2년도 업무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해협력의 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임. - 금년도에는 한반도의 안정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②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제도화하며 ③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 가능한 빠른 시기에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접촉 제의를 검토하는 등 주도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p>문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장 반세기이상 자주통일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워온 각계 애국민중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에서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좌시묵과할 수 없음. <p>민주조선, 유사시법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하에서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체제를 평시부터 정비해 두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작성된 이 기본방침은 철두철미 일본의 군사적 해외팽창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노린 전쟁문서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함. - 패전의 교훈을 망각한 일본이 자기의 군사, 경제적 잠재력을 밀천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또다시 재침의 길로 뒤희쳐나간다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함. <p>민주조선, 3대호소와 3대제의 지지</p>	<p>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 보일 것임.</p> <p>일 도쿄신문, '일북 괴선박 사건이후 극비외교접촉 진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일본은 작년 12월 22일 동중국해에서 발행한 괴선박 침몰사건 후인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극비외교접촉을 가졌음." *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제11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 <p>존 볼튼 미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대북 NPT 위반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유엔군축회의 기조연설 - 핵물질과 기술의 확산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새로운 합의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항, 특히 이산가족문제 해결 제도화, 경의선 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 이행에 주력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제시된 조선민족끼리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3대호소와 3대제외에 지지를 보냄. - 이번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3대호소, 3대제외를 한 것은 바로 현 북남관계와 정세발전을 분석한데 기초한 것으로서 이 발기가 실현되면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 <p>노동신문, 한국전쟁당시 민간인집단학살관련 미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당시 남조선의 영동군 노근리에서 감행된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의 장본인이 미제침략군이었다는 것이 최근 그 살인사건에 가담하였던 이전 미군병사의 증언을 통해 다시금 명백히 밝혀지게 됨. - 미제는 노근리를 비롯한 남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 감행한 인민대학살만행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조선민족과 세계양심 앞 	<p>요인이 되고 있음. 비밀리에 진행되는 핵개발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핵사찰제도를 강화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선언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함. - 외부의 감시를 피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들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 보일 것임. <p>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북한의 종교자유에 관한 청문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인사 및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 북한내 종교 및 인권탄압 개선을 위한 정치·외교·인권 대책을 집중 논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4		<p>에 사죄하고 천백배로 배상하여야 하며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끌어내야 함.</p>	<p>* USCIRF는 '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미정부기관 및 의회에 대해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자문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미연방기관</p>
1.25	<p>현대아산, '제2회 금강산 마라톤 대회 2.23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국제 금강산 마라톤 대회를 2.23 개최키로 결정했음.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최소 500명 이상이 참가 <p>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 OG)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성준 외교부차관보(한),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미),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달 부시대통령의 한중일 3국 방문이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임. - 제네바 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3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p>중방, '대량파괴무기 확산 미국의 이중잣대'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이즈베스티아지는 지난 21일 러시아가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 및 생산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넘길 우려가 있다는 미국의 지적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 - 이 신문은 또한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설비 외국 판매 사실이 드러나자 그것은 사기업의 행위라고 발뺌하면서 관련회사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p>노동신문, 3대호소, 3대제의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통일운동에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를 구현하는데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5	<p>이 합의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음.”</p> <p>- 미국은 전제조건없이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제의를 긍정적으로 호응하여 상호공동관심사가 다루어지고 미북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p>	<p>- 온 민족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외에 적극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올해를 조선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여야 할 것임.</p>	
1.26		<p>민주조선, 일본의 신형미사일정대의 보강배비 비난</p> <p>- 일본이 신형미사일정대를 늘리는 것을 이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듯이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계여론의 경계심을 늦이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p> <p>-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되어있는 조선반도를 타격하려는 일본의 기도가. 어떤 위험천만한 사태를 몰아 오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7	<p>‘2002년 설맞이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남북공동행사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대표단 방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말로 예정된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행사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측 「민화협」 조성우 집행위원장과 이승환 사무처장, 종교인 평화회의 변진홍 사무총장, 통일연대 한상열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 5명의 실무접촉 대표단이 28일 중국을 거쳐 고려항공편으로 29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 <p>서울시, 서울·평양 남녀 축구대회 대북제의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평축구대회를 부활시키기 위해 서울·평양 남녀 축구대회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할 것을 평양시측에 제의할 계획임. - 이런 내용을 평양시 강동군과의 자매결연을 위해 1.29 방북하는 김충환 강동구청장을 통해 북측에 전달기로 했음. 	<p>민주조선, 미군기지 동폐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 있는 미군부대를 재편성하고 여러 군사대상물들을 신설 확장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조선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모독이라고 단죄 - 미국이 진실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대조선 강경적 대시정책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p>노동신문, 선군정치 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정치는 자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라고 역설 - 선군정치는 자주와 평화, 발전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나온 자주시대의 완벽한 정치방식이라고 역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7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10명의 제3국 경유 입국 발표		
1.28		<p>중통, 미국 USCIRF 종교자유 청문회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인권 및 종교문제에 대한 조사나 청문회나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발현임. - 미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를 시비할 자격이 없는 나라임.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우리를 어찌 보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위선이며 어리석은 도전임. - 미국의 인권 및 종교압력소동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미국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만을 더욱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임. 	<p>래리 그래어 미전쟁 포로·실종군인 사무처 대변인, 북미 실종미군 연례협상 결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일부터 방콕에서 열린 한국전쟁 당시 실종 미군들의 소재확인 및 유해반환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음. - 이번 협상에는 양측에서 각각 5명의 대표가 참석 - 협상 마지막 날인 26일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음.
1.29	<p>신임 정세현 통일부장관, 언론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향한 정책이지만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일반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 <p>서영훈 한적총재, 제4차</p>	<p>노동신문, 일본 자위대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본방위청이 새로 작성하는 방위계획대강에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자위대의 기본업무로 박아 넣으려 하고 있음. - 일본이 아무리 유엔평화유지군의 너울로 자신을 위장하려 하여도 해외군사팽 	<p>조선신보, 조총련 산하 조선신용조합협회 3월말 해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신용조합협회는 28일 일부 산하 신용조합의 경영파탄과 그로부터 초래된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2002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9	<p>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제의 관련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 장재언 앞 대북전통문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명절인 설을 계기로 지난해 교환한 방식에 따라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시할 것을 제의함. -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 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 연락관접촉을 통해 협의하면 될 것임. 	<p>창에 열이 오른 저들의 침략적 정체는 가리울 수 없음.</p> <p>민주조선, 미국의 한국전쟁 당시 생화학무기 사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두를 비롯한 전염병균을 퍼뜨리는 것으로 세균전의 막을 뚫어 미제는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400개소 이상에 세균탄과 살인용 미생물이 들어있는 각종 물체를 800회 이상이나 투하함. - 미군의 생화학전부대들이 약 90종의 화학탄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화학포탄만 해도 300여만 발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생화학무기 위협의 진짜 장본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p>3월말에 해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p> <p>* 조선신용조합협회는 53년 11월 결성, 조총련계 금융기관인 신용조합들을 회원사로하고 있으며 신용조합들간의 업무를 조정해왔음.</p> <p>부시 대통령,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목표는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들이 미국과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을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권 -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테러 동맹국들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위해 무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9			<p>장을 하면서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척결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
1.30	<p>정세현 통일부장관 취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시일내에 각종 남북대화를 재가동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겠음. -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평화의 가교 역할도 하지만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임. -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에 의해 휘둘려져서는 안 됨. 책임감있고 당당한 자세로 그리고 국민과 겸손하게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함. 	<p>평방, '남북당국간 대화의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데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당국사이의 대화와 함께 모든 형태의 민간급 회담과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북남공동선언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 <p>외무성 대변인,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볼튼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행위 중단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시한 도발적인 발언임.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등과 대화통로 개방'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북한이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무기개발 계획에 관해 협의할 자세가 돼 있을 경우에만 미국과의 대화가 성사될 것임. - 우리는 북한과 논의할 중대현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왔으며 장소와 시점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30	<p>면세점 관련 협력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범위에 면세점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공식 제출 	<p>*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1.24 2002년도 유엔군축회의(제네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NPT 위반행위 중단을 촉구</p>	<p>불문하고 이 문제들을 놓고 북한과 마주앉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음.</p>
1. 31	<p>통일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현황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 및 통일부를 통해 가족찾기를 신청한 이산가족 11만 7천567명중 12.4%(1만4천589명)가 사망 <p>「금강산사랑국민연대」, 북한에 실무회담 제의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북한의 「아태」에 금강산환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할 예정임. -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아리랑축전과 금강산-원산-평양 육로관광 등 금강산 환성화방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이 제2회 금강산 평화마라톤 대회기간 금강산에서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p>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취지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사단 통일포럼 주최 조찬간담회 (서울 힐튼호텔) - “우리는 체면을 살려주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직접적으로 대화함. 이것이 미국적 사고방식임.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음.” <p>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한 세계 최대 탄도미사일 수출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이제 세계 제일의 탄도미사일 장사꾼으로서

■ 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1	<p>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6.25남북자문제 전담기구' 구성촉구</p> <p>- 동 협의회는 통일부장관 앞 공개질의서를 보내 6.25 남북자문제를 다룰 특별전담기구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p>		<p>구매자의 의도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와든 거래를 트고 있음.</p> <p>-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나은 길을 택할 수 있게 해줄 호혜조치의 도로지도를 내놓았으나 평양으로부터는 아무런 진지한 응답이 없다고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	<p>정세현 통일부장관, '대북 지원 군사전용' 부인 * 청와대 국무위원 오찬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지원한 의약품, 옥수수, 쌀 등이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가지않고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에 들어간 3억9천만달러가 미사일이나 핵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사회를 모르고 하는 얘기임." <p>국정원, '국군출신 김종원 씨 등 북한 이탈주민 13명 제3국 경유 입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누계 24명, 금년도 탈북자 누계 44명 <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 빈곤탈출 50억달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것이며 북한이 '빈곤의 함정'을 탈출해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외부투자는 50억달러로 추정. 	<p>중통, '힘에는 힘으로 대답할 것이다' 제하 논평에서 부시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의 폭언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으며 그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는 다시금 전쟁 접경으로 번져질 수 있음.. -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타격의 선택권이 저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함. <p>중방, 핵무기 관련 미 중앙정보국 등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가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이란 여론을 유포하는 것은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며 명색만 남은 저들의 핵무기 축감놀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음. <p>김정일위원장, 제1200군부대 시찰 및 동부대 군인들의 훈련·관하 중 '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 등 관람</p> <p>국가품질관리국, '북, 러 2002-2003년 규격계량 및 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조인</p>	<p>부시 미대통령, 악의 축 3국에 모든 방안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		<p>김정일위원장, 제179군부대 및 제779군부대를 각각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군부대에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고 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음. <p>중방,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 선전화 제작 및 '평양시김정일화전시회' 개막식·제30차 '전국농업근로자예술축전' 등 소식 보도</p> <p>평방, '민족적 단합에 역행하는 조선일보 매문가들' 제하로 조선일보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가 아리랑공연을 시비해 나선 것은 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의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p>중방, '대조선압살기도는 어리석은 망상' 제하로 부시 미대통령의 국회 연두교서 내용 비난</p> <p>민주조선, 미국의 북한핵의혹설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를 핵범인으로 몰아 핵무력강화를 계속 추진시키기 위함. 	<p>미 국방부, 북-미 유해발굴협상 결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콕에서 열린 4일간의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발굴작업 일정을 잡으려고 했으나 협상 재개 날짜조차 정하지 못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3		<p>「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출발모임, 해산시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출발모임을 진행시킴, <p>노동신문, 유사시법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유사시법제에 관한 기본방침은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대한 병참지원을 구실로 해외에 무력을 출동시킨 전례에 따라 또다시 국제평화의 너울을 뒤집어 쓰고 현행헌법에 규제되어 있는 전수방위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재침의 길로 노골적으로 줄달음치려는 시도라고 폭로하였음. - 일본이 유사시법제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재침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반동들이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이요 괴선박이요 뭐요 하며 우리를 걸고 유사시법제정비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고 밝힘. 	<p>파월 미 국무장관, 북대량살상무기 저지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부시대통령이 1.29 국정연설을 한 당일에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노력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음. - 북한은 이러한 위협한 정책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 <p>올브라이트, 부시 대 북강경책 비난</p> <p>* KBS TV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위험한 집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3개국을 몽둥그려 취급한 것은 잘못된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4	<p>김대중대통령, '한미동맹은 대북화해 토대' 강조</p> <p>* 트렌트 로트 미국 상인 공화당 원내총무 일행 오찬(청와대)</p> <p>-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초한 한미 동맹 관계의 유지, 강화야말로 우리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p> <p>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미 대화로 문제 해결 촉구 성명</p> <p>-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온 것을 높게 평가하며 그 성과의 연장선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희망</p>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북-미대화 촉구</p> <p>- 북한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체없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하며 미국도 대화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p>	<p>조선중앙TV, 주한미군 철수 주장</p> <p>- 미국은 남조선 강점 정책을 포기하고 내외의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군과 전쟁장비를 걸어가지고 물러가야 함.</p> <p>독일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협조물자(수천톤의 냉동소고기) 기증식, 남포항에서 진행</p> <p>중방, '스스로 드러낸 전쟁광 신자의 추악한 물골' 제하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비난</p> <p>사민당 대변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방미발언 관련 규탄성명 발표</p> <p>- 1.22-28까지 북한체제 불변 및 핵개발 대비, 전략적 포용 및 한미공조 강화, 비무장지대 병력 후방배치, 재래식무기 감축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통일 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등의 발언에 대해 규탄성명 발표</p>	<p>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란, 북과 북미지역 위협 미사일 개발 협력' 주장</p> <p>*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 회견</p> <p>- 이란은 사거리 1천200km의 북한제 미사일을 인도받았으며 북미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km의 미사일 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력하고 있음.</p> <p>독일 주북한대사, 쇠고기 인도인수증 교환</p> <p>* 독일 정부는 2001.11.13 1차분 쇠고기 6,000톤을 북한에 이미 전달</p> <p>- 도리스 헤르트람프 주북한 독일대사는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이용석 부위원장 등과 2차분 쇠고기 6,000톤(인도적 지원물자) 인도인수증을 교환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5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전쟁위협 방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 민족을 전쟁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해선 안되며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최소한 전쟁 분위기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함. <p>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부시 대북강경책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햇볕정책을 흔들게 해서는 안되며 북한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함. 	<p>김정일위원장, 금성천위 제 138군부대 및 동 부대 관하 군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 용철 등 수행 <p>중방, 북측 '민화협'과 남측 통일연대 등 단체대표들이 1.30~2.2평양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21 금강산에서 동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p>노동신문 논평, '선택권은 우리에게도 있다' 제하 부시 연두교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침략 위협을 가해 나선 것은 조-미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로 선전포고나 다름없으나,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님. <p>천도교청우당 대변인, 이회창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행각하여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적극 부추긴 남한의 이회창의 망발을 규탄 	<p>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 햇볕정책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미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최근 방한했던 트렌트 로트 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했음. <p>파월 미 국무, 북 미사일개발 중단하면 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외교위원회 -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테러행동,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을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6	<p>김대중 대통령,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 재외공관장 만찬(청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관계이며, 대북 안보차원만이 아니라 통일이후에도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돼야 한반도에 안정이 있음. - 핵, 미사일문제는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함. <p>정부,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민간단체 참여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p>중방, 이회창 총재 방미발언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회창총재의 미국 행각은 부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친미 사대매국 행각이었고 너절한 구걸행각이었음. <p>중방, 아리랑공연 관련 조선일보 보도 내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까지 헐뜯고 시비중상해 나선 조선일보사가 폭파될 때까지 자그마한 양보와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임. <p>노동신문 논평, '생억지를 부리지 말라' 제하 주한미군 철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보수세력들의 주한미군 계속주둔 주장은 군사적 지배권을 틀어쥐기 위한 것임. <p>'2월의 명절' 관련 각종 경축 행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혁명실록의 위대성에 대한 전국연구토론회 등 	<p>조지 테넷 미CIA국장, 북 미사일 판매 계속 주장 * 상원 정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이득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7		<p>「청년동맹」중앙위 대변인,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방미 시 발언 관련 규탄성명 발표</p> <p>중방,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아 한다' 제하로 부시대통령 및 린스펠드국방장관 등의 대북발언 등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를 비롯한 미제 호전광들의 망발들은 단순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라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며 미제 호전광들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할 것 <p>사리원시 포장도로 준공식, 홍성남·최종건(도시경영상)·장일선(환경보호상)·노배권(황북 당책) 등 참가하에 진행</p> <p>「2.16경축 영화상영순간」(2.7-2.17) 중앙개막식, 인민문화궁전에서 정하철·장인수·강능수 등 참가하에 진행</p> <p>주UN북한대사, 조건없는 북미대화재개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길연 주UN북한대사는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도 대화재개 용의 표명함. 	<p>파월 미국무장관, 대북포용정책 전적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성홍 외교부장관 취임축하 서한 -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간 화해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핵심이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 <p>데니스 블레이어 미태평양사령관, 북한은 잠재적 위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협회·주한 미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강연 - 북한은 독특한 사례이며 미사일 확산이나 마약거래 등에 개입함으로써 세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8	<p>국가정보원, 북한 이탈주민 10명 입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정(가명. 74)씨 등 북한이탈주민 10명이 제3국을 경유 귀순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국경위 등을 조사중임. <p>※ 올들어 국정원이 밝힌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수는 54명임.</p> <p>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여관, 온천장 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462억원 소요 	<p>'2월의 명절' 경축관련 보도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농업근로자 및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개최, 사회과학부문 및 문학예술부문의 「연구토론회」 개최되고 있음. <p>「농근맹」 중앙위 대변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방미발언 관련 규탄성명</p> <p>평방, '아리랑' 공연 관련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 및 남한 학생들의 투쟁 선동</p> <p>중방, 세계여론 외면한 부시의 대북강경정책 추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가 내외의 규탄을 무릅쓰고 독선적인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자신을 밀어준 군수독점체제를 위해 반테러 전쟁 확대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임. <p>중통 논평, 미국 국방예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에도 세계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의 제왕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적 본심을 드러낸 것임. 	<p>부시 미대통령, 테러·WMD 개발 분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범세계적 테러망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이는 테러세력 뿐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우방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도 함께 의미하는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0		<p>노동신문, 생물무기위협관련 일본 방위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우리의 생물무기위협을 결코 생화학전준비를 노골적으로 다그치면서 그것을 해외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 	
2.11		<p>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 리장준을 단장으로 하는 예술단이 만경봉-92호 배편으로 원산에 도착 <p>노동신문,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곧 조선전쟁론이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그 무슨 위협요소로 터무니없이 결코 들고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이라고 말함. - 만일 미제가 끝끝내 제2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임. 	<p>러시아 원동 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 콘스탄틴 보리포비치 폴리콥스키, 김정일 면담</p> <p>*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지재룡, 김계관 등 배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2	<p>정세현 통일부장관, 북에 이산가족 방문단교환 촉구</p> <p>* 망향경모제(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 망배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빠른 시일내 실시할 것을 촉구함. - 남북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확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등을 통한 제도적 해결노력을 병행해 갈 것임. 	<p>김정일위원장, 2.11-12 방북 중인 러시아 원동연방구주제대통령전권대표 「콘스탄틴 보리포비치 폴리콥스키」 일행 2회 접견</p> <p>*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지재룡 등 수행</p> <p>국제무역촉진위원회, 평양에서 러시아 원동투자회사와 「협조에 관한 비망록」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러시아연방 원동투자회사사이의 협조에 관한 비망록이 평양에서 조인 되었음. - 무역성 김영재부상 등 관계자들, 러시아연방 원동투자회사 총사장 올레그 미하일렌꼬와 관계자들, 북한주재 러시아연방대사관 무역참사 쉐르게이 료우슈킨이 조인식에 참가하였음. - 김영재부상과 올레그 미하일렌꼬총사장이 비망록에 수표하였음. <p>북한 억류 일본경제신문 기자 (스기시마 다카시) 일본 송환</p>	<p>파월 미국무장관, 북과 전쟁가능성 배제</p> <p>* 상원 예산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이란은 이라크와 다소 다른 범주에 속하며 이들과 전쟁을 시작할 계획이 없음. - 부시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조건없는 대북 대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임 <p>일 외무성, 북 억류 일 신문기자 귀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혼케이자이 신문기자 스기시마 다카시가 조건없이 풀려나 오전 중국 베이징을 거쳐 나리타공항에 도착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3		<p>박길연 유엔주재 북 대사, 유엔사 해체 주장 *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p> <p>-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모자를 쓴 미국군으로 이뤄져 있고, 유엔은 유엔군사령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한반도 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함.</p>	<p>신 맥코믹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부시, 김정일 답방 촉구'</p> <p>콜린 파월 미국무장관, 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 경고</p> <p>- 러시아,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핵기술 수출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를 부과해야 할 것임.</p>
2.14		<p>'2.16 경축' 백두산 밀영 총성 결의대회, 조명록·홍성남 등 참가하에 진행</p> <p>백남순 등 외무성 간부들, 각국 외교대표 초청 정부 연회 개최</p> <p>노동신문,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다' 제하로 '부시의 악의 축론' 비난</p> <p>- 우리와 이라크, 이란은 동맹적 성격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이념상, 제도상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라크와 이란은 아직까지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음.</p>	<p>허버드 주한 미 대사, 북인권도 미·북회담 의제</p> <p>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 "북 대화에 호응 안하면 자멸"</p> <p>*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 소위</p> <p>-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이 건설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고립시킴으로써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5	<p>김대중 대통령, 북-미 갈 등 해결 4(3+1)원칙 제시 * 각계 원로와의 오찬</p> <p>- 확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대화로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임.</p> <p>※ 4(3+1)원칙 ▲확고한 한미동맹, ▲테러에 대한 반대, ▲대량살상무기(WMD)문제 해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p> <p>7대 종단 수장, 미 대북강경 우려 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달</p> <p>-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p> <p>국정원, 국군포로 등 9명 입국 발표</p> <p>- 국군 출신 박한수(가명) 등 북한주민 9명이 제3국을 거쳐 귀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신원 등을 조사중임.</p>	<p>「2.16경축 중앙보고대회」, 김영남(보고)·조명록(축하문)·정하철(개회사)·허종만(연설) 등 참가하여 4.25문화회관에서 진행</p> <p>* 김정일에 당 중앙위·당 중앙군사위·국방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의 공동축하문 전달</p> <p>평양, 부시 미대통령 방한 비난</p> <p>- 부시의 남조선 행각은 침예한 긴장과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행각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반통일 행각임.</p>	<p>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부시, 북한에 대화 촉구할 것”</p> <p>- 부시 대통령이 도라산역을 방문해 북한에 성의있는 대화자세를 촉구할 것임.</p> <p>- 평양 당국과 대화를 원하지만 구체적 현안에 관한 대화를 원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음.</p> <p>WFP, 2002 긴급구호활동보고서 제6호 발표 및 세계각국의 대북 식량지원 참여 촉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6		<p>중방, '광명성 찬가'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2월의 명절, 광명성탄생절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백두산의 아들, 백두산형의 위인에 대한 찬가 ② 후계수령의 풍모와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검비한 회세의 위인에 대한 찬가 ③ 광명성찬가는 21세기의 태양찬가 <p>「2.16 경축」 1만명 청소년학생들의 집단체조 「선군의 기치따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체조 선군의 기치따라는 총대로 조선을 빛내리, 선군의 그 업적 잊지 않으리, 신념과 의리로 받들자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음. - 집단체조는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선군혁명영도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길로 질풍같이 달려 기어이 강성대국의 영마루에 붉은기를 휘날리려는 인민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보도 	<p>부시 미 대통령, 햇볕정책 전폭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인터뷰 -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김대통령의 확고한 통일관에도 동의하나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p>부시 미 대통령, 북 재래식 무기 후방 배치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순방 국 언론 기자회견 -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을 후퇴시키는 것이 양국간 대화에 도움이 될 것임. - 북한이 보다 투명해지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중단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7	<p>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 행사 준비위원회, 북 2.17 새해맞이 공동모임 연기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지난 17일 새해맞이 공동모임 날짜를 26일로 연기하자는 제의에 동의했음. 	<p>제11차 「백두산상 국제피겨 축전」 폐막식, 빙상관에서 홍성남·김중린·곽범기·박명철 등 참가하에 진행</p> <p>「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문재철 등 참가하에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철수 공동투쟁 등 3개항 '결의'및 미국의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등 채택 - 1항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 추진, - 2항은 6.15공동선언 말살기도 분열주의세력에 대한 국제적 압력 강화 - 3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위협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 <p>2.16 경축 수중발레모범 출연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광원 수영관에서 진행됨. - 당과 국가간부들과 시내근로자들, 해외동포축하단과 대표단들 등 관람. 	<p>아베 신조 일 관방부장관, 북 악의 축 인식 일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 개발 의혹이 있고 국내 체제도 국민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며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는 다르지만 기본 인식은 같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8	<p>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p> <p>* 강영훈 전 총리를 비롯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최된 분야별 회담수석대표 등 60여명 참석(남북회담 사무국 회담장 3층)</p> <p>김홍재 통일부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 논평 발표</p> <p>- 남북기본합의서 10주년을 계기로 북측이 조속히 남북대화에 호응해옴으로써 남북간에 산적한 현안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p> <p>현대아산, 3월부터 금강산관광선 운항 정상화</p> <p>- 3월부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단축 운항해온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를 월10회 정상 운항하기로 결정했음.</p>	<p>재미동포예술단과 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 한성룡 등 참가하에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p> <p>중방,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일본의 조선 재침야망 책동 비난</p> <p>-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면 남조선 주둔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대조선 강경 정책이 시정되어야 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조선 재침야망을 격어 버려야 함.</p> <p>평방, '높아가는 남녘의 반미의식' 제하로 부시 대통령 방한 반대투쟁 집중보도</p> <p>「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북·남·해외에서 모사로 진행</p> <p>* '2002년 운동방향' 및 '공동결의문' 채택</p> <p>홍성남 내각총리, 홍콩하동신탁기금회 주식일행 만남</p> <p>-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홍콩하동신탁기금회 주식 하홍장일행을 만남.</p>	<p>부시 미 대통령, 악의축 국가에 모든 수단 강구 재천명</p> <p>*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p> <p>-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해 모든 선택방안을 검토중임.</p> <p>폴 월포워츠 미 국방부 장관, 북 미사일 세계1위 수출국 강조</p> <p>* 미일경영자협회 모임 연설</p> <p>- 북한은 주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체제이며 탄도탄 미사일과 그 기술을 파는 세계 제일의 수출국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9		<p>중방,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시대통령의 방한 관련 '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격문' 및 '각계층 인민들의 반부시 의지를 담은 5개항 공개질의서' 등 발표 보도</p> <p>평방,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할 통일이정표' 제하로 6.15 공동선언 이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공동선언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 <p>평방, '불량배적 기질은 부시의 장기' 제하로 부시대통령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는 계승성과 일관성을 다 집어던지고 조-미관계를 극한점으로 몰고간 세상에 둘도 없는 불량배, 악의 두목임. <p>수리아 임시대리대사, 김정일 생일축하 연회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에는 김일철차수, 양형섭과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변영립교육상, 강능수문화상 등 관계자들이 초대됨. 	<p>부시 미 대통령, 한반도 통일과 긴장완화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국회 연설 - 비무장지대나 미사일 등이 전통과 미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갈라지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람. <p>WFP 대변인, 북 식량배급 중단 가능성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식량지원이 이달 말쯤에는 크게 모자라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0	<p>한-미 정상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정상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해 조속히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 부시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고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이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실망했다고 밝힘. <p>정부, 금강산 외국상품 판매소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금강산지역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위해 현대아산이 제출한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음. - 2. 20 신청한 자동차 전시장·주유소 건설·운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 변경신청을 승인하였음. 	<p>제6차 김정일화 전시회 폐막식, 홍성남 등 참가하에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p> <p>김일성 노작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발표 10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섭(보고), 김용순, 김영대, 오익제 등 참석 -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책동과 남한의 반통일분자들의 배신행위로 '남북합의서'가 빈 종이장으로 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음. - 6.15공동선언 이행·평화위협·통일장애요인제거·민족대단결·3대호소 3대제외에 적극호응해 나섬으로써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함. <p>노동신문 논평, 미국의 호전세력들의 대북 군사적 압살책동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생트집을 걸어 군사력 행사나 선제공격이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1	<p>최성홍 외교부장관, 남북·미북 대화 재개 촉구 * 기자회견</p> <p>- 한미 두 정상에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만큼 대화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초이며 북한이 남북대화과 북미 대화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p> <p>한, 미 정상회담 후속 실무협의회 개최</p> <p>- 김성환 북미국장, 잭 프리처드 국무부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 참석</p>	<p>제7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개막식, 곽범기·오수룡(전자공업상)·변영립·이광호 등 참가하여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p> <p>김일성방송대학,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미 호전분자들의 책동과 그 정체' 제하로 특강</p> <p>- 미 호전분자들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를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음.</p> <p>평양방송, 남북한 최고위급대화 등 남북대화 필요성 강조</p> <p>- 북남최고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어야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음.</p> <p>중통 논평, 제1의 미사일 수출국 발언 비난</p> <p>-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지나지 않음.</p>	<p>부시 미 대통령, '한반도 미군 계속주둔' * 오산 미 공군기지 방문연설</p> <p>-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력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으며 한반도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킬 것임</p> <p>부시 미 대통령, 남북 대화재개 중국 도움 요청 * 미·중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p> <p>- 북한 정권과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데 강택민 주석의 도움을 요청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2	<p>김대중 대통령, '남북 합의실천' 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건국위원회 기초추진위원장 오찬간담회 - 앞으로 1년 남은 임기 동안 특별히 큰 일을 하지 않겠음.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실천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개성공단을 만들고 철도를 연결하는 일이 이뤄졌으면 좋겠음. <p>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월드컵 北 체육인사 초청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광부 업무보고 - 남북교류 증진과 아시아지역 화합을 위해 월드컵대회에 북한 체육인사의 참관을 추진하고 아시아게임에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선수단, 북한예술단 참가를 추진하겠음. <p>국가정보원, 북한 이탈주민 20명 입국 발표</p>	<p>평방, '남북 최고위급 대화'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남 최고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정당·사회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 <p>외무성 대변인, 부시의 아시아 순방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체제에 대한 부시의 망발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와의 대화부정선언이나 같음. -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 보려고 망상하고 있는 부시 패거리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우리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제창하는 대화는 필요없음. <p>제8회 평양보링경기대회 개막식, 평양보링관에서 진행</p>	<p>헬렌 헌터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대북지원·경고 병행접근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 대북 포용정책만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 등을 위해 압박을 가하면서도 김정일정권의 체제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부분 양보도 해야 함.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대변인, 북한과 대화 의지 불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 브리핑 -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의제든 논의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이들 현안의 처리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매우 분명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3	<p>김대중 대통령, 포용정책 지속추진</p> <p>*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참석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집견(청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부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내개혁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임. <p>통일부, '01 北방문 기술자 203명 집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기술자의 방북은 ▲98년 7개기업 50명 ▲99년 6개기업 57명 ▲2000년 10개기업 81명 ▲2001년 29개기업 203명임. 	<p>김정일, 대흥단감자가공공장 현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비서와 리용철, 장성택 제1 부부장들,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동행함. - 김정일은 이날 주둔부대 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함. <p>중통 논평, 부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 축론을 들고 나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통령 부시가 19일부터 21일까지 남한을 방문함. - 부시와 그 일당은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무모한 광증을 부리지 말아야 함. <p>노동신문, 미국의 침략책동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에 대한 악의에 찬 시비중상이며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노골적인 침략전쟁의식의 발로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5	<p>정부,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대표단 방북 승인</p> <p>-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를 위해 신청한 북한방문을 승인하였음.</p> <p>* 승인현황 : 승인 302명 (대표 100명, 참관단·기자단 202명), 불허 46명</p> <p>정세현 통일부장관, 도라산역 관광명소 개발 방침 언급</p>	<p>중방, '우리 수령 제일주의는 민족제일주의 정신의 근본 핵' 제하로 수령·사상·군대·제도 제일주의 강조 및 김일성·김정일의 영도력 칭송</p> <p>평방, '주적론은 매국배족의 논리' 제하로 "남한의 반통일 세력들의 주적론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논리"라고 비난</p> <p>노동신문 논평, '위험한 전쟁모의' 제하로 "이번 미·일 도쿄회담은 아시아 침략을 위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한 위험한 전쟁모의"라고 비난</p> <p>평방, 주적론 철폐 주장</p> <p>- 동족에 대한 주적론은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겨레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철폐되어야 마땅함.</p> <p>노동신문 논평, '위험한 전쟁모의' 제하로 미·일정상회담 비난</p> <p>- 부시의 일본방문은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장기적인 협력을 받아 내기 위한 전쟁행각이었다고 지적.</p> <p>중통, 팔만대장경(전17권) 번역 및 출판 보도</p>	<p>부시 미 대통령, 북폐쇄성 비판</p> <p>* '미국의 소리방송' 60주년 소리방송 방문연설</p> <p>-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단순히 자유와 진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다루어짐.</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대화 지속 추진</p> <p>* 미-스페인 외무장관회담후 공동회견</p> <p>-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밝힌 미국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북한과 이란과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6		<p>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러시아, 이태리 등 순방(2.26-3.6)</p> <p>노동신문, 이회창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회창이 며칠전 조선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은 그 무슨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 해소라고 하면서 주제넘게도 북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함. - 조선민족은 이회창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가 저지른 최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할 것임. 	<p>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불고려 언급</p> <p>* 정례 브리핑</p>
2.27	<p>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대미 대화 촉구</p> <p>* LA타임스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행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 가장 좋은 것임. <p>조성우 공동운영위원장,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으로부터 통일연대가 불참한 상태에서 절름발이 행사로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받았음. 	<p>국가관광총국 방일대표단, 도쿄 시발 아리랑축전 설명회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황봉혁 국가관광총국 처장의 인솔하에 설명회 시작 <p>「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북측대표단, 금강산에서 동 모임 무산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는 남조선의 극우 보수 세력들의 책동에 의해 통일연대 대표들의 행사 참가가 불허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예정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이 무산되는 	<p>마웅원 미안마 외교부차관, 대북 수교재개 검토 언급</p> <p>* 태국언론회견</p> <p>크리스티안 베르티움 제네바 주재 WFP 연락사무소대변인, 전용논란 우려로 대북 쌀 지원 축소</p> <p>* 연합뉴스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은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지만 전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7	<p>정부, WFP 통한 대북지원 옥수수 수송·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10만톤중 1차 선적분 23,000톤이 2.28 중국 하북성 진황도항을 출발함. <p>국방부,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CBM) 공동연구 추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는 「한반도 긴장완화 4단계 조치」인 ▲1단계 초보적 군사신뢰조치 ▲2단계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감소 기반 조성 ▲검증가능한 군축 토의 ▲한반도 평화체제 제도화 중 1 단계 조치를 의미 	<p>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음.</p> <p>노동신문, '우리는 미제와 결판을 내고야 말 것이다'제하로 북-미 대화 불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북침전쟁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제창하는 대화에는 전혀 흥미가 없음. <p>김정일위원장, 조총련 책임부 의장 허종만 접견</p>	<p>북한측이 가장 중요한 곡식인 쌀을 선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WFP는 가급적 북한에 쌀을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p> <p>북, 미 대화제의 거부 당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소리방송 - '악의 축' 발언을 했던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의 발언은 최후통첩적인 언사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부정적인 반응은 완전히 당연한 것이었음.
2.28	<p>통일부,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옥수수 10만톤) 수송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선적분 23,500톤이 2.28 중국 하북성 진황도항을 출발하여 3.1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 <p>한미연합사령부, ROS/FE 02연습 실시(3.21-27) 발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태국, 말레이시아 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2.28-3.1, 말레이시아 3.1-3.5 - 김영남위원장과 함께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국가과학원 리광호원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문재철위원장대리 등 수행원들이 떠남. 	<p>EU 인권문제협의회(COHOM), UN 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 결의문 채택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뤼셀, EU본부 <p>한, 미, 일(외교, 군사당국), 3국 정책기획협의회 개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	<p>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지속적 추진 강조 * 3.1절 기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 이래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햇볕정책은 굳건한 안보체제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것이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 <p>정세현 통일부장관, 대북 비료지원 가능성 피력 * KBS라디오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0만톤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으며 북측으로부터 간접적 요청이 오면 올해도 비료를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쌀을 비롯한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되어야 함. 	<p>김영남 상임위원장, 태국수상 탁신 쉬나와트라 접견 * 태국과의 외무·무역·과학·대의 등 부문별 회담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 문화협정,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협정」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남순외무상, 타이왕국 주재 조선대사 조인철과 기타 수행원들이 참가함. - 타이왕국 부수상 겸 재정상 썬키드 자투스리피탁, 수상 실 상 크라새 차나윙 기타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함. <p>노동신문 사설, 반외세, 민족자주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인민봉기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온 겨레가 떨쳐 일어나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전 인민적 항쟁이었음. -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일의 영도따라 이 땅위에 통일되고 융성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역세게 싸워 나가야 할 것임. <p>김정일, 891군부대 시찰</p>	<p>미 국무부, 북한마약 제3국 위협 지적 * 2001년 세계마약통제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주도적으로 마약을 생산·거래하는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일본·대만 등 제3국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중국·북한 집경 지역에서 탈북자 등 북한인들이 소량의 메탐페타민(각성제)과 헤로인을 갖고 있다 압수했으며, 2001.12 대만 관리들은 1백34kg의 마약을 압수해 조사했는데 체포된 사람은 마약이 북한에서 들어왔다는 증언을 했다고 밝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p>정부,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제2차 대출금 62억원 금강산사업용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2.27 금강산 관광사업 시설 및 사업권 인수자금으로 신청한 금액으로서 공동사업자인 관광공사-현대아산간에 금강산 현지시설물에 대한 자산양수·양도 등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른 것임. - 공사는 지난해 7월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450억원을 포함하여 462억원 상당의 금강산 현지시설 및 사업권을 현대아산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했었음. - 이에 따라 자산인수 미지급금 12억원과 추가투자자금 50억원 등 총 62억원을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여금 450억원에서 금번에 대출금으로 신청한 것임. <p>국정원, 제3국 경유 북한주민 7명 입국 사실 발표 * 3.2 현재 군인은 25명, 주민은 81명 입국</p>	<p>「조평통」서기국, 한나라당 총재 2.21자 대북발언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니 미사일위협이니 하면서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들며 흑백을 전도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의 자리를 타고 앉아 보려는 데 그 속셈이 있음. - 또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미국 호전광들의 특등 앞잡이가 되어 온겨레의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엄중히 위협하는 민족반역행위로 이를 준열히 규탄함. <p>수리아 외무성 대표단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 쉴레이만 하다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외무성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함. - 비행장에서 외무성 궁석웅 부상과 조선주재 수리아임시대리대사 하이쌌 싸아드가 대표단을 맞이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3		<p>「조평통」대변인,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 관련 비난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단합대회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국과 남조선 반통일 세력의 이 같은 행위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민족 내부의 대결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비열한 행위임. - 우리는 남조선 당국과 극우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의 통일염원을 거세하며 말살하려는 행위를 거둬치우고 민족앞에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 <p>김영남, 태국 수상에 전문전 달 및 말레이시아로 향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전문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될 것 - 비행장에서 타이왕국 부수상 겸 국방상 차왈리트 용차이유드와 관계자들, 타이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위원장일행을 전송 	<p>블레어 영국총리,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쿨룸 영연방정상회의 -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음. - 우리는 이점을 감안해서 대처해야 하며 만약 우리가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가 지닌 파괴잠재력을 너무 늦게 발견할 수도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4	<p>통일부, 2002 통일백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대북정책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새로운 남북관계의 흐름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수록 <p>통일부, 대북특사 파견 추진 보도 부인</p> <p>* 보도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특사 파견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세계일보 3.5자 가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무근임. <p>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방북신고서 신설 등에 따른 사항 등과 ▲방북안내교육 ▲남북 교역관련사항 등을 보완 	<p>평방, '대량살육 무기 소유자는 미국이다' 제하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정권 집권 후 호전적인 체질과 본색이 드러나면서 독단주의와 일방주의, 강권과 패권주의를 기본 대외정책으로 정립하고 대폭적인 군비확장과 핵시험 재개를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국제질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맞서 자위적 국방력을 다지고 전쟁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임. <p>양형섭, 방북중인 수리아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에는 외무성 궁석웅 부상과 조선주재 수리아 아랍공화국 임시대리대사 하이쌌 싸아드가 참가 <p>북한 경제시찰단,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순방</p> <p>* 3.4-15</p>	<p>미 국무부, 2001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에서 북한을 노동당 일당 지배의 독재국가로 정치,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은 인권 불량국가로 평가함과 동시에 사법 절차 없이 사형과 구금의 자행되고 있고 언론자유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국가로 지적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의축 발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음. <p>유럽연합(EU) 집행위, 대북 기술지원 전략보고서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매년 500만 유로, 총 1,300만불 제공계획 승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6.25남북인사가족협의회, 6.25 당시 납북자 8만명 명단 발견 사실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 처자 명단을 지난달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서 발견했다고 밝힘. - 명단은 1952년 부산에서 피란 중이던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다섯 권으로 8만 2천 9백59명의 인적사항과 납북 경위 등이 수록되어 있음. <p>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재개 방안 검토 	<p>미군만행진상조사단 평양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미국의 '평화를 위한 노병조직' 대표 브라이언 윌슨 <p>중방, 김영남 말레이시아 방문동정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알라룸푸르 3.3 도착, 3.4 수상과 담화, 3.4 문화협조 협정 등 양해각서 조인 <p>중통 논평, 북미대화 거부입장 재확인 및 제네바합의 파괴 가능성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 및 「조미기본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제하 북미간 현안 문제에 대한 2건의 논평 발표 - 미국의 일방적, 적대적인 태도와 입장으로 인해 제네바합의문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고 있음 - 미국이 합의문을 전면백지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임을 강조,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괴를 위협 	<p>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군사력 관련 증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상원 군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개발·생산할 수 있고 이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대량 살상무기가 한국 및 일본의 위협이 되고 있음. - 북한이 비록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있지만 로켓엔진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시험을 지속하고 있는 등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6	<p>김대중 대통령, 남북간 대화 통한 평화유지 필요성 강조</p> <p>* 국가조찬기도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한미공조 체제 확립, 그리고 남북간 대화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야 함. -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면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건설도 잿더미가 되고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 <p>통일부, 통일교육기본교재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원에서 금년도 통일교육기본교재로 이용될 교재로서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전후 남북관계 발전과 향후 과제 등을 담고 있고 「북한 이해」는 북한의 실상과 변화상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p>김영남, 태국·말레이시아 방문 후 평양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타이왕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6일간의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6일 특별비행기로 조국에 도착 - 위원장과 일행을 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마중함. <p>외무성 대변인, 미국무부 '2001 연례인권보고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무성이 발표한 2001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 데서 독재요 무법이요 정치적 및 민사적 권리의 결여요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음. - 저들의 인권기준을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내리 먹이려 할수록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 고립만을 초래할 뿐임을 알아야 함. 	<p>황보혁 북한 관광총국 처장, 북한-마카오 4월 정기항로 재취항 발표</p> <p>* 조선신보와의 인터뷰. '96년에 고려항공의 평양-마카오 노선의 수요부족으로 정기운항 중단</p> <p>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북한 육로 통한 월드컵 관광 추진 의사 표명</p> <p>* 제9기 전인대 5차회의 중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축구팬들이 북한의 육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월드컵 축구를 참관하는 문제를 여행업계를 포함한 3개국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 중임 <p>한적 서영훈 총재, 2002년도 제2차 대북지원물자 전달계획을 북측에 통보</p> <p>* 대북전문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p>정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남북 경제협력사업자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하여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핵안전 및 규제’ 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승인함. - 이에 따라 KINS는 경수로 안전성심사, 품질보증검사, 사용전 검사와 북한 규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북한의 원자력안전체제 구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됨.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0기 제5차 회의소집(3.27)에 대한 정령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5-26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소집 및 대의원 등록 발표 <p>노동신문 사설, 혁명적 문학예술 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음. - 21세기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이 이 땅위에 더 높이, 더 힘차게, 더 장엄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 시대는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격동적인 시대로, 우리 조국은 번영하는 김정일강성대국으로 영원히 빛날 것임. <p>군민련환식수모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의 문수봉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됨. -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문수봉혁명사적지에 분홍꽃아카시아나무, 이깔나무, 평양뽕뿌라나무, 진달래 등 4,500여그루의 나무들을 심었음. 	<p>파월 美국무장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지지표명</p> <p>* 하원 예산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지만, 이 세나라는 전체체제로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개발 중일뿐 아니라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호하는 국가들임 -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이 나라들을 그 같이 지칭하는 것은 당연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8	<p>현대아산, 북한에 관광대가 연체금 128만 3,500달러 송금</p> <p>정세현 통일부 장관,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확대 방침언급</p> <p>* 국회 통외위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학생, 교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를 3월말 시행할 예정임. -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섬과 외딴지역 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동반, 소규모 현장학습 등의 방식으로 기존 수학여행과는 차별화해 추진할 계획임. 	<p>중방, 라선시에 「조-러 친선각」 건립 보도</p> <p>노동신문 사설, '국제부녀절' 92돌 즈음 여성들의 경제활동 동참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짐. - 여성들은 균지원활동 강화, 경제활동 확대, 생활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함. <p>외무성대변인, 미국 <연례마약통제보고서>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제도를 헐뜯고 고립압살해 보려는 부시행정부의 강권정책의 일환이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날조품에 지나지 않음. - 부시행정부가 우리를 걸고 들다 못해 이제는 마약문제라는 것까지 내들면서도 발을 거는 것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자들의 추악한 몰골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뿐임. 	<p>허바드 주한미대사, 북에 미국과의 대화 수용촉구</p> <p>* 한국무역대리점 협회 주최 조찬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부시대통령의 대북대화 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은 이미 북한측에 넘어가 있음. <p>한일 외무회담 도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적극적인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함. <p>미국,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발사대 관련시설 위성사진 공개</p> <p>중미통합체제(SICA) 7개 회원국, 대북포용정책지지 표명</p> <p>* 제4차 회의시 공동발표문 채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p>탈북자동지회, 창립 3주년 기념 행사 개최 * 홍순경 회장 기념보고</p> <p>- 홍순경회장은 향후 과업으로 △조직사상적 강화 △봉사활동 △동지회의 정치적 기반강화 △해외교포와 연계 강화 △주변국의 민주주의 역량과의 연대성 강화 등을 제시함.</p>	<p>노동신문 논평, 미국지원 일본 비난</p> <p>- 얼마전 미국방성은 저들의 반테러전쟁을 지원한 26개 나라들의 명단을 발표하였음.</p> <p>- 그런데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일본을 빼놓았음.</p> <p>- 대미추종과 전쟁은 일본에 고립과 파멸밖에 가져 올 것이 없음.</p> <p>- 일본은 역사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평화와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함.</p>	<p>미 국방부 애보트 대변인, '핵테세검토 보고서' 관련 LA타임즈 보도내용 공식 부인</p> <p>* 미국 백악관이 북한 등에 핵무기 공격 계획 준비를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3.9자 LA타임즈 보도 관련</p> <p>- 이 비밀 문서에 대해 미 국방부는 논하지 않을 것이며 선택적이고 오도된 유출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임.</p>
3.10		<p>노동신문,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비난</p> <p>- 미사일체계수립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틀어쥐기 위한 공격무기의 확대이며 우주의 군사화책동임.</p> <p>-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전쟁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1	<p>이회창한나라당 총재, 김정일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p> <p>* 방일중 기자클럽 오찬 시</p> <p>- 김위원장의 약속은 이산가족 상봉 등 거의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한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임.</p> <p>-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뜻으로 이뤄지는 방한엔 반대하지 않으나 정략적으로 온다거나 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질 않을 것임.</p>	<p>김정일, 제319 군부대 훈련 참관</p> <p>*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해철,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동행</p> <p>중방, 6.15공동선언 통한 조국통일 3대원칙 구현강조</p> <p>- 6.15공동선언은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는 민족자주 통일 선언임.</p> <p>평방, 1.22 「정부·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의 3대 호소·3대제약에 호응 촉구</p> <p>노동신문, 미국에 의해 한반도 정세악화 주장</p> <p>- 한반도 정세가 미국에 의해 전쟁전야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p> <p>-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전쟁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p> <p>중국방문 북한외무성대표단 출발</p>	<p>RFA, 부시행정부 출범후 미-북 교역 감소 추세 보도</p> <p>- 미국과 북한의 2001년 교역량은 2000년의 23.4%에 불과했으며, 교역규모는 67만6천539달러로 클린턴 행정부 시기 288만8천여달러에 비해 76.6%나 감소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2	<p>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금강산 경비보조대상 확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공동대표 한명수 등 <p>- 입장문을 통해 금강산 경비 보조대상에 시민단체, 평화통일 관련단체 임원 및 근무자, 가족동반 모임, 동아리 모임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힘.</p> <p>WFP 통한 정부의 대북 지원 옥수수 2차분 2만톤 수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진저우항에서 출항 <p>- 지난 1차분 옥수수 2만3천 500톤은 2.28 중국 친황다오항을 떠나 3.1 북한 남포항에 도착</p>	<p>평방,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56년 7월 모란봉극장서 결성사실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남전위단체 <p>중방,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핵전쟁계획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국가들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떠드는 것은 미제의 침략성과 호전성을 더욱 날낱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 미국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 버려야 할 악의 제국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임. <p>미국의 세균전, 화학전 폭로좌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음. - 조선 의과학학원 연구사들과 미군만행진상조사단 성원들이 참가함. - 조사단 단장인 미국 평화를 위한 노병조직 대표 브라이언 월슨은 미군의 생화학전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해 하면서 이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하였음. 	<p>후쿠다 야스오 일본관방장관, 북한에 1983년 납치의혹 해결 요구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런던에서 유학중 행방불명 여대생 게이코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p>스웨덴 파그로츠키 무역장관, 북한에 대사상주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홀름을 방문 중인 이광근 북한 무역상과의 오찬회담 <p>-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양에 자국대사를 파견, 상주시키기 위해 북한당국에 승인요청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3	<p>정세현 통일부장관, 방한중인 중국 공산당 부부장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 설득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왕자루이 부부장은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의 지속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힘. <p>통일부, 2월 남북 교역 2천873만달러 잠정 집계</p>	<p>노동신문, 한미 합동군사연습 실시계획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본토와 해외 침략무력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그리고 수십만 남조선 군이 연합하여 총포를 터치게 될 이번 통합훈련은 말이 훈련이지 실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북침 작전임. <p>김정일, 제639 군부대 시찰 * 김영춘 수행</p> <p>외무성대변인, 미 국방부 「핵태세 검토 보고서」 관련 규탄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 사이에 우리의 핵시설 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조-미 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 - 부시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 합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힘으로만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이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나라에는 쌍무적 합의도 다 뒤집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 것임. 	<p>미-러 국방장관 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럽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전략핵무기 감축문제 △미국의 대테러전 확대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아프간전 마무리 대책 △중동분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p>북미 뉴욕실무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프리처드와 북한의 박길연이 대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4	<p>김대중 대통령, 통일후에도 미군 주둔 필요성 지적</p> <p>* 제56기 해군사관학교 임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경제·외교분야는 물론 우리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최대의 맹방이며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우리 안보의 근간임. -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필요함. <p>탈북자 25명, 주중 스페인 대사관 진입 망명 요구</p>	<p>조평통 대변인, 한미연합 RSOI/FE '02연습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의 '악의 축' 망발이후 미행정부안에서 북침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려 하려는 것은 미제의 대조선 침략정책이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 <p>재일본조선청년대표단, 평양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김성훈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 비행장에서 김관호비서와 관계자들이 맞이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5		<p>노동신문, 미국의 핵선제공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전략의 초점을 일부 대국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작은 나라들에 돌리고 유사시 핵선제공격도 할 것이라고 한 부시행정부의 이번 핵공격계획은 본질상 냉전시대의 핵전략을 재검토하고 정립한 21세기의 핵전략이라고 지적 -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속에서 살아 왔으며 그만큼 핵전쟁에도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 -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면 미국땅도 무사치 못할 것임. <p>직총중앙위, 남한 합동군사훈련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벌려 놓으려는 이번 통합군사연습을 철두철미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전쟁도발전주곡으로, 핵전쟁의 서막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단죄규탄함. 	<p>주중 스페인 대사관 진입 탈북자 25명, 필리핀 도착</p> <p>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프리처드미 대북협상 특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대사와의 3.13 뉴욕 접촉결과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정레브리핑 - 회담은 유익했으나 아무런 돌파구나 특별히 새로운 진전은 없었음. - 미북 양측은 이번과 같은 수준에서 그들간 대화를 계속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우리는 기꺼이 북한측이 미북대화와 관련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임. <p>EU집행위, 북한 상하수도 체제 개선용 560만 유로 지원 결정</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6	<p>정부, 탈북자문제 협조 관련 필리핀 정부에 사의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성홍 외교장관은 탈북자 25명이 3.18 서울에 도착하는 것과 관련 필리핀의 테오피스토 긴고나 부통령 겸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필리핀 정부가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잘 감안해서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준 점에 사의를 표명함. 	<p>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모스크바 방문차 평양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를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일행이 평양을 출발. <p>원자력총국대표단, 러시아 연합원자핵연구소 회원국 정부 대표자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두부나에서 진행되는 연합원자핵연구소성원국 정부전권대표자회의에 참가할 리제선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원자력총국대표단이 평양을 출발 <p>조평통 서기국, 이회창 규탄 보도 발표</p> <p>조선과학원대표단,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p>	
3.17		<p>농근맹중앙위 한미군사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남조선에서 벌려 놓으려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우고 자기의 침략군대와 대량살육무기를 무조건 철수해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8	<p>청와대 박선숙대변인, 인 니 대통령 남북동시 방문 일정 발표 *3.28-30 북한, 3.30-4.1 한국 방문</p> <p>이만섭국회의장, 남북국 회회담 제의 * 모로코 IPU 총회 연설</p> <p>- 북한 당국이 남북대화 와 북미대화에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 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남북의회차원 에서 지원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함.</p> <p>북한이탈주민 25명, 필리 핀 경유 입국</p> <p>정세현 통일부장관, 「입 국 희망 탈북자 원칙적 전원 수용」 방침 재확인 *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0 기 해외지역회의</p> <p>- 해외체류탈북자관련 탈 북자들이 입국을 희망 할 경우 동포애와 인도 주의적 차원에서 체류 국과 협조 하에 원칙적 으로 전원 수용한다는 정부방침을 재확인</p>	<p>외무성 대변인, 한미합동군 사훈련 규탄 담화</p> <p>-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우 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 타격 계획을 실천에 옮 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 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 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위험한 전쟁 도발책동임.</p>	<p>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북에 핵 안전조치 협정 이 행 촉구</p> <p>* IAEA 이사회 북 한 핵문제 관련 보고</p> <p>- 북한이 제출한 최 초의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 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p> <p>- IAEA의 안전조 치협정은 구속 력이 있고 유효 함에 불구하고 북한은 핵사찰 을 북미기본합 의서에 의한 경 수로 건설사업 과 연계시키고 있음</p> <p>제58차 UN인권위원 회 개최 * 3.18-4.24, 제네바</p> <p>- '주요인권침해국가 및 분쟁지역의 인권상황' 등 총 21개 의제에 대 한 토의 시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9	<p>통일연구원, 2002 북한 인권백서 출간</p> <p>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별보좌역,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 대두가능성 제기 * 서울대 동문초청 특별강연</p> <p>-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 발생원인으로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 유예 시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사찰문제 등이 2003년에 집중된 사실 등을 지적</p>	<p>노동신문 논평, 북한 미사일위협설 관련 대미비난</p> <p>-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세계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미사일 위협론을 퍼뜨리고 있음.</p> <p>-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이기에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조선반도 평화체계를 마련해야 함.</p> <p>경제대표단, 유럽순방후 평양도착 * 단장 무역상 이광근</p> <p>중방, '핵전쟁 광신자들의 파렴치한 현실 기만' 제하 대미 비난 논평</p> <p>- 부시는 단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롯한 여러 주권국가들을 핵공격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나라들에 대해 핵공격계획의 작성을 국무부에 직접 지시했음.</p>	<p>WFP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활동보고서 2002-11」 발표</p> <p>- 북한 서해안지역에 대한 북한 정부의 학교급식 지급이 일시 중단되었음.</p> <p>포드 미 국무차관보, 북한 생화학무기 보유 사실 증언 * 상원 외교위</p> <p>-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화학무기를 보유, 개발하고 있어 군사위협이 되고 있음.</p> <p>- 또한 신경, 수포, 질식, 혈액작용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규모의 화학제와 무기를 비축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0	<p>김대중 대통령, 외교부에 탈북자 문제해결 위한 북한경제회복 노력 당부</p> <p>* 업무보고</p> <p>- 북한경제의 회복이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외교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p> <p>일본 비영리법인 삼천리철도·(사)통일맞이, 남북협력기금 680만엔 통일부에 출연</p> <p>* 통일부 보도자료</p> <p>- 이번 기금출연은 한반도 철도연결사업을 위한 민간인 모금을 통해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통일맞이」와 2001년 일본에서 결성된 「비영리법인 삼천리철도」가 교류·연대사업을 진행해온 바, 1차로 모금된 철로연결사업기금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p>	<p>중방,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문제 해결 주장</p> <p>- 역사는 북남 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룩해 냈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당사자가 외세의 존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이 절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p>	<p>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제네바 남북 핵협정 인증유보 방침 북한에 통보 확인</p> <p>* 정례 기자회견</p> <p>- 미국은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등에 대한 북한의 이행여부를 인증할 수 없다는 방침을 이미 한국과 북한 등에 통보했음.</p> <p>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북한에 경수로 건설 전 핵관련 국제의무 준수 촉구</p> <p>* 정례 기자회견</p> <p>- 경수로 건설관련 부품 제공 및 공사진척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음.</p> <p>-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서 규정한 핵사찰 허용 등을 경수로 건설전에 준수해야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1	<p>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금강산관광경비지원 방안 확정 *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회의에서는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안),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남북한 왕래자유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대상자로는 이산가족, 학생·교사, 통일교육강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됨 <p>WFP 통한 정부지원 옥수수 3차분 2만5천여톤 남포항 도착 * 3.19 중국 다렌 출항.</p> <p>한일정상회담 개최 * 3.21-23, 청와대</p>	<p>중방, 범청학련 제12차 남·북·해외공동의장단 회의 모사로 진행사실 보도 * 개최 시기 미보도</p> <p>청년동맹 대표자회의 개막 * 1996년 1월 이후 처음 개최</p> <p>중방, 부시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핵위협 포기약속 위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정권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한 조미간의 공약을 완전히 집어 던졌음 -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p>노동신문, '핵전쟁 광신자들의 무모한 소동' 제하 한미 연합군사연습 비난 논평</p>	<p>허바드 주한미대사, 북한 인권상황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북한 관계제하의 조찬연설에서 언급 -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등으로 피난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p>제프 훈 영 국방장관, 북한 등 4개국에 필요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라크, 이란, 레바논 등 불량국가들이 자국군에 대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음. - 영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올바른 조건이 됐을 때 기꺼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2	<p>한일 정상회담 개최 *청와대</p> <p><공동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 : 고이즈미 총리는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확인했으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원칙에 의견 일치를 보았음. 또한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진전을 위해 끈기있게 대처할 것임을 밝힘. - 고이즈미 일본총리 :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 결과대로 한·미·일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같은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긴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남북간, 북미간 대화가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함. <p>2002년도 제1차 통일정책평가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북정책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추진방향 논의 	<p>평방, '미국은 가장 위험한 핵불량배 국가' 제하 부시정부의 핵개발 기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정부가 개발을 다그치고 있는 지하시설 파괴용 핵탄두는 새로운 조선전쟁을 위한 것임. - 공화국에 대한 압살정책에 광분하고 있는 부시집단은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음. <p>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표자회의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문과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새규약 채택 <p>「북적」 중앙위 대변인, 남치문제 관련 일본 적십자사에 회담제의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본에서 게이꼬라는 여성이 1983년에 납치됐다는 증언이라는 게 나와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유혹하거나 납치한 일이 없음. - 우리는 일본 적십자사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음. 	<p>허바드 주한미대사, 미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시라쿠스대 한국동문회 주최 연설 - 미북관계의 미래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반복적인 제의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음. - 지금까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이지만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3		<p>독일 물리공학연구소대표단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물리공학연구소 부소장인 만프레드 콕시크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물리공학연구소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p>중통 논평, 일본외상 문제국가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외상 가와구찌가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북조선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한 문제의 국가라고 함부로 중상함. 	
3.24		<p>노동신문, 제국주의와의 투쟁 다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대한 견결한 혁명적 입장을 확립하는 것은 현시기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며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음. -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5	<p>청와대 박선숙대변인, 임동원 통일특보 특사자격 4월 초 방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남북 최고당국 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특사 파견을 제의했었음.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로 4월 첫째 주 중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임. - 이번 특사방문이 정체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p>김대중 대통령, 월드컵 북한 참여 위한 지속적 노력 강조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 면담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월드컵에도 북한의 참여 기회를 열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 될 것임. 	<p>중·평방, 남측 특사 평양 방문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특사가 4월초 평양을 방문하며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될 것임 <p>노동신문, '전쟁구름을 몰아오는 불량난 소동' 제하 한미합동군사훈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자들의 군사적 위협 공갈의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을 천백배로 더욱 강화할 것임. -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로 빚어지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도발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p>야스오 일본 관방장관, 북일 적십자회담 조기 재개 방침 시사 *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적십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도록 조정 - 일본인 행방 불명자 조사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처고향방문 문제 등을 협의 하고자 함. <p>신화통신, 대통령 특사 방북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기대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며, 미국의 조지 W. 부시대통령 정부 집권 후 정체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6	<p>과학기술부, 3.28 북한 과학기술정보웹사이트(www.nktech.net) 개설 발표</p>	<p>노동신문, 경제강국 건설 위한 혁신적 안목의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안목을 지닌다는 것은 재래식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업을 개선하고 무슨 일이나 발전적 견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최대한의 실리를 거두는 것임.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참가 대의원,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p> <p>평방,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주장 반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납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임. <p>북한 적십자사, 일본 적십자사에 회담제의 수락 통보</p> <p>조선신보, 임동원특사 방북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기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 	<p>허바드 주한미대사, 임동원 특보 방북 성과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기자클럽 초청 강연 - 미국은 임특보의 방북을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7	<p>2002년도 제1차 통일고문회의 개최 * 남북회담사무국</p> <p>- 특사파견 등 최근 대북정책 추진환경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의</p> <p>통일부, 2002 1-2월중 남북교역액 56,137천달러 집계 * 보도자료</p> <p>- 이는 전년 동기대비 52.5% 증가한 것임.</p> <p>통일부, 김정일 대신 김영남 답방추진 보도 공식 부인 * 보도자료</p> <p>-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p> <p>북한 경비정 1척 오전 10시경 북방한계선(NLL) 월선 후 복귀 * 1.4, 3.17에 이어 금년 세번째</p>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 * 김정일, 김영남, 홍성남 (의정보고), 문일봉, 최태복(개·폐회사) 참석</p> <p>-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 보고(홍성남 내각총리) △2001년 예산 결산과 2002년 예산승인(재정상 문일봉 보고) △국토계획법 채택</p> <p>- 총액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2%정도 늘어난 221억7천379만원의 예산을 편성, 이 가운데 인민경제 분야에 92억3천68만4천원(41.6%), 건설 분야에 34억9천750만원(15.7%) 배정</p> <p>- 국방비는 지난해 31억2천776만6천원보다 소폭 증가한 31억9천302만원(14.4%) 배정</p> <p>김정일, 만수대의사당서 러시아대통령악단 공연 관람 *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배석</p> <p>중방, 조선우표사 5종의 버섯우표 발행 보도</p>	<p>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장관, 3.20 미북 실무자접촉시 북측에 미국의 대화 의지 전달 사실 공개 * 한국특파원 기자회견</p> <p>-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협상특사가 3.20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미국의 대화 의지를 전달했음.</p> <p>-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 할 방침임.</p> <p>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잭프리처드 미 대북교섭담당 대사 3.20 뉴욕 제2차 접촉 경과 설명 브리핑</p> <p>-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8	<p>「한적」, 제3차 대북구호 물자 지원계획 북한 적십자사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에 전달된 지원계획 물자는 농자재 91종과 4천800만원 상당의 전지분유 등 모두 8천600만원 어치임. <p>임동원 통일특보,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 위한 반복임을 강조</p> <p>*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안보위험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김대통령의 생각을 북한 최고 당국자에게 전하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임. -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미북관계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 지를 논의하게 될 것임. 	<p>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 위원장인 강능수문화상 등과 관계자들이 참가 - 상대측에서는 누르 하산 위라유다외무상, 하마 라자싸 연구 및 과학기술담당 국무상, 삼술 무아리프 체신 및 공보담당 국무상 등이 참가 	<p>국제엠네스티(AI), 중국정부의 탈북자 단속 중지요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 이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때까지 구금과 강제송환을 중지해야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9	<p>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대화태도 변화 조짐 진단 * 국방부 업무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도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음. - 남북간의 대화도 이런 방향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자세에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측이 됨. <p>정세현 통일부 장관, 금년 8월 한반도 위기도래 가능성 우려 * 자유포럼 조찬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올해 8월부터 핵사찰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은 2005년부터 핵사찰을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이것이 국제쟁점화 가능성이 있음. - 북한 핵사찰 문제가 8월부터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한반도위기를 예방해야함 	<p>김정일,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 접견</p> <p>노동신문, '북침을 노린 예비전쟁 핵시험전쟁' 제하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 규탄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의 통합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협계선으로 몰아가고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한 극히 모험적이고 침략적인 불장난임. -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불장난을 벌여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해야하며 반공화국 전쟁도발책동을 중지해야함. <p>「조평통」 대변인, 한나라당 대북기본노선 비난 성명 * 한나라당의 상호주의와 투명성에 입각한 선평화 후교류협력원칙</p>	<p>사카구치 일 후생상, 북한과의 3.30 예정 북일 싱가포르 각료급회담 무산 배경 설명 *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재일 총련을 통해 회담연기를 요청해 왔음. - 북한측이 조용하게 만나길 원했던 것 같은 데 보도가 너무 확대돼 곤란했던 것 같음. <p>볼튼 미 국무부 군축·안보담당차관, 북한에 IAEA 대북 사찰 수용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제네바 핵협정 인증포기 선언은 제네바 협정이 제대로 기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초점 현안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하는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30	<p>메가와티 인도네시아대통령 방한</p> <p>「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남북민간급 접촉(4.11-12, 금강산) 제의</p> <p>-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25 남측 준비위원회 앞 팩스를 통해, 「6.15, 8.15 기념행사 및 아리랑공연 참관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민간급접촉(4.7-9, 금강산)을 제의하였음.</p>	<p>평방, 북일관계 개선 위한 일본의 과거청산문제 선이행 촉구</p> <p>- 북일관계 개선에서 기본핵은 과거 청산임.</p> <p>- 과거청산은 외면하고 우리의 납치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당치않은 소리를 내는 것은 매를 드는 것과 같음</p> <p>사회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 대북기본노선 규탄 담화 발표</p> <p>-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이 라는 것은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전쟁선언임.</p>	
3.31		<p>민주조선, 선군정치 의 우월성 강조</p> <p>- 우리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고 선군정치를 펼치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새 전쟁이 터졌을 것임.</p> <p>- 우리의 선군정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것이며 침략자들에게 드세찬 공격과 무자비한 타격을 안기기 위한 것</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남북한, 대통령 특사방북 관련 체류일정 등 실무절차문제 협의 * 판문점 연락관 접촉</p> <p>「한적」, 3차 대북구호물자 복송</p> <p>- 경운기 2대, 비료 750포 등 농자재 3천800여만원 상당</p> <p>통일부 대변인, 대통령 특사 관련 기자 브리핑</p> <p>- 임동원 특사는 대통령 전용 3호기로 방북할 것이며 백화원초대소에 머물 예정이다.</p>	<p>노동신문, '희망안고 이 길을 가리라' 제하로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및 선군정치 칭송</p> <p>- 선군정치는 사생결단의 의지에서 나온 정치방식이며 그 의지로 하여 위력 떨치는 백전백승의 정치임.</p> <p>중방,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합법적 요구' 제하로 통일의 중요성 강조</p> <p>-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임.</p> <p>노동신문, '사태를 악화시키는 범죄행위' 제하로 미국의 대남 무기판매 동향 관련 비난</p>	<p>미 국무부 필립 리커 대변인, 임동원 특사 방북 및 남북 대화 지지 표명</p> <p>* 국무부 정례브리핑</p> <p>- 미국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와 같은 대화를 적극 지지해 왔음.</p> <p>한·러 외무차관, 남북대화 재개 방안 논의</p> <p>* 한·러외무차관 회담</p> <p>-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차관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러시아가 우호적 외부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p> <p>클린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비판</p> <p>* 뉴스위크 인터뷰</p> <p>-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노선을 바꿔 한국정부의 희망대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김대중 대통령, 임동원 특사에게 남북합의 이행 기대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관해 의견일치를 봐 우리 국민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기 바람. <p>남북한, 임동원 특사 방북 첫날 일정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문점 연락관 접촉 - 평양 도착 후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여장을 풀고 오후에 인민문화궁전에서 회담 예정 <p>「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북측과 행사 관련 실무접촉 갖기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관련 민간급 실무접촉을 4월 10일부터 금강산에서 갖자는 남측 제의에 북측이 동의 	<p>김일성 90돌 생일 즈음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태복, 오수용(전자공업상)등 참가, 전기석탄공업상 오광홍으로 교체 확인 <p>노동신문, '추해도 용납할 수 없다' 제하로 한나라당의 대북 노선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의 대북 노선을 '반민족적 분열대결 선언'이라고 비난 <p>노동신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 제하로 대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보수세력들이 북한 미사일 및 남침위협설 등을 제기하면서 체네바기본합의 및 조·미관계의 악화책임을 북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 	<p>한·러, 한반도 안정 위해 공동노력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 기자회견 -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및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음. - 또한 ▲한-러 어업 협상과 ▲한반도중단철도 (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양국 친선 사업 ▲주러 한국 대사관 부지문제 등도 협의,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p>북한-중국, 신의주~단동간 고속도로 건설 합의</p> <p>부시 미대통령,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비용 9천500만 달러 지출 계획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	<p>통일부, 임동원 특사 방북 관련 브리핑</p> <p>* 통일부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양측은 4.3 오후 백화원초대소에서 2시간20분간의 1차 회담과 저녁 10시30분까지 이어진 만찬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였음. - 임특사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이 이른 시간 안에 미·일과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또한 이산가족상봉을 협의할 적십자회담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할 군사당국자 회담,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조속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였음. 	<p>김정일 위원장, 공군사령부 산하 서해지구 항공구락부 현지지도</p> <p>중앙TV, 임동원 특사 평양도착 사실 보도</p> <p>중방, 북한 주제 각국 외교관 및 국제기구 대표부 관계자들의 태권도 시범 관람 사실 보도</p> <p>외무성 대변인, KEDO와 협상 재개선언</p> <p>* 중앙통신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뉴욕에서 있는 2차례의 조·미 접촉에서 미국이 중단된 KEDO와의 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이를 신중히 검토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p>존 사가 주한 EU대표부 정치경제담당관, 북한 관리대상 시장 경제 교육 등 자본주의 훈련 추진 계획 언급</p> <p>* 국제학술회의 기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북한 관리의 자본주의 훈련, 특히 200만유로 상당의 '시험 계획'에 의해 에너지 부문 효율성 제고를 지원키 위한 지식습득과 기술지원에 대북협력 방향을 집중할 것임. <p>플라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 북미대화 재개관련 북측 공식입장 기대 언급</p> <p>* 백악관 정례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재개키로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은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북한측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4		<p>중방, 김용순 노동당 통일전선 담당 비서 - 임동원 특사간 회담 (4.3)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특사의 수락은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고 민족끼리 공조해 나갈 의지를 명백히 듣기 위한 것임. - 또한 남측의 계속된 주적론 제창에 대해 엄중시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근본입장부터 바꾸도록 강조하였음. <p>김일성 90돌 생일맞이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 진행 * 4.25문화회관</p>	
4. 5		<p>평방, 북 외무성 대변인의 중통 기자회견(4.4) 내용 보도 * 미 행정부의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 보증 보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제공 및 중유납입 지연 등 기본합의를 이행치 않은 측은 미국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조치가 있게 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함. <p>중앙 TV, 김정일 위원장-임동원 특사 일행 면담(4.4) 관련 보도</p>	<p>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문제 담당 집행위원, 대북 포용 정책 지속 희망 *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북한정권이 국민이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무기 구입에 막대한 돈을 소비하는 정권이지만, 북한에 대한 굳건한 포용이 지속되기를 바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5			<p>평양-러시아 하바로프스크간 국제정기항로 재개(주2회) * 러시아 소리방송</p>
4. 6	<p>임동원 특사 방북 관련 공동보도문 발표 * 방북결과 설명 기자회견</p> <p><공동보도문 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존중 및 긴장 조성 방지 2. 남북관계 원상회복 3. 철도·도로 연결 : 조속한 시일 내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4. 남북대화·협력사업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5.7~10,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건설 및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 논의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간 회담 개최(6.11~, 금강산) ③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사업 진행 (4.28~, 금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100명 규모 예상 ④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 파견 (5월 중) 	<p>중방, 임동원 특사-김용순 비서관 제2차 회담(4.5) 진행 사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했으며, 공동보도문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음. <p>중·평방, 임동원 특사 방북 관련 공동보도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이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하고 합의하였음. - 또한 6개항으로 된 북남공동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키로 하였음. 	<p>요미우리 신문, '김정일 총비서, 일·북관계 개선에 관심' 제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총비서가 '조만간 (북·일) 적십자회담이 재개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p>도널드 그레그 전주 한미국대사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유엔대표부의 접촉을 통해 초청을 받아 개인적으로 방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6	<p>⑤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시기·장소 미정)</p> <p>5.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재개 (시기·장소 미정)</p> <p>6. 기타 동포애, 인도주의, 상부상조하에 상호협력 등</p>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p> <p>- 임동원 특사 방북결과 점검 및 후속대책 협의</p>	<p>평화자동차종합공장 준공식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개최</p> <p>* 김용순, 송호경, 주일철 등 참석</p> <p>가수 김연자 평양 공연</p>	
4. 7		<p>평양자동차종합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대표단 평양 떠남</p> <p>- 비행장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송호경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전송함.</p> <p>당 및 국가지도간부들, 국제친선전람관 참관</p> <p>-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당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책임자들이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함.</p> <p>- 국제친선전람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닌 국제적 권위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굳은 연대성을 보여주는 김일성조선의 국보들이 전시된 곳이라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7		<p>전국청소년 학생들, 만경대로의 답사행군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군에는 청년동맹일군들, 전국 각지에서 온 근로청년들과 청소년학생 4,000여명이 참가함. 	
4. 8		<p>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 -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옹계 구현하며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앞당겨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함. <p>노동신문, '과거청산이 없는 조-일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제하로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대해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민족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 	<p>자유아시아방송, '러, 대북전력판매 준비 착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북한간 송전선 건설사업을 통해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2~4%가 북한에 전달될 계획임. <p>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남북대화 중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남북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9	<p>국가정보원, 2002.3월말 현재 탈북 입국자 현황(214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래 탈북 국내 입국자 수는 98년 71명, 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증가 추세 <p>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평양방문(4.6~9)후 방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고위 군사·외교 관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언급 	<p>중방, '위대한 영장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제하의 김정일 찬양 노동신문 논평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생명선이며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임. <p>노동신문, 미 F-15K 대남 판매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매와 무력증강 책동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아시아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 	<p>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 이후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 교환 -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본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참석 <p>베트남,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협력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트남 총리 회담 - 베트남 총리는 5월로 예정된 전득 르엉 베트남 주석 방북시, 북한이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9			<p>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일성 90회 생일 관련 김정일 위원장에 축전</p>
4.10	<p>통일부, 2002년 1/4분기 선박운항 및 물동량 현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348회로 전년동기 505회에 비해 31.1% 감소하였음. - 해상 물동량은 73,081톤으로 전년동기 81,560톤에 비해 10.4% 감소하였음. 	<p>김정일 위원장, 가수 김연자 일행 접견 및 만찬</p> <p>김일성 탄생 90돌 기념 「만경대상 체육축전」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김중린, 박명철(개막연설) 등 참가 하에 진행 <p>평양, '핵무장의 야망이 꿈틀거리는 폭인' 제하로 일본 자유당의 오자와 이찌로 발언 관련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핵생산 가능성과 군사대국화에 대한 발언은 일본 우익계층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입증하지 않을 수 없음. <p>북-스웨덴,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과 스웨덴 국제공업이사회 대표단의 이안 윌도로프 단장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양국간 합의서 체결 	<p>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식량지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원조를 늘려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1	<p>통일부, 특사방북 관련 국민 여론조사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대다수(66.7%)가 특사방북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음. - 가장 큰 성과로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36.5%)를, 그 다음으로 한반도 긴장완화(17.4%), 중단된 당국간 회담재개(16.4%) 등을 꼽았음.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20만톤 지원 결정 및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순차 교환 등 임동원특사의 방북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협의 <p>「2002 제주 평화포럼」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대 공동주최로 4.11-13일까지 제주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9·11테러 이후 세계평화의 실천전략 등 포괄적 논의 	<p>김정일 위원장, 금성친위 제834군부대 시찰 및 제966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기서,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장성택 등 동행 <p>외무성 대변인, 북미대화 분위기 미조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통신 회견 - 조미대화는 반드시 재개돼야 하지만 아직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지 못했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을 때 대화에 나설 것임. <p>중방,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예술단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차 평양 도착 소식 보도</p>	<p>유럽연합(EU),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방북 성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성명 - 임특사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합의사항들이 고무적이며, 이의 이행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p>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북한 테러 무관설 시사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현테러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2003년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2	<p>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북측 「아리랑공연」과 「한·일 월드컵」 개최 관련 언급</p> <p>* 기자회견</p> <p>- 남북은 각기 두 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말없이 서로 협력하게 될 것임.</p>	<p>김일성 90회생일 관련 남·북 및 해외 인사(26명)에 대한 「조국통일상」 수여 소식 보도</p> <p>- 노동당 중앙위원 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공동의장 윤기복, '신라의 달밤'의 작사가 조령출 및 통일문제 관련 해외동포에게 수여</p> <p>평양, 김일성 90돌 생일 관련 행사 진행사실 보도</p> <p>- 평양미술축전 청소년아동미술전람회 개막식(평양학생소년궁전)</p> <p>- 청년전위들 및 육·해·공군장병들의 충성 맹세대회 및 맹세예식(금수산기념궁전 광장)</p> <p>- 전국노동자사무원가족 예술소조공연(인민문화궁전 및 동평양대극장)</p> <p>- 김일성청년영예상 및 김일성소년영예상 등 수여식(만수대의사당)</p>	<p>이타르타스 통신, 러-북간 경제협력 동향 관련 보도</p> <p>-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극동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대리인은 조창덕 북한 내각 부총리와 만나 경제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p> <p>WFP 존 파월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무소장, 한국산 쌀 북한군 지원설 부인</p> <p>* 기자회견</p> <p>- 한국산 식량이 북한 군대에 지원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음.</p> <p>- 한국이 WFP를 통해 지원하는 식량이 「대한민국 지원」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포대에 담겨 북한 사람들에겐 전달되는 것을 평안남도에서 직접 목격하였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3	<p>「2002 제주평화포럼」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 통일특보, 윌리엄 페리 전 미대북정책조정관 등 국내외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과 9.11 미국테러 이후 세계 평화의 실천 전략 등 논의후 폐막 <p>제4차 이산가족 방문 문제 협의차 판문점 연락관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8부터 금강산에서 이루어질 제4차 이산가족 방문과 관련된 세부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 	<p>중통, 「북남 단체 공동성명」 발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각계 단체 대표들이 4.12 금강산에서 임동원특사 방북시 발표한 남북공동보도문(4.5) 직극지지 등 5개항의 「북남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 <p>중통 논평, 미국의 유엔인권 위발언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8일에 진행된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측대표가 우리를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명하였다 함. - 미국은 역사상 70여 차례의 전쟁과 군사개입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 수 없음. - 오늘 미국이 재 허물은 덮어두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유린상황’을 운운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음. - 인권유린의 불모지에 틀고 앉아 세계 인권재판관의 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어야 함. 	<p>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북-미대화 의제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제주평화포럼 - 한국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p>중국「국제방송」, ‘중국 정부, 대북 물자원 조 무상 제공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중 사이에 친선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 탄생 90주년에 즈음해 물자원 조를 무상제공하기로 함. <p>윌리엄 페리 전 미국 방장관, 임동원 특사 방북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 - 임특사 방북은 북한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4	<p>「한적」, 이산가족 상봉 방안 관련 일부 합의 사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8-30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먼저 금강산에서 2박3일간 재북가족 및 친척과 상봉하고, 이어 5.1-3까지 북측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서 재남가족들과 만나기로 합의하였음. - 북측은 공훈예술가 황영준(82) 화백이 사망함에 따라 대신 리은주(74)씨 선정하였음. - 남측은 신용익(77)씨를 박재례(64.여)씨로, 박분순(78.여)씨를 염경빈(남.66)씨로 각각 교체하였음. <p>국가정보원, 탈북자 24명 입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춘화(여.24.유치원 교사)씨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24명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하였음. - 이로써 올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38명임. 	<p>중방, '미제는 쓰디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 비난</p> <p>중방, 「김일성 생일 9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보도</p> <p>중방,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 기념 군장성 승진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 기념으로 ▲차수 : 장성우 ▲대장 : 김운심, 김정각, 러춘석 ▲상장 : 백상호, 강영호, 리태일, 김양점, 박승원, 리무웅 ▲중장 : 리영호, 리영길, 황홍식, 박수철, 방국환 등 54명을 승진시켰다고 보도 <p>중통 논평, 일본국회 '납치결의' 철회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1일 일본국회는 이른바 '납치의혹은 국가주권 및 기본적인 인권, 인도에도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심히 유아독존적인 결의를 채택하였음. - 일본국회는 역사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저들이 채택한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라.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5		<p>김정일 위원장, 러시아연방 썬트 페테르부르크 시장 올라지르미 아나톨리에비치 야코블레프 일행 접견 및 만찬</p> <p>*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강석주, 장성택, 지재룡 등 배석</p> <p>주북 외교단·무관단 및 각국 방북대표단 금수산기념궁전 참배</p>	<p>독 하원, 독일 의회 대표단 남북 순차 방문계획 발표</p> <p>- 독-한 의원협회 회장 하르트무트 코시크 하원 의원이 이끄는 대표단(7명)이 4.30 북한방문후, 베이징을 거쳐 5.4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p>
4.16	<p>금강산관광 합동점검단 방북</p> <p>- 통일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19명)이 4.18일까지 금강산에 머물면서 관광 환경 조사와 관광 시설 및 운영각 휴게소내 외국상품판매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p> <p>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방미</p> <p>-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 대사의 방북문제를 포함한 북미대화 재개시기 등 대북정책 조율차 방미</p>	<p>김정일 위원장, 시리아 독립 56돌 즈음 시리아 대통령에 축전 발송</p> <p>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시장 블라디미르 아나톨리에비치 야코블레프에게 '사회과학원 명예원사' 칭호 수여의식 진행</p> <p>* 만수대의사당</p>	<p>러시아 블라디미르 야코블레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방한(4.16-21)</p> <p>- 이한동 총리 등 정부당국자들에게 방북 결과 등 설명차 방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7		<p>북한 노동당,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 대표단과 「친선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최태복 당중앙위 비서와 나이지리아측 모하메드 이누아 라바나 전국조직비서가 각각 합의서에 서명 	<p>아사히신문, '북·일 적십자 회담 4.29-30 일 베이징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와 재북 일본인 여성들의 고향방문 문제 등 일련의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토론할 것이라고 보도
4.18	<p>통일부, 제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고, 북한에 비료 20만 톤을 지원키로 하였음. - 4.28부터 진행되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키로 의결하였음. <p>이만섭 국회의장, 남북 국회회담 개최 촉구 *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 연합」총회 2차 본회의</p>	<p>중방, 「평양선언」 발표 10돌 기념 평양시 군중집회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문화궁전에서 최태복(기념보고)·정하철·김기남 등 참가하에 진행 <p>중방, '미국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놀음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제하의 시사논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의지가 있다면 최근 남북 사이에 가속화되고 있는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F-15K 전투기 강매와 같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p>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8차 유엔인권위 인회 연설 - 스트로 외무장관은 인권문제로 세계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과 이라크를 지목 <p>중국 「국제방송」, '리핑 중국 전인대회 상무위원장, 남북대화 재개 환영 표명' 제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핑위원장은 충칭에서 개최된 평화를 위한 아시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8	<p>- 특사방북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이 같은 뜻을 북한대표 단장으로 참석한 김수학 최고인민회의 대의인에게 전달</p>	<p>「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의 위안부 시설과 운영 등에 관한 진상 조사보고서」 발표</p> <p>- 일본군 제19사단은 1930년대 중반, 현재의 청진시 라남구역 풍곡동 18인민반부터 22인민반까지에 장교 및 병사용 위안소와 진료소를 갖춘 위안소부락을 조성했음.</p>	<p>의연합회(AAPP)에 참석한 북한 김수학 보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환영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p> <p>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북·일 대화 재개 조건 관련 언급</p> <p>* 참의원 외무국방위원회 출석답변</p> <p>- 남북자 문제 선결 없이는 북·일 대화재개는 불가하다고 발언</p>
4.19	<p>「한적」서영훈 총재, 「북적」장재언 위원장에게 대북 비료지원 계획 통보</p> <p>* 판문점 연락관 전화통화</p> <p>- 올해 지원할 비료 20만톤은 요소비료와 복합비료를 중심으로 보낼 것이며, 4월 하순께 전달을 시작하여 가급적 조기에 완료할 것임.</p> <p>전국농민회총연맹 경상북도 연맹, 대북지원을 통한 쌀과잉 문제 해결 주장</p>	<p>중방, 「범민련」북측본부-공동사무국간 협의 관련 보도</p> <p>- 「6.15공동선언」 발표 2돌 즈음하여 연초 공동의장단회의에서의 결의한 사항들의 실천대책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고 보도</p> <p>김정일 위원장, 새로 발굴된 송암동굴 참관</p> <p>*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등 동행</p> <p>평방, 「4.19 봉기자 들의 염원</p>	<p>리처드 바우처 미국 무부 대변인, 북한의 대외교류 확대 관련 평가</p> <p>* 정례 브리핑</p> <p>- 미국은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것과 외부 세계로부터 배우는 것을 항상 지지해왔으며 그것은 대체로 좋은 일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9	<p>- 대북 쌀지원 방안은 적정 재고량 초과분 300만석을 시장에서 완전 격리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p> <p>정세현 통일부장관, 종교계 인사 초청 대북정책 설명회 개최 *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p> <p>- 박종화목사 등 개신교 KNCC측 인사 7명을 초청, 남북관계현황을 설명하고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p>	<p>은 실현되어야 한다, 제하의 노동신문 내용 보도</p> <p>-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반미 자주화 투쟁의 기치 아래 연대하여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 및 남한의 사대매국·반통일 보수세력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해야함.</p>	
4.20	<p>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관련 제2차 남북실무협의 * 판문점 연락관 접촉</p> <p>-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생중계와 이에 따른 중계차·발전기·위성이동중계기(SNG) 반입 문제 등 협의</p>	<p>평방, 「청년들은 반미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제하로 반미투쟁 선동</p> <p>- 조국통일의 기본 장애물은 미제라고 전제하고 조국통일을 승고한 임무로 자각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응당 반미투쟁의 선봉에서야 함.</p> <p>북한 노동당, 덴마크 공산당 대표단과 공동성명 채택</p> <p>- 공동성명에서 덴마크 공산당은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려는데 미국은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0		<p>중통 논평, 미국의 분별있는 행동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무성 차관보 울프가 16일 기자회견에서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실제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미사일을 파는 우려 대상국'으로 몰아 또다시 '악의 축'에 걸어 놓았음. - 미국은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의지를 똑바로 알고 분별 있게 처신 하여야 함. 	
4.21		<p>노동신문, 미국의 양면주의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조선의 '미사일 수출'을 무력으로 저지시켰다, 미국에서의 동시테러 이후 국제적인 반테러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조선이 '정보제공, 원조물자수송, 의료지원 등 모든 면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말함. -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양면주의에 격분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도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2	<p>국방부 대변인, 군사실무회담 관련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는 4.19 군사정전위원회 라인을 통해 4.23 군사실무회담을 개최, 경의선 연결공사 상반기 중 착공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유보입장을 표명했음. <p>통일부, 2002년도 업무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청와대에서 2002년 「남북 화해협력 중점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 	<p>중방,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제하로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혁명이 자랑찬 승리의 역사로 빛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선군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영장복을 대를 이어 누리고 있기 때문임. <p>중방, '극도에 이른 제침 전쟁광증' 제하로 일본의 유사시법제 관련 법안 국회 상정 비난 시사논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추진 중인 유사시법제 관련 3개 법안은 '무력공격사태 법안'과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임. - 이들 법안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하면서 일본 전역에 전시체제를 수립하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쟁법안들임. <p>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네팔 국회대표단과 회담</p>	<p>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식량 사정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활동 보고서 16호 - 이미 재고가 고갈된 설탕과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곡물 지원이 시급함. - 곡물의 경우 오는 7월 재고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지경임. <p>이타르 타스 통신,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대리인 방북계획(4.22~27)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기간중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북한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특히 나진 정유공장 근대화 및 에너지·통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2	<p>합동참모본부, 북한 경비정 서해 해상 NLL 침범 발표</p> <p>- 북한경비정 2척이 4.22 오후 5시5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10.6마일 해상에서 NLL을 1.5마일까지 침범, 남측 해상을 40분간 기동하다 북으로 돌아감.</p>		
4.23	<p>대북지원 비료 수송 개시</p> <p>- 남북간 합의된 운송계획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비료 20만 중 첫 항차분 비료1만5천 수송 개시</p>	<p>김정일 위원장,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가무단 지휘성원들과 주요 배우들 접견 및 공연 관람</p> <p>* 조명록, 김일철,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등 동행</p> <p>외무성 대변인,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관련 규탄담화 발표</p> <p>-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시아인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일본이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서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외무성 대변인이 말함.</p> <p>노동당 대표단, 말레이시아 통일당 및 스웨덴 공산당 혁명가 대표단과 평양에서 각각 회담 개최</p>	<p>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 핵확산 위협의 해결책은 포용정책주장</p> <p>* 상원 외교위 청문회</p> <p>- 러시아의 핵기술 이전과 북한 등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로 하여금 상호주의에 입각해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포용정책에 나서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4	<p>경수로 작업장 투입 예정 우즈베키스탄 인력 양양공 항으로 첫 입국</p> <p>-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타슈켄트항공 IL62M편으 로 우즈베키스탄인 164명 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 국, 속초항으로 이동한 뒤 한겨레호편으로 북한 경수로 작업장에 투입됐 다고 설명</p>	<p>김정일 위원장, 러시아연방 원 동연방구 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콘스탄틴 보리소비치 플리콥 스키」 일행 접견</p> <p>시사논평, '해외침략의 합법화 를 정당화하려는 궤변' 제하로 일본 경제재정정책담당상의 발 언 비난</p> <p>-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위한 헌법개정 필요 주장은 범 죄적인 헌법개정 책동을 합리화하고 해외침략의 합 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음.</p> <p>중통 논평, 미국전투기 도입결 정 철회 촉구</p> <p>- 남한 국방부가 19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미국 보잉회 사의 F-15K기를 확정하였 다고 함.</p> <p>-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 매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과 정을 지연시키고 아시아태평 양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p> <p>-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정 세를 긴장시키는 강압적인 전투기판매책동을 당장 중</p>	<p>일본 니혼 겐자이 신 문, '미국 의회 의원 단, 5월 하순 방북 추 진' 보도</p> <p>- 이번 방북계획은 허 위 군사위원회 상임 위원인 공화당 소속 의 커트 웬던 의원 주도로, 공화·민주 양당의원 각각 5명 씩 참여할 예정임.</p> <p>콜린 파월 미국무장 관, 미·북 대화 재개 여부 관련 언급 * 상원 외교활동 세 출위원회</p> <p>- 미국은 그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겠 지만 아직 예정된 회담일정은 잡혀 있지 않으며, 북한 의 태도변화를 진 지하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p> <p>리처드 마이어스 미 국 합참의장, 미국 의 대북핵심 관심사 언급 * 외신기자회견</p> <p>- 북한 미사일 위협 과 기술 수출, 생 화학 · 핵무기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5	<p>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관련 방송장비 및 통신지원 장비 등 북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장비 탑재 차량 5대와 통신지원 설비 8t 트럭 8대 분량 <p>「한적」,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상봉 계획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특보 기자 브리핑 - 남북적십자 협의에 의해 4.28부터 남측 이산가족 대표단 1백명이 북측가족 1백86명을 2박3일 동안 상봉한 뒤, 5.1부터는 남측 가족 4백70명이 북측 이산가족 대표단 1백명과 만날 예정이다. 	<p>지하여야 하며 남한국방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함.</p> <p>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 노동적위대 열병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등 북한의 당·군·정 고위 관계자와 러시아의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극동지역 전권대표 등 참석 <p>「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남 등 참가하에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p>포함한 대량살상 무기, 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된 대규모 상비군 등이 미국의 대북 핵심 관심사임.</p> <p>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미·북 대화 신중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총연맹 주최 포럼 강연 -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임. <p>러시아 소리방송,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전권대표 방북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방문시 협상 기본의제중 하나가 러시아 원동지역과 북한 사이의 지역적 협력강화였으며 그 일환으로써 러·북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문가그룹을 조직하기로 하었다고 보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6	<p>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민 방북 추진 계획 발표</p> <p>* 기자회견</p> <p>-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4.25 초청장을 보내움에 따라 감귤·당근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개인과 단체, 각계 대표 등 250명을 북한 방문단으로 선정하고 북측과 구체적인 방북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함.</p>	<p>김정일 위원장,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p> <p>* 김영남, 조명록,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등 동행</p>	<p>빅토리아노 레카로스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 탈북자 마닐라 경유 한국행 허용 발표</p> <p>- 중국주재 독일대사관에 진입,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가 한국행을 위해 마닐라를 경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음.</p>
4.27		<p>조선노동당-브라질, 브라질 10월 8일 혁명운동관련 공동성명 발표</p> <p>- 조선노동당은 브라질 10월 8일혁명운동이 반제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대열을 확대강화하고 민주주의적인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통일전선에 묶어 세워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성과 사회적정의 그리고 나라의 민주화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음.</p>	<p>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백남순 북한 외무상 러시아 공식 방문 계획 발표</p> <p>- 북한 외무상 백남순이 5.19~22간 러시아를 방문, 한반도와 남북대화 진전 상황, 북-러간 에너지 분야 협력, TSR과 TKR 연결 사업을 포함한 경제협력 가능성을 중점 협의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8	<p>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참가 남측 방문단, 금강산 향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7 속초에 집결, 하룻밤을 묵은 상봉단은 4.28 대형버스 6대 편으로 숙소를 출발, 속초항 현대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을 향해 출발 	<p>평방,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할 통일이정표' 제하로 6.15 공동선언 철저히 이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북남 공동선언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4.29	<p>베이징 한국대사관 진입 시도 탈북자 3명, 중국 경찰에 체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은 4.29 오전 11시 쯤 베이징 동3환 순환도로변의 한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현장에서 중국무장경찰대에 체포 <p>한국자유총연맹, 주적 삭제 논의 관련 성명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신뢰구축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적개념 삭제 또는 대체는 극도의 안보혼란이 예상되므로 지금 논의나 검토는 안된다고 발표 	<p>노동신문 논평, '전쟁법 조작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제하로 일본 국회의 유사시 관련법인심의 채택 움직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군사침략에 대비한 법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전쟁정책을 전면내세우는 위험한 전쟁국가로 가는 것을 의미함. - 일본 정부가 유사시 법제 관련 법안 3건을 내각 회의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아 국회 심의에 넘긴 사실은 재침 전쟁을 위한 법체제 완비임. <p>'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 평양 룡라도 5.1 경기장에서 개막</p>	<p>캄보디아 훈센 총리, 햇볕정책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 예방시 -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밝힘. <p>미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김정일의 클린턴 전미대통령 방북 초청 여부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정례 브리핑 - 이 시점에 우리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아무 것도 없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30	<p>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금강산 이산상봉행사 사흘째, 남측이산가족 99명은 재북가족을 작별상봉후 온정각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께 설봉호편으로 장전항을 떠나 오후 5시32분께 속초항으로 귀환 	<p>노동신문 논평, '용납 못할 반민족적인 배신행위'제하로 최성홍 외교부 장관 방미시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가 미국상전을 찾아가 북남관계의 진전이 마치고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 듯이 허튼 수작질을 한 것은 민족반역행위인 동시에 대화상대방인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전행위임. - 남한이 진실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그 앞길에 훼방을 놓는 반통일대결분자인 최성홍을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리에서 당장 떼버리는 책임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6.15공동선언이 귀중한가, 민족반역자가 필요한가, 남조선당국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함. - 온 거래는 남측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 볼 것임. <p>노동신문, 일본총리의 <아스쿠니신사> 참배 비난</p>	<p>UN, 북한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심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스 총장과 유엔 아동기금(UNICEF) 공동성명 - 북한 정부 통계를 인용, 5세 이하 북한 어린이의 45%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취학연령 아동 400만명이 제대로 먹지 못함은 물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라고 발표 <p>북·일 적십자사회당 공동보도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과 북한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상호 소재 파악 및 통보, 재북 일본인 처들의 일시 고향방문 등 4개항에 합의 <p>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미-북대화 재개 관련 대북성명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스구니신사'는 군국주의 우두머리 도조를 비롯한 일제특급전범자들의 망령이 있는 침략과 전쟁의 상징, 군국주의 정신적 기둥임. - 일본당국자들이 죄악에 찬 과거를 얼마나 못잊어 하며 그를 재현하려고 몸살을 앓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음. - 일본당국자들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뼈아픈 상처와 대일원한의 감정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건드리는 놀음을 그만 두어야 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상주대표부를 통해 북-미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국무부에 통보해 왔음. - 미국은 앞으로 며칠 안에 그 시기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토록 노력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제4차 금강산 이산가족 남상봉단 2진 466명,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 가족 100명과 단체상봉 및 만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상봉단은 5.1 오후 3시15분께 장전항 도착, 오후 5시 온정각 휴게소에서 2시간 동안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북한 가족과 만찬을 함께 하는 등 모두 4시간 가량 반세기만에 혈육의 정을 확인함. <p>김대중 대통령,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재연결 공사는 남북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잭 스미스 미국 GM사 회장 면담 <p>외교통상부 신정승 대변인, 정부 북-미대화 재개 환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북-미간 상호관심사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 	<p>평방, 남북이산가족들, 금강산에서 단체상봉 진행사실 보도</p> <p>외무성 대변인,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의 평양초청설(영국 로이터통신 보도)과 관련 중통기자 질문에 '초청한 바 없다'고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에 대한 초청설을 내둘리는 것은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운운하는 일부 보도업체들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 <p>김정일, 해군사령부 시찰 및 동사령부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록,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등 동행 	<p>교도통신, 일 해상보안청, 2001년 말 동중국해 침몰 북공작선 추정 괴선박에 대한 잠수 조사 착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0일 밤 민간 회사 선박 2척이 중국 EEZ내의 침몰 현장에 도착, 5.1일 아침부터 선박을 고정시키고 준비 작업에 들어감. <p>리처드 바우처 미국 무부 대변인, 미-북간 특사 방북 실무 접촉 착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특사의 방북시기와 일정 등 다시 북한측과 접촉 중이며, 북한측 대화재개 수용 입장을 환영함. <p>오시마 겐조 UN 인도문제담당 사무차장 겸 비상구호 조정관, 약 100만명에 달하는 북한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식량배급활동 중단 처지라고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p>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남측상봉단 금강산에서 이틀째 일정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상봉단 466명은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개별상봉, 공동중식후 삼일포 공동참관 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7시간 동안 상봉 <p>건설교통부 박동화 차관보,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금강산댐 안전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요청 및 협상 결렬 대비 대응방안 마련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차관보는 '협상이 잘 돼 남북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 화천댐을 비워놓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 	<p>평방, 노동신문 논평, '비열하고 추악한 사대굴종행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방미시 발언 관련 비난 <p>민주조선 논평, 미국의 핵탄두 탑재미사일 연구개발에 강경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미국은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 데서 조선을 포함한 7개 나라들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고 보도 -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물론 핵, 미사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까지도 이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찍찍어 놓고 그를 실천에 옮기려고 책동하고 있는 때 그에 따른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음. - 만일 미국이 신성한 공화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그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 	<p>글로벌펀드(세계기금), 북 결핵퇴치 사업추진 위해 약500만\$ 지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말 미뉴욕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서 2002년도에 120만\$ 지원을 포함해 4년에 걸쳐 모두 48\$ 지원키로 결정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3	<p>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6.15 남북 공동선언 2주년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5.13-1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비롯, 7대 종단과 통일연대 관계자 10여명으로 대표단 구성할 계획임. <p>5.10-15까지 북한을 방문할 제주도민 북한방문자 명단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강영석 이사장을 대표로 하는 방북 제주도민 대표단 255명의 명단을 확정, 중국 베이징에 있는 민족화해협력의회를 통해 북한측에 보냄. 	<p>김일성 노작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 발표 30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섭(보고)등 참가하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답에서 진행 <p>북한-베트남간 회담, 5.3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 북측(김영남, 백남순, 이광근, 김영일 등), 베트남측(쩨쯔르엉, 웬지니엔 등)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제공에 관한 조약 △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정 △ 해상수송에 관한 협정 △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무역협정 △ 양국 무역성사이의 '맞바꿈 무역'(바터무역)에 관한 합의서 등 조인 <p>북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제4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과 금강산 입산료 무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에는 “금강산 입산료가 논의된 바도 없었다”고 강조 	<p>유엔식량계획(WFP), 북한내 노인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식량 제공 중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 - 크리스티안 버티옴 WFP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가 고아와 유아, 임산부, 산모 등에게 중단없이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 <p>석유수출국기구(OPEC)기금 Y.세이드 압둘라이 사무총장, 평양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둘라이 사무총장과 북 내각 조창덕 부총리는 5.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농업성 강경옥 부상, 재정성 장성일 부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4	<p>국가정보원, 지난 4월 중베 이징의 미·독대사관으로 들어가 한국 망명을 요청했던 김은우형제 등 3명 4.28일 입국 확인</p> <p>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워싱턴-볼티모어 본부, 5월 중으로 북한에 50만달러 상당 사과요목과 양말 지원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에 보내지는 사과요목과 양말은 미 국제구호단체 머시코 인터내셔널(MCI)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도. <p>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했던 이웅평 공군대령 별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이대령은 지난 83년 2월 북한공군 상위로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 공군 소령에 임관한 뒤 95년 대령으로 진급했으며 정보 및 안보교육 분야에서 활동함 <p>합동참모본부,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서북방 4.8km 해상에서 NLL 침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들어 북 경비정이 NLL을 넘은 것은 6번째임. 	<p>김정일, 베트남 주식(편 득 르영)과 담화</p> <p>「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총리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내는 항의편지’, ‘공동성명’ 등 발표 - ▲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사죄 및 배상 ▲ 정신대 운영 등 반인륜적 범죄의 조사와 관련자 처벌 ▲ 역사왜곡과 군국화 책동 중단 등 3개항 요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4	<p>건교부 「금강산담 대책반」 (가칭)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창세 수자원국장을 팀장으로 수자원공사 사장, 학계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가, 공사진행 상황과 금강산담 붕괴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키로 함. 		
5. 5	<p>한국미래연합 박근혜 창당 준비위원장, 5.11-14일까지 평양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민족화해협의회가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진을 초청, 이사 자격으로 프랑스인 장자크 그로아 재단이사장 등 3명과 함께 방문함. <p>한국관광공사 최근 현대아산에 65억원 추가 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특사 방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 당초 투입키로 했던 시점보다 한달 가량 늦게 4.30일 현대아산측에 65억원을 송금함. <p>합동참모본부, 5.4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서북방 4.8 km 해상 NLL 침범 발표</p>	<p>「6.15북남공동선언 이행에 조국통일이 있다」 제하로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왕래·접촉·대화·연대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p>	<p>일 2002년판 방위백서 초안 언론에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은 현재의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 - ‘유사법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다’고 기술 <p>일 마이니치, 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7-8월중 핵심측근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한국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부장은 김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의 남편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들어 북 경비정이 NLL을 넘은 것은 6번째임. 		
5. 6	<p>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측에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를 비롯한 특사방북시 합의사항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우리측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간 제반 합의사항 이행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함. 	<p>「북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제2차 회의가 남측 당국자의 무분별한 망언과 그를 묵인하는 남측 당국에 있음을 밝히며, 계속 남측 당국의 책임적인 조치를 지켜볼 것임. <p>제5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광근 무역상, 김정기 국제무역촉진위원장 등 참가하에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혁신관에서 개관식 진행 - 15개 국가에서 16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 <p>「감출 수 없는 살인마의 정체」제하로 외국인기자의 증언 인용,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양민 학살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감옥,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 충청남도 조치원, 전라북도 이리역에서의 인민대학살 만행 등 미군에 학살당한 남한 주민 수가 100만여명에 달한다고 주장 	<p>웬디 셔먼 전미대북한 정책 조정관, 5.23-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5.21일 방한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먼 전조정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남대북한대학원, 미조지타운대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임. <p>자칭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겸 베이징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 평양 방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6		<p>홍성남, OPEC 기금 총국장 만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남내각총리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석유수출국가기구 기금 총국장 와이. 쎬이드 아브 둘라이일행을 만남. - 여기에는 농업성 강경옥부상, 재정성 장성일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함. <p>김영남, 국제축구연맹 위원장 만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세프 에쓰. 블라테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축구연맹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함. - 여기에는 조선축구협회 위원장인 리광근무역상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체육지도위원회 장웅 부위원장이 참가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재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최성홍 외무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5.7일로 예정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회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에 대해 그 같은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한다"고 발표 <p>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 무기개발 중이며, 수주 내에 치명적인 무기를 배치할 능력과 수단 보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리티지 재단 초청 강연 - 볼튼 차관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만약 불량국가들이 이를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은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경고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김순권 경북대교수, 1주일간의 일정으로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교수는 북전역 100개 협동농장에 슈퍼옥수수 배양 종자를 파종하고, 북농업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 슈퍼옥수수 연구·개발 계획 및 옥수수 정상 생육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p>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북한 주적' 논란과 관련, '군과 국방관계자, 국방장관이 사용하는 용어와 정치지도자,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p> <p>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회의」 무산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남북간 중대한 약속을 돌연 파기한 것은 남북 화해협력에 관심없음을 입증하는 것 - 북한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임동원특보가 견제하는 한 대북정책은 더욱 왜곡될 것인바, 임특보의 사퇴와 식량 및 비료 등의 대북지원 재검토 촉구 	<p>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안변 청년발전소 임제(※금강산댐) 붕괴설 관련 규탄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 오도된 여론을 내돌리며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외부세력의 조종에 따라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돌려세우려는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p>KEDO 대표단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이의 경수로대상제공협정 이행을 위한 전문가협상에 참가할 케도대표단이 비행기로 도착 <p>노동신문, 미국의 핵장착요격 미사일개발에 대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핵탄두를 장착한 요격미사일의 사용가능성을 운운하는 등 첨단군사장비개발과 연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음. -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사고관점을 시정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보아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통일부 대변인,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사업 변경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금강산 현지시설(사업자 숙소 일부, 구동행검사소)을 개·보수하여 관광객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번지점프대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위락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아산이 제출한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함. <p>북한이탈주민후원회, 5.10 영남대에서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달현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장, 백승대 영남대 교수, 최보선 통일부 정착지원 과장, 김희진 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요셉 국장,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윤여상 박사, 이기영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참석 	<p>시사논평, '허황한 날조극' 제하로 금강산댐 위험설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허위 날조로서 남북관계를 4.5공동보도문 발표이전으로 돌리려는 도발적 행위임. <p>노동신문 논평, '우리도 대응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제하로 미 국방장관의 국방과학위에 대한 핵탄두 장착 요격미사일 연구 지시 등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장착 요격미사일을 비롯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려는 미 호전세력들의 시도는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임 	<p>독 하원의원 방북단 단장 하르트무트 코슈크(기사당)의원, 독일은 북에 지원한 쇠고기가 공정한 감시 절차에 의해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판단에 따라 5월중 세번째 쇠고기 지원을 시행키로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 - 쇠고기 분배 과정을 참관한 평양주재 독일대사관과 독일기자단, 국제기아단체 직원들이 대북 지원 쇠고기가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은 사실 확인 <p>석유수출국기구(OPEC)기금 Y.세이드 압둘라이 사무총장, 북-OPEC기금간 협력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C기금 사무국 통보 - OPEC기금은 북과 동력 즉 전력 문제를 기본적으로 토의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북한-러시아, 4.24 「농업 과학분야의 과학 및 기술적 협력에 대한 조약」 체결</p> <p>- 북 농업과학원 대표단 리광수 부원장은 러시아의 겐나디로마넨코 농업과학원 원장과 조약체결</p>
5. 8	<p>한국미래연합 박근혜 창당준비위원장, 방북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증진 방안 북측에 제의 계획</p>	<p>‘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모’ 제하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p> <p>노동신문 논평, ‘북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왜곡행위’ 제하로 금강산댐 붕괴위험설 비난</p> <p>- 남측이 외세(미국)의 각본에 따라 새로운 반공화국 대결소동인 금강산댐 붕괴위험설을 유포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그것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p>	<p>후쿠다 야스오 일관방장관,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해 “국민감정상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 표명</p> <p>* 중의원 유사법제특별위원회 답변</p> <p>-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p> <p>일본 정부, 중국 공안이 선양의 일 총영사관에 허가 없이 진입, 망명요청을 위해 들어온 북한 주민 2명을 끌어낸 데 대해 중국측에 공식 항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8			<p>- 다카하시 구니오 주중 공사는 중국측 대응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며, 이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규정된 공관 불가침 위반이라고 지적</p> <p>천득령 베트남 국가주석, 5월 3일 김영남과의 회동시 북한에 쌀 5천톤 추가 지원 표명</p>
5. 9	<p>장길수(18)의 친척 5명, 종라오닝성 선양시 일 총영사관에 한때 진입했으나, 뒤쫓아온 중 무장 경찰에 체포</p> <p>- 당시 영사관 진입장면을 담은 사진을 판독한 결과, 길수 친척일가족 5명 모두가 한때 라오닝성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 구내로 명백히 진입했던 사실이 확인됨.</p> <p>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p>	<p>평양교예단 요술극장 개관식, 5.8 강능수(문화상) 등 참가 하에 진행</p> <p>- 연건평 1천500여㎡인 요술극장은 300여석의 관람석과 음향실, 조명 조광기실, 분장실 등을 갖추고 있음.</p> <p>분양 보라칫 라오스 총리가 이끄는 라오스 정부대표단, 북한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해 북한을 친선방문할 예정</p> <p>‘안팎의 반통일분자들의 비열한 모략극’ 제하로 금강산담봉괴위협설은 남한의 반통일분자들과 미제가 합작한 모략책동이라고 비난</p>	<p>제6차 한중 외교부-아주국장 회의 개최</p> <p>-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5.8일 발생한 장길수군 친척 5명의 선양 일본 총영사관 진입실패 사건 등 최근 잇따른 탈북자 체포문제에 대해 협의</p> <p>중국 선양시 허핑구의 미 총영사관에 탈북자 1명 진입</p> <p>- 평양 출신의 최광철은 이날 비자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9	<p>5.19 남북 모든 사찰에서 봉독하기로 합의</p> <p>북한민주화네트워크, 「길수군 친척의 일본 총영사관 진입 실패에 대한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길수군 친척 5명의 조속한 석방과 행선지 자유선택권 인정을 중국 정부에 촉구 <p>박상하 2003년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집행위원장, 금년 8월쯤 국제대학스포츠포럼회장과 방북하여 대구U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성공적인 U대회를 개최하고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칼리안 회장이 평양주재 미국사무소에 방북 허용을 요청하는 외교행낭을 전달할 것임. <p>황석영씨와 독 노벨상 수상작가 권터 그라스, 5월 말 방북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외세의 자료에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공동보도문에 따라 진행될 대화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 <p>노동신문 논평, 「제 코나 씻으라」 제하로 미 하원 인권위 '인권상황에 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 사실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것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음흉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그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비난 <p>김정일, 중국공산당 대표단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용순, 강석주, 장성택, 지재룡, 현철해, 박재경 등 배석 <p>북한대표단,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아동문제 관련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기증을 늘리고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는 이 지역에서 아동문제 해결의 근본 조건의 하나라고 강조 	<p>받기 위해 줄서 있던 중국인 30여명의 마지막쯤에 서있다, 갑자기 달려나와 2m 높이의 미 영사관 담장을 넘어 영내로 진입하는 데 성공</p> <p>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헨리J.하이드위원장과 동아시아소위원회 제임스 A.리치위원장 등,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내 탈북자 강제소환 반대 입장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낼 경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처리를 호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0	<p>제주도민 255명, 대한항공 전세기 KE815편을 이용 5.10-15까지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영석 남북협력 제주도 민운동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방북단은 서해 공역을 따라 제주-평양간 직항로로 평양 방문 <p>자유민주민족회의, 탈북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공관을 마다하고 중국주재 외국공관을 통한 탈북자의 망명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탈북 난민대책 수립 요구 	<p>4월5일 3호 및 4호 발전소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 김동화 소속부대 장병들이 지난해 3월 '4월5일 1,2호 발전소'를 완공한 데 이어 '3, 4호 발전소'를 짧은 기간에 건설했다고 보도 <p>노동신문 논평, '반통일 분자들의 고약한 언동' 제하로 남한 일부인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 및 외교통상장관 등 우리 사회 내부의 일부 보수 및 반통일세력들이 경추위 제2차 회의 무산책임의 북측 전가, 안변청년발전소 언제 붕괴설 등을 제기하여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 <p>외무성 대변인, 미'국제종교자유위연례보고서'에서의 북한 종교탄압국 규정 관련 KCNA 기자회견</p> <p>김동화소속부대 장병들, 김일철 등 참가하에 중형발전소3-4호발전소 조업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 김동화 소속부대 (415군부대) 장병들이 지난해 3월 '4월5일 1·2호 발전소'를 완공한 데 이어 	<p>고이지미 준이치로 일총리,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에게 중국 선양 일 영사관 탈북자 진입 관련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외무성 담당자를 중국에 파견해 5명에 대한 인도 협상을 벌이는 한편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0		<p>3호, 4호 발전소를 짧은 기간에 건설했다면서 3·4호 발전소 가동으로 인민군 군인들의 생활을 더 잘 보장하게 됐다고 보도</p>	
5.11	<p>황장엽 전 북 노동당 비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해결 촉구</p> <p>* 탈북자 김용화씨 한국국적 취득 기념 기자회견</p> <p>- “한국민은 이 나라 인권문제의 주인이며 일본국민도 역사·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p> <p>서울과 영호남 6개 대학,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2002 북한동포담요보내기 통일예술한마당」 개최</p> <p>- 계명대,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경희대 등 6개 사립대는 지역 갈등 해소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5.11부터 8.30까지 북한동포에게 내의와 담요를 보내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로 함.</p>	<p>박근혜의원 일행의 평양도착 사실 및 방북동정 보도</p> <p>- 평양도착 및 민족화해협의회 주최 연회, 김용순과의 회담, 홍선옥·강춘금·홍일천등 각계층 여성들과의 상봉,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참관 보도</p>	<p>일본 요미우리 신문, 북한이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보도</p> <p>- 북한이 아리랑 기간에 가정집 개방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일본 관광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6월 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3	<p>용산전쟁기념관과 (주)시공테크, DMZ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용산전쟁기념관서 5.10~10.20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내 철책 통문과 최전방초소(GP), 판문점 등을 실제와 같은 모습을 재현, DMZ을 직접 답사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 	<p>태양절 기념 「전국여맹예술축전」 참가에서 모범을 보인 여성단체들에게 김정일이 보내는 악기 전달모임을 여성회관에서 진행</p> <p>노동신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집권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군국화를 반대하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이는 곧 침략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라고 주장 <p>김정일 위원장, 박근혜 의원 접견 및 만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찬에는 김용순·김기남 당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제1부부장, 임동옥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 <p>노동신문 사실, '인민군대식 정치 사업으로 혁신의 불길을 일으키자' 제하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의 능력 발휘 등 일당 백 강조</p>	<p>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무장경찰의 영사관 진입·탈북자 연행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일본 부영사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연행에 동의한 일본 영사는 중국경찰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주장 <p>WFP, 식량배급 어려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활동보고서 19호에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도적 차원의 식량을 배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p>주북경 캐나다 대사관 대변인, 탈북자 2명 북경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북한의 남녀 한 쌍이 캐나다 대사관으로 들어와 제3국행을 요구해 왔다고 발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3			<p>로이터 통신, 지난 3월 탈북자의 주중 스페인대사관 진입을 막후에서 연출한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 박사가 월드컵기간중 수천명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p>
5.14	<p>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5.11~14)한 박근혜 의원(한국미래연합 창당 준비위원장), 판문점 경유 귀환 *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3 저녁 7시 김위원장이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방문, 1시간의 단독 면담에 이어 2시간동안 만찬 진행 - 김정일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남한을 답방할 의사가 있으며 - 동해안 철도 연결을 한국정부와 합의하면 육로를 통해 오갈 수 있는 적당한 곳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p>방북 라오스 대표단 '아리랑' 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방문중인 분양 보라치 라오스 총리가 경기장에서 북한 외무성 김영일 부상등과 아리랑 관람했다고 보도 <p>북-말련,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일 리강호 북한 과학원 원장과 로우 히잉 딩 말레이시아 과학기술 및 환경부 장관이 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에 서명 <p>백남순 외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방문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p> <p>박근혜의원 일행, 왕건왕릉·성균관·선죽교 등 유적 참관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4	<p>- 금강산담 공동조사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러시아 및 유럽국가와의 실무협의 설치제외에 대해서도 약속했다고 언급</p> <p>백남순 외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방문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p> <p>한국은행, 북한경제 3년째 성장 지속 발표</p> <p>- 2001년 북한 국내총생산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는 곡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8.2% 늘어나고 제조업 생산도 3.5% 성장한데 힘입어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p>	<p>-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의하여 평양을 방문</p> <p>-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 위원장, 관계자들이 숙소에서 박의원 일행을 전송</p> <p>시사논평,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 제하로 육·해·공군의 합동상륙작전 등을 비난</p> <p>- 이달 들어 남조선군이 벌인 군사연습들은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고 있는 북남관계를 격화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p> <p>EU와의 관계개선 설정 1돌 즈음 '지역적 발전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유럽동맹' 제하 보도</p> <p>- 유럽동맹은 미국의 일극세계화 책동을 반대배격하고 국제관계의 다각적인 발전과 다극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p> <p>과학원 부원장 박승채, 방북 중인 중국 과학기술대표단(단장: 부부장 오충택)과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8차 회의 의정서」 조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5	<p>통일부 대변인, 2002년 1~4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교역액은 129,987천 달러로 전년동기 107,076천 달러 대비 21.4% 증가 - 거래성 교역은 79,486천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2%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61.1% 차지 - 비거래성 교역은 50,501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0.6%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38.9% 차지 <p>정세현 통일부장관, 북한에 300억~400억원 어치의 침목, 레일 등 자재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p> <p>*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p> <p>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제주도민 253명 귀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민 운동본부와 민화협간 체결한 제주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01.11)에 의거 방북 	<p>시사논평,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 제하로 일본이 유사시법제 심의를 계기로 헌법수정과 전시체제 수립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p> <p>제7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2.21~5.15) 3대혁명전시관에서 폐막</p> <p>중통 논평, 주적론 철회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적개념을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사활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정치논리에 눌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계속 들고 나 오고 있음. - 어떤 경우에도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한 주적론은 허용될 수 없음. - 동족을 주적으로 몰아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극히 위험한 반민족행위임. - 동족과의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6.15 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 	<p>교도통신, 주중일본 대사 북한 탈출 주민 쫓아라고 지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미 고로시게 주중 일본대사가 선양 총영사관의 북한 주민 망명 좌절 사건이 일어난 8일 오전 대사관 직원들에게 “북한 탈출 주민이 대사관에 들어올 경우, 수상한 사람으로 간주해 쫓아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 <p>북한 백남순 외무상, 북미대화의 필요성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협상은 현 시기 양국관계향상에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북미 대화에 필요한 조건과 분위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5	<p>전국 농민회 총연맹, 오전 인천항에서 「대북 쌀300만석 조기지원 촉구 통일 쌀 출항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농은 '쌀 한되 북한 보내기 운동'을 통해 전국 농민들로부터 모은 쌀 160톤을 이날 선박편으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 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전달할 예정 <p>중국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송용범·차광복·최광철씨 등 탈북자 3명, 14일 오후 싱가포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p> <p>철도청, 지난 한달동안 1만4천여명이 경의선 도라산역을 찾았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달 11일 개통된 도라산역은 하루 두차례 열차가 운행하며 열차 수용인원은 300명 <p>「한국미술협회」와 국제봉사조직인 '평화를 위한 봉사', 오후 세종문화회관과 조달청 조달문화관에서 「월드컵 성공기원남북평화미술축전」 개막</p>	<p>민주조선,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총리의 야스구니 신사 참배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던지 간에 그 범죄적 성격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음. - 일본총리가 야스구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세계평화를 염원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또 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범죄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 - 해외침략의 길에 나섰다가 패망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일본이 또다시 아시아 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그것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짓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두는 바임. <p>노동신문, 미국강경보수세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미군부 호전계층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하며 미사일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사일개발과 미사일기술 수출이 태평양지역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5	<p>- 북한에서 김성민 최하택 등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40여명, 국내에서는 이종무, 김홍수 등 유명작가 80여명 등 남북작가 120여명의 작품 전시</p> <p>* 세종문화회관 : 북한조선화와 국내 작가들의 작품</p> <p>* 조달문화관 : 북한자수화와 조선화 전시</p> <p>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채택</p>	<p>아니라 세계각지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음.</p> <p>-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방증상과 압살정책에 계속 매여 달린다면 그것은 저들의 침략성, 호전성만 더욱 드러내고 고립과 파멸을 다그치는 것으로 될 것임.</p>	
5.16	<p>시민단체, 월드컵중 기획망명 중단 입장 전달</p> <p>-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의 이서대표 등 관계자들, 외통부를 방해 문해 월드컵 기간 중 기획망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전달</p> <p>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예약을 연간단위로 접수하는 '연간 예약 시스템' 운영 발표</p> <p>- 정부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발표이후 관광신청</p>	<p>시사논평, '주적론은 대결론, 전쟁론이다' 제하로 국방부의 「2002 국방백서」에서의 주적론 명기부 관련 비난</p> <p>기자 대담,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왜곡한 역사날조행위' 제하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조치 비난</p> <p>김영남,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 인민평화군축협회대표단 (단장: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과 담화</p> <p>시사논평, '조선반도문제를 똑</p>	<p>탈북자, 김정일 지시로 마약밀수 언급</p> <p>- 북한 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윤성수씨,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헤로인과 히로뽕을 매달 1톤 가량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p> <p>전 일본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중국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일어난 북한주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6	<p>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일반 및 관광비 보조를 받는 관광객에게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예약시스템과 관광객 대상자별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p> <p>‘조국통일기도동지회’ 소속 교인 637명, 교계관계자들과 「조국평화통일기원 금강산 기도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17일 남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설교 - 북남의 그리스도인이 합심해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예리코성이 무너지듯 38선이 무너질 것 	<p>바로 보고 대하여야 한다’ 제하로 부시대통령 등 일부 강경보수파들의 ‘대북 독선주의와 강권움직임’ 등을 비난</p>	<p>망명좌절사건에 대한 일본 총영사관측의 태도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뷰 포인터와의 인터뷰 * 일본의 은퇴언론인으로 구성된 일·중 국교 정상화 30주년 보도대표단과의 회견
5.17	<p>5.11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했던 20대 탈북자 부부, 싱가포르를 거쳐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p> <p>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 1180만 서명전달」 1주년 기념식을 갖고 탈북자 문</p>	<p>‘위인의 품속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연주단’ 제하로 만수대예술단 선전 및 남한 주민들의 관람 선동</p> <p>북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금강산 실무접촉 무산 규탄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4-15 개최될 예정이었던 실무접촉이 무산된 것이 북 	<p>교도통신,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안할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가 중국의 정책은 중국내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며,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지 않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7	<p>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언급</p> <p>*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 1180만 서명 전달' 1주년 기념식 토론회</p> <p>- 민간단체를 중심인 탈북자 보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p> <p>독일인 노르베르트 폴러첸 박사, 월드컵 기간에 탈북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등 탈북자 문제 제기</p>	<p>측의 초청장 미발송에 따른 것이라는 남측의 보도와 관련, 그 책임은 남측당국에 있으며 이러한 '반통일적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p> <p>중방 대담, '근대역사를 왜곡한 날조행위' 제하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검증 통과 비난</p>	
5.18		<p>김정일, 5.18~19 제858비행군부대 시찰 및 태천3호 청년발전소·구성공작 기계공작·구성닭공장 현지 지도</p> <p>조평통 대변인, 남한의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위'가 반미 친북세력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규탄 담화 발표</p> <p>- 지난 2.28 남한의 광복회 등에서 친일세력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반미 친북세력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민족의 화합과 단합, 자주적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p>	<p>조선신보, 세계관광기구와 북한이 칠보산 일대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고 보도</p> <p>- 방북중인 세계관광기구 대표단과 북한이 칠보산 일대 관광지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고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8		<p>노동신문 논평, '노골적인 재침기도' 제하로 일본의 유사시 관련법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해외 침략 합법화 기도라고 비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프란시스코 프랜지 알리 세계관광기구(WTO) 사무총장과 환담</p> <p>시사논평, 금강산댐 위험설 및 금강산 입산료 등 남한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p>	
5.19	<p>경수로사업관련 북한 선덕공항과 남한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남북 직항공로 개설을 협의하기 위한 북한 시찰단 10명,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p> <p>- 경수로사업과 항공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북한 시찰단은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남측 양양공항과 양양공항의 기상악화시 이용되는 김해공항, 경북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등을 둘러본 뒤 24일 출국 예정</p>	<p>백남순외무상, 김정일 서울 방문 용의있음을 언급</p> <p>* 평양에서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p> <p>- 백남순외무상,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p>	<p>탈북자 돌보는 선교사 등 14명 중국 공안에 억류되었다고 보도</p> <p>- '피랍·탈북자 인권 시민연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돌보던 미국 시민권자인 최요셉 선교사 등 14명의 탈북자가 9일 중국 공안에 체포돼 억류되었다고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0	<p>북한 시찰단, 양양 공항청사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사업관련 자재수송을 위한 직항로 개설을 위해 방한한 북한 시찰단, KEDO관련자들과 양양 공항청사 시찰 <p>김성훈, 북한 농기계수리센터 준공식 참가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지원하는 북한 농기계수리센터 준공식 참가를 위해 방북 	<p>시사논평, 북한을 종교탄압국으로 지정한 미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와 기만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 제하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탄압국으로 지정한 것을 비난 <p>‘현지지도로 빛내이신 불멸의 노정’제하로 김일성이 “54차 685일간에 연 87개국 522,060 km를 방문하였다고 보도</p> <p>민주여성동맹대표단 및 평양윤이상관현악단, 중국 방문차 각각 평양 출발</p>	<p>북한 백남순 외무상, 북한의 외교장관으로는 15년만에 러시아 방문</p> <p>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도 토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p> <p>중국 첸치천 외교담당 부총리, 중국정부의 정책은 탈북자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p>
5.21	<p>대한적십자사, 비료 북송 계획(21~25항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은 서영훈 총재 명의 로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에게 21~25항차 대북지원 비료 수송계획 통보 <p>* 5.21 현재 수송이 진행 중인 13항차를 제외하고 14항차까지 대북수송이 완료돼 비료 10만7천t이 북측에 전달</p>	<p>노동신문 논평, ‘가소롭게 놀지말라’ 제하로 최근 미국의 대북한 인권·종교문제 거론과 관련 미국은 인권유린 왕국 등으로 비난</p>	<p>미국,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7개국 테러지원국 재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그룹에 대한 무기제공, 테러와의 전쟁 동참 미흡, 미국·한국의 대화 촉구에 대한 수동적 자세,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일본 적군파에 대한 피난처제공 등 5가지 이유를 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1		<p>노동신문 사설, '과학발전은 사회주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제하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과학기술 발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을 국력의 기초로 사회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간주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선행시켜 나가야 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 <p>북한 조선국가관광총국, 일본에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dprknta.com)를 통해 대규모 집단체조인 '아리랑'의 공연상황 사진 공개</p> <p>시사논평, 「파쇼전시체제를 되살리는 일본 반동들」 제하로 일본의 유사시법제 관련 법안 국회심의 비난</p> <p>방려중인 백남순외무상과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상,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통해 「2002-2004 교류계획서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과 북·미간 관계 개선,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연결,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p>시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테러리즘과 싸우는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며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테러전쟁에 협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 <p>러시아 외무부, 백남순 외무상과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상황과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하고 양국간 경제, 무역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p> <p>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송사 아르테 TV, 한반도 분단상황을 집중조명하는 다큐멘터리 3부작 방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아침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다'라는 큰 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1		방안 논의	목 아래 '김대중과 햇볕정책', '평양냉면' 등 3편을 130분 동안 방영
5.22	<p>북한이 탈주민 후원회, 5.22~25, 6.10~13 두차례 통일교육원에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채용정보회사인 리크루트 등의 지원으로 「탈북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p> <p>하나로통신,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공동제작한 3D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의 방영권 및 상품화 권리를 해외에 수출하고 이 작품의 등장 캐릭터를 이용한 팬시 상품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지역의 캐릭터 상품화 전문업체인 홍콩의 미디어링크사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에 '게으른 고양이 덩가'에 대한 방영권 및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 체결 	<p>김정일의 노작 '다부작 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10돌 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p> <p>시사논평, '북남대결을 고취하려는 반공 광대극' 제하로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위원회'의 활동 비난</p> <p>노동신문, 일본내각관방장관의 민간방위조직설치 의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각관방장관 후꾸다가 중의원 무력공격사태 대처특별위원회에서 민간방위조직을 설치할 데 관한 새로운 법을 정비할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비난하였음. -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인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폭로함. 	<p>미 국무부 장관, 테러지정국에 무기금수조치 연장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장관, 5.22일자 관보에서 북한, 쿠바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7개국에 대해 무기금수조치를 연장한다고 공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3	<p>경남대 북한대학원, 국제학술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대 북한대학원, 5.23~24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한국언론재단 및 미국 조지타운대와 공동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2년 간의 성과와 전망」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p>충청대 남북태권도연구소, 5.29~31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북태권도 협력 학술회의」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남북태권도 발전 방안, 태권도 올림픽 영구종목 채택과 남북공조 방안, 남북체육 학술교류의 발전 방안등 논의 예정 	<p>백남순 외무상 일행, 러시아 연방 방문을 마치고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카를로프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등 영접. <p>‘선군시대가 낳은 주체의학 과학기술의 자랑스런 성과’ 제하로 형체기억 합금 스텐트 개발 등 과학자들의 기술성과 자랑</p> <p>시사논평, ‘통할수 없는 양면주의 정책’ 제하로 말로는 대화 재개 운운하면서 전쟁도발을 시도하는 미국의 태도 비난</p> <p>조선신보, 미국이 지난 5.21 ‘국제테러 유형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미 회담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p> <p>박헌보 슬로바키아 주재 북한 대사, 부임 루돌프 슈스테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p> <p>노동신문, 선군시대 주체문학 예술의 화원이 펼쳐진 빛나는 노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전환이루자고 발표 	<p>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 “경수로 건설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당장 IAEA와 협조, 핵사찰을 시작해야한다” 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미·북 대화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은 낙관적이지만, 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 - “KEDO는 2005년 중반 원자로 핵심 부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4	<p>경수로사업관련 방한한북한 경수로 직항공로 시찰단 10명, 남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귀환</p> <p>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간 「제3차 지원의 추가 지원분」으로 2002년도 제4차 지원물자 전달계획통보</p> <p>- 한적은 서영훈 총재 명의로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에게 적십자간 제3차 지원 추가분으로 금년도 제4차 지원물자 전달계획통보</p> <p>* 민주평통자문회의 뉴욕협의회에서 기탁한 라면 390,000개(19,500박스)</p> <p>국방부 황의돈 대변인, 이달말 발간예정이었던 2002 국방백서의 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p>	<p>시사논평, 이회장 비난</p> <p>- 시사논평, 5.22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6.15 공동선언 제2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민족의 통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난</p>	<p>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군축협상에 서명하고 동맹을 선언하는 합의문 발표</p> <p>미국 국무부 필립 리커 부대변인,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중국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 5명이 시도에 앞서 미국에 보낸 망명신청이 국무부에 접수됐으나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발표</p> <p>* 정례브리핑</p> <p>- “지난 8일 의회 외곽단체 디펜스포럼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팩스로 접수했으나 관련부서인 아태국과 대변인실에서 전달이 안돼 몰랐다”</p>
5.25		<p>노동신문 논평,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p> <p>-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방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5		<p>하기 위해 남한 내 핵무기들을 모두 철폐하고 미제의 핵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테러모자를 씌우겠으면 씌우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이는 ‘몽둥이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상투적 수법”이라고 주장 	<p>워싱턴 타임스, 부시 행정부 북한 특사파견 초청 수락여부 고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타임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특사 파견 초청 수락여부를 놓고 분열돼 있으며 일부 관계자는 진심이 확인될 때까지 백악관이 기다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
5.26	<p>유엔군 사령부, 북한군 3명이 15:45 비무장 지대 선전마을인 대성동 남서쪽 2km 지점 농경지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75m정도 침범했으나 특이한 동향없이 북측으로 복귀했다고 발표</p> <p>평양에 체류중인 (주)훈넷 김범훈 대표, 5.26 훈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평양 소재 조선복권합영회사내에 PC방을 개설했으며, 18일 이후로 언제든지 누구나 서울 사람처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p>	<p>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대표단, 중국 방문을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환</p>	<p>NHK, KEDO내의 강경론 제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NHK방송, 북한이 올 여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KEDO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7	<p>‘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5.31~6.2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민간급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측 민화협에 제의했다고 발표</p> <p>‘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산 및 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 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 최대 50%까지 삭감 가능 <p>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 5.17 총영사관에 들어갔다 되돌아간 탈북자 석철호씨가 다시 진입해 망명을 요청했다고 확인</p> <p>* 한국 총영사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는 기존 탈북자 3명을 포함 모두 4명</p>	<p>시사논평, 미국의 북한 인권 거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논평,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청문회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종교탄압국’ 지정에 대해 ‘반공화국 소동의 연장’이라고 비난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 의사당에서 이임 인사차 예방한 부하리 에펜디 평양주재 인도네시아 대사와 담화</p> <p>「6.15 공동선언」 발표 2돌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 평양에서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민화협 김영대 회장 - 구 성 : 11명 <p>음악과 기사, 「통일의 염원을 불타게 하는 애국의 노래」 제하로 노래 ‘우리는 하나’는 통일염원의 노래라고 강조</p> <p>조선-이란친선협회대표단(단장:위원장 노동상 이원일) 및 평양 윤이상 관현악단 등, 평양 도착</p>	<p>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파키스탄의 핵 미사일 기술은 대부분 북한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탄 무기 전문가 조지프 버무데즈, “가우리 1미사일은 북한에서 제작돼 거기서 조립된 것”이라며 파키스탄에서 조립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언급 <p>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조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아프리카 원주민인 ‘피그미’, ‘밥상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라고 불렀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국민을 굶기고 오스틴의 절반만한 수용소에 지식인들을 감금하고 있으며, 그는 피그미이며, 밥상머리에서 버릇없이 구는 어린애 같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7			<p>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회장 전상복), 5.3~5.11까지 중국과 북한을 각각 방문, 연변 지역 탈북자 지원 단체에 쌀 50가마,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 어린이 종합비타민 5만정(5천달러 상당) 기증</p>
5.28		<p>평양 해설, '6.15 남북공동선언' 은 우리민족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의 역량으로 굳게 뭉치도록 하는 민족 공동의 통일의 기치</p> <p>평양 기자 대담, 「해외침략에 대한 역사날조행위」 제하로 일본 문부성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서술을 비난</p> <p>중국 신화통신사 대표단 및 라오스 여성동맹대표단 등, 평양 출발</p> <p>러시아 농업공업종합체 근로자 동맹 대표단, 평양 도착</p> <p>조평통 대변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6.15 공동선언' 제2항 관련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p>	<p>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이 16년만에 처음으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002년 인권연례보고서에서 발표</p> <p>중국 외교부 쿵치엔 대변인,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총영사관이 보호중인 탈북자 인도 요구</p> <p>- 중국내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제3국인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고 발언</p> <p>- "중국측은 한국대사관이 최근 진입한 탈북자를 중국측에 넘겨줘 중국측이 처리하도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2일 이회창은 관훈클럽이 조직한 대통령선거후 보토론회라는 데서 6.15공동선언의 두 번째 조항을 터무니없이 시비하면서 이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함. - 이것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극악한 반통일분자의 체질적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임. - 남한의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과 인민들은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특등반통일역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임. 	<p>해주기를 바란다”</p> <p>국제사면위원회(AI), 「2002년 연례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당국이 강제송환하는 탈북자의 상당수는 강제송환을 피해 중국에서 잠적한 상태 - 중국내 탈북난민 중 4분의 3은 여성이며 상당수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강간과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음. - 북한으로 송환된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계속 자행되고 있음.
5.29	<p>백두산악회, 오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29일간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조국통일 기원 평화 대행진 개최 발표</p> <p>연평도 서남방 해상에서 인양한 북한주민사체 1구 대북인도문제 협의를 위한</p>	<p>평방 대담, ‘일본의 과거청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제하로 과거 청산 위한 일본의 사죄, 보상 등 촉구</p> <p>평양 미술축전(2.6 개막) 폐막식, 평양극장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미술 700여점, 전통의상 150여점, 외국인 작품 	<p>미국 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탈북자 김한미 가족 망명요청 처리 문제와 관련 탈북자들이 미국영토 이외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9	<p>판문점 연락관 접촉</p> <p>- 5.30(목) 15:00 중감위 회의실 옆 통로에서 쌍방연락관간 인도인수하기로 합의</p> <p>한국기자협회, 북한의 조선기자동맹이 5.31~6.2 금강산에서 남북 언론인·기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발표</p> <p>지난 67년 납북된 승용호 선원 이성일씨의 아들 이광철씨 등 탈북자 3명, 인천항으로 입국</p> <p>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 국내제조된 항생제 등 44개 품목 의약품 북한 평양 의과대학에 보냈다고 발표</p> <p>- 금년초 북한 민경련과 접촉을 갖고 북한 주민이 일상치료용으로 사용할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임.</p>	<p>247점 등 출판</p> <p>김정일 노작 '가극창조에서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발표 30돌 기념 연구 토론회, 함흥에서 진행</p> <p>러시아 무력 붉은기 원동군관 부협주단, 동평양대극장에서 초대공연 진행</p> <p>조선대백과사전 전30권 편찬 총화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p> <p>* 조창덕 내각 부총리 참석</p> <p>기자대담, 「미제는 파렴치한 침략자」 제하로 99년까지 미국의 북침전쟁을 위한 군사적 도발건수가 15만건에 달한다고 비난</p>	<p>- "미국법에 따라 미국 영토나 혹은 국경에 와서 망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p> <p>-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시설은 치외법권 지대일뿐 미국 영토는 아니다"</p> <p>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은 북·미 기본 합의문과 6.15 공동선언 이행 뿐이라고 강조</p> <p>- "대화를 재개하려는 미국 태도가 진실이라면 북한을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p>
5.30	<p>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 북한이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 발표</p>	<p>노동신문 논평, 6.15선언 제2항과 관련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p>	<p>중국 외교부 궁취안 대변인, "지난주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요구중인 북한인(4명)들은 국내법과 국제관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30	<p>정세현 통일부장관, 장충동 서울 클럽 「매일경제-KAIST 최고지식 경영자과정」 조찬강연에서 6.15 공동선언 제2항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 이는 무의미하다고 언급</p> <p>- “6.15 선언 2항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며, 남북의 통일방안이 서로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한다는 공통성이 있으므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통해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는 것”</p> <p>통일부, 6.1~2일 금강산에서 남북한 민간급 실무 접촉을 가질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 등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6명 방북 승인</p> <p>한국기자협회, 북한조선기자동맹에 남북공동행사때 만나자고 수정, 제의</p> <p>- 한국기자협회, 5.29 북한조선기자동맹의 남북언론인·기자 실무접촉(5.31~6.2) 제안과 관련 6.15 남북공동선언 2돌 남북공동행사때 만나자고 수정·제의</p>	<p>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논평</p> <p>-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이 반세기 이상 분열돼 살아 왔는데 어떻게 견해간 입장에서 차이가 없겠는가”</p> <p>- “그러나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자면 쌍방이 다같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하며 그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p>	<p>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발표</p> <p>* 정례브리핑</p> <p>- “탈북자 신병인도를 왜 한국에만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과거 제3국 공관에 북한인들이 들어갔을 때에도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늘 신병인도를 요구해 왔다”고 답변</p> <p>교도통신, 미하원 의원 3명, 중국에 탈북자의 인도적 조치를 요구하는 서신 전달</p> <p>- 교도통신, 미하원 외교위원회의 하이드 위원장 등 3명이 중국 운남성의 라오스 국경 부근에서 중국 경찰에 구속된 탈북자 6명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31	<p>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북적 중앙위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장마철을 대비해 북측 금강산댐의 물을 6.3부터 방류할 계획이라고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철을 앞두고 언제 공사 수위조절계획에 따라 임남 언제의 물을 3일부터 뿜는다는 것을 귀측에 알림“ - “물 방류는 언제의 견고 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전통보 조치는 어디까지나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p>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개막 1개월동안 100여만 명의 군인·근로자·청소년학생 및 근 50개국 700여개 대표단·관광단 등이 관람했다고 보도</p> <p>중방 시사논평, ‘파쇼전시체제를 되살리는 일본 반동들’ 제하로 일본의 유사시 법제 관련 법안 국회심의 비난</p> <p>‘아태평화위’,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에게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통지</p> <p>인민무력부, 유리 야코조프 사령관이 인솔한 러시아 원동(극동)군관부 대표단 초청 연회 개최</p> <p>* 5.31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경 인민군대장, 안드레이 카를로프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등 공항 영접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		<p>국제아동절 즈음, 전국에서 어린이들의 민속놀이 활발히 진행 보도</p> <p>중방, 군사소식통 인용 미국이 5월 한달동안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 행위를 180여회 감행했다고 비난</p> <p>「범청학련」 북측본부 및 「조선학생위」, 남한당국의 「한총련」 탄압(5.28 한총련 보안법 위반 강제 연행 등)과 관련 규탄 공동성명 발표</p>	<p>독일, 북한에 냉동 소고기 전달</p> <p>-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이용석 부위원장, 독일 임시대리 대사 게르트 주트하우스, 독일 기술협조협회 고문 크리스토프 뷰르크 단장 등이 참석, 6.1일 남포항에서 대북 인도주의 협조물자 기증식을 가짐</p> <p>일본 도쿄신문, 일본 외무성은 탈북주민 5명의 망명시도 사건 직후, 총영사관측에 정문을 폐쇄도록 지시, 탈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p> <p>AP통신, 2002 한·일 월드컵 프랑스-세네갈 개막전 경기를 밤 중앙TV(지상파)에서 녹화방영하였다고 보도</p>
6. 2	<p>「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남북 민간단체 등이 '6.15남북</p>	<p>김정일, 러시아연방 무력 원동군관구 대표단(단장: 유리 야코보프 상장)접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	<p>공동선언 2돌기념 민족통일축전을 6.14~15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행사는 개막식과 씨름, 줄다리기 등 단오기념 민속놀이, 남북 해외 합동문예공연, 부문·단체별 상봉 모임, 공동 산행과 6.15km 통일마라톤 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 	<p>평방 대담, '6.15 북남 공동선언은 민족 자주통일 선언' 제하로 북남 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는 원칙임을 강조</p> <p>'일본의 과거청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제하로 일본은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할 국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p> <p>최고인민회의대표단 만수대의 사당에서 타지키스탄 국회대표단과 회담</p>	
6. 3	<p>SK텔레콤 등 국내통신업체, 정통부 당국자와 함께 6.4일 남북한 통신분야 첫 공식회담을 위해 방북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통부 변재일 기획관리실장 등 당국자 3명, SK텔레콤, KT 등 통신서비스 업체 2곳,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템 등 통신 장비업체 3곳으로 각각 상무급 1명이 포함 <p>건설교통부, 북측의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통보(5.31 접수) 관련 우리측 회신 전화통지문 발송</p>	<p>김정일, 방북중인 재러시아 동포 정일심 접견</p> <p>노동신문, 친북좌익세력명단 공개는 친미 반통일 대결책동이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우익 보수세력의 친미 반통일 광대놀음' 제하로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위원회」 활동은 친미반통일 대결책동이라고 비난 <p>중앙TV, 제17차 「월드컵대회」 경기소식(우루과이 對 덴마크 후반전 경기, 6.1일 울산 개최)을 편집하여 보도</p>	<p>두만강개발계획, 제5차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북한·러시아·중국·몽골 등 5개국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원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 개발대상지역 확대와 일본의 회원국 참여를 통해 동북아경제협의를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 논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	<p>- 북한 국토환경성에 금강산댐의 방류일정과 방류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p>	<p>중앙TV, 제 17차 「월드컵대회」 경기소식(우루과이 對 덴마크 후반전 경기, 6.1일 울산 개최)을 편집하여 보도</p>	<p>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원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6차회의에서 두만강 경제개발 계획에 관한 아시아경제개발은행 프로그램에 러시아의 참여와 북한의 참가 유도 합의</p> <p>- 회의 참가국들은 이 지역 경제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국제투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p>
6. 4	<p>현대아산, 6.4일부터 금강산 쾌속선 「설봉호」 운항 횟수를 월 20회로 증편운항</p> <p>- 기존의 2박3일짜리 금강산 여행일정에 3박4일짜리 여행상품을 추가 하고,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금강빌리지'(객실 71개)를 최근 오픈</p> <p>이동통신사업 관련 민간 및 정부(정보통신부) 관계자 8명, 북한의 관련실태 파악을 위해 방북</p>	<p>김정일, 신라시대 고찰 양천사를 방문</p> <p>중방 보도인용, "5.29일 「반미여성회」가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차단한 통일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p> <p>- "동일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간 통일운동을 보장하라"</p> <p>- "정부당국은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즉시 폐지하라"</p>	<p>한·미·일, 6.18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 개최 예정</p> <p>-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p> <p>찰스 카트먼 KEDO 사무국장, 북한 경수로 건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4		<p>중방 시사논평, '위험천만한 핵무장화 기도' 제하로 일본 관방장관의 핵무기 보유가능 발언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핵무기화 기도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엄중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과 파멸을 재촉하는 자살적 망동 <p>김정일, 6.4~5일 함남 단천지구 광산들과 북천군 내 협동농장 현지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국태,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규창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수행 <p>노동신문, 한총련 의장 체포 구속은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 행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총련에 대한 태도문제는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민족자주통일을 하자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함. - 남한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 	<p>현장인 함남 신포 금호지구를 방문하기 위해 한겨레 호편으로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일까지 머물면서 북측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술인력 훈련개회식에 참석할 예정 <p>국제적십자연맹(IFRC),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과 지위협정(Status Agreement)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활동영역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5	<p>충청대 남북태권도연구소, 평양 방문시 라복만 조선 태권도 위원회 서기장과 태권도 교본을 공동 제작 키로 구두 합의</p> <p>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 국간회담 남측 수석대표, 우리측 대표단 명단 통보</p>	<p>노동신문 논평, '유사시 관련 법안 수정의 진의도' 제하로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 비난</p> <p>- "관련법안을 수정하려는 일본 당국자들의 의도는 해외 침략 전쟁을 합법적으로 감행하기 위한 것"</p>	
6. 6	<p>유럽·코리아 재단, 북한 측과 친선축구경기 개최 합의 발표</p> <p>-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산하 유럽·코리아재단(이사장 장 자크 그로하), 9.8일 북한 측과 '남북친선축구경기'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p> <p>올해 북측에 지원한 비료 20만톤 북송 완료</p> <p>- 요소비료 7만톤, 유안비료 1만톤, 복합비료 12만톤 등</p>	<p>김정일, 156군부대 시찰</p> <p>- 작전지휘실에 들리어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p> <p>- 중대군인들이 계급의 총검을 어깨에 틀어 잡고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음.</p>	<p>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벤저민 길먼 위원장,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 촉구</p> <p>-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할 때까지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p> <p>미 난민위원회, 지난 해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수는 5만명에 달하며, 이중 538명만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했다고 밝힘</p> <p>-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송환된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6·7월에만 6천명이 체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7	<p>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 관련 입장 표명</p> <p>* 통일문제토론회 배포 발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선언 2항은 교류협력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중요하다는 것에 남북이 인식을 함께 한 것이며,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과 대외정책은 국내의 반미감정 자극과 남남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 <p>통일부, 북측의 초음파진단기 수리요청 관련 해당기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 유도안 생산기술과 팀장 방북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회장:김영대) 초청으로 중국 북경을 경유 항공편으로 6.11~6.15일간 방북할 예정 	<p>김정일, 함남소재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과학원 함흥분원 등 현지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국태,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규창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수행 <p>'태천4호발전소', 착공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룡 노동당 중앙비서, 광범기 내각부총리 등 참석 <p>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미키 마케오 전 총리 부인 미키 무쓰코에게 '친선훈장 1급' 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조·일 두나라의 친선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한 공로 <p>외무성 대변인, 미국무성특사의 평양방문문제와 관련 입장 표명</p>	<p>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잭 프리처드 특사 방북 관련 미 정부 입장 표명</p> <p>* 국무부 정례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진전된 것은 없으며 현재 방북논의와 미-북 대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
6. 8	<p>변재일 정통부 기획관리실장 등 방북단 일행,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과 첫 남북 통신회담을 갖고 평양 및 남포 일원에서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p>중방 시사논평, '가려한 인권 재판관의 추악한 몰골' 제하로 미국의 인권유린행위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 까지도 버젓이 인권유린 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8	<p>휴대폰 사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의 공동 추진 합의</p> <p>-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으며, 공동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1개월 안에 평양 또는 베이징에서 2차 협의</p>	<p>행을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 있는 주제에 인권 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처사는 가소롭고 주제넘는 것”</p>	
6. 9		<p>최고인민회의대표단, 만수대의사당에서 태국 국회대표단과 회담</p> <p>- 계영삼, 김인남 대의원 등이 참석</p> <p>- “쌍방은 자국 정세에 대해 통보했으며, 양국 의회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고 보도</p>	<p>재일 민단·총련, 일고베 랫세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 기념 통일 강연회 공동주최</p> <p>- 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참석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p> <p>LA 타임즈, 교착상태의 남북·북미 대화재개를 위해 중국의 역할 강조</p> <p>-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해법’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새로운 협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중국이 김정일에게 압력을 가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9			야 한다고 주장
6.10	<p>제2차 남북금강산 당국간 회담 무산 관련 대표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1일로 예정된 제2차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 - 남북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 '4.5 합의'의 정신에 맞게 북측이 이미 합의한 남북대화화를 조속히 재개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 	<p>중방, 미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10만톤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의 식량사정과 관련해서 취해진 인도주의적인 조치” <p>노동신문 논평, '사생결단으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제하로 미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방성의 반테러전쟁 확대를 위한 컴퓨터 모의 훈련 실시와 극비전쟁계획 작성 등은 반테러를 구실로 전쟁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세계화 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흉계”라고 비난 <p>김정일, 만수대에술극장에서 제630군부대 및 제549군부대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수행 	<p>제니퍼 메이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대변인, 탈북자 2명이 대사관에 진입, 난민지위를 요청했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전후의 남자 2명이 해가진 후 대사관에 진입했으며, 현재 이들의 출국문제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의논중에 있다”고 전함 <p>북·미, 미군 유해 공동발굴 일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방콕에서 열린 협상 끝에 공동발굴작업을 7.20~10.29일까지 30일씩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의 무기확산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p> <p>*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연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0		<p>「평양 국제과학기술 도서전람회」 개막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국립종합대학 대표단, 중국 길림성 출판대표단, 일본 출판문화국제교류회 대표단 등 8개국 19개 단체 참가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최희정 인민대학습당 총장 등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게 △ 무기 확산정책 중지 △ 핵무기 국제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그 답례로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 표명 - 남한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대화재개는 북한의 대미관계개선 노력에 달려있다고 언급
6.11	<p>「희망의 시민포럼」, 6.11~15일까지 대구지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 '통일사진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11-12일), 중앙로 지하철역 로비(13-14일), 대구백화점(15일)등을 돌며 '그리운 얼굴, 그리운 산하'를 주제로 북한의 다양한 일상을 촬영한 사진 30여점 공개 <p>김대중 대통령, '머지않아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대통령은 "6.15 정상 	<p>평방, '외세의 전쟁책동에 추종하는 역적들' 제하로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및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등 거명 비난</p> <p>김정일, 러시아 국경일 즈음 푸친 러시아 대통령에 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의 확대 발전되리라 확신하며, 러시아 인민에게 안녕과 복리가 있을 것을 축원" <p>중앙난방건설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일남 내각 부총리 겸 수도 건설위원회위원장 등 참여 	<p>일가족 5명이 포함된 탈북자 9명, 북경주재한국영사관 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은 한국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로써 5월 이후 한국행을 요구하며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있는 탈북자 수는 총 17명에 달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1	<p>회담 이후 북한은 속도는 느리지만 개방을 시작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만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p> <p>외대,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세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 개최 <p>통일부, ‘6.15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홍보만화 “해피투게더” 제작·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및 그 추진성과를 내용으로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창작만화팀이 제작에 참여 <p>통일부, ‘6.15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이야기가 담긴 사이버통일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함께 사는 남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 총 317편이 응모했으며, 이중 권봉진씨 작품 ‘화해의 노래’가 대상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중앙난방화 방침에 따른 중앙난방의 간선과 지선 및 구획망 건설의 성과적 수행과 도시환경 및 수도 시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에 적극 기여한 공로 치하” <p>국제태권도연맹대표단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총재 리기하를 단장으로 하는 국제태권도연맹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 비행장에서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태권도위원회 상임고문인 체육지도위원회 장웅 제1부위원장과 조선태권도위원회 황봉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대표단을 맞이함. <p>중국 교통부대표단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장 호희침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교통부대표단이 열차로 평양에 도착 <p>백두풍경사진전시회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장에는 외국문출판사 기자들이 찍은 백두산과 일대풍경의 장쾌함과 웅장함,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70여 점의 사진들이 전시됨. - 전시회장에는 백두산일대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1	<p>정세현 통일부 장관, 북한의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전망에 관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넷을 비롯한 국내 IT 기업이 북한에서 활동 중이며, 한양대와 김책공대의 IT관련 학술교류 등 제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이 보급될 경우 북한 역시 개방사회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 <p>합동참모본부, 북경비정 1척 서해 소청도 동남방 5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50분간 침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7시 25분께 북방한계선을 넘어 0.5마일 남하했다가 오후 8시 15분께 귀환 	<p>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과 천태만상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명소들과 기이한 자연현상들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되었다고 보도</p>	
6.12		<p>김정일 노작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30돌 기념 미술부문 연구 토론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철 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p>미 하원의원 35명, 중국내 탈북자 관련 결의안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들의 강압적인 북한송환 중단을 중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촉구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2			<p>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과 조만간 접촉 기대" * 국무부 브리핑</p> <p>-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해 준비중이며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언급</p>
6.13	<p>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및 「한민족 복지재단」 방북단 방북 승인</p> <p>- 금강산에서 6.14~15일간 개최되는 「6.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민화협·7대종단·통일연대 등 211명의 방북 승인</p> <p>- 한민족복지재단 방북단 (단장:최홍준 한민족복지재단 이사장) 300명에 대해 방북 승인</p>	<p>‘일본 군국주의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제하로 일본의 유사시법제 정비 등 비난</p> <p>- 일본 군국주의 침략 세력과 높은 계급적 각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강조</p> <p>외무성 대변인, ‘미국무장관의 조·미 대화언급’ 관련 중통 기자회견</p> <p>- 미국은 조미대화의 진전은 전적으로 북조선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발언</p> <p>- 주요문제로서 장거리 미사일 제거 등의 주장은 대화에 전제를 붙이는 것이며, 대화를 재개하려면 대북적 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p>	<p>서방 선진 8개국 (G8) 외무장관들, 한반도 문제 관련 성명서 채택 * G8 외무부 장관회의</p> <p>- 한반도 평화 촉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북한의 무기개발계획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문제 등에 관해 북한의 건설적인 대응을 당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4	<p>통일연구원(원장 서병철), '6.15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통일부장관, 토마스 허버드 주미대사 등 참석 <p>정부, '중 공관진입' 관련 대중 항의성명 발표</p> <p>*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3일 주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를 중국측 보안요원이 우리 공관장 동의 없이 강제 연행하고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것을 중국측에 강력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 <p>정부,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 즈음 남북대화 재개 촉구 대북서한 전달</p> <p>* 남북 연락관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되살려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켜 나가야 하며, 「4.5 공동보도문」 합의사항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함 	<p>'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 대변인, 남한 단체들에 대한 축전참가 제한 관련 규탄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당국의 「범민련」 등의 축전참가제한 조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 <p>중방 시사논평,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 제하로 미국의 핵시험 및 핵무기 개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제의 최신형 핵무기 개발과 현대화 책동에 대해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 	<p>2001년 북한-대만 교역량 약 60%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대만의 무역액은 2천29만 달러로 대만이 약 1천290만 달러 흑자를 보고 있으며, 대만은 주로 합성 및 재생섬유 등을 북한에 수출하고 무수암모니아 등을 수입하고 있음 <p>북-중, 평양에서 해상운수 협정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육해운성 라동희 참모장과 중국 교통부 후시지에 부부장이 협정문에 서명 <p>러 외무부, '6.15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이하여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후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4			<p>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외교관 및 기자 폭행 관련 중국에 항의서한</p> <p>- 중국 외교부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기자들을 폭행한 중국 보안요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요구</p>
6.15	<p>2002년도 제2차 통일고문회의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p> <p>- 최근 대북정책 추진환경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 진행</p> <p>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 대북정책 재검토 촉구 * 대변인 논평</p> <p>- “현 정권은 전략적,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김일성상」 수여</p> <p>‘6.15 민족통일대축전’, 폐막</p> <p>- △ 6.15공동선언의 이행 △ 외세에 의한 전쟁위협 및 통일장애 배격 △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 전개 등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 발표</p> <p>노동신문,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한 조국통일방안’ 제하로 연방제 통일방안의 합리성 강조</p> <p>김정일, 안주 닭공장 현지지도 및 군부대 시찰</p> <p>- 제313군부대, 제583군부대의 예술소조공연 관람 및 제478군부대 시찰</p>	<p>유럽연합(EU) 대표단 (단장:라파엘 콘테 아주국장), 평양 도착</p> <p>- 북한과 제5차 정치대화를 갖고 인권, 대량과괴무기, 대북지원확대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6	<p>통일부, 6.15남북정상회담 2주년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대다수(73.0%)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그 추진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64.5%) -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주목할만한 진전으로 이산가족상봉을 꼽음 - 대북지원에 대해 국민의 2/3(66.1%)가 현재 수준 내지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p>「6.15남북공동행사」 방북단, 6.16일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재철 민화협 상임의장 등 남측 대표단은 행사 기간 북측과 노동·여성·농민 등 부문별 단체모임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부문별로 확대·실천해 나가기로 합의 	<p>북-일 노동자연대모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서 진행됨. -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은 조선의 통일을 위한 이정표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선언에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가 밝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조선의 통일을 위한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기본장본인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 - 모임이 끝난 후 우호방문단 성원들은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 강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서명문에 수표함. <p>민주조선, 도쿄도 지사의 망발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조선은 일본의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가 기자회견의 회견에서 납치문제를 꺼내면서 만일 자기가 총리라면 북조선과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폭언한 것에 대해 규탄하였고 망발이라고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7	<p>리빈 주한중국대사, 탈북자 강제연행 및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 관련 한국정부 요구 일축</p> <p>* KBS-1라디오 회견(6.17)</p> <p>- “한국이 사실관계를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며, 정당한 중국 공안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해당 외교관의 책임 추궁을 요구할 지 모른다”라고 언급</p>	<p>중방, 최흥희 국제태권도 연맹 총재 사망에 대한 부고 보도</p> <p>- “태권도를 지켜내기 위한 최선생의 적극적 활동이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투쟁을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했다”며 “우리민족과 태권도인들에게 있어 커다란 손실”이라고 평가</p> <p>김정일, 대동강 맥주공장, 평양일용품공장, 칫솔공장 및 제534군부대 산하 농장과 묘목장 현지 지도</p> <p>-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철해 조선인민군 대장, 김국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수행</p> <p>‘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시어’ 제하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사상 칭송</p> <p>시사논평, ‘위험천만한 침략전쟁 기도’ 제하로 부시 미 대통령 등의 테러억제를 위한 선제타격 필요성 주장 비난</p> <p>제17차 「월드컵대회」 일부경기(브라질:코스타리카) 녹화편집 방영</p>	<p>한·미·일 3국, 6.17~18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p> <p>- △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 교섭담당 대사의 방북문제 △ 중국의 한국대사관 진입관련 탈북자 강제연행 및 한국의외교관 폭행문제 △ 중국내 탈북자 문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p> <p>탈북여성 2명, 6.17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진입 한국행 망명 요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8	<p>한민족복지재단 방북단,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복지재단 방북단 297명 방북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평가 실시 <p>강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울산태화관광호텔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p>	<p>중방,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 38돌 경축행사 집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맹과 직맹원들의 응변대회, 학생소년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 등 <p>평방 연단, '6.15남북공동선언을 지키는 길에 조국통일이 있다' 제하로 미국,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등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세와 반통일세력 등이 민족자주 통일선언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p>북한, UN총회 제56차 전원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UN의 발전도상국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우선적 관심 표명」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총회 제56차 전원회의는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문제」를 토의 	<p>중 바이마오사, 북한과 치약생산설비 수출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무역진흥공사 (중 증권시보 보도인용) - 연간 1천500만개 치약 생산이 가능한 설비 <p>한·미·일 3국, 북에 IAEA 핵사찰 전면 협력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과 대화를 통한 국제사회로의 포용 △대 북 정책에 관한 3국 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유지 △ 탈북자 문제의 인도적 해결 희망
6.19	<p>통일부, 2002년 1~5월중 남북한 교역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역액은 전년 동기 172,626천달러대비 7.9% 증가 - 거래성 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38.4% 증가하고 	<p>시사논단,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범죄행위' 제하의 논평을 통해 한·미 합동 함대기동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딴 꿈을 꾸는 것은 회담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비난 	<p>중-일 외무장관, 탈북자 문제 등 영사협정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협력대화 외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탕자쉬엔 중국외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9	<p>전체 교역액의 52.5% 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래성 교역은 88,531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2%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47.5% 차지 <p>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6.19일 아시아협력대화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당사 위엔 중국외교부장과 탈북자 문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장관은 △ 차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 문제 처리 △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계속적 협의 등에 합의 	<p>김정일 당 중앙위 사업개시 3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병호가 경축보고를 함. -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 우당위원장들이 대회에 참가 <p>평방, 6.15는 김정일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방 대담,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을 돌이켜 보며' 제하로 "6.15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마련된 것"임을 주장 <p>종교인협의회대표단, 제6차 「아시안종교평화대회(인도네시아)」 참가차 평양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고인욱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친선대표단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종교평화대회 제6차총회에 참가할 장재연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종교인협의회대표단이 평양을 출발 	<p>부장은 탈북자 처리를 둘러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양국간 영사협정을 마무리짓기로 합의</p> <p>장춘원 중공산당 정치국 위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노동신문대표단(단장:황흥기 부주필)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조·중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p>미상원, 탈북자 강제송환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보장 △ 탈북자에 대한 북한 강제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0	<p>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본교에서 '한반도의 핵문제 재조명과 한국의 안보'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p> <p>북 어선,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침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톤급 어선 1척과 소형 전마선 2척 등 3척이 6.20일 서해 NLL을 침범했으나 단순표류로 인정, 북측에 인계할 방침 <p>탈북난민 정착 돕기 운동본부, 자유민주민족회의 사무실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정식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금을 모아 정착촌을 마련해 줄 계획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예군인 탄부장식품공장 등 18개 단위에 「2중3대붉은혁명기」 및 경련애국사이다 공장 등 115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p>‘민족의 자주통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 제하로 남한당국의 「한총련」 관계자 연행 관련 비난</p> <p>노동신문 논평, ‘피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제하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관련 주한미군 만행 비난</p>	<p>류젠차오 중 외교부 대변인, 한국공관진입 탈북자 출국허용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들의 이익을 언급하면서 조·중 양측은 접촉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힘 <p>총련, 도쿄도 지사 발언 항의문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하라 지사의 납치문제 관련 발언은 조·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두 나라 인민들의 선의에 췌기를 박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발언 철회 요구
6.21	<p>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북한의 대회참가 요청서한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에 전달</p> <p>* 판문점 연락관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대표팀의 참여는 남북이 한 민족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남북의 화합을 과시하고, 	<p>함흥시 청년염소목장 등 4개 단위에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건립</p> <p>조평통 서기국, 여중생치사사건 관련 미국비난 보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는 이번 범죄행위는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파괴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1	<p>일층 다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p>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p> <p>*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청와대)</p> <p>-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대화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p>	<p>미군 강점자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단죄</p> <p>- 미국은 우리 겨레에게 끼친 해아릴 수 없는 죄악에 대해 사죄보상하여야 하며 모든 살인장비들과 침략무력을 걷어 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보도</p>	
6.22		<p>「핀란드-조선친선협회」 대표단(단장:베베까 레베넨 위원장) 및 중국세계지식출판사 대표단(단장:왕성가 사장) 등, 평양 도착</p>	
6.23		<p>중방, 중앙TV, 「아리랑 공연」 7.15까지 연장사실 보도</p> <p>* 6.20 조선국가관광총국 결정</p> <p>- “동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내외인민들의 소망을 감안한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따라 연장공연을 하게 되었음”</p> <p>평방,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제하로 김일성의 자주적 평화통일 사상 찬양 보도</p> <p>중앙TV, 「한국-이탈리아 16강전」 주요장면 녹화중계</p>	<p>일 연구진, 북 원폭 피해자 검진차 방북</p> <p>- 방북단(단장:다카지 케니치 변호사)은 6.27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원폭 피해자들을 검진하고 북한 원폭 피해자협회 천중혁 비서와 면담할 예정</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4	<p>탈북자 26명 입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명은 중국에 강제연행된 뒤 풀려난 탈북자 1명과 주중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23명 등 24명은 오전 8:45에 각각 입국 <p>김대중 대통령, 6.25 참전용사 위로연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p>평방 연단, '미군의 고의적인 살인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 제하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거듭비난</p> <p>노동신문 논평,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제하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군부대 및 핵무기 철수 등을 요구</p> <p>보도인용, 일 자위대의 시리아 주둔기간 연장 결정 비난</p>	<p>미 탈북난민인권보호협회, 한국 국회 3당 대표에 탈북난민 인권문제에 관한 성명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과 법적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지속적 보호 및 지원 △ 북한 정부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자구책 강구 등 촉구 <p>미, 탈북자 26명 한국행 허용 관련 중국의 인도적 처리 환영표시</p>
6.25	<p>통일부,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스코가 추진하는 금강산가극단한국공연에 대해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을 동시 승인 - (주)시스코는 7.25~8.13일까지 공연을 개최할 예정 	<p>'반미 공동투쟁 월간' 즘음 「중앙미술전시회」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유화, 판화, 선전화 등 60여점의 작품이 전시 <p>「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 평양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태복, 김용순 노동 중앙위원회 비서 등 참석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5	<p>김대중 대통령,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임원 300 명에게 격려서신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 유와 민주주의, 번영은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 와 땀의 대가라고 격려 <p>정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탈북자 관련단체 대표단 초청 워크숍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벗들', '피랍·탈북 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등 참석 <p>임창렬 경기지사와 최덕기 수원교구 주교 등 방북단 29명,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단은 양강도의 농기 계수리공장과 농촌지역 을 방문, 농기계 및 축 구공 전달 여부 확인을 거친 뒤 백두산·묘향산 을 관광하고 29일 귀국 할 예정 	<p>노동신문 '참패의 교훈을 잊 지말라' 제하 논평 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 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52년이 되는 날임. - 미국은 지난 '50년 조선침 략전쟁 참패로 힘으로는 북한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주장 <p>「캐나다-조선협회」 대표단, 「 중 베이징국제우호연락회대표 단 등, 각각 평양 도착</p> <p>민주조선, 진짜 핵범인은 미 국과 일본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또다시 신형핵무기 제작에 달라붙고 있는 것 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 이른바 교훈을 찾고 소위 반테러작전에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비난 - 오늘날 세계의 단호한 규탄 배격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 야 할 진짜 핵범인은 바로 미국과 일본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6	<p>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2001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전년대비 15.1% 늘어나 '9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 유지 - 수출은 14.9% 늘어난 6억5천21만 달러, 수입은 15.2% 늘어난 16억2천29만 달러를 각각 기록해 대외무역액은 22억7천50만 달러로 집계 <p>* 북한의 수입증가는 대북 쌀지원 등 지원성 물자 수입에 힘입은 바 크며, 섬유·전기전자 등 공산품 수출은 오히려 부진한 것으로 분석</p>	<p>북한 각지 영화상영 단위들, '반미공동투쟁 월간' 즈음 영화 상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이 수령님 항일혁명 투사들과 함께 계시어”, “조국해방전쟁”, “미제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수” 등 상영 <p>노동신문 해설, ‘애국애족은 민족대단결의 사상적 기초’ 제하로 사상과 이념에 관계없이 단결해야 함을 강조</p> <p>중방, 북한대표의 유엔총회 제56차 전원회의 연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정보기술 발전사업을 국가중요사업으로 삼고 정보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발전도상국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교류 강화 및 협력구조 개선이 필요함” <p>노동신문, 살인마의 정체는 결코 가리울 수 없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침략군이 두 여학생을 장갑차로 깔아 죽인 이번의 살인행위는 극도의 인간중오임. <p>임남담(금강산담) 방류 종료</p>	<p>일, 중국내 탈북자 문제 관련 중-일 영사조약 체결 유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외무성은 영사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승인 등의 절차에 수 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정부간 협의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p>일 해상보안청,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에서 지대공미사일 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미우리 신문 <p>베트남, 북한에 쌀 5천톤 지원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7	<p>통일부·외교통상부,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탈북자대책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통일부장관, 김향경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석, 최근 탈북자들의 기획망명과 국내 정착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보고 <p>건교부, 북한 금강산댐 방류 중단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6일 오후 1시부터 평화의 댐에서 북측으로부터 유입 중단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 북측 통보는 없었다고 밝힘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지부티공화국 독립 25돌 즈음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흔」 대통령에 축전 발송</p> <p>중앙TV, 제17차 월드컵대회 일부 경기(한국:스페인) 소식 편집 방영</p> <p>중방, '민족을 등진 통일의 원수' 제하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비난</p>	<p>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 파월 미 국무부장관에게 중국내 탈북자들의 준난민지위 부여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 - 파월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현행 난민법을 수정, 특정요건을 갖춘 탈북자에 한해 준난민지위를 부여토록 촉구하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함 <p>영 기상청, 북한 기상수문국에 관련장비 지원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화기, 비상전원 장치대 등 기상정보 송수신장비를 지원할 계획
6.28	<p>대한적십자사(총재:서영훈), 6.28일 신임부총재에 홍소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선출</p>	<p>중방 시사논평, '무엇을 노린 환태평양 합동군사연습인가' 제하로 「림팩-2002 합동군사연습(6.25~7.23)」, 관련 대미 비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9	<p>서해 연평도 부근서 남북 교전</p> <p>- 오전 10:25분께 연평도 서쪽 14마일 부근에서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발생, 우리 해군 4명 전사 등 22명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우리 고속정 1척이 교전 종료 후 예인 중 침몰</p> <p>대한적십자사(총재:서영훈), 서해 연평도 근해로 떠 내려 온 북한주민 사체 2구 오전 10시 북측에 인도</p> <p>한국이웃사랑회 대표단(단장 :이일하 회장) 등, 방북</p> <p>- 오회국, 차재혁 한양대 교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련 스님 등 남측인사 50명 방북</p>	<p>평방, 음악과 기사 '둘이되면 못살 하나' 제하로 조국통일 강조</p> <p>김정일, 러시아 모이세예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p> <p>-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김일철 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 등 수행</p> <p>북, 서해교전 '남측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 주장</p> <p>북한군, 유엔사측의 장성급회담 제의 거부</p> <p>* 군정위에 전화통지문</p> <p>- 서해충돌사건은 당신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그은 데 원인이 있음. 그러므로 북방한계선을 철회해야 하며, 회담을 하려면 북방한계선을 철회하기 위한 회담을 먼저 해야 함.</p>	<p>세계각국, 남북한 서해교전에 우려 표명</p> <p>* 러시아 외무부 성명</p> <p>- 남북한 해군간 교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양측의 자제와 인내 촉구</p> <p>* 후쿠다 야스오 일관방장관</p> <p>- 중대한 관심을 갖고 사태추이 주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30	<p>한나라당과 자민련,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조치를 받아낼 때까지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함. - 북한의 만행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지원을 포함한 대북사업과 정책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함. 	<p>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교전애 대해 남측이 거짓선전하고 있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군 당국은 우리 함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선제사격을 했다고 거짓선전하고 있음. - 북방한계선은 50년대에 제멋대로 그은 비법적인 유령선이며, 남조선 군함들과 어선들이 최근 거의 매일 우리 영해 깊이 침범했지만 인민군 해군은 자체력을 발휘했음. - 그런데 남조선군은 두 배 이상의 수적 우세 조건에서 기습공격을 했음. - 남조선군은 이른바 북방한계선의 비법성부터 인정해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	<p>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지속 의지 표명 * 도쿄 동포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정책은 결코 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이나 패배주의적 정책이 아니며,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평화 증진 노력을 계속해야 함. - 북한이 군사대응을 해 피해를 입히려고 하면 북한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협력하면 북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것임. <p>정세현 통일부장관, 북방한계선 고수 및 민간교류 예정대로 추진 등 정부방침 표명 *당정회의 보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한계선은 남북간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정부는 이 수역을 그대로 고수할 것임. - 남북대화는 남북관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으나, 민간 교류협력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음. 	<p>북한 리광근 축구협회 위원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에 보내는 월드컵관련 축하서한을 남측에 전달 * 판문점 남북연락관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 축구선수단이 제17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 축하함.” - “귀측 축구선수단의 연승은 민족공동의 승리로 우리 겨레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정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신심을 주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자주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음.” <p>중통, 한국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준결승전과 3·4위전 녹화 방영</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특사방북 계획 재검토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서해교전에 따라 특사방북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며 한국과도 협의할 것임. 결정에 앞서 특사방북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것임.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 특사 파견 문제는 북한의 답신을 받은 후 답신 내용과 서해교전 등 최근 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김대중 대통령, 북한 재도발에 대한 경고 및 햇볕정책 지속 의지 표명 *방일 귀국보고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북한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평화 증진 노력을 계속해야 함. <p>합참, 앞으로 서해 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서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대응(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은 안 함)하는 작전지침 시행 발표</p> <p>북한 핵안전규제요원 25명, KEDO 훈련(7.3~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참가차 방한</p> <p>정보통신부, 서해교전사태에 따라 7월초 베이징에서 가질 예정이던 남북통신실무회담 보류 결정 및 북측에 통보 발표</p> <p>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8.15 행사 실무접촉 제</p>	<p>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과 회견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미국측 책임 거론 및 북방한계선을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해상의 충돌사건은 남한 군이 영해침범과 선제사격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리의 대응은 자위적 조치였음. - 북방한계선은 미국이 우리와 합의 없이 그은 비법적인 유령선이며, 미국은 남조선군의 술한 우리 영해침범에 대해 책임 있음. -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남관계에 쐈기를 치기 위해 만든 결과물이며, 제3자들은 사건의 근본원인인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에 정당한 주의를 돌려야 함. <p>중·평방, 조선기자동맹 국제기자동맹 서기국에 편지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의 여중생 치사사건 취재 남한기자에 대한 미군 폭행에 대한 응당한 주목과 국제적 규탄 등에 영향력 행사 기대 	<p>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 특사방북철회 공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1일 유엔 북한대표부에 미 특사 방북을 더 이상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통고했음. - 특사방북 철회에 대한 북한의 적시의 답변 부재와 서해교전에 따른 분위기 때문임. <p>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북한 함정이 남쪽으로 월경해 도발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발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의(7.9~13, 평양)에 대한 북측 민화협의 동의 내용 팩스 7.1 접수 발표</p>	<p>중방, '책임은 남조선 군사당국자들이 져야 한다' 제하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군사당국은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먼저 도발했다고 거짓선전하고 있음. - 북방한계선은 조·미간 어떤 합의에도 없는 비법적인 선이며, 남측 군함과 어선은 최근 거의 매일 우리 영해를 침범했음. 그럼에도 우리는 남조선에서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자제했음. - 남조선 군사당국자들은 우리의 이런 아량을 악용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이는 충격적 사건을 조작해 남조선 인민들 속에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것임. <p>노동신문 논평, 립팩(RIMPAC) 합동군사연습이 북을 기습공격하기 위한 불장난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남측의 방어훈련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의 기습공격이라 비난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평방,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으로 김일성 주석 8주기 행사 시작 보도</p>	
7. 3	<p>한나라당, 서해교전 관련 대북지원·협력 일시 중단 주장 및 김동신 국방장관 등 해임 재요구</p> <p>국방부, 일부 언론의 '교전 당일 남측 어선의 NLL 월선' 주장과 관련, 남측 배가 월선한 적이 없다고 발표</p>	<p>중방, 서해교전 관련 일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방위청장관이 6월29일 조선반도 감시 강화를 위해 정찰기 파견을 지시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임. <p>노동신문 논평, '변함없는 해외팽창 야망' 제하, 일본 총리의 회견 내용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당국자는 미국의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자위대 해외 파견으로 아시아 안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군사적 수단으로 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하려는 위험한 침략세력임. 	<p>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특사 파견 조기 재추진 가능성 부인</p>
7. 4	<p>건교부, 북한 금강산댐 훼손부분 보강공사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댐 증축보도 관련 건교부는 "미국 아이코너스 위성이 촬영한 금강산댐 사진을 매일 받아보고 있으며 현재 북측은 훼손부위에 대한 	<p>조평통, 7.4 공동성명 30돌 성명에서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7.4 공동성명과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p>- 지금 북남관계는 일시 곡절을 겪고 있지만,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7.4 공동성명에서 선포되고 6.15 북남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계속 확고히 틀어쥐어야 함.</p> <p>북한 군방송, 서해교전 사태 언급</p> <p>- ‘전연초병들을 위한 방송’은 “서해 해상 전연을 지켜선 병사들은 마지막 피한방울 남을 때까지 싸움으로서 조국의 바다를 지켰다”고 보도</p> <p>중통, 일본의 방위청 승격 움직임 비난</p> <p>- 군사대국화책동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비난함.</p> <p>7.4공동성명발표30주년 평양시 보고회 개최</p> <p>- 서해사태는 남조선 군부 호전계층의 반공화국 반통일 책동의 연장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5	<p>NSC 상임위, 서해교전 후속대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정부 방침과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재확인 <p>김형기 통일부차관, 북한 연구학회 학술회의 기조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으로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지만 북한도 남한과의 긴장격화를 원하지 않고 있음 - 본격적인 대화는 북미 대화 등 제반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진 후 검토해 나갈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 호전광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해 나선다면 인민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안길 것임 <p>평방, 콜롬비아 주재 북한대사에 유창운 임명 보도 * 7.24 신임장 제정</p> <p>노동신문, 남측에 서해교전 책임 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보수세력이 서해 무장충돌 사건과 관련해 북측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며 교전 내막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 <p>중통, 기상수문국 태풍대책 수립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하천과 저수지, 해안방조제 정비, 인료 및 연료 자재와 상품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p>보르네오 불리턴지, 미-북한, ARF서 고위급회담 재개 검토 중이라고 브루나이 외무부 관리들이 발표</p> <p>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 내주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한국과 대화유지 촉구 예정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5	<p>한나라당 소속의원들, 탈북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문 국회 제출</p>		
7. 6	<p>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서해교전 관련 대북응징 조치 촉구</p> <p>-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전에는 대화제외에 응해서는 안되며 외교적, 경제적 응징수단을 단계적으로 행사해야 함</p>	<p>중방, 김정일위원장 북한군 제744부대 및 동부대 직속중대 시찰 보도</p> <p>중통, 서해교전 관련 미국의 사과 요구</p> <p>- 이번 사건은 미국의 비호 밑에 남조선 해군함들이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으로 미국의 도발임</p> <p>- 미국은 사과해야하며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할 것임</p>	<p>EU, 일·EU정상회담(7.8도쿄)시 북한의 정치, 경제상황 논의 입장 표명</p> <p>* EU의장국인 덴마크 앤더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와 로마노프 로 EU집행위원장 참석예정</p>
7. 7	<p>합참, 서해교전 조사결과 발표</p> <p>- 이번 서해교전은 북한의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도적인 선제공격에 의한 사건</p> <p>국방부,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 발표</p> <p>- 한미간 협의를 통해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완 검토하고 차기 고속정사업</p>	<p>중방, 북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시찰 보도</p> <p>평방, 주요기업 책임비서, 강계시 시찰 보도</p> <p>- 각지의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은 먼저 강계시 김일성 주석 동상과 혁명 사적관을 찾은후 답공장, 포도술공장, 편직공장, 고려약공장 등을 방문</p>	<p>산케이, 일본외상 중국에 대해 영사권 불가침 가이드라인 체결 제안 입장표명 보도</p> <p>- 지난 5월 선양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탈북주민 망명시도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동 제안 검토 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7	<p>조기착수 예정</p> <p>해군작전사령부, 영해침범 주장 반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해군 전함 2척이 금일 오전10시30분께 북측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임 	<p>중·평방,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군함 2척 북측영해 침입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 무장 충돌사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투함선들을 침입시킨 것은 이 구역에서 정세를 더 긴장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 - 우리는 남조선군 전투함선들의 이러한 침입이 새로운 무장충돌을 몰아오는 행위라는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임 	
7. 8	<p>정세현 통일부장관, 남북간, 미북간 대화노력 강조</p> <p>* 조계종 민족공동추진본부 창립 2주년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미북간 대화부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 올지 모를 안보위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데 제일 걱정 -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p>중방,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주석 사망 8주기를 맞아 당,정,군 간부들과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보도</p> <p>노동신문, 미 우주·전략사령부 통합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주사령부와 전략사령부를 통합,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려는 것은 선제공격전략을 실천에 옮기려는 매우 위험한 움직임임. <p>중방, 김일성주석 사망 8주년을 맞아 추모영화 상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별, 밀림이 설레인다, 위대한 생애 1994 	<p>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햇볕정책 지지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도발에 편승하지 않도록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한국의 햇볕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임 <p>니혼TV, 요도호 납치범 가족 9월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도호 납치범의 부인과 다른 납치범들의 2세 등 6명이 9월 10일 일본으로 오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8	<p>경기도, 남북공동으로 말라리아 방역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4~29 실무단 14명을 평양에 파견, 휴전선일대 말라리아 공동방역에 합의 - 동 사업은 경기도가 약품을 지원하여 경기도와 황해도 접경지역에서 공동 방제작업 실시 	<p>조선인민군 판문점대변인, 서해교전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건의 책임을 남측 군사당국과 미국에 전가, 남측의 침몰경비정 인양시 날짜·시간·동원선박 및 장비·활동수역 등 구체적 사항의 사전통보 주장 	<p>될것</p> <p>ITV회견, 허바드 주한 미대사,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입장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바드 주한 미대사는 서해교전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간주, 그러나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7. 9	<p>해군, 침몰고속정 인양관련 북측의 사전통보 요구 일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영해에 대해 북측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 - 인양과정에서 북측이 불미스런 일을 저지룰 경우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 	<p>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침몰 고속정 인양관련 사전통보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이번에 침몰된 함선을 인양 하겠다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음 -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북측의 군사통제 수역이므로 인양과정에 새로운 충돌을 막자면 작업일자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과 장비, 활동수역 등의 사항을 미리 조선인민군측에 통보해야함 <p>중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p>	<p>일-EU, '북 경제개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총리와 로마노 프루디EU집행위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p>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적절할 때 미북대화 재개검토 입장표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9		<p>상 임위원장 인도네시아, 리비아, 시리아방문 계획발표</p> <p>노동신문, “서해교전은 미 조작극”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은 남한사회 내에서 일고있는 반미 기운을 잠재우려는 미국의 ‘조작극’ -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 주한미국대사의 대북대화원칙 강조는 “작년 6월 미국이 발표한 대화원칙”이 유효함을 의미 - 북한과의 실무자급 접촉은 계속될 것이며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임 <p>미 의회회계감사원(GAO), 식량원조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발표</p>
7.10	<p>한양대, 북한 김책공대에 공학관 설립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김책공대 캠퍼스에 설립자의 아호를 딴 백남공학관 설립 추진 - 백남공학관 설립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은 한양대, 건설인력은 북한이 제공하기로 합의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인도네시아 등 3국 순방위해 평양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남순 외무상, 리광근 무역상, 리광호 과학원장 등 수행 <p>노동신문, 일 방위청 승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청 승격, 자위대 작전체제 통합·운영 등은 해외침략 실현을 위한 것 - 냉전이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침략적 기도를 가리 	<p>파이낸셜 타임스지, 북한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기술의 확산과 이라크의 끊임없는 대량파괴무기 획득시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은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정책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0		<p>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 방위청 승격 비난</p> <p>해군사령부, 남측 해군함정 영해침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해군은 10일 오전 강령반도 등산곶과 구월봉 남쪽 우리측 영해에 2척의 전투함선을 침입시켰음 - 이는 서해무장출동 사건이후 극도로 팽팽해진 이곳 수역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계획적인 도발책동임 	<p>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부 당국자는 10일 이바노프 장관이 ARF외무회담 참석길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언급
7.11	<p>남북 경수로 직항공로 개통일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한 양양 국제공항-선덕공항 시험비행일자를 협의 중임 <p>원로인사, 대북화해정책 지속 촉구 성명</p> <p>정몽준 축구협회장, 남-북-중-일 4개국 참가 동북아 축구리그 창설 제안</p>	<p>북-인니,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정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1, 북-인니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 협정서에 백남순 외무상, 이광호 과학원장과 누르하산 위라유다 외무상, 하따라자싸 국무상이 서명 <p>민주조선, 일본각료 위안부 보상 기금 기탁 비난</p>	<p>일본외상, 대북 대화 방침 불변입장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상은 한미 양국과 연계하여 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음. <p>메가와타 대통령, 남북대화 주선 제의</p> <p>UN인도지원조정국, 인도적 대북지원현황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1			<p>파월장관, 북한 등 특 정국가들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월장관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의 사용을 통해 득을 챙기려는 국가들이 있다는 우려 표명
7.12	<p>대학생 통일탐구단 320명, 금강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주최하는 대학생 방북행사가 12일 금강산에서 개막 - 동 행사는 대학생들이 분단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계기이며, 북측 대학생들과 만남은 없음 <p>이준 국방부장관,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준 국방부장관은 확전 가능성 부분은 군수뇌부에서 고민을 하더라도 현장 지휘관 등 군인들은 교전규칙에 따라 명쾌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 	<p>김영남, 백남순외무상, ARF 회담참석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 메가와띠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달 말 브루나이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에 백남순외무상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언급 <p>조선신보, 대북강경론 완화되어야 북·미대화 가능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 논란으로 특사의 평양방문을 질질 끌다가 서해해상사건을 빌미로 특사파견을 중단했으며 대화재개는 강경론이 완화돼야만 가능함 	<p>영, 경제사절단 2차례 북 파견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는 영국 런던무역관 보고를 인용, 영국이 올해 2차례에 걸쳐 북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 <p>일 외상, ARF서 북-일 외무회담 개최 희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3	<p>합참, 고속정 인양관련 군사대비계획 등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양작업을 하는 동안 북측의 어떠한 방해나 도발도 철저히 차단 -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p>한국기자협회, 금강산에서 15~17일(3일) 세미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15일부터 3일간 「남북기자 교류의전망과 통일을위한 역할」 주제로 세미나 개최예정 <p>한일 외무회담, 대북대화 기조 유지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외무장관은 서해교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북한과 건설적대화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데 합의 	<p>중방, 새 장거리 미사일 추가 개발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송은 평양 3대혁명 전시관의 '인공지구위성관'을 소개 하면서, "이곳에는 광명1호의 모조품과 함께 앞으로 개발하게되는 한가지 종류의 인공지구위성모형이 전시돼 있다"고 보도 <p>평방, 제대군인용 주택 500가구 건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성은 최근 함경남도에 위치한 철도공장 인근에 제대군인들을 위한 주택 500가구를 건설 - 최상의 수준건설을 목표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있으며, 벽체조립공사, 내부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다고 보도 <p>중통, 중앙기관 파철 수집사업 전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군중적 운동으로 강철전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省)중앙기관 정무원들은 많은 양의 파철을 수집했다고 보도 	<p>하버드 주한 미 대사, 미 대북정책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수립과 관련, 미국이 해야할 역할이 있음 - 특사파견 제의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과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음 <p>미,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규 주한미군대변인은 "발굴비용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되었으며 이달 말 북한에서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4	<p>KEDO, 경수로건설계획 연기 외신보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건설계획 연기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서해 교전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타설식의 남측 취재단 참석문제 등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음 - 북측 핵안전규제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양양-선덕 직항공로 시험비행 또한 이달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음 <p>한적, 고령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세이상 고령 이산가족 100명의 영상편지를 만들기 위해 DVD 제작 추진 - 오는 20일까지 DVD제작수강생 50명을 모집한 뒤 내달 7~17일까지 실제 촬영에 들어갈 예정 	<p>평방,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우리민족이 싸울 근거는 없음 - 6.15공동선언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담고 있음 <p>중통, 북-리비아 실무회담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등 북측 실무대표단은 13일 트리폴리에서 리비아측과 회담을 갖음 - 쌍방은 두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것과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정된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점을 보았음 	<p>산케이, KEDO, 경수로 건설계획 연기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8월초 기초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대북경수로 2기에 대한 건설계획 동결 등 KEDO 사업 수정방향을 굳혔음 - 북한이 경수로 건설의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거부, 서해교전 발생이후 조성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 <p>산케이, 괴 선박 로켓포에 한글인쇄 표시확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해에서 침몰한 괴 선박으로부터 회수된 로켓포 발사장치에 별 모양과 한글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5	<p>관광공사, 금강산여관 안전진단 실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공사 관계자는 “현 대아산과 북한 아태사이의 금강산 임대료 문제 타결에 따라 조만간 금강산여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p>김대통령, 서해교전 관련 북한의 납득할만한 조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은 북한이 불법도발 한 것이며, 성의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미북 관계도 북측이 서해교전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미북 회담도 열리게 될 것임 <p>한국기자협회, 남북기자대회 공동개최 제안 결의문 채택(금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자대회 공동개최 제안 결의문의 내용은 공정보도, 안보상업주의 경계, 남북한 기자대회 공동 개최 등 촉구하는 것임. 	<p>8.15 행사 실무접촉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민화협은 8.15 행사 관련 남북간 실무접촉을 7.20-23 평양에서 개최하는 남측 추진본부 제의에 동의 - 이와 함께 북측 민화협은 “행사계획에 대해 우선 서면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 <p>북-리비아, 경제유대 확대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관영 JANA 통신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리비아의 살감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증대하기로 합의” 	<p>일-러, 괴선박 관련 공동대처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을 방문중인 콘스탄틴 토츠키 러시아 국경수비대장은 7.14 가와구치 일본외상과 회담 - 가와구치외상은 괴선박 일본영해 침범사건을 제기, 이와관련 양국간 협력을 제의하였으며 토츠키 대장도 이에 동의 <p>동북아 비핵지대 회의, 7월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조지아공대 산하 국제전략기술정책 연구소 주최 제8차 동북아 비핵지대 회의가 몽골에서 개최 - 연구소 측은 유엔 주제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측대표의 참가를 요청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5	<p>환경부,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 착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 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발표함. 		
7.16	<p>KEDO-북, 원자력 손해배상 의정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기획단 관계자, KEDO 사무국 린치법률부장 등 대표단이 16-24일 북한을 방문 '원자력 손해배상 의정서'에 관해 협상할 예정이라고 언급 <p>자유민주민족회의 서해교전과 관련 규탄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햇볕정책 철회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요구 	<p>노동신문, 일본에 과거사 사죄와 보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지배층이 죄 많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려 하고 있음 - 종군위안부 관련 민간기금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적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비열한 연극임 <p>중방, 아리랑공연 재장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 아리랑 공연을 재연장 하는 온정을 베풀어주었음 <p>노동신문, 미국의 중동평화안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정간섭적인 것으로 중동사태 해결에서 복잡성을 조성할 수 있는 부당한 것 	<p>러외무부, 이바노프 외무장관 남북한 동시 방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노프 장관은 26-28 서울을 방문, 최성홍 외교부장관과 회담하고 27일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예정 <p>미 외무, 북한-이라크 군축의무 불이행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가장 큰 도전은 테러리즘, 대량살생무기, 범지구 배가 붕괴된 국가들로부터 오는 만큼 이라크의 국제적 속임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기본합의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또 다른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음
7.17		<p>중방, 김영남,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음 - 회담에서 쌍방은 반제국주의 조선과 시리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견해일치를 보았음 <p>노동신문 논평, 이 준 국방장관 취임사 내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사건은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 것으로 결과가 어떻든 도발자는 다른 누구를 걸고들 자격이 없음 - 남측은 대화를 발전시키고 통일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로 나와야함 <p>중방, 북-리비아 협정 체결 보도</p>	<p>러시아 TSR-TKR 연결관련 남북러 3자 협정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 추진 관련,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이 상호 문서를 통해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폴리코프스키는 철도연결 사업이 성공하려면 북한은 미국 등 외세가 남북관계에 개입하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 투자장려 및 보호 협정, 과학기술협조협정, 2002-2004공보 및 문화협정 집행계획서가 16일 조인되었음 - 백남순 외무상 등이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함께 북한은 현재 위기탈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호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적극적인 동반자라고 주장
7.18	<p>한미 양군, 고속정 인양 작업시 협력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준 국방부장관과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회동을 갖고 이달말 시작 예정인 고속정 인양 작업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p>서해교전관련 300인 선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진균 서울대 교수 등 각계인사와 20개 시민단체는 18일 서해교전 사태의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하고 평화결의대회를 개최 -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른 남북화해협력 노력 지속과 서해상 '해상경계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촉구 	<p>북-시리아, 과학협정 등 분야별 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일행은 시리아와 분야별 회담을 갖고 친선증진 등 공동관심사에 의견교환 <p>노동신문 논평,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 시정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함에 따라 한반도는 위험한 전쟁발원지가 되고 있음 - 미국이 조선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핀다면 그것은 미국에 파국적인 재난을 가져다 줄 것임 <p>김정일 위원장, 청학축산분장을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은 평북 청학축산분장을 방문, 농장 일꾼들의 공로를 평가 	<p>6.25전쟁 실종 미군 유해 발굴단 중국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기간 중 중국에서 실종된 미군 조종사의 유해수색작업을 위해 관계전문가들이 베이징에 도착 <p>일, 러시아에 일·북 대화재개 지원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상은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가와구치 외상은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을 끈기 있게 북한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 비서와 리용철 제1부부장 등이 수행 	<p>뉴욕타임즈, 중국, 탈북자 구금, 추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정밀조사, 구금, 추방 등의 강도가 높아졌음. - 올해 탈북자 숫자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북한으로 송환되는 숫자는 2배로 증가하였음.
7.19	<p>건교부, 평화의댐 2단계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임남댐 완공대비, 평화의 댐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 금년 9월에 착공,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천950억원이 투입될 예정 <p>8.15행사 실무접촉 남북대표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측 민화협과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 	<p>주호주 신임대사에 천재홍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천재홍을 호주 주재 공화국 특명 전권대사로 임명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평양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인도네시아, 리비아, 시리아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9일 평양에 귀환 <p>조선신보,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0월 일본 순회공연 보도</p> <p>과학기술대표단 헝가리 방문</p>	<p>웬디 셔먼 전 대북조정관, 미북접촉재개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중·러에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토록 하면서 북한과 접촉을 재개해야 함 <p>미군 유해발굴 관련 자료 북측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는 6.25전쟁 실종 미군유해 발굴작업을 위한 관련자료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9	- 실무접촉은 7.20-23 평양에서 진행될 예정	- 박승채 과학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과학기술대표단이 19일 헝가리를 방문	전달
7.20	<p>양양-선덕간 남북 직항공로 운항 개시</p> <p>-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양양 공항에 도착, 한국 전력 관계자 등 남측 인사 8명을 태우고 북한 선덕 공항으로 귀환</p> <p>- 동 직항로는 경수로 사업 인력·물자 수송시 이용</p> <p>한나라당, 탈북자 인권대책 촉구</p> <p>- 한나라당 인권위, 북한이 탈주민 종합대책 전달기구 마련</p> <p>- 이탈주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지원필요</p>	<p>직총 대변인, 단병호 실형선고 관련 7.19 담화 발표</p> <p>- 노동자들에 대한 남조선 사법당국의 탄압 만행을 민주주의적 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계획적인 범죄행위</p> <p>라선 지역에 상설국제도매시장 개설</p> <p>* 관광총국 인터넷사이트 게재</p> <p>- 북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의 무역을 희망하는 외국업체의 입주가 가능</p> <p>- 상품 반출입은 무관세이며, 다만 북한 내부와 거래한 경우에 한해 관세적용하며 에너지 및 발전설비, 경공업제품, 약품, 농업기계 등을 취급</p>	<p>미국, 금년도 제1차 미군유해발굴작업(7.20-8.20, 평남 운산군 및 장진군)관련 미측 관계인원(28명)방북 파견</p> <p>- 이는 북미실무회담(6.7-6.9, 방콕) 합의에 따른 것임.</p>
7.21	<p>주중 한국공관에 한국인 경비원 파견 계획</p> <p>-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도주의적 신병처리를 계기로 한국인 경비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p>	<p>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중 대외부 대표단 만남</p> <p>-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중국 대외부 대표단을 만나 조선은 앞으로 두당, 두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p>	<p>산케이, 조총련 신용조합에 일본인 이사장을 선임 보도</p> <p>- 일본정부가 조총련계 금융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일본인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1		<p>7.4공동성명 30주년 즈음 정 부비망록 안보리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남북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남북신뢰관계 조성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 <p>노동신문, 일본의 핵폐연료 재처리위한 해외수송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에네르기생산을 구실로 핵폐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그것을 해외로 수송하는 기본목적은 핵무장화에 있다고 폭로 - 세계는 일본의 핵물질비축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일본을 핵피고석에 끌어내어 재판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시의 3개 조총련계 신용조합은 일본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전제로 요구한 '일본인 이사장 선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p>허버드 미 대사, "대북대화 계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최근 미국과 고위급 특사 방북제에 응하지 않았으나 평양과의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으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음 -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7.22	<p>한미양국, 워싱턴에서 대북정책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양국은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간 협의를 갖고 서해사태 이후의 대북 정책 전반을 조율함 	<p>총련 신용조합, 일본 강압행위 중단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간키지방에 새로 설립하는 총련 신용조합들에 일본인 이사장을 강압적으로 등용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 	<p>마이니치, 미 의회자금 탈북자 망명에 유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민주주의기금의 거쉬먼 이사장은 한국의 몇몇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양국의 상황인식 교환이 목적이라면서 구체적인 북미대화 조율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합의 근본성격을 부정하고 조합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행위이며 북한 적대시 정책과 민족차별정책의 뚜렷한 발로라고 주장 <p>노동신문 논평, 미국의 전략무기 개발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레이저 유도폭탄과 탄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에 필요한 무기를 축적하기 위한 것 - 초음속 미사일과 전투기 등에 탑재가 가능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선제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은 중국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한국망명을 돕고 있다고 함 <p>WFP, 북 식량 배급량 7월 줄여서 배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7월들어 성인 1인 기준 하루 식량 배급량이 전달보다 50g 적은 300g으로 줄었다고 밝힘
7.23	<p>남북한 8.15공동행사 서울 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민족공동행사 추진 본부는 7.20-23 평양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 북측대표단은 100명정도 구성되며 남북 직항로를 통해 8.14-17 서울방문 예정 	<p>체육과학연구소 부소장, 남한 월드컵 4강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남한이 4강에 오른 것은 '역사적인 돌파' - 이는 남조선의 성과일 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성과이며 아시아에서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사변 <p>이탈리아 대사교체 및 주아제르바이잔 신임대사 임명</p>	<p>중국 주미 대사관, 탈북자는 불법 입국자로 단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주미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입국자 들이며 중국내 외국공관이나 총영사관은 불법 입국자에게 망명처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있지 않다"고 밝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홍립 이탈리아 주재 대사의 후임으로 최택산을 임명하고 아제르바이잔 주재 신임대사로 리철광을 임명 <p>중통, 남한내 통일운동단체들의 단결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관계가 이전의 대결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하고 북남 대화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은 미제의 반공화국, 반 통일, 전쟁대결책동 때문임 - 남한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단결, 미제와 남조선 우익보수세력의 반 통일, 전쟁대결책동은 짓부셔 버려야 함 	<p>이타르타스 통신, 북한이 가격혁명 실험중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정권은 주민들이 개인의 책임하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인 준비를 시키고 있음 - 경제개혁은 국가가 무료로 제공해 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7.24	<p>한적, 이산가족상봉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남북 적십자회담개최 제의 31주년을 맞아 추석 이산가족상봉과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8.12 총재명의 성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과 추석 전후에 5차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의할 계획 	<p>외무성 대변인, 정전협정 체결 50주년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의 비법성을 가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유엔사령부가 해체되어야 함. - 99년에 이어 서해상에서 무장충돌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정전협정에도 없는 NLL을 철회하지 않는데 있음. <p>중통 논평, 서해상 북방한계선 해상교전 재발 경고</p>	<p>이바노프 외무장관, 남북한을 방문 양국정상과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로슈코프 외무차관,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한반도안정과 남북대화 재개 등 '평화중재'를 위해 남북한 방문 - 남북한 양국정상과 만나 한반도 상황 등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할 경우 더 많은 해상교전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이 불법으로 획정한 해상경계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장차 심각한 사태들이 있을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콩고민주공화국 신임대사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신임대사에 김영룡 임명 	<p>북, TKR-TSR연결 사업 국제포럼 불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KR-TSR연결사업관련 한국과 러시아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포럼(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이 참석키로 했으나 불참
7.25	<p>통일부 차관, 북측 유감표명 긍정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한 것은 서해교전사태와 관련 사실상 사과의 의미를 갖는 것임 - 이번 북측 제의를 계기로 형클어졌던 남북대화를 다시 복원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p>김동태 농림부장관, 대북 쌀지원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에 쌀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추진하겠음 	<p>김령성 단장,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서울에서 제7차 북남상급 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한 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5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에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 8월초 금강산에서 상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을 제의함 	<p>미 국무부,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남북장관급회담 제의를 환영 - 긍정적인 사태 진전과 북한이 제안한 남북대화의 재개에 주목 - 남한을 물론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과 북한이 하고 있는 대화에서 진전을 이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쌀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200만석 가량 검토하고 있음 <p>제17차 한미군사위원회, 고속정인양관련 군사대비계획 수립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은 실종자 수색 및 침몰 고속정 인양, 유엔사는 북한군 서해정전협정 위반조사완료 - 한미연합 위기관리체제 가동, 탐색 및 구조작전 준비와 작전지원을 위한 준비태세 강화 		<p>UNC-북한, 서해교전(6.29)관련 군사정전위 비서장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측의 침몰 경비정 인양작업계획 등을 토의하자면서, 인양작업과 관련해 발생되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UNC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NLL무효화에 주력
7.26	<p>통일부장관, 대화 재개시 군사긴장 완화 역점 * 국회상임위 현안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가 재개되면 서해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역점을 둘 것임 - 이산가족문제와 철도·도로연결문제, 개성공단 건설, 경협사업 등을 논의할 것임 <p>한·러 외무장관회담 개최</p>	<p>외무성 대변인, 미 특사 적극 수용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사건 이후 미국의 특사 파견이 취소 됐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돼 미국이 다시 특사를 보내겠다면 우리는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임 <p>외무성대변인, 요도호 관련자 귀환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안에서는 마치 우리(북한)가 의도적으로 취한 조치인 것처럼 몰아붙이려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인들이 제나라 땅으로 되 	<p>서해교전 관련 북한의 유감표명, 각국의 언론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N방송, 북한이 유감표명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의사를 밝힘, 이는 김대통령의 '햇빛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 BBC방송, 북한의 유감표명은 위기조장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6.29서해도발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 - 이바노프 장관은 28-29 방북시 북 외무상과 한반도 화해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 표명 <p>북, 경수로요원 25명 KEDO 교육 마치고 27일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안전규제요원 25명이 대덕연구단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훈련센터에서 26일간 교육을 마치고 7.27일 귀환 	<p>돌아가겠다는데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으며 귀국문제는 본인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타당하게 해결되기 바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사히, 북한이 식량난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악화된 국제이미지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의 강경자세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판단함
7.27	<p>국방부 대변인, 고속정 인양 계획대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유감표명과는 무관하게 원래 계획대로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실종자 수색 및 고속정 인양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힘 <p>이바노프 러 외무장관, 기자회견</p>	<p>북-헝가리, 과학기술의정서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원은 헝가리 기술과학 협조 및 자문봉사총회사와 2002-2003년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 의정서에는 과학원 박승채 부원장과 헝가리 기술과학 협조 및 자문봉사총회사 타도스 라슬로 총사장이 서명 	<p>러시아, 대북경협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을 발전적 파트너로 간주 - 아직 구체적 경협 확대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가시화 될 것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김대통령에게 전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것임 - 한국측 인사들이 남북관계가 잘 되도록 러시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받았으며 한국체류기간 보고 느낀 것을 북측 관계자들에게 전해줄 것임 	<p>평방, 북방한계선 '무효' 거듭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L은 그 어떤근거도, 법적 타당성도 없는 천만부당한 유령선이며, 우리는 한번도 NLL을 인정한 적이 없음 	
7.28	<p>통일부 차관, 금주초 금강산 실무회담 본격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제의대로 8월초 금강산 실무접촉이 이뤄지도록 준비 - 주요 의제는 북측이 먼저 남북철도연결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거론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 	<p>북-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조-러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국제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이바노프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전달 <p>노동신문, 일본의 자위대 작전 지휘체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작전 지휘체계의 개편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방위청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제거리로 되고 있음. 	<p>산케이, 몽골 외무장관, 탈북자 망명 희망국에 인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탈출해 몽골에 도착한 주민을 원칙적으로 망명 희망국에 인도할 방침 - 외국지원단체가 탈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사실무근 <p>미 상원, 탈북자 지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상원은 "국무부가 증가된 예산을 탈북자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의 작전지휘체계의 개편은 해외침략에 대비한 일본반동들의 새로운 군사적 조치로서 전쟁준비의 완성을 의미 - 자위대의 통합운용구상은 일본에서 유사시관련법안 제정 놓음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해외팽창의 길로 무섭게 줄 달음치는 일본반동들이 언제 인가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 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음. 	<p>망명희망자의 인 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p> <p>일 외상, 북한과 국 교정상화 회담 재개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의 모든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 <p>이바노프 장관, 방북중 기자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
7.29	<p>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유감표명이 우리의 기대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외교관례상 유감은 사과의 뜻으로 통용돼 온데 비쳐 받아들이고 남북 당국간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p>북, 남한 차세대구축함 이지스 선정정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해군이 7천톤급 차세대 구축함(KDX-III) 3척에 장착할 첨단 전투체계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체계를 선정 - 국방부는 F-15K기 도입에 대한 의혹과 반발이 커가고 있는 때에 차세대 구축함 전투체계 도입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밀기로 했다고 보도 	<p>WFP관계자, 식량배급 중단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지역 담당관, "식량배급을 재개하지만 한달 내로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9월 하순경 배급은 다시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 - 제럴드 버크 대변인,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자들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9	<p>평화포럼, 미 특사팀에 한 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권고안 전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해결 △남북한이 주도하되 국제사회지원 △공동안보개념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접근 △평화공존 추구안 등 4가지를 제시 <p>현대아산, 총석정 관광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 아태와 제2회 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링 대회(8.13-16) 문제논의시 총석정과 해수욕장 포함 방안 공식제의 	<p>북, 남한 불교도의 공동선언 실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겨레와 함께 단결하여 이 땅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지상정도를 세우기 위한 실천에 떨쳐나서야 함 - 이 땅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근원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하며 모두가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에 충성한 불자,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함 	<p>계 우선적으로 식량이 배급되고 있으나 해외 원조가 늘어나지 않으면 현재 진행중인 배급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p>
7.30	<p>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일자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의하며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금강산에서 	<p>중동 논평, 마약밀매 관련 일본언론보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에서 적발된 헤로인 밀매사건에 우리해군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도쿄신문 보도내용은 허위적 성격을 띠고 있음 - 다른 나라에 대한 마약밀매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온갖 행태의 범죄적인 마약생산, 밀매를 반대하는 공화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p>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북-일 국교정상화 적극추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갖고 국교정상화교섭을 추진해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30	<p>개최할 것을 제의</p> <p>통일부 공보관, 대북쌀지원 결정정보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식량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한바 없으며 향후 남북간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임 - 정부가 쌀30만톤~50만톤 지원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p>중앙예보연구소, 자연재해는 미·일 배출가스 때문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자연 재해는 온실가스에 의한 이상기후현상 때문이며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은 미국과 일본이 우리(北)와 거의 같은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상기후현상으로 알곡수확고의 감소, 수력자원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부족 등 피해가 큼 <p>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개최일자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4 실무대표접촉을 하자는 남측제의에 동의 	<p>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북한정권 교체 시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의 체제교체를 위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다른 나라(이란,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p>미 국가안보회의의 대변인, 북한의 대화제의 관련 후속대안 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미 국가안보회의)는 북한과 진지하고 포괄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있음. - 북한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대안을 재검토하고 있음
7.31	<p>장선섭 KEDO집행이사회의장, 한반도 핵위기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감시단의 시찰에 응하지 않는다면 마찰이 	<p>해군사령부, 남한 해군 영해침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군 전투함선의 우리영해에 대한 침범은 북과 남 사이에 마련되고 있는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p>제9차 ARF, 한반도 문제 관련 의장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서해 사태에 대해 우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31	<p>빛어질 수 있으며, 북미 대화가 2003년 위기설을 해소하는데 필수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작업이 완료돼야 하며 사찰작업은 3-4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찰작업이 시작돼야함 <p>전경련, 북한 경제개혁 자문기구 설립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의 물가·임금 인상, 환율현실화, 배급제개선 등 시장경제도입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개혁정책은 독자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움 - 한국과 서방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경제특구 운용, 인프라 확장,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전반적인 자문에 응해야 함. 	<p>대결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적인 도발책동</p> <p>백남순 외무상, 제9차 ARF 각료회의 참석 및 미북대화 재개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조건없는 대화를 희망한다면 이에 호응할 것임. - 재래식무기는 자위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대상이 아님. 	<p>를 표시하며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대화재개 움직임에 주목하며 신뢰구축과 화해협력증진의 진전 희망 <p>탕자쉬엔 중 외교부장, 남·북한문제 당사자 해결원칙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백남순 외무상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으며, 평양측은 미국 외교관들을 환영할 방침임을 시사했음 <p>미·북한, 비공식 외무장관접촉(파월 국무장관·백남순 외무상·브루나이 제9차 ARF) 및 북미대화 재개 합의</p> <p>일·북한, 외무장관 회담개최 및 국교정상화 관련 공동보도문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	<p>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명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이봉조 통일부실장 서영교 통일부국장 - 회담장 : 금강산 여관 <p>국제사회의 탈북자 대책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 박수길위원 - 목숨을 걸고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에 들어가 정치적 망명과 한국행을 요구하는 북한 난민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 <p>한적, 대북구호물자 전달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기탁한 의류 4886점, 옷감5860야드, 등 제5차 대북구호물자를 8.7 출항하는 인천-남포항 선박을 이용하여 북측에 전달할 계획 	<p>백남순 외무상, 미 특사방북 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대화 재개에 합의했으며 켈리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 - 방북일자는 미국이 결정 <p>국가관광총국, 일본서 어학 연수생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모니터 기획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이용한 '조선단기유학(어학연수) 실시 - 1회 연수기간은 8.1~9.30까지 두 달간으로 4일, 8일, 16일 코스 등 3종류가 있으며 평양 시내 학교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평양 시내를 관광 <p>조평통 서기국, NLL 관련 백서 발표 및 북미 대화를 통한 새로운 서해해상경계선 합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해상 경계선 설정문제는 철저히 조선정전협정에 기초해 북미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NLL을 계속 고집할 경우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음. 	<p>미 국무부 관계자, 북측언행 검토 후 대화추진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것이 북한의 메시지 - 우리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북한이 내놓은 성명들을 검토한 후 회신할 예정 <p>EU집행위원회,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417만유로(미화 406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금은 영양실조와 열악한 병원 및 탁아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1만명의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식량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	<p>한중외무장관회담, 양국간 안보대화 정례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부터 양국 국방·외교당국자간 안보대화 정례화 - 탈북자문제 등 양국사이 현안들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호적으로 해결 - 선양주재 한국 영사사무소를 충영사관으로 승격 <p>남북간 나운규 기념사업 협력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아리랑연합회는 북측 대외초청영접위원회와 공동으로 춘사어록비 건립, 한민족아리랑 대전 편찬, 집단체조'아리랑'공연 정례화 등 문화예술분야 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p>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8.12-14, 서울)과 의제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등 합의 	<p>평방, 백남순외무상, 미국에 평화보장조치 요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진정 북·미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실천적 행동조치가 중요 -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적대시정책과 북·미 정전관계를 끝장내는 것 <p>이찬복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서해교전 관련 장성급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찬복 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6.29서해교전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장성급회담을 8.6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p>북-중, 박수길 위원 탈북자 거론 반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명남 대표, 탈북난민문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며, 북-중 관계 발전에 장애 조성 목적으로 적대세력 등의 날조 유포된 거짓말 - 중국 참사관, 중국 내 탈북자 등은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체류하고 있는 경제적 이주자라고 밝힘. <p>미 국무부 부대변인, 파월 귀국후 대북 후속조치 결정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외무장관 회동 결과를 부시 대통령 및 국가안보회의 대북담당책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대북관계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	<p>김대통령, 중국 외교부장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가 한중수교 10주년 및 국민교류의 해인만큼 두 나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안보 등 모든 분야에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지역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 <p>조평통 백서관련 한나라당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L은 50년간 지켜와 관습법으로 성립한 분명한 군사분계선임. - 북한은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합의한 바 있음. 	<p>중통, 서해교전 유감표명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은 북남관계를 회복시키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의 반영이며 추호의 의심이 없음. - 불순세력들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 미흡하다 등 왜곡하고 있는 것은 선의와 아량에 대한 모독임. <p>노동신문, 서해교전 한·미 호전세력 책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호전세력이 우리가 인정한 적도 없는 NLL을 계속고집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도전임. - NLL은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근본이며, 우리영해에 전투함선과 어선들을 불법침투시키는 것은 북침을 위한 계획적인 도발행위 <p>대외초청영접위 상설기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공연에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아리랑대외초청영접위원회’를 ‘대외초청영접위원회’로 상설기구화 함. 	<p>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 북한 개혁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이 취한 경제개혁조치에 대해 중국의 개방경제를 수용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북한은 자기들만의 방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경험을 100% 북한에 적용할 수 없고, 북한이 자기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p>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공동보도문 발표</p> <p>① 2002.8.12-14까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p> <p>②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p> <p>③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4·5 공동보도문 이행 확정문제와 제4차 적십자회담개최 및 제5차 이산가족상봉 실현문제 등</p> <p>④ 제14차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북측 참가와 편의보장 등 적극지원</p> <p>⑤ 8.15서울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p>	<p>노동신문, 미군 철수운동 촉구</p> <p>- 부시정부는 악의축 교리밑에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공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위협당하고 있음.</p> <p>- 남조선 인민들은 미군철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함.</p> <p>평방, 북방 한계선 즉각 철회 주장</p> <p>- NLL은 휴전협정에 기초해서 해결돼야 하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NLL유지를 계속고집하고 있음.</p> <p>-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NLL을 고집하지 말고 무조건 철회해야 함.</p>	<p>요미우리, 일본 재외공관 난민처리 추진 보도</p> <p>- 일본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공관에 서도 난민신청을 받아들일 방침</p> <p>- 인도차이나 출신 난민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 직업 및 외국어 교육을 유엔난민 조약상 인종, 종교 등으로 박해의 우려가 있는 난민들까지 확대 적용</p> <p>파이낸셜타임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이동통신망 구축 반대</p> <p>- 미국은 이동통신기술이 북한군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p> <p>- 북한의 이동통신사업 참여에 대한 한미간 논쟁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한국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는 미국간의 시각차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p>김 대통령, 7차 장관급회담 시 기존합의 실천조치 마련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차 장관급회담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강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 <p>KEDO 집행이사회 5-6일 서울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금호지구 경수로 본체 콘크리트 공사 착공식에 앞서 서울에서 KEDO 집행이사회 개최 <p>이사회 참가자들은 케도의 운영현황과 대북 경수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본체 콘크리트 타설 이후 공정 등 현안대책과 방향을 협의</p> <p>해군, 서해 고속정 인양작전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구조함 청해진함(4천 300톤급), 해상 크레인 등 군용장비와 해난구조대(ssu)의 잠수요원 60여명을 고속정 침몰 해역 인근에 투입 	<p>중방, 유엔 인권소위 연설, "특정국가 가치관 기준 인권판단 잘못"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강구해 나가려면 자주권의 신성불가침을 거세하려는 부당한 시도들이 배격되어야 함. -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인권향유의 초석임. - 특정한 나라의 가치관과 모델을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판결하는 독단과 전횡을 반대함. <p>평방, NLL 관련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NLL을 그대로 두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막을 수 없음. - 국제법 건지에서도 쌍방 육지의 돌출부와 바깥계선 또는 섬으로부터 등거리원칙을 적용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음. 	<p>WFP, 대북 식량지원 긴급 지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식량원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수백만명이 굶주리게 될 것임. - 만약 추가지원이 없으면 유엔식량계획은 노인층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급식을 중단해야 함. <p>중국 국제방송, 남북관계 개선 호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서해교전으로 더욱 궁지에 몰렸으나 북측의 유감 표명으로 회복됐음. - 북측의 친선적인 태도는 인정되나, 남북의 대화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당국간 대화실현에 크게 기여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p>아시안게임 조직위, 북한 엔트리 조기제출 요구예정 * 본부장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진표 편성, 경기 장소 및 시간 확정 등을 위해 단체경기 출전엔트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 <p>8.15 행사 관련 2차 실무접촉 대표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행사 참가단 규모와 구성, 공연예술, 행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확정 		<p>오시마 겐조 유엔사무차장, 북한 개혁조치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쌀값을 50배나 인상하고 임금도 올리고 있지만 이같은 개혁이 만성적인 기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지 미지수임.
8. 6	<p>한국스카우트연맹, 평화통일기원 휴전선횡단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대학생과 네덜란드 입양인 2명 등 155명이 2002휴전선 횡단체험을 8일(8.9-16)간 임진각-강원도고성까지 걸어서 횡단하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 - 체험단은 휴전선지역을 횡단하는 동안 군부대 병영체험·비무장지대(DMZ) 생태답사 등의 활동을 펼침. 	<p>평방, 일본 군국주의 부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과거 침략사를 재현 아시아에서 독점적 지배를 확립하고 있음. - 2차대전 전몰자 추모비 건립, 역사교과서왜곡 등을 지적하며 자국민에게 군국주의사상과 재침 열기를 불어넣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고 있음. <p>중방,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일본에 사죄·보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탄 피해자 원호에서 공정성을 보장해 공화국에 살고 	<p>월스트리트 저널, 북핵사찰 거부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첫 콘크리트 타설식은 '악의 축'에 속하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라고 비판 - 미국과 동맹국이 무료로 식량과 증유를 주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적들과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6	<p>생물무기 사용 포기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식성 독성과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 시사용금지의정서(제네바의정서) 유보철회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p>서해교전관련 장성급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과 유사한 적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노력하고, 긴장완화와 상호 오해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솔리건 대표는 고속정인양과 실종자수색 작전을 북측에 통보 	<p>있는 원자탄 피해자에게 사죄·보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세계유일 피폭군으로 핵무장화 책동을 견어 치위야하며 실천적 행동으로 핵군축과 핵무기철폐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p>창성 연석회의 40주년 토론회 개최 및 지방경제 활성화·지방공공자율권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독려</p> <p>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조미 군부 장령급회담 진행정형에 관한 보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동 보도를 통해 서해교전문제와 관련 8.6 개최된 UNC-북한간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명백한 해상경계선의 합의·설정문제가 협의되었다고 왜곡, 북·미간 서해 해상경계선 협의·설정을 기정사실화 	<p>밀거래를 함.</p> <p>리,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기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 재개는 이바노프 외무상의 서울과 평양방문이 크게 기여함. <p>UNC- 북한, 서해교전 문제 관련 제13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측은 서해사태 재발방지대책과 상호긴장완화방안 등을 제시 <p>UN아동기금, 북한과 "어린이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사무차장은 "유엔아동기금과 북한이 북한어린이들의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 합의했다"고 발표 - "평양상주 유엔구호단체들의 활동 편의를 위해 위성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6			통신망을 허용하기로 했다” 언급
8. 7	<p>KEDO,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콘크리트 착공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집행이사회 장선섭 의장 등 관련인사 750여명이 참석, 대북경수로 발전소 본체 콘크리트 타설(打設)식이 함남 금호지구에서 개최 - 장선섭 의장은 북한이 IAEA와 협조해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p>7대중단, 대북 쌀지원 재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원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이 재개되어야 함 - 대북 쌀지원은 경제논리나 정치논리가 아닌 동포애차원에서 추진 되어야함 	<p>중방, 조-일 적십자 회담 평양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회담이 양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며, 양국은 행방불명자 조사문제, 재조 일본인 여성들의 고향방문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토의 <p>중방·평방, 장성급회담에서 고속정 인양문제 등 협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유엔측이 지난 서해해상 사건때 침몰된 남조선 군함선 인양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알려 온 데 대해 긍정평가 - 인양과정에 쌍방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의했으며, 앞으로 서해해상에 명백한 해상경계선 합의 설정에 대해 협의 <p>노동신문, 민족자주는 침략과 분열책동을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에만 우리 민족은 	<p>유엔사 라포트 사령관, 서해침몰 고속정 인양작전 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인양작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미 유엔사의 특별조사단 활동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통보 - 인양작전의 목적은 북측의 정전협정위반 조사를 마무리 하기 위한 것이며, 정전협정의 실행과 유지는 유엔사의 책임 <p>중국국제방송, 북-미 관계 개선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대표가 장군급회담 개최와 KEDO의 경수로 본공사 타설식이 진행되어 북·미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7	<p>8.15공동행사 2차실무접촉, 민족공동행사 일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8.15민족통일대회 - 기간 : 8.15(목)~16(금) - 북측인원 : 100~110여명 - 장소 : 올림픽 제2경기장, 조달청문화관, KOEX오라트리움 - 내용 : 개·폐막식, 민족단합대회, 미술·사진전시회, 독도 학술토론회, 부문단체별모임 <p>부산시의회, 북한 부산AG 참가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선수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 남북스포츠 교류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북한의 참가를 크게 환영 -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분단된 국도를 종단, 육로로 부산까지 봉송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p>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승리의 상상봉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은 미국이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추구하는 한 조국통일운동에서 어떠한 전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이 땅에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줌. - 온 민족이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며 반미, 반전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에만 새 전쟁을 막고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관계가 발전하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지역 안정에 큰 영향을 주며 북·미 두 나라가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교류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분위기 마련할 것을 희망 <p>미 프리처드 대사, 경수로건설 중단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미국과의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 - 북한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는 한 미국 또한 그렇게 할 것이며, 북한이 두나라간 핵합의의 조항과 정신을 지킬 것으로 기대 <p>KEDO, 대북 경수로 본체 콘크리트 타설식 개최(신포시 금호지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8	<p>부산 아시아드지원협회, 부산 AG에 북한 이산가족 초청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있도록 남한의 가족이 북한에 있는 직계가족과 친척을 아시아경기대회에 초청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 경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초청자에 대해서는 시민모금운동을 통해 조성한 기금에서 일부지원 	<p>중통, 외무성 대변인 미국 대북 적대정책 중단 요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로 누구를 언제 보내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할 일이며, 만약 미국의 사정이 있다면 특사를 안 보내도 좋으며 편리한대로 하라는 것임. - 미국이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여 제기된 문제로서 우리는 그를 받자는 입장이며 상급집측에서도 미국이 특사파견의향을 다시 표시하여 온데 대해 환영함. -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한 대화가 열려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 	<p>교도통신, 이바노프 외무장관, 한반도 안정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외교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일본, 미국과 정치적 대화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 -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벌일 것임 <p>리커 미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의 핵 합의 준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수로건설 콘크리트 타설식은 미국이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사항준수를 위한 전진적인 조치를 보여준 것임.
8. 9	<p>국방부, 서해교전 실종자 유해발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은 서해교전 현장을 탐색해 침몰 위치와 실종자 유해를 발견함. 	<p>중방, 조평통서기국 보도, 주한 미군 철수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철수시켜야 함. 	<p>카트먼 KEDO 사무총장, 북한 특별사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IAEA가 요구하는 특별사찰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는 청진함으로 옮긴 뒤 고속정으로 연평도를 거쳐 분당 국군수도통합 병원으로 이송 <p>국가원로모임, 8.15민족공동행사 국민적 성원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 의장 등 원로 20여명은 8.15민족통일대회가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기대함 - 8.15민족공동행사를 통해 민족의 의지가 알려지기를 바람 - 대북 쌀지원은 정치논리에도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함 <p>통일부장관, 남북장관급회담 추진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합의를 이루기보다 기존합의사항의 이행 일정을 확정. 실천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제도화의 기반마련에 역점 -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등 실천 가능한 경협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인민들은 반미 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미 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임 <p>박명철 올림픽위원장, 부산 AG 선수·응원단 참가 공식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선수단이 참가하게 됨을 정식으로 알림 -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 채화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8.17~20까지 금강산에서 실무 접촉 개최제의 <p>중방, 미국의 미사일 위협설 유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사일은 자위적인 수단일 뿐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음. 	<p>않을 경우 북한에 경수로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미-북 핵협상자들은 특별사찰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며 이 부분에 대해 미-북은 계속협상을 해나가야 함 <p>미 디펜 부차관보, 북한 미사일발사에 시한연장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미사일발사 중단조치를 지속하는 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걸 깨닫기 바람 - 북한이 발사중단 시한을 2003년이라는 발표는 정확히 언제까지 발사를 중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것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0	<p>통일연대, 8.15민족통일대회 흠 없도록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민족통일대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 대회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우리는 지켜보고 지지함으로써 역사적인 대화가 진행되도록 할 것임 <p>부산 AG조직위, 북측 실무 접촉 제의 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제안 금강산 실무 접촉에 대해 동의함 - 조직위 사무총장이 포함된 대표단과 지원인력을 금강산에 보내고자 하며, 기간은 8.17-19일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p>평방, '민족대단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늦출수 없는 민족의 절실한 요구이며, 온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굳게 단합해서 조국통일운동을 거국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때임 - 온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동포들 사이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널리 실현해야 함 	<p>국제적십자사(IFRC), 북한의 홍수피해(8.3-5) 관련 국제사회에 약 60만불의 긴급구호자금 지원 호소</p> <p>뉴욕타임즈, 북-미대화 재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호지구 경수로 타설식에 프리처드 대북교섭 특사가 참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는한 미 행정부의 다음조치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돼야함 -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개방해 두는 것임
8.11	<p>통일부 정책실장, 장관급회담에 임하는 입장표명</p>	<p>노동신문 논평, 북일대화의 결실있는 대화 희망</p>	<p>WFP 북한담당대변인, 미국 대북지원 식량 WFP에 전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협위 2차회의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군사당국자 회담재개를 비롯한 4·5 공동보도문의 이행 일정을 확정할 것임 - 정부는 국민여론을 다각도로 경청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회담준비를 철저히 해왔으며, 이번 장관급회담은 새로운 합의보다 합의된 의제를 구체화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당국자들이 모처럼 마주 앉아 조일관계개선 문제를 토의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데 대하여 합의를 본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음. -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조일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의 민심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보도문에 밝혀져 있는 대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접촉과 대화를 진행하여 조일관계 개선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조일쌍방은 내외민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동보도문에 명기된 대로 접촉과 대화를 성실하게 진행하여 조일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개선의 국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약속한 북한 지원식량의 일부가 호주를 통해 도착했으며, 2차대 북지원 밀과 쌀은 9~10월 도착할 예정임 -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은 북한의 아동과 노인에게 공급되며 일부는 식량배급 <p>일 鳥取현 지사, 북한과의 정기항로 구상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라선시-사카이미나토시 사이에 정기항로를 개설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사전에 해야 할 일이 많으며, 현 단계에서는 우선 인적교류의 폭을 확대해야 함
8.12	<p>KNOC, 인도적 대북 쌀지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여야정당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남아 도는 쌀을 가축사료로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을 철회하 	<p>평방, 천도교 청우당 천도교인에 6.15선언 관철투쟁 촉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민족은 외세와 민족반역자들을 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며 북과 남의 친 	<p>LA타임스, 남북장관급회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한의 갑작스런 외교적 공세를 평가하고 9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2	<p>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굶주린 북의 동포들과 나누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 이것이 시대의 과제에 바르게 답하는 것이며 역사와 민족에 대한 책무임 <p>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서울 도착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거래는 북남관계에서 일시 조성되었던 난관들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음. - 쌍방은 이미 상정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훌륭한 합의를 이룩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p>도교인들은 6.15북남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아낌없이 노력을 바쳐야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자주를 염원한 천도교인들은 오늘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에 충실한 교인, 실천하는 교인이 되어야 함. <p>노동신문, 조-일 대화에서 일본 과거 청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쌍방이 성실한 태도로 협상과 대화를 진행해 나간다면 관계개선에 진전이 이루어질 것 - 지난 시기 회담은 빈번히 결렬돼 관계개선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대화와 협상은 진척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임. 	<p>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회동시기와 관련해 남북장관급회담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임</p>
8.13	<p>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콤바인 50대와 트랙터부품 등 대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콤바인 50대, 트랙터부품 작업공구와 목초 종자3천800kg, 비료260톤, 울타리자재 등 8억5천여만원대북지원 	<p>외무성 대변인, 미국에 경수로 지연 손실보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는 데서 급선무는 미국측의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전력손실 보상문제이며 미국이 우리와 우선적으로 논의·해결해야 할 문제 	<p>미 국무부 부대변인, 남북장관급회담 긍정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는 한반도평화와 안정의 관건이며, 장관급 회담이 북한측의 태도변화 희망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차 대북지원물자 수송은 14일 인천을 출발하며, 출항식에는 송월주 상임대표 등 관련인사 20여명 참석 <p>유럽-코리아재단, 남북축구 친선경기 일정 변경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축구단방문 일정이 9.6-8 조정됐으며 경기일자는 7일 개최기로 합의 - 경기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 대표단과 만나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북한의 초청장이 13일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건설지연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막대한 전력손실을 주고 경제전반에 난관을 조성했으며 그것은 우리의 생존권까지 심히 위협하고 있음. <p>유엔사와 비상인명구조 지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중령급 실무자협에서 상대측 선박이 곤경에 처해 인도주의적 구조를 요청한 경우 비상인명구조를 지원하기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북한 외무상과 회동한 일,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리들과 후속조치를 논의중임.
8.14	<p>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협위 제2차회의 8.26~29 서울개최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 9월 중순 금강산담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 9.10~12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개최 	<p>8.15공동행사, 북측대표단 서울도착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8.15민족통일대회가 민족의 힘을 합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며 통일로 나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믿음 <p>조평통 대변인, 8·15 공동행사 관련 담화 발표</p>	<p>미국무부 리커 대변인, 북 핵사찰 재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IAEA와 협력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긴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제네바합의의 약속을 지키는 한 미국도 계속 지킬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7 아시안게임실무협의 협조 - 남북축구경기 9.6-8 서울에서 진행되도록 협력 - 태권도 시범단 교환방문 - 북 경제시찰단 10월하순 남측방문 - 8차 장관급회담 10.19~22 평양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민족통일대축전을 막으려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사소한 방해책동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함 - 북남 사이의 접촉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진행돼야 하며 남의 눈치를 보며 민족 공동의 중대사들이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사소한 방해도 허용해서는 안됨 	<p>유엔 인권소위원회, 탈북자보호·군대위안부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위안부를 비롯 무력분쟁중에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반복을 종식하기 위해 효과적인 형사적처벌과 보상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교과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
8.15	<p>통일부장관, 남북이산가족 등 남북현안문제 언급 * KBS뉴스라인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설치문제를 매듭짓고 서신교환, 주소확인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가 열리면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군사적보장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가시권으로 들어올 것임 	<p>중·평방, 김정일 8월 하순 러시아 방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하순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게 됨 <p>아리랑공연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9 개막되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었던 아리랑공연이 8.15 폐막 - 북한 당국은 아리랑공연에 예술부문의 최고 영예인 '김일성장' 수여 	<p>NHK, 일본적십자 대표단 방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가시우라 히로시 국제부장이 인솔하는 일본적십자 대표단이 북일적십자회담(8.18-19)을 위해 8.15 방북 - 동 대표단은 베이징을 거쳐 8.17 평양 도착 예정 <p>크렘린 공보실, 김정일 러시아 방문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5	<p>8.15 민족통일대회 개막, 공동호소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며 민족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연합을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근원을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음 - 남북 통일운동단체들은 금강산에서 9.7-8 청년 통일행사, 9.12-13 여성 통일행사를 진행하고 개천절 등 해당 단체들 사이의 통일행사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구체적 방문일정과 도시는 언급하지 않은채 “지난해 1차 방문때와 같은 시기에 2번째 방문길에 오를 예정”이라고만 발표 <p>미 국방부, 2002년도 국방보고서 의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안보위협 대처와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전력개편방향 제시
8.16	<p>한국관광공사, 남북직항로 운항실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8.12 남북직항로 개설 이후 김포-평양 24회, 양양-선덕 1회, 인천-평양 3회 등 28회 운항 - 이용 목적은 △남북장관급회담 8회 △북한교예단 방문, 노동당창건행사 참석, 평양 남북대축전 각 2회 △김용순 비서방문, 국방장관급회담,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조문단 방문, 방북인 	<p>제네바 대표부 김영호, 유엔에 일본 위안부 결의 이행조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특별보좌단들의 권고사항을 일본 정부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중군위안부 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있는 당사국이 과거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왜곡과 범죄정당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 	<p>리빈 주한중국대사, 한·중 수교 10주년 관련 연합뉴스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안전이 계속 유지돼야 하고,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 관계를 계속 밀접히 해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자주, 평화통일은 실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6	<p>론인 귀국, 8.15 공동행사 참석 등임</p> <p>8.15 민족공동행사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표단 530여명은 8.15 오전 위커힐 컨벤션 센터에서 부문별 모임과 독도학술토론회, 폐막식 등 진행 - 북측대표단은 폐막식이 끝난 후 창덕궁 등 고궁을 관람하고 위커힐에서 환송만찬에 참석 	<p>중방, 북-러 아무르주 회담록 조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무역성과 러 극동 아무르주 정부대표단은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회담록을 채택 - 조인된 회담록은 무역성 김영재 부상과 러시아연방 아무르주 행정부 부장관 니콜라이 사빈 대표가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나라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반대입장이나, 한반도의 미군 주둔문제는 역사적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 할 때는 당사자들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함
8.17	<p>한적 서영훈 총재, 북한에 이산상봉 관련 연락관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이산가족상봉을 9.13-18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 이를 위해 상봉후보자 200명, 명단은 8.26, 회보서는 9.4, 지원인원·취재기자를 포함 상봉단의 최종명단은 9.6 교환 할 것을 제의 -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시의 전례를 토대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수시 협조 	<p>노동신문,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민족공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 등이 통일운동 현실에서 나타나게 하자면 남측이 우리를 헐뜯고 우리와 대결하려는 자세와 입장에서 벗어나 민족공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임. <p>민주조선 논평, 을지연습 중단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개선되고 있는 북남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7	<p>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북친선축구경기관련 남북실무접촉 대표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기문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17명의 대표단이 설봉호를 이용하여 방북 * 조중연 축구협회 전무 등 남북축구대회 실무협의 대표단 4명도 같은 날 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을지포커스랜즈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취소해야 하며 남한에서 모든 군사력을 철거해야 함. <p>중통, 북일 관계 정상화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회담에서 상호관심사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와 일본인처 고향 방문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협의될 것임. - 우리 인민들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희망함. 	
8.18	<p>통일부 장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평가</p> <p>* KBS 일요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부드러웠고 언쟁을 비켜가려는 태도가 분명히 감지 됨 - 서해교전 이후 국민정서가 들끓었고 미국이 특사 방북 일정을 취소해 국제여론도 나빠져 북한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봄 - 철도, 도로연결 문제는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 	<p>노동신문, 미국에 전력손실 보상 거둬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기본합의문은 그 핵심사항인 경수로 제공이 엄청나게 늦어짐으로써 과거여부의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으므로 미국은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우선 논의 해야 함 -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 문제는 기본합의문이 이행돼 경수로 건설이 진척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며, 마감단계에서 제기해야 할 핵사찰 문제를 앞질러 들고 나온 것은 기본합의문 정신을 	<p>일·북한, 북일적십자회담 개최 및 4개항 공동보도문 발표</p> <p>* 북측에서는 리호림 적십자회 중앙위 부서기장 등 10명, 일측에서는 히가시우라 적십자사 국제부장 등 9명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송 일본인처 방일사업 10월 중 실시, 상호 행불자 조사·통보 계속 등에 합의 - 8.18-19, 평양 인민문화궁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8	<p>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대체로 경추위에서 매듭지어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이전 이산가족상봉이 거의 합의 되었으며 북한이 제안한 총재급 적십자회담(9.4)에서 서신교환 확대와 상설면회소 설치가 해결 될 것임. 	<p>짓밟는 일방적 행위임</p> <p>중방, 조-일회담 노력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사이의 적대관계가 선린우호 관계로 전환된다면 긴장된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세는 크게 완화 될 것임. - 우리는 외무성 국장급회담에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임. - 과거를 옳게 청산하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도 새롭게 확대 발전 될 것임. 	
8.19	<p>남북친선축구경기일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8.17~19까지 금강산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친선경기 명칭은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로 확정하고 9.7, 19:00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하는데 합의 - 선수와 코칭스태프 25명, 기자 및 지원인원 17명도 함께 평양과 서울을 직항로로 오가며,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으며 응원도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 	<p>중방, 을지훈련 대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임. - 우리는 조·미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적들의 침공에 대해서도 만반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 	<p>블라디보스토크시 수히이나대변인, 김정일 위원장-푸틴 대통령 23일 정상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23일 블라디보스토크나 인근지역에서 정상회담 개최예정 - 김위원장은 극동지역 방문 중 하바롭스크와 콤소몰스크나 아무레 등 두 개 도시를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9			<p>순방하며 잠수함 생산공장과 수호 이 전투기 생산 공장 등 방산업체를 방문할 것임.</p>
8.20	<p>관광공사, 금강산여관 안전진단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천500만원을 들여 금강산여관(객실수219개) 안전진단에 들어갔으며, 안전진단이 끝나는데 이달말이나 내달초 본격적인 개·보수 시작 예정 - 금강산여관 개·보수 완료시까지 김정숙휴양소를 사용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 <p>한적, 5차이산가족상봉 예비후보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9인선위원회를 열고 예비후보300명을 추천·선정 - 19~20일중 예비후보들에게 선정사실통보, 22일께 후보 200명 선정 완료계획 	<p>외무성 대변인, 을지연습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최근 조선반도에서 높아지고 있는 화해와 통일분위기에 역행하는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음. - 이는 우리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와 염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임. - 을지연습은 공화국을 주된 표적으로 해 강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무모한 행동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임. 	<p>북한-유엔사 군사적 신뢰구축과 서해상의 긴장완화 절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와 북한은 판문점에서 영관급회담을 갖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서해상의 긴장완화 절차에 관해 논의 - 유엔사는 이번 주 후반 추가로 회담을 갖고 서해상의 사고가 있을 경우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비상지원을 제공하는 절차 등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에 관해 논의 하자고 제의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1	<p>한적, 북 집단 탈북어선 기관장 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은 탈북어선 기관장 리경성 본인이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도적입장에서 21일 오후4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 - 이에 앞서 북측은 장재언위원장 명의 전통문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관장 리경성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 <p>CNA 코리아, 이미지·조수미 추석 평양공연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아태평화위 및 민화협과 이미지, 조용필, 조수미 등 평양공연(9.20-21) 합의 - 이번 공연에는 150~200명 규모의 인원이 참가하며 직항로로 남북 - 공연실황은 추석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막에 맞추어 남측 TV로 중계방송 	<p>중방, 조-러 친선협력관계 발전전망 밝음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러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러시아 두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조·러 정상회담을 갖고 ‘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한 사실과 아울러 두차례나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사실 등은 새세기 조·러 친선협조 관계 발전전망을 밝게 함 <p>북적 장재언위원장, 탈북 선박(대두 8003호) 기관장(리경성) 북한 송환 요구 관련 한적 서영훈 총재 앞 대남전통문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동 전통문을 통해 ▲ 8.18 서해상으로 탈북한 순릉범씨 일가 등 21명이 탈북주민임을 인정하면서 ▲ 기관장 리경성을 본인의사 존중 및 인도적 견지에서 송환해 줄 것을 요구 	<p>리빈 주한중국대사, 탈북자문제로 인한 한중 우호손상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 문제로 한·중 관계가 손상되는 안되며, 중국은 한·중 및 남북관계,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탈북자 문제를 풀어나갈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2	<p>한적, 5차 상봉 내달 13일부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은 이르면 23~24일 북측 적십자회와 판문점 연락과 접촉을 갖고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9월 13일부터 엿새간 금강산에서 실시하자는 방안 제의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선정한 상봉1차 후보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 후보자 200명을 다시 선정한 후, 26일경 북측에 통보해 북측 가족의 생사주소 확인작업에 나설 예정 	<p>김정일 위원장, 하바로프스크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이 두 번째 방문지인 하바로프스크에 도착 - 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약회사인 '달힘파름'과 시내 광케이블 공장을 방문 - 또한 러시아군 극동 관구 사령부 훈련소, 러시아정교회 등에 들러 관계자들과 회담 <p>조평통 서기국, 을지연습 중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대화와 북남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함 -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전쟁연습을 계속한다면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p>백남준 외무상, 중동문제 시리아 입장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영토 회복과 중동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시리아 인민의 노력에 언제나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 것" 	<p>일본 외무성, 요도호 납치범 가족 6명 내달 일본귀국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남아 있는 일본 여객기 '요도호' 납치범 가족 6명이 오는 9월 10일 일본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 <p>일본 관방장관, 북일 수교교섭 재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25~26 평양에서 열리는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안전보장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2		<p>임을 강조</p>	
8.23	<p>남북 경협위, 27-30일 서울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6-29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가 북측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된 27일부터 4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 - 남북은 제7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경협위 제2차회의에서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 <p>5차 이산상봉 후보명단 24일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을 24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전달 - 북측은 상봉후보자 120명 명단을 남측에 전달 하였음. <p>부산AG조직위, 남북실무접촉 8.26~28 금강산 개최</p>	<p>북러 정상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간의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3일 저녁 개최 - 이날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분야와 군사 부문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 <p>북, 일본과 25~26일 평양서 외무 국장급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수교 교섭 재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등 북일 양측의 현안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 	<p>푸틴, 한반도-러시아 철도 연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한반도와 유럽이 러시아의 철도를 매개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 <p>미·일·호주, 내주 대북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호주, 3개국 외무차관들이 내주 도쿄에 모여 대북 문제 등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첫 전략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 보도 <p>한·미·일, 내달 7일 서울에서 대북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9월 7일 서울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를 열어 대북관계 현황과 정책 추진 방향 논의 예정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쌍방은 8.23-24일 전통문과 연락관접촉을 통해 제2차 실무접촉을 8.26-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8.24	<p>4차 적십자회담 대표 명단 대북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 북측 장재연 조선 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 남측 대표 명단 통보 - 남측 대표단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수석대표로 하여 이병웅 한적총재특보, 김경웅, 송우섭 한적 남북교류 전문위원, 민병대 한적 남북교류국장 등 5명과 지원인원 17명, 취재기자 10명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 <p>5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200명, 북측 120명 - 남북은 24일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 명단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 	<p>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방문 일정 종료후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박5일간의 러시아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 - 김위원장은 앞서 23일 오후 영빈관에서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시베리아철도연결사업 등 경제협력확대 등에 합의 <p>김정일, 평양의 대외권위 상승 자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평양방송은 24일 '우리 공화국의 높은 대외적 권위' 제하의 방송물을 통해 최근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지위 상승을 자평 <p>노동신문, 일본에 우키시마호 사죄 및 보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발생 57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의 사 	<p>미군유해 2차 발굴단, 북한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예정된 3차례의 한국전 미군유해발굴 작업중 2차 작업을 위한 미군유해발굴단이 24일 평양 도착 <p>미국무부 대표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엘 새이드 한국과 부과장 등 미국국무부 실무대표단이 24일 방북, 폐연료봉 보관문제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와 관련한 사안을 북측과 논의 <p>일본 외무성 대표단, 북한에 관계정상화 메시지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총리는 김정일에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4		<p>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조(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청산 강조</p>	<p>한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전달</p>
8.25	<p>김운용-장웅 IOC위원,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김운용IOC위원과 북한의 장웅IOC위원은 24-25일 모나코에서 이틀간 회동을 갖고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방문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키로 합의 	<p>북-일, 평양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가 25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시 - 일본측은 고이즈미총리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 <p>조평통, 이회창 후보 평화정책 구상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평통 서기국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한반도 평화정책 구상에 대해 '전쟁정책'이라고 비난 <p>김정일-푸틴, 북한 미사일실험 동결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23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문제를 협의 - 푸틴 대통령은 8.24 "북한은 미사일실험에 대해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 	<p>일본, 북한에 '6자협약' 첫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25일부터 이틀일정으로 시작된 북·일 외무국장급협의 첫날 회의에서 북한에 남북 및 미·중·러·일 6개국 참여하는 '6자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6	<p>부산AG조직위, 북측과 2차 실무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2차 실무 접촉이 2박3일 동안 금강산에서 개최 - 동 접촉에서는 ▲개·폐막식 때 남북한 동시입장,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여부▲성화 봉송 경로▲선수단 및 응원단 이동 경로▲교통, 안전, 숙박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 <p>향군, 부산AG남북공동입장 반대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을 통해 '부산아시안 게임 개·폐회식 때 한반도기를 앞세워 동시입장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 - '북한의 요구는 스포츠제전을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최국 국기 태극기를 한반도기로 대체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 	<p>조평통 서기국, 남북합의 실천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평통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등과 관련하여 남측이 남북합의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 <p>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 6개항 공동보도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방·평방, 26일 오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 합의사항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북·일 외무장관 회담평가▲국교정상화와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대치▲한반도 관련국가들과의 대화추진▲적십자사회담 개최 환영 및 활동 지원▲원자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무협의▲향후 1개월내 포괄적 다결방식의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개최 가능성 검토 	<p>탈북자 7명, 중국 외교부 진입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 7명이 26일 오후 2시경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취에 있는 외교부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입하려다 현장에서 모두 체포 <p>볼튼 미국무부 차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이 핵, 생물, 화학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비축하고 있으며 미사일 부품 및 관련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p>WFP, 대북 긴급구호 활동 보고서 발표 및 4/4분기 대북구호활동 관련 총 10만 8,615톤 식량의 추가 지원 필요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7	<p>남북 경추위 제2차 회의 (8.27-30,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개최 및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경험 4개 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주요 경험추진일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8개월만에 재개되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이 27일 오후 3시23분 인천공항에 도착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경추위 제2차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철도·도로연결, 경험 4개 합의서 발효,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일정에 합의 <p>KBS교향악단 추석 때 평양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교향악단은 이번 추석에 평양을 방문해 연주회를 갖게 되며 공연실황은 KBS와 북한의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으로 남북한 전역에 중계 <p>이금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 기자회견</p>	<p>노동신문, 당 경제정책 관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이 최근 제시한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위력한 무기라면서 당원과 근로자들은 노동당의 경제정책을 구현하는데 적극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 <p>타이 녹슬리 태평양 주식회사 대표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녹슬리상장주식회사 집행부총사장 겸 타이녹슬리 태평양주식회사 이사장인 정자이 한찬라쉬를 단장으로 하는 타이 녹슬리태평양주식회사대표단이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p>아라파트, 북한에 대 이스라엘 압력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 <p>이타르타스 통신, 러, 북한과 무기공급 협의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가 북한과 여러 종류의 무기 공급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러시아 대외국방기술협력위원회 고위 소식통 전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방송교류 협의차 방북한 이금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방송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뢰를 다지기 위해 방송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 		
8.28	<p>부산AG 북측 참가 관련 실무접촉 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에서 2박3일 동안 실무접촉을 가졌던 남북한은 28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폐막식에 양측 선수단이 한반도를 앞세워 동시에 입장하고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도 허용하는 등 모두 14개항에 걸쳐 합의를 도출함. -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를 사용해 동시 입장키로 한데 대하여 '한반도기 사용은 편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섬. 	<p>이태리기업가협회와 경제무역에 관한 합의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무역성 산하 국제무역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최근 이탈리아 로마기업가협회와 경제 무역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중앙통신은 '이는 이탈리아와 조선(북한)과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p>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북-러 정상회담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북-러 관계를 한층 증진시킬 것" <p>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보, WMD 비확산문제 및 북미대화 추진 관련 방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예정 <p>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특사방북 재추진 입장 공식 확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8	<p>민주노총, 남북노동자쌀나누기운동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하순부터 산하 각 단위노조에서 재원을 마련한 뒤 11-12월 1차로 쌀을 구입하여 북에 전달 예정 -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 통일쌀 나누기 운동”을 하반기 주요사업중 하나로 전개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켈리 차관보가 적절한 때 방문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때를 의미” - “그 같은 결정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현 단계에서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음”
8.29	<p>강원도, 남북강원도 협력사업 실무협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8.30~8.31 양일간 금강산에서 북측과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 실무협의추진 - 실무협의에서는 연어부화장 건설지원 협의 및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 방제 효과 조사 예정 	<p>노동신문, 대미관계 개선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라도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한 관계개선이란 있을 수 없음. <p>북한 적십자회, 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 명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는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4차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 명단 통보 	<p>불튼 차관, 제네바 합의 미래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의 미래는 심각한 우려에 빠질 것임.” - IAEA 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05.5까지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는 곤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9		<p>* 명단 : 장재언 북적(北赤)위원장(단장), 리금철·김일훈·김학철 위원과 리호림 북적부서기장 등(이상 5명)</p>	
8.30	<p>제2차 남북경추위 8개항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8.27에서 8.30까지 4일간 서울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 - 합의사항 요지:▲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개성공단 건설▲임진강수해방지 공동노력▲임남담 공동조사▲경제협력4개합의서 발효▲북측에 쌀과 비료 제공▲북측 경제시찰단 남측 방문▲제3차 경추위 11.6-11.9(평양)개최 <p>해외 한인무역회 10월 방북 추진 * LA무역관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회장 정진철), 10월초 무역사절단 방북 추진 	<p>조선신보, 부산AG에 조총련 선수 14명 출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9월 29일 개막예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제일 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선수 14명이 북한선수로 출전 <p>외무성 대변인, 일본총리의 북한 방문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왔으며 그로부터 산생된 일련의 현안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 - 고이즈미총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역사적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게 됨. - 일본국 총리의 이번 평양 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여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봄. 	<p>고이즈미 일본총리, 9월17일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9월 17일 하루일정으로 북한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p>중, 고이즈미 방북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과 일본의 상호관계 개선과 관계정상화를 줄곧 지지해왔으며 일본 총리의 북한방문을 지지 <p>채니 미부통령, 주한 미군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부통령은 29일 텍사스주 샌앤티터니오 메리어트 리버 센터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30			<p>사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미국의 지역 평화와 우방들에 대한 안보 공약은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다짐”이라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안보공약 강조</p>
8.31	<p>청와대, 제2차 경추위 합의 관련 언급</p> <p>-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와 관련, ‘이번에 합의된 일정이 착실하게 실천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에 대화재 개 촉구</p> <p>- 불탄 차관의 북한 핵사찰 수용 등을 거론하며 ‘악의에 차서 우리를 헐뜯었다’고 지적하며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p> <p>- 미국이 서해교전 직후 특사 방북 계획을 취소하였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되어 미국측이 다시 특사를 보내겠다면 우리는 일관한 입장으로 대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특사 방북 수용방침에 변함 없음을 표명</p> <p>중동, 미국의 미사일 제재 비난</p> <p>- 미국이 미사일 판매국들에 대한 제재 결정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나온 결과물로서 북한에 대한 또다른 대결의지를 보인 것임.</p>	<p>일본,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p> <p>- 일본 총리의 9월 17일 방북과 관련, 연락본부 설치하기로 결정, 연락본부는 평양에 들어가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청 직원이 상주하면서 북, 일간 연락 및 조정 업무 담당 예정</p> <p>워싱턴 포스트지, 부시, 북-일 정상회담 전폭 지지 보도</p> <p>- 부시 미대통령, 일본총리의 북한 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 전폭 지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1			<p>미국, 탈북자 망명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이민국, 미국 국경을 넘다 체포된 두 명의 탈북자에게 망명 승인 - 이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행한 최초의 승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		<p>노동신문, 북 비동맹국간 경제협력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맹 창설41주년을 맞아 비동맹회원국가의 남남협조를 확대·강화해 새로운 남남경제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24호, 부산AG 남북동시입장 관련 남한 야당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이 제각기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두개국가로 국제체육무대에 까지 대결할 것을 설교하는 반민족적인 행위임 	<p>유엔사, 북에 장성급 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와 유엔사는 동해선 연결 공사 관련 군사적 보장합의서 서명 및 교환을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을 이번주 중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
9. 2	<p>김 대통령,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 언급</p> <p>* 통일고문회의 오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연결공사의 동시 착공 등의 일정과 실천방안 합의는 광복이후 처음있는 실질적 긴장완화 조치임 - 북미 관계개선은 생존의 문제이며 김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과 만난 것은 북미관계개선에 계기 	<p>노동신문,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운운은 모략선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위협설이나 제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말로는 조-미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우리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것 - 우리는 미국이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적 제재를 가해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p>고이즈미 일 총리, 납치문제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80년대 발생한 일본인 납치희곡이 미해결상태에 있는 한 일-북간 국교정상화는 실현되지 못함 - 국교정상화 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	<p>장기수 송환 추진위, 32명 추가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향했다는 이유로 송환되지 못한 정순덕, 정순택을 비롯한 32명의 비전향장기수를 즉각 돌려보내야 함 		<p>일 관방장관, 괴선박 인양방침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북정상회담 개최와 관계없이 지난해 동중국해에 침몰한 괴선박 인양작업은 계속될 것임. - 인양결과 괴선박 국적이 북한으로 판명될 경우 대북 제재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책 강구할 것임.
9. 3	<p>남북적십자회담 6일로 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일대 태풍피해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 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북측의 요청으로 이틀 연기 - <북측 전통문 요지> 강원도 통천과 고성지방에서의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 관계로 제 4차 북남적십자회담을 9월 6일부터 8일 사이로 늦추지 않을 수 없음을 통지 <p>북송 비료 13일 첫 출항</p>	<p>중방, 미 강경파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방송은 미국내 강경 매파 세력이 북-미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 방송은 「통하지 않는 억지 췌변」이란 제목의 시사 논단 코너에서 지난 29일 존 볼튼 미국무부 차관이 북한에 '미사일 밀매국'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망발이고 췌변이라고 반박 <p>외무성 대변인, 주한미군 비난</p>	<p>탈북자 16명 독일대사관 경내 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 16명이 3일 오후 3시20분경 베이징시 차오양취 소재 독일대사관 경내로 진입한 후 한국 등지로 망명 요청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지원 비료를 실은 선박이 13일 울산항에서 첫 출항할 예정이다. - 비료 북송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0월 중순까지 계속 될 예정 <p>남북,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결과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추석(9.21)전 실시 예정인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 후보자 120명과 남측 후보자 200명의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를 교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난 - 또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의 수호자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교란자이며 민족분열의 고통과 불행의 기본 화근이라며 철수 주장 	
9. 4	<p>부산AG성화 채화 참관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아시안게임 성화채화 참관단이 낮 1시 설봉호를 통해 고성항을 출발, 성화채화를 위한 2박3일간의 방북일정 시작 - 단장은 우병택 AG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설봉호를 통해 고성항을 출발. 	<p>노동신문, 미국의 반테러전 확대에 '경각심'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미국의 이라크 공격수준이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반테러전쟁 확대에 경각성을 높일 것을 촉구 	<p>주한 뉴질랜드 대사, 이달 말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비드 테일러 주한 뉴질랜드 대사, 북한 겸임 대사로서 신임장 제정을 위해 이달 말 방북 예정 <p>유엔사 DMZ 합의서 초안 北에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 판문점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4	<p>태권도협, 남북교류 실무 회담 8일 이전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태권도협의회,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8일 이전에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조선 태권도위원회에 제의 <p>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첫 남한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소속 민족학교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4일 오후 7시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문화관 대극장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방문 공연 		<p>서 열린 북한 인민군과의 비서장(영관)급 회담에서 남북간 동해선 연결 공사에 따른 비무장지대 개방에 관한 합의서 초안 북측에 제의</p>
9. 5	<p>부산AG성화 백두·한라사 동시 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아시안게임 성화가 5일 오전11시 분단이후 처음으로 백두산 병사봉에서 북측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화 - 병사봉의 북한명은 장군봉임. 	<p>노동신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25쪽을 기념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준 불멸의 교육대강이며 후대교육에 바치신 수령님의 한 생의 노고가 뜨겁게 어려 있는 고귀한 결정체라 찬양하고 있음. 	<p>미, 밀입국 '탈북자'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체포, 4개월 동안 구금된 끝에 석방된 탈북자 이길남(40.가명)씨도 이민법원의 망명 승인 취득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5	<p>- 같은 시각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서도 성화 채화가 있었으며, 백두·한라에서 동시 채화된 성화는 7일 통일동산내 망배단에서 역사적인 합화행사를가질 예정</p> <p>한·미·일, 6-7일 대북정책 협의</p> <p>- 한·미·일 3국은 6-7일 서울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갖고 북일정상회담대책 및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대책 논의 예정</p> <p>남북통일축구 북한선수단 49명 도착</p> <p>- 오는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통일축구경기에 참석할 북한선수단(단장 리광근)이 도착</p> <p>- 이들은 7일 오후 7시 통일축구경기에 출전한 뒤 8일 경복궁 관광과 답례 오찬을 끝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p>	<p>- 테제에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그리고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국가적 보장,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찬양</p> <p>조선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축하편지</p> <p>- 축하편지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러시아연방 대사과 무역참사 세르게이 노우슈킨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음.</p>	<p>캐나다 기업, 북한 유전 탐사개발에 참여</p> <p>- 캐나다의 사버린 벤처스사와 엑셀 지오픽스사, 북한 북동부 지역의 유전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과 계약 체결</p> <p>중국, '중-독, 탈북자 15명 처리 합의'</p> <p>- 중국과 독일은 3일 베이징시 차오양취 소재 독일대사관 경내에 진입한 15명의 탈북자 처리문제를 두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5	<p>남북 태권도 교류, 문서교환으로 실무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태권도 협회, 제7차 남북장관급에서 합의된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류를 위한 북측과의 실무협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9. 6	<p>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9.6~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6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설봉호 편으로 방북 -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수석대표로 구성된 남측대표단 5명은 북측적십자대표단과 만나 금강산만화소 설치,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을 논의 예정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25호, 주한미군 군사훈련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미제 침략군은 장갑차와 전차를 동원해 파주와 연천 등 경기도 일대에서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며 “미군이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완화로 흐르는 정세추이를 역전시키고 조선반도와 아태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안정에 도전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 	<p>미, 특사파견 고이즈미 방북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미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 결과를 지켜본 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지를 결정할 것임”
9. 7	<p>남북, 금강산 당국간 회담 명단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10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릴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의 대표 3명의 명단을 교환하였음. - 조명균과 김택룡이 대표 	<p>중통 논평, 미국은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분열을 끝내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와 인민의 평화애호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모든 노력은 미국에 의해 방해받음. 	<p>요미우리신문, 북-일 수교협상 재개 합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일본의 외교당국은 17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간 회담을 앞두고 진행 중인 사전 협의에서 지난 2000년 10월 이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7	<p>- 우리측 대표단 명단 ▲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대표단 : 김찬 문화관광부 과장, 정내삼 건설교통부 과장</p> <p>- 북측 대표단 명단 ▲수석대표 : 김택룡 내각 사무국 부장 ▲대표단 :방중삼 무역상 부국장, 전중수 내각 사무국 과장</p> <p>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p> <p>- 남북한 축구대표선수단, 2년만에 남북통일축구대결</p> <p>- 이날 경기는 승패없이 무승부를 기록</p> <p>TCOG, 공동보도문 발표</p> <p>- 7일 서울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조속한 핵사찰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취한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 성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 발표</p>	<p>-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에 따르는 조국통일운동이 그동안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도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기인됨.</p> <p>- 미국은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통일열기가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음.</p> <p>- 미국은 대세의 흐름에 밀려 마지못해 걸으로는 북남대화를 환영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과 남이 일반 교류나 하고 중요문제들은 적극 추진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제동기적 작용을 놓고 있음.</p> <p>노동신문, 온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의 필수적 요구 발표</p> <p>-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국제적 친선과 협조가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 실현의 필수적 요소로 된다는 데 대해 강조한 논설임.</p> <p>-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인류의 염원임.</p>	<p>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방침에 합의했다고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3국 대표단은 대북정책의 조율을 위해 다음 TCOG회의를 11월 도쿄에서 갖기로 비공식 합의 		
9. 8	<p>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단은 금강산에서 9.6~9.8, 2박3일간의 회담일정을 마치고 6개항에 걸친 합의서를 발표 - ▲상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생사 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6.25전쟁시 행불자 생사 주소 확인 문제 협의·해결▲면회소 설치·운영 등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10월중순 금강산)▲제5차 이산가족 상봉(9.13-9.18) 실시 	<p>부산 AG 엔트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올림픽위원회.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BAGOC)에 방문일 단장을 비롯, 18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318명의 최종엔트리 제출 <p>정권창건 54주년 기념보고회 (4.25 문화회관), 경제관리 개선축구(중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완성해야 함 <p>조선태권도위원회, 14-17일 남한 태권도 시범단 방북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일정 : 9.14~9.17 평양태권도전당에서 1-2차례 공연 - 방북경로 : 베이징경유 평양 도착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9	<p>한나라당, 대북지원 재고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 9일 통일외교통상위와 남북관계 특위 연석회의 등을 열어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로 국가가 비상사태인 만큼 대북지원 재고 촉구 <p>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인권개선 국제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프라하에서 미·일·유럽의 인권운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현황과 탈북자 지원문제 논의 - 과거 동유럽사회주의 냉전 붕괴당시 대규모 난민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탈북자들을 돕겠다는 의지 표명 	<p>노동신문 사설, '위대한 선군기치따라 전진하는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찬란하다'제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조국은 백두령장이 추켜든 선군의 혁명적 기치따라 21세기의 광명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나라임. - 김정일 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에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p>IAEA 총회, 북핵사찰 촉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는 16-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제46차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핵사찰 허용과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
9.10	<p>남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6.25 피랍자 생사확인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원 320여명 가운데 피랍자 147명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작성, 생사여부 확인을 정부에 신청 	<p>중방, 일 국민, 북-일 국교정상화 희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노동당과 일본사회당 등은 북·일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을 때 2,216개 지자체가 양국 국교정상화 조기 실현요구 결의채택 	<p>도쿄신문, 푸틴 일본에 한반도-시베리아 철도연결 참여 요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구상에 일본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와 국회통일의교통상위원회를 방문, 남북자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 <p>MBC TV, 서울-평양 이원생방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9.13기간중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서울-평양(조선중앙TV)을 위성으로 연결 이원생방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국교정상화를 하루 빨리 실현해서 두나라 관계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려는 일본인민들의 염원을 보여주고 있음. <p>노동신문, 조·미 대화 원칙적 입장 불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안보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의한 것임. <p>노동신문, 미국의 강권주의 포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위협받지 않을 것이며 9.11 사건에서 교훈을 찾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 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의 존재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임 	
9.11	<p>KEDO 대표단(단장:린치법률고문), 의정서 협의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서 북측과 핵사고시 손해배상 의정서 체결문제를 논의 	<p>노동신문, '평양 말' 사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말이 곧 우리말의 표준어' 라며 전체주민들에게 사투리를 쓰지 말고 평양 말을 쓰라고 권유 	<p>아인훈 전 미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 미국 대북협상에서 신뢰구축 우선 추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대북협상에서 CBM 강조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차례 북측과 협의를 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임 <p>태권도협의회, 평양공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의 태권도 전용경기장에서 남측 시범단의 공연(14~17일)을 갖기로 남북합의 - 시범단은 인천-평양직항로를 이용하며, 규모는 선수.임원.취재진.행사진행요원 등 50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말을 쓰는 사람이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이 높은 문명인이라고 규정하고 평양 말을 적극 살려쓰는 것은 우리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임. <p>중통, 불턴 미 국무 차관의 북한 위협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최대 핵무기, 미사일 보유국이며 무기 수출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고 조선의 위협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은 뻔뻔스럽게 짝이 없음. - 우리에게 미국의 안보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결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단계에서 전진 배치된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감축과 후방 이동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봄. - 협상 초기에는 신뢰구축 조치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온건한 의제 추진이 필요 <p>고이즈미, 북 책임 있게 행동 할 것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해야 할 것임을 촉구 - 핵무기개발, 일본 인납치, 식민지배 보상 등 주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2	<p>문화부장관, 부산AG에서 인공기 응원 보안법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AG에서 내국인이나 내국인 북한팀 서포터즈가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경우 실정법의 적용을 받게됨 - 개·폐회식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때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연주하되, 내국인의 경우 응원시에는 한반도기나 태극기로 응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 <p>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종료 (9.1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 등에 대해 의견 접근 - 북측이 밀린 관광대가에 대한 정부의 지불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성과 없이 종료 <p>북-미 장성금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 채택 	<p>노동신문, 미 대북관계 개선 국제흐름 직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에서 변화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에 매달린다면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해를 줄뿐임. -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역사적 오류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임. - 미국이 계속 적대시·압살 정책을 강행하는 데로 나오면 우리는 그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 	<p>홍후 지린성장, 탈북자 국경잠입로 감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경제일보 인터뷰 - 조선족 자치구와 북한과의 접경지역 잠입로를 통해 탈북자들이 대거 진입 - 올들어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린성에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p>유엔사-북, DMZ 공사 합의문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공사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측에 이양내용의 합의문에 서명 <p>고이즈미, 북에 대미 대화 복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총리가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현안해결을 위한 미국 및 한국과 대화를 진척시키라고 권유할 방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3	<p>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 455명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남북이산가족 행사에 참가할 남측가족·친척 455명과 지원단 70명, 취재진 29명이 금강산으로 출발 - 한적 이영구 상봉단장은 현지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p>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개최(13-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균 통일부국장과 박정성 철도성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쌍방 각기 3명의 대표참석 -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관련 기술적 문제와 장비·자재 지원문제 등 협의 <p>대한적십자사, 대북 지원비료 1만톤 첫 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추가로 지원되는 비료 10만톤 가운데 1만톤을 실은 화물선이 울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으로 첫 출항 	<p>제8차 평양 영화 축전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막식에는 북한주재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 - 강 문화상은 폐막사를 통해 출품된 영화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시대요구를 반영 <p>중방, 청년들의 통일운동 방해공작 저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공안당국은 여행해간 애국청년들을 즉시 석방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조국통일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주장 - 북남 해외청년학생들의 통일대회를 앞두고 이들을 여행하는 것은 대화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계획적인 행위임. <p>노동신문, 미에 대북 화해정책 수정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우위권확보를 기초해 아태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고 비난 	<p>부시 미대통령, 일본 총리에 대북 메시지 전달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고이즈미 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 북한과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함 <p>일 관방장관, 북-일 정상회담 의전행사 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을 실무적인 회담으로 하기 위해 의례적인 행사는 가능한 갖지 않고 싶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함. -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영접 문제는 북측에 일임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대조선의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대북정책을 화해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 	
9.14	<p>태권도 시범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천서 대한태권도 협회장을 단장으로 임원 5명, 선수단 35명, 진행요원 50명으로 구성 - 14~17일 평양에서 2차례 시범공연을 실시하고 북측 시범단의 서울공연 일정 등 협의 예정 <p>국방부, 남북 DMZ 군사보장합의서 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철도, 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문안 타결 - 남북은 18일 각기 편리한 지역에서 착공하되 19일 비무장지대 통문을 개방해 지뢰제거 작업을 동시에 개시하기로 함 	<p>김정일 국방위원장, 북-일 수교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통신 인터뷰 -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조선인민이 받았던 모든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성실히 사죄하고 보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야함. - 양국의 책임있는 정치가가 대국적 입장에서 결심해 대처할 경우 양국간에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며 정상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고 있음 <p>중통, 조-일 관계개선은 시대적 흐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관계개선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임. 	<p>일 해상보안청 대변인, 북 공작선 추정 괴선박 가고시마항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중국해에 침몰했던 북공작선 추정 괴선박을 실은 구조용 거룻배가 가고시마항에 도착 - 괴선박이 간첩이나 마약운반과 관련된 북한선박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북한은 괴선박과의 연관을 부인 <p>고이즈미 일 총리, 북통상병력 감축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한국과의 국경선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음. 한국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관계개선은 두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이며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준비가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제의하겠다고 강조
9.15	<p>최성홍 외교부장관, 북한 핵사찰 수용 촉구 * 제5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제네바기본합의가 요구하는 IAEA 안전조치가 더이상 지연되지 않고 시작 되도록 모든 협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p>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대북투자 100억원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분야 남북경협 사업은 총 6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측기업들의 대북 투자규모는 8월말 현재 약 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 	<p>중·평방, 군사실무합의서 최단시기 발효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 철도 및 도로와 신의주-서울사이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합의서 중 하나로 만들어 최단 기간내에 서명 발효시킬 것을 제안 - 회담에서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상정된 문제들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밝힘. 	<p>일 가와구치 외상, 북에 정치적 결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진전과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할 방침임 - 방북시 일본인 납치의혹과 미국·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안보상의 현안 등에 북한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이후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라고 평가 		
9.16	<p>국방부, 남북 DMZ 군 핫라인 24일 개통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기간에 현장의 양측 군실무자들이 연락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24일부터 가동 - 동해선의 경우 경의선 핫라인을 통해 공사 관련사항을 협의하고 동해선 지뢰제거 작업이 끝난 뒤 별도 핫라인 개설 문제 논의 <p>국회대표단 및 KBS 교향악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대표단(단장:김태식 국회부의장) 8명이 6박 7일 일정으로 평양을 공식 방문 - 남북국회회담 재개, 정치인 교류 및 남북간 방송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 	<p>평방, 한-미 행정협정 철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에 의한 범법행위가 남한에서 별다른 법적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한-미 행정협정이 미군범죄를 적극 비호하고 있기 때문 - 미군에 대한 수사권, 재판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이 협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함. <p>중·평방, 대일 수교 관련 과거청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문제는 두 나라 사이에 영겨있는 불미스러운 과거 청산일 필요 - 뿌리 깊은 과거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국교정상화도 실현될 수 없으며 선진우호 관계도 수립될 수 없음. 	<p>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분야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최악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확산국이며 핵무기를 보유 -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위협은 북한주민에게 최대의 위협이며 한국에 대한 위협 <p>가와구치 일 외상, 고이즈미 총리 방북 목적은 수교회담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국교정상화 논의 재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한 데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6	<p>수출입은행, 대북식량 차관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쌀 40만톤 제공에 대해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계약을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체결 - 지원조건은 이자율 년 1.0%,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30년 만기 <p>남북자단체, 일 정부에 서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남북자 생사확인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종전 이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50년 이상이 흘렀다며 양국간에 많은 상호 현안이 있다고 언급
9.17	<p>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 접속지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공, 착공식 등 7개항에 합의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는 9월 13일 시작되어 17일 막을 내리게 됨. 	<p>북, 일본과 10월 수교교섭재개 합의</p> <p>* 조일평양공동선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7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중 양국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키로 합의 - 이로써 북한과 일본은 수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p>미 국방장관, 북한 핵무기 보유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며 탄도탄 미사일 개발 분야를 비롯, 세계 최악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국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7	<p>DMZ 군사보장합의서 공식 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 기간 중 남북간 비무장지대 군사보장 합의서가 공식 발효 - 국방부는 남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7차 군사실무 회담을 열고 이준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군사보장 합의서 마무리 발표 <p>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 위원회 대표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서 북측관계자들과 개천절 공동행사의 명칭과 일시·내용 등 협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 2차례의 회담을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4개항의 공동선언에 합의, 서명 <p>외무성 대변인, 피남 일본인 4명 송환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7 담화를 통해 “이번에 확인된 생존자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본으로 귀국 또는 고향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표명 	<p>러시아, 북-일정상회담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개방정책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9.18	<p>경의선, 동해선 연결 남북 동시착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인근 남방한계선 제2통문 앞과 강원도 고성군 송현리 통일전망대에서 각각 경의선, 동해선 연결 착공식 거행 	<p>미국에 적대적 자세 종식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버리고 북한을 이른바 ‘악의 축’의 일부로 부르지 말라고 요구 - 이와 함께 ‘독자 정책을 고수하고 다른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이를 견지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도 같은 날 오전 11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청년역에서 고위간부들과 현지 주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개최 <p>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에서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을 가진 남북은 임남댐을 공동조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합의문 도출에는 실패 - 동회의에서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댐 수공(水攻)가능성 및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사과와 보상, 조사대가를 요구 - 이에 따라 남북은 10월 초 제2차 실무회의를 열어 임남댐 공동조사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 - 9월 16일에서 18일까지 실무접촉이 이루어짐. 	<p>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적대시하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p> <p>김영남 위원장,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만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수대의사당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4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담화를 나눔. <p>남한 방송공사 교향악단 참관단성원 여러 곳 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국회 부의장 김태식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일행은 백두산을 답사함. - 19일 국회 부의장과 전 통일부장관 박재규 그리고 국회의원 일행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할 예정임.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종혁부위원장이 동행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9	<p>남북 경의선, 동해선 DMZ 지뢰 제거 동시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동해선 연결 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이 19일 남북의 동서지역에서 동시에 시작 - 육군은 오전 9시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도라산역 부근 남방한계선 철책 동문 안에서,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앞 DMZ 안에서 지뢰제거에 각각 착수 - 북측도 군사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서 양쪽 DMZ 안에서 지뢰 제거 작업 시작 <p>산자부, 벙커C유 등 유류 대북지원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일부 석유류 지원방안 검토 중 - 유류 대북지원 시기와 물량을 통일부와 협의 	<p>평양, 주적론 철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주적론'에 대해 '전쟁을 전제로 한 전쟁론'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 - '우리는 주적론을 부르짖으며 민족의 통일지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남조선 반통일 분자들의 죄악을 똑똑히 계산하고 있다'며 주적론 즉각 철회 요구 <p>중통, 9.12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의주 특별 행정구 설정 정령을 발표했으며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특수행정단위 <p>조평통 서기국, 미군범죄 규탄 보도 제826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횡포무도한 폭행과 살인의 대상으로 될 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고통과 불행,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p>미 국무부, 미-북대화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미-북 대화의 실제적 내용은 대단히 진지한 현안들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는 비확산문제가 일반적으로 핵심문제가 될 것임' <p>이타르타스 통신, "북한이 남북·러 철도장관 회담 제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시베리아 철도를 남북한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키 위해 남북·러 철도장관 회담을 제의했다"고 보도 - "동 제의가 남북한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동시에 거행한 날 김용삼 철도상이 제안했다"고 보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0	<p>KBS 교향악단, 평양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교향악단, 20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소프라노 박정원, 테너 김영환씨 등과 공연 - 이날 공연에는 남한의 김태식 국회의장과 북한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 <p>남북 국회회담 추진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국회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중인 국회대표단(단장 김태식 부의장)은 20일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남북국회회담 재개 등 남북국회간 교류 문제를 협의 - 동 협의에서 남측은 국회회담개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준비위 구성을 제의하였고 북측도 국회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 	<p>베트남전 참전 유해 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양점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정부 대표단은 20일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북한군의 유해를 인수, 평양으로 귀환 	<p>고이즈미 총리, 대북 쌀지원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쌀지원 용의가 있으며 국제사회 및 적십자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p>IAEA, 북한에 핵사찰 수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는 북한에 대해 IAEA의 특별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 - 북한은 NPT 서명 국가이므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라는 결의안 채택 <p>러시아 철도부, 남북철도연결 지원 가능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공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며 필요하다면 러시아가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도울 수 있다”는 입장 표명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1	<p>김대통령, 미북관계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미북관계와 관련,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으나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 대화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과도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언급 	<p>신의주 특구에 3권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최초로 '홍공식 특별행정구'로 개방되는 신의주에 입법·사법·행정 권의 3권을 부여하고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 <p>조평통 서기국 보도, 남한내 6.25전쟁영화 제작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영화계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영화나 만들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는 예술작품들을 창작해야 함 - 남조선 관계 당국도 심사숙고하고 반공화국 영화제작과 상영을 중지하는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p>일, 남북·괴선박 배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과 지난 해 12월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공작선 사건에 대해 북한에 배상을 요구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9.22	<p>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북에 대남공작 사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대한항공기 폭파와 아웅산 테러 행위 등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 	<p>중통, 북일정상회담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공동선언을 '양국간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 <p>중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2		<p>신의주 특별 행정구 신설에 관한 정령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지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신의주시 31개동과 4개 리, 선상동 토성리 등 6개 동 일부와 2개 리 일부, 의주군 1개 리와 2개 리의 일부, 염주군의 1개 노동자구 일부와 1개 리 일부, 철산군의 2개 리 일부를 관할▲특별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 <p>국제태권도연맹 총재로 장웅 IOC 위원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F: 국제태권도연맹 -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국제태권도연맹 특별총회에서 장웅IOC위원을 신임 총재로 임명 	
9.23	<p>제4차 ASEM 총회(코펜하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선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화해 협력 과정에 대한지지 재확인▲서해 교전 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과 재발방지 촉구 ▲철도·도로 연결 등 최근 남북협력 사업진전 	<p>신의주 특구 초대행정장관에 양빈 임명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빈은 중국 어우야 그룹 회장임. -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은 “양빈 회장이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내정되었으며 24일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3	<p>환영 및 제2차 남북정상 회담 개최 중요성 재확인▲제네바 합의 이행의 중요성 강조▲건설적 대화를 통한 대북포용의 중요성 재확인 등</p> <p>AG 북선수단 1진, 부산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부산AG에 참가하는 북한선수단(단장 방문일) 1진이 13:30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선수촌에 도착 <p>남북 개천절 행사 첫 공동 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의 개천절민족공동 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 한양원)와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류미영)는 10.3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행사를 공동개최기로 합의 - ▲10.1-5남측대표단 100여명 평양 등 방북 ▲개천절 기념식, 통일기원 기념식수, 민족예술 공연 ▲남측은 향후 단군유적 개건, 복구, 보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p>신의주 특구 관리운영 합의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 국제무역회사(회장 양빈), 23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 중앙통신은 양빈의 신의주 특구 장관 임명사실을 공식 보도 <p>노동신문 사설, 당의 사설과 노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은 독창적인 사상이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정치적 향도자임. - 남한에서 북남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태에 대해 남측 당국은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북측을 자극하는 영화들의 제작과 상영을 중지하는 책임적인 조치를 요구 	<p>일, 북에 피랍자 유해송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관련 실무급 후속협약에서 일본인 납치 사망자 8명의 유해송환을 요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3	<p>향군, 국군포로·남북자 송환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그동안 동족에게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북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와 남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생존자 귀환을 허용해야한다”고 촉구 		
9.24	<p>남북 군사 핫라인 첫 개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양측은 군사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상황실간 핫라인을 연결, 오후 5시 30분경 시험통화에 성공 - 개통은 분단 이후 남북 군당국간 최초의 군당국간 직통 전화임 <p>남북자 단체들, 남북회담 시 남북자문제 제기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자 단체들은 통일부장관을 면담하고 “향후 모든 남북협상에서 남북자 문제를 제1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 	<p>평방, 외세배격에 입각한 통일문제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자주만이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통일을 가져올 수 있음. <p>민족공동행사 관련 남북실무접촉, 남북청년통일대회 등 일정 합의</p> <p>* 9.23-24, 금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학생통일대회는 10.13-14, 여성통일대회는 10.16-17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 <p>중통, 양빈 신의주 특구장관 조선의회에 합의이행 서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행정구를 빠른 시일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건설해 강성대국 건설이행을 서약 	<p>고이즈미, 대북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가능한 빨리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 - 대북 경제지원에 관해서는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경제협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 <p>미군유해 일본기지 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병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8구가 북한에서 일본 도쿄 인근 요코다 미공군기지로 송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4		<p>평방,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전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두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철도·도로건설 시작으로 화해 협력시대가 고조되고 있음 -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면 대내외적으로 환영받을 것이며 조-미 관계개선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임 	<p>중국 외교부, 신의주 특구 설치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웨이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주목했으며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상황에 맞는 길이 다른 나라들의 상황에도 반드시 맞지는 않다고 믿는다”고 언급
9.25	<p>문화방송, 평양 특별공연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자, 최진희, 윤도현 밴드 등을 포함한 ‘2002 MBC 평양특별공연’에 참가할 제작진과 참관단 183명이 KAL전세기편으로 방북 - MBC 공연단은 27일과 29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남북가수들의 합동공연을 한 후 30일 귀환예정 	<p>중통, 한반도 군축을 통일과정에서 해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축문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한 후 북과 남의 통일과정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임 - 우리의 무력 감축문제는 미국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며 미국이 강요한다고 우리의 무력 감축이 실현될 문제가 아님 	<p>야코벤코 러 외무부 부대변인, 한반도 6자회담 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이 17일 평양에서 논의되는 등 실현가능성 제고 환영 - 6자회담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공간이라고 언급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5	<p>금융감독위원장, 신의주 특구에 국내 금융기관 진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 등 금융기관이 베이징, 상하이에 진출하는 것처럼 신의주 경제특구에도 진출할 수 밖에 없을 것 <p>SK텔레콤, 북한과 IT합작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선양과 다롄에 북한과 합작해 IT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조선정보기술산업총회 사측에 제안 	<p>노동신문 논설, 공동의 노력으로 북-일 관계의 새 장을 펼쳐야 한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수뇌상봉과 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 상봉과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끌려온 역사적 미결문제들과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한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역사적인 북일평양선언이 발표됨. - 북일 두 나라 수뇌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와 성과에 대하여 두 나라 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 할 바를 다할 것이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 바람. 	<p>홍콩 엠페리그룹 부회장, 신의주 특구에 카지노 개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정부와 체결한 합의서에 엠페리그룹은 북한내 다른 지역에서 카지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밝힘 <p>러 철도장관, 철도 연결을 위해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KR-TSK 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임 - 남북당국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에 강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의 실크로드사업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힘. - 이후 북한-러시아 철도 전문가들이 만나 논의 예정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6	<p>통일부장관, 북한 경제시찰단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달 방문 예정인 북한 경제시찰단에 물류·통신 등 경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 - 북한 경제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시찰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시찰단)규모는 향후 협의해 나갈 것 	<p>중통, 신의주특구 기본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된 기본법 전문은 크게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4장), 기구(5장), 구기-구장(6장) 및 부칙으로 구성 <p>중방, 북 군사력 강화 거듭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전쟁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책임지는 국사중의 제일 국사임 - 군사선행 원칙에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숨기려 하지 않음 <p>중통, 일인 납치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80년대의 일본인 납북사실을 인정하여 '우리 정부는 유가족의 고통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p>조평통, 한나라당 비난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이 KAL기 폭파사건과 테러행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 	<p>미, 대북접촉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뉴욕에서 지난 2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계속 북한측과 접촉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 <p>미특사, 10.3-5일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미국 대통령,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제임스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평양 파견 예정 - 켈리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 대표단이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미-북 현안을 집중 논의 예정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북남대결을 부추기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로 규탄함 <p>외무성 대변인, 이스라엘 군사공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군이 최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본부 건물에 포격을 가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 	
9.27	<p>중기특위장, 중기청장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RI 등 북한에 진출해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둘러보고 국내 업체들의 북한진출 여건 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p>평화의 댐 증축공사 30일 착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교부·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 댐 2단계 사업 시공자로 대림산업-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오는 30일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증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p>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체육대표단 2진 평양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올림픽위원회 박명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대표단 2진이 평양을 출발함. - 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 내각부총리 곽범기와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양만길,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대표단을 전송함. - 또한 이 날 응원단이 출발 	<p>중, 신의주특구 양빈 관련 보도금지 하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공산당,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 양빈 장관과 관련해 보도금지 하달 - 보도금지 대상에는 양빈을 선전하는 글이나 그의 재산형성 과정, 장관임명사실의 긍정적 보도 등이 포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8	<p>부산시장, 북측 응원단 환영오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북측여성 취주악단과 응원진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400여명 참석 - 북측 리명원 응원단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바닷길을 이어준 6.15 선언은 민족통일의 진로를 밝히는 등대임. <p>부산 AG 조직위원장, 북팀 축구경기 북에 생중계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7시 북한과 홍콩의 축구경기부터 북한에 TV로 생중계 될 것임. - 국내방송사들이 협조해 북측이 요구한 중계방송 장비를 구했으며, 영상테스트도 상태가 좋음. 	<p>중통·민주조선, 관광산업 육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에 가입한 이후 관광산업개발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 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를 발전시키며 관광산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릴 것임. - 평양시와 개성, 남포, 백두산, 금강산 등 주요도시와 명승지가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됐으며 해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 <p>중앙TV, MBC 평양공연 녹화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자씨의 '동백아가씨'를 시작으로 '봉선화', '나그네 설움', '눈물젖은 두만강' 등 MBC 평양공연을 녹화 방영 - 민족적 정서가 넘치고 겨레에 대한 사랑과 가수의 예술적 기교를 보여주어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줌. <p>중통 논평, 이회창의 답방운은 주제넘은 망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통일분자라 비난 	<p>일 외무성 참사관 등 납치 조사단,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외무성 참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단10여명은 피납자 친척을 만나 모발 샘플과 옛 사진, 가계보 등 신원확인에 도움이 될 자료를 수집 - 피랍 생존자 5명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게 된 이유와 현재 생활형편, 귀국 의사 여부를 청취하며 사망자의 묘와 유골유무 등도 조사 할 방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9	<p>종합상사, 대북사업 재추진 기대감 고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상사는 남북화해무드 조성에 따른 기대감도 높으며 중단된 사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준비했던 사업도 재점검할 계획임. - 현대상사는 개성과 금강산의 특구지정 가능성이 있는데다 김윤규 사장의 개성공단 문제 협의를 위해 방북한 상황에서 대북팀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p>제 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북한 대표단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참가인원 : 총 705명, 선수단 : 357명, 응원단 : 280명, 만경봉호 선원 등 : 68명 	<p>양빈 신의주특구 장관, 신의주 특구 무비자 입국 8일부터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주특구의 완전무비자는 10.8부터 가능하지만 30부터는 중국 복수비자를 가진사람의 경우 자신의 서명과 북한 총영사관의 확인으로 방문 <p>노동신문, 조국통일은 민족의 일차적 과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없다고 지적 - 조선민족의 뉘과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반민족, 반통일, 전쟁도발책동을 용납지 말아야 함을 강조 - 민족자주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 	<p>IMF 월러총재, 내년 연차총회에 북한 특별초청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9-10월초 UAE 두바이에서 열리게 되는 IMF-IBRD 제 58차 연차총회에 북한을 초청하기로 결정 <p>미 국무부 바우처대변인, 북 안보분야 변화 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아무런 움직임도 보지 못하는 분야가 많으며 특히 안보분야에선 변화가 없음. -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계획과 미사일 개발문제, 재래식 군사력배치와 북한주민의 인권현안 등 우리 관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30	<p>아시안게임-남북한 체육 장관 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30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로 박명철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 - 이날 회동에서 양측 장관은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와 내년 대구 하계U대회 북한참가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p>북-러 철도전문가, TKR -TSR 연결 및 현대화 방안 논의</p> <p>남승우 조총련 부의장, '납치' 관련 유감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는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며 유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비통함. <p>양빈, 북-중 국경통과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조 국경 통과 문제에 대해 협의를 끝내지 못한 사항이 있어 한국과 일본 취재진의 신의주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북측이 통보해 왔음. - 남한주민의 경우 회향증이나 통행증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임. <p>중방, 김정일 위원장 중 지도자들에 축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 수립 53주년을 기념해 장쩌민 국가주석,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총리에게 축전 -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임. 	<p>일 방위청장관, 남북자 문제 해결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방위청 장관,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는 남북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음' - '북한과 수교교섭을 개시하는 것과 실제로 수교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며 우리는 수교교섭 과정에서 남북자 문제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의 재발방지를 확약받기를 원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	<p>방북 중기특위장, 중기청장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민경련 초청으로 28일 방북했던 한준호 중소기업특위 위원장과 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이 1일 귀국 - 3일간 평양 지역에 머물며 현지 국내 중소기업 공장 서너 곳을 방문, 경험 상황을 점검 <p>개천절 행사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원 개천절 기념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남측 대표단이 1일 평양에 도착(조선중앙TV) 	<p>양빈, 신의주특구 장벽설치 협의차 북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빈 장관은 특구를 주변 지역과 차단하기 위한 임시장벽 설치 등 특구 개발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일 오전 북한으로 간다고 1일 밝힘. - 특구 장벽 설치에 적어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언급 <p>평양, 북 외세 아닌 민족과 공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이 힘을 합치자면 외세가 아니라 민족과 공조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함. <p>중방, 김영남, 독일 대통령 앞으로 통독기념일 축전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계 설정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p>켈리특사, 일 정부에 미 대북정책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표단 일행이 1일 북미회담에 앞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일본에 설명 -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이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미 대표단에 전달 <p>방북 일 납치조사단,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간 일정부 조사단이 1일 귀국 <p>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6자회담 개최 낙관</p> <p>* 이타르통신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할 동북아 6자회담 개최 전망을 낙관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	<p>이남신 합참의장, 남북 군대화에 중국협력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남신 합참의장은 2일 푸추엔요우 총참모장과 회담을 갖고 남북 군사 당국간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 푸추엔요우 총참모장은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p>미 대통령 특사, 방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임스 켈리 미대통령 특사는 방북에 앞서 한미간 최종 협의를 위해 방한하여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예방 <p>청와대, 북미관계 진전 기대</p> <p>* 대변인 정례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켈리 대북특사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p>한성렬, ‘북미 적대관계 변화 계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하여 향후 “휴전상태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p>중방, 북한 유엔총회에서 반테러 투쟁은 유엔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앞으로도 테러의 조직, 지원, 충동, 묵인을 포함해 온갖 형태의 테러를 규탄·배격할 것”이라고 발언 <p>노동신문 논설, 김일성주석의 당건설업적을 빛내이려는 확고한 신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떨지도 더하지도 말고 100프로 계승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 식대로 해나가시는 김정일의 영도가 있었기에 조선노동당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강조 	<p>일 총리, 북일교섭서 남북자 조사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예정대로 이번달 말에 “우리는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한다”면서 “이 회담에서 남북 일본인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	<p>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철도·도로 공사 진척 상황 통보를 위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개최 - 이날 접촉에서 북측 유영철 대좌는 “경의선·동해선 지역에서 각각 지뢰제거작업의 30% 안팎을 마쳤다”고 밝힘. 	<p>양빈 장관, 한·일 방문 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빈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신의주 격리장벽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7일로 예정된 한국과 이후의 일본 방문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힘 <p>첫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평양 단군릉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공동선언에 밝힌 대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문제를 풀어가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p>평방, 자주권 존중없이는 북미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우리와의 관계개선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언급 -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p>미 대통령 특사 일행,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를 비롯, 8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이 3일 낮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4	<p>대북지원 쌀선박, 마산항 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분 쌀 6천톤을 실은 제주선적 5,100톤급 '브라이트 문'호가 4일 오후 마산항을 출발, 북한 흥남항으로 떠남. - 또 2차분 쌀 6천톤을 수송하기 위해 부산선적 5,770톤급 '선주리치'호가 4일 마산항에 입항 <p>통일부장관, 선경후군이 남북평화공존의 현실적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민주평통자문회의와 경남정치학회가 주최한 정책포럼 기조강연에서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 군사적 어려움은 것, 정부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와 쉬운 것, 민간 측면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강조 	<p>김영남, 켈리 특사와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함께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와 담화 <p>평방, 임업성대표단,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가했던 임업성 대표단(단장 : 임업성 부상 천명국)이 4일 회의를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 <p>중통 논평, 대북비밀자금지원 의혹소동은 한나라당의 조직화된 모략극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의 반통일분자들이 최근 우리를 걸고 4억달러 대북비밀지원의혹이라는 모략극을 날조하여 내들리면서 소동 - 한나라당의 반통일분자들이 온 민족의 통일의지에 역행하여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 조건에서 그에 따른 계산을 똑똑히 할 것이라며 경고 	<p>일, 북한 괴선박 공작선으로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국토교통상은 4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1일 인양된 괴선박을 "공작선으로 단정했다"고 발표 <p>일, 납북자 조속 귀국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의 피랍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아베 신조 관방부 장관은 일본 정부는 "향후 정상화 교섭에서 납북자 귀국 허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 <p>양빈 장관, 중국당국에 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빈 신의주특구 초대 행정장관이 4일 오전 5시경 허란춘 내 자택에서 어우야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연행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4		<p>노동신문, 조선의 무장력은 사회주의와 평화수호의 성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혁명을 튼튼히 보위해 가는 과정에 무장력은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회주의 수호의 불패의 성새로 다져졌다고 강조 	<p>북거주 실종일인, 39년만에 고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상에서 고기잡이 도중 실종된 후 평양에 살고 있는 데라코시 다케시씨가 이시카와현의 고향 방문, 가족·친척들과 상봉
10.5	<p>미 특사, 2박3일간 방북일정 종료하고 5일 서울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임스 켈리 미대통령 특사는 5일 서울에 도착하여 정부종합청사에서 성명을 발표 -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개발과 수출, 재래식 병력 위협,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힘. 	<p>양형섭, 중국 친선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초청으로 10.15-19까지 중국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5일 보도 	<p>북-러 철도위원회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0부터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북한-러시아 간 철도연결 문제를 논의한 북-러 철도위원회가 5일 종료
10.6		<p>김정일, 푸틴에 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0회 생일을 기념해 축전을 보냄. - 앞으로의 관계개선이 주됨. 	<p>켈리 특사, 일본인 납치사건 해결 북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관방장관 및 가와구치 외상과 가진 회담에서 밝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전통적인 조-러 친선관계가 우리들 사이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폭넓게 심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 <p>중방, 방북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백두산, 묘향산,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은 9일까지 머물면서 대북 지원 모니터링 및 향후 대북 지원문제를 협의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다 장관은 북일 수교 교섭을 예정대로 10월중에 재개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을 켈리 차관보에게 전달
10.7	<p>남북 제2차 국방장관회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지난 3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 -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의제·일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 	<p>신의주특구 구장, 구기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장은 청색과 흰색의 둥근 띠안의 좌우에 별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글씨가 있고 가운데에 북한의 국화인 목란꽃이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두 줄로 표기 - 구기는 진한 군청색 바탕에 흰색의 목란꽃이 그려져 있음. 	<p>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 켈리 비난 반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켈리 차관보는 미국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러 간 솔직한 인사로서 북한 정부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일부 매우 중대한 현안들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7	<p>부산시, 북에 국제행사 참가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상영 부산시장은 7일 오후 만경봉-92호 선상 만찬에서 북측 리명원 응원단장에게 아시안게임 이후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등 앞으로 열릴 부산의 각종 국제 행사에 북측이 계속 참가해줄 것을 제의 	<p>북 외무성, 켈리 방북 부정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들고 나온 이른바 ‘우려사안’이라는 것들은 다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언급 - “부시행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과 강권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강경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 <p>중방, 유엔 강제조치 총회 승인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총회 57차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제재 적용과 관련, 명백한 기준을 정해 유엔 제재가 개별나라의 일방적인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 <p>중국방문 출판대표단 출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방문하는 출판지도국 이재일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출판대표단이 평양을 출발 	<p>아난, 북미대화 재개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무총장은 프 레드 에커드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요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아무리 심각한 차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국제사회는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움직임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 <p>일 관방장관, 미국의 북일 수교교섭 재동설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일 수교 교섭은 “이번 달 하순 예정대로 재개한다”고 강조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7		<p>김정일, 삼지연군의 건설사업 현지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천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은 당선전일군들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날을 따라 새롭게 변모되고 있다며 찬양 - 김정일은 당선전일군들격대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킴으로써 혁명전적지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 교섭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타협할 생각은 없으며 의연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덧붙임. <p>미, 북한 등 6개국 종교탄압국가로 지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연례 세계종교 보고서를 발표, 중국과 북한, 미얀마, 쿠바, 라오스, 베트남 등 6개국을 종교 탄압국가로 지목
10.8	<p>김대통령, 대북정책 일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향군인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p>한적, 적십자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을 보내 제5차 적십자회담을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개최 제의 	<p>김정일 총비서 추대 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보고대회에서 전병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은 “우리 당과 인민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 - 중앙보고대회는 평양문화회관에서 진행 	<p>중 외교부 대변인, 양빈 가택연금 공식 확인</p> <p>* 정례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빈과 중국내 그의 기업들이 다양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중국당국은 법에 의거 양빈을 가택연금해왔다”고 공식 확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8		<p>북한 대표, 제57차 유엔총회에서 여성권익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대의 여성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사회, 경제발전의 주인으로, 혜택자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p>대만 외교부 가오잉 마오 정무차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경제 판사처를 교환 설치하기 위해 현재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힘</p>
10.9	<p>비무장지대 지뢰 30%이상 제거 * 통일미래연구원 초청 강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과 관련 “우리쪽은 6일 현재 경의선 30%, 동해선 37% 지뢰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힘. <p>김대통령, 북 개혁·개방 지원 * 내일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서면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변화를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 <p>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10.12-14 3일간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9일 합의</p>	<p>평방, 북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이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p>북적, 적십자회담 수정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적 장재언 위원장은 16-18일 제5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는 대한적십자사 제의에 대해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30일께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p>한성렬, 단기간 내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적대정책 	<p>표도로프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관,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해군 사령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에서 내달 러-북간 첫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 예정이라고 발표</p> <p>일, 납치 문제를 수교교섭 최우선 과제로 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는 9일 열린 북일 수교교섭 관계 각료 회의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오는 29-30일 팔라룸푸르에서 재개한다고 발표 <p>애리플라이서 대변인, 북한과 이라크와 다르다고 설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9		<p>을 끝낼 용의가 있다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해결할 태세가 돼 있다"고 강조</p>	<p>- 애리 플라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의 지도자가 최근에 인접국을 침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라크와 다르다고 설명</p>
10.10	<p>김대통령, 북미대화는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p> <p>- 10일 오후 제1차 세계한상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다과회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돼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북한을 다녀왔는데 일거에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대화는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p>	<p>평방, 북 고려연방제가 합리적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p> <p>-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한지 12돌을 맞아 고려연방제는 "북과 남이 서로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p> <p>중방, 북 북일회담이 10.29-30일 말레이시아 수도 콰라룸푸르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p> <p>조선종교인협회 대변인, 미 종교보고서 비난 성명 발표</p> <p>- "아무런 차별과 제약을 받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주장</p>	<p>중국, 양빈 연금상태서 계속 조사중</p> <p>-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양빈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을 7일째 가택 연금한 채 그의 불법 활동들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p> <p>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대화거듭 촉구</p> <p>-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 이들 우려 사항을 해결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1	<p>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단 1진 155명, 오후 고려항공편을 통해 평양으로 귀환</p> <p>한일 남북자가족단체,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해 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남북자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납치 피해자를 즉각 송환할 것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피해자 가족의 면담에 응할 것 ▲한일 양국의 북한 관련 담당자는 납치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구출에 협력할 것 등을 요구 <p>안상영 부산시장, 북측에 부산 국제행사 참가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상영 부산시장은 장웅 북한IOC위원을 만나 아시안게임 이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에 북한이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p>한성렬, 코리아 소사이어티 행사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대화의 문을 닫은 쪽은 미국”이라면서 “북한을 압살하려는 정책을 포기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으며 미사일, 핵문제 등 미국의 안보 현안을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 <p>중통 논평, 미국의 강권정책을 극구찬양하는 조선일보 규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조선일보의 추악한 사대매국적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함. - 세계에도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을 부정하고 외세의 정치적 시녀로 전락된 언론은 없다고 말함. - 조선일보의 매문집단은 극도의 사대매국행위로 하여 자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 	<p>일 사민당, 납치문제 관련 북노동당에 항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 미즈호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인 납치사건은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엄중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10일 보냈다”고 밝힘. - “사건의 전모가 상세하게 밝혀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첨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2	<p>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 접촉이 10.12-14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개최</p> <p>- 쌍방은 10.12부터 13일 오전까지 세차례 회의를 갖고 「1차분 자재·장비 제공 품목 및 수량」과 「자재·장비 인도 인수 절차」에 합의</p>	<p>중방, 북, 러시아와 친선 증진 역설</p> <p>- 12일 러시아와 수교 54돌을 기념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조-러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p> <p>중방,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종교탄압국 지적 규탄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보도</p> <p>중방, 북한 외무성 대표단(단장: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EU본부와 유럽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 1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p> <p>평방, 북 미의 적대정책으로 인민들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어 미군유골 발굴 차질 보도</p> <p>-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2일 인터뷰에서 “미국인 생존자 문제라는 것은 조선전쟁 직후 미군포로는 쌍방합의에 따라 이미 다 돌려보낸 조건에서 애당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p>	<p>데라코시 다케시(52)씨, 39년만에 고향을 방문, 가족들과 만난 뒤 북한으로 돌아감.</p> <p>- 그는 지난 60년대 초 동해상에서 고기잡이 도중 실종된뒤 북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3	<p>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 접촉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10.12부터 13일 오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갖고 「1차분 자재·장비 제공 품목 및 수량」과 「자재·장비 인도 인수 절차」에 합의 <p>북한 태권도시범단, 23~26일 서울서 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구천서)는 지난달 남한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공연에 이어 북한 시범단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방문, 2차례의 공연을 갖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13일 발표 	<p>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금강산에서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7천만 겨레의 조국통일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북, 남, 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가 13일 금강산에서 개막되었음. 	<p>이바노프 러 외무장관, 북미대화 확대 위한 일본 역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러시아를 방문한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및 미·중·러·일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 실현을 목표로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모음. <p>일, 남북 일본인 영구 귀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방 부장관 “일본에 귀국하면 원하는 대로 왕래할 수 있게될 것”이며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4	<p>카트먼, 경수로 지원이 북한 변화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은 1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위협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경제개혁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안보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 <p>주한미대사,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는 14일 “미국은 계속 북한과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공격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 	<p>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가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에서 ▲ 6.15공동선언 관철 ▲ 전쟁방지 ▲ 청년학생들의 연대실현을 주장 	<p>러시아 태평양 함대, 한국과 북한을 방문한다고 함대 홍보당국이 발표</p> <p>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크렘린궁에서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일간 평화조약은 양국 관계 발전의 관건이며, 러시아는 조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 - “러시아는 남북한과 일본간 관계 증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10.15	<p>북 선수단 및 응원단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161명과 응원단 291명이 15일 오후 고려항공 여객기와 만경봉-92호를 타고 평양과 원산으로 귀환 	<p>평방, 북 미특사 방북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자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며 “조미관계 문제 해결 전망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 	<p>북한 대표단,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은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5	<p>10.16-17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여성통일대회에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 출발에 앞서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여성들은 남북교류와 통일과정의 주역으로 나설 것이며 한반도에서 평화의 힘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 	<p>양형섭, 장춘원 중 전인대 부위원장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웨이 中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친선방문이며, 양국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발표 <p>중방, 북 무역대표단(단장:김정기 무역성 부상)이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하였다고 보도</p> <p>김영남, 발리 폭탄테러사건과 관련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이 기회에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밝힘. 	<p>북 납치 생존자 5명, 일본 일시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 전세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가족들과 24년만에 재회 <p>고이즈미 일총리, 납치생존자 5명이 일시 귀국한데 대해 “납치문제 해결을 향한 제1보를 내디뎠다”고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생존자 가족의 전원 귀국,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언급. <p>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월북미군과 직접대화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브리핑 - 월북 미군 로버트 젠킨스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그와 대화를 갖기를 원해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5			왔다"며 "우리는 지금도 그와의 직접 대면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
10.16	<p>OECD사무총장, 대북지원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존스던 OECD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존스던 사무총장은 "이제 햇볕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OECD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언급 	<p>남북여성통일대회,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대표인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축하연설에서 대회의 정례화를 제의 <p>평방, 북한 대표단(단장: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리평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후진타오 국가 부주석 등을 예방 보도</p>	
10.17	<p>이태식 외교부 차관보, 북한 핵개발 관련 정부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비확산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 	<p>중방, 남북여성통일대회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공동선언 지지 ▲한반도 평화와 안전 이룩 ▲여성사이의 연대와 단합 도모 ▲남녀평등 기틀 마련 등 4개항의 공동결의문 발표 <p>중통 논평, 피는 물보다 진하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단합과 통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 	<p>매코맥 미백악관, 북핵무기 개발 공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제네바 핵합의를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발표 - "이 상황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7	<p>- “핵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p> <p>김대통령, 북 핵개발 불용</p> <p>-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p> <p>통일부장관, 북한의 의무 준수 촉구</p> <p>-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하여 북핵문제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측이 모든 관련된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p>	<p>-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고 통일된 강토에서 역사도 하나, 문화도 하나, 언어도 하나임을 뿔뿔이 자랑하며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과시하려는 것은 우리 겨레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의지라고 발표.</p> <p>- 우리 인민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동안 북과 남, 해외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음.</p> <p>- 현실은 우리 민족의 뜻과 지혜,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 조국과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p> <p>- 남북, 해외의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p> <p>김정일, 함경남도 공장, 기업소 현지지도</p> <p>- 완공된 금진강발전소를</p>	<p>미 국무부, 북 핵개발 관련 성명 발표</p> <p>- “제임스 켈리 미 특사가 북한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했다.”고 발표</p> <p>-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설명</p> <p>일본 납치생존자들, 24년만에 귀향</p> <p>- 지난 15일 북한에서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소가 히토미씨(43) 등 일본인 납치생존자 5명이 17일 각자의 고향을 24년만에 방문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7		<p>찾은 김정일은 발전소건 설정형과 전력생산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둘러 보았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함경남도에서 최 근년간 많은 일을 해 놓은 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 하시면서 도의 노동계급 이 앞으로도 당의 경제정 책관철에서 돌격대의 역할 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고 보도 - 함흥기초식품공장을 찾은 김정일은 기초식품생산기 지들이 마련된 것만큼 생 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콩을 비롯한 원료 와 자재를 충분히 대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야 한다고 강조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기남비서들과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제1 부부장들이 동행 <p>쿠바 대사 연회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총 비서 추대 5돐과 조선로 동당창건 57돐에 즈음 하여 조선주재 쿠바공화 	<p>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북한의 핵개발 관련 “29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핵의혹 불식을 위해 북 한에 성의있는 대응을 요구하 겠다”고 밝힘 <p>중, 북한 핵개발 문 제 평화적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웨이 중국 외 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와 평화, 안정을 지지하는 것”이 라고 발표 <p>제임스 켈리 미 국 무부 차관보, 북한 핵문제 협의를 위해 베이징에 도착</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7		<p>국 대사 에스페반 로비이나 로메로가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p> <p>-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과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등 초대.</p>	<p>부시 미대통령,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한 것은 "걱정되고 정신이 들게 하는 뉴스"라며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힘.</p> <p>미, 북핵 평화적 해결방침 고수</p> <p>-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외교채널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강조</p>
10.18	<p>북핵문제 단호 대처</p> <p>- 최성홍 외교통상부장은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북한 핵개발 파문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p>	<p>철도성 대변인, 조-러 철도 연결 3자회담 제안 관련 담화 발표</p> <p>-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결실을 기대함.</p>	<p>고이즈미 일본총리, "한반도 안정 일본 국익에 중요"</p> <p>-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평화가 일본의 국익에 매우 중요하며 일본은 이달말 재개되는 북-일국교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9	<p>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전 방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개발 프로그램을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 <p>북한의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에 투입될 건설장비와 자재, 북한 고성향으로 출발</p> <p>비료 10만t의 북송작업이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일 울산항에서 「팬그레이크」호가 요소비료 5천t을 싣고 북측 남포항으로 출항함으로써 남북 경추위(8.27-30) 합의에 따라 북측에 지원키로 한 비료의 북송작업이 마무리됨. 	<p>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날 평양 학생소년궁전 참관 및 홍성남 내각총리 주취 만찬 참석 <p>북한 대표단, 5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함. 	<p>코피 아난 UN사무총장,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 관련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임. <p>일, 수교협상서 북핵 문제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방 부장관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p>고이즈미 일 총리, 주민 굶주림속에 핵개발 북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0		<p>평양, 미국을 대화의 방해꾼, 평화의 파괴자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남북대화 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p>노동신문, 제국주의의 악랄성과 교활성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낡은 세력이 멸망에 가까워갈수록 더욱 교활해지고 악랄해진다는 것, 이것이 인민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 -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을 평화와 자유의 수호자로 위장하면서 보다 교활하게 침략과 전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논평 -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멸망에 가까워 갈수록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반제의식과 각성을 높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p>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도쿄에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광장관은 "평양선언에 입각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p>파월, 제네바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 사실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이를 시인했다"며 "북한측의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은 파기됐다"는 입장을 피력 <p>콘돌리자 라이스 대변인, 99부터 북한의 핵개발 추궁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돌리자 리스는 “99년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언급
10.21	<p>김대통령, 북핵위협 제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 <p>최성홍 외교부장관, 북핵 평화적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북핵 사태는 대단히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한미간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 한미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키워드’임을 강조 <p>이준 국방부장관, 우라늄 농축 첩보 99년 포착하였다고 언급</p>	<p>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p>평양, 미국의 제네바합의 이행 요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조-미 기본합의문은 그 핵심사항인 경수로 제공이 대폭 늦어진 것으로 해서 파기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음. - 미국이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해서 우리 공화국이 입은 막대한 전력손실을 보상할 의지를 미국이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임. 	<p>방일중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아베 신조 일본 관방 부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미국의 94년 북미 기본합의 파기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힘.</p> <p>모스크바를 방문중인 볼튼 미국 국무 차관,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 회담을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튼은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중대한 NPT 위반 행위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1	<p>- “북한이 원심 분리에 필요한 자재를 해외에서 구입한다는 첩보를 우리 정부가 99년 입수, 미국에 건넸다”고 밝힘.</p> <p>-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도 “정부가 99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관련 장비 도입 첩보를 입수했다”고 확인</p> <p>한일, 제네바합의 유지 공감</p> <p>- 한일 양국은 21일 저녁 서울에서 가진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간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p>	<p>노동신문 정론, 승리의 길, 변영의 길 발표</p> <p>- 선군, 일심단결, 우리 식,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추켜드신 이 기치만을 승리와 변영의 이정표로 높이 세우고 장군님 가리키시는 길이라면 산악도 넘고 격랑도 헤쳐갈 것이라고 논평.</p> <p>-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시련의 수십만리길을 걸어온 천만군민은 오늘 위대한 승리의 체험을 안고 이렇게 함창한다.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강성대국의 그날은 머지않아 오리라고 발표</p> <p>김영남,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일행 만남.</p> <p>- 김영남은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렌나트보게일행을 만나 담화를 함.</p> <p>- 총재는 방문기간 국제농업개발기금의 협조대상들이 조선의 자연피해복구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북한과의 협조관계가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함.</p>	<p>중국, 북한 핵무기 개발 지원설 부인</p> <p>-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근거 없다”며 일축</p> <p>-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줄곧 지지해왔다”고 강조</p> <p>부시 미대통령, 북한 평화적 무장해제 가능</p> <p>- “나는 이 지역의 우방과 다른 나라들과 노력해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세를 규합하고, 김정일에게 무장해제를 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1		<p>장관급회담일행, 여러 곳 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함. - 이날 저녁 제8차 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남측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차림. - 대표단은 20일 동명왕릉을 참관하였음. - 19일 대표단의 일부 인원들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궁전학생소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평화적으로 이 위협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 <p>중, 북한 핵무기 개발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장은 보고타를 방문하던 중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가 핵무기가 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고 설명
10.22	<p>김대통령, 북핵개발 폐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일 백범기념관 준공식에서 “우리의 태도는 확고하며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 -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물론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 	<p>중방, 박재경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대장)은 22일 베트남 군 총정치국 대표단을 맞아 연회를 열고 쌍방간 친선증진을 강조하였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나라 인민과 군함함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세기를 이어 계속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일관한 입장임. - 베트남 대표단의 단장은 레반 중 주임. 	<p>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2		<p>KEDO와 북한, 22일부터 3일 동안 평양교외 고방산초대소에서 함남 금호지구와 서울을 연결할 위성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무협상 시작</p> <p>노동신문, 미국은 오만한 강권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강권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으며 세계적인 반대배격에 부딪치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이 살아 갈 길은 강권정책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길에 나서는것임. - 미국이 중동이나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고 배제되는 것은 국제헌병처럼 행동하는 미국의 정책이 가져 오는 필연적인 귀결임. - 미국집권층들은 대내정책의 파산을 강권과 전쟁의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범죄적인 기도를 버려야 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함. 	<p>고이즈미 일총리, 북핵 평화해결 공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언급해온대로 외교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 <p>러, 북한 핵개발 정보는 없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렉산드르 루미안체프 러시아 원자력부 장관은 22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 어떤 핵관련 교류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 -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일부 정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태의 면밀한 분석을 거친 이후에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3	<p>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서울로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의 적극 추진 ▲개성공단 내 사무소 설치 ▲해운합의서 채택 ▲동행 합의서 채택 ▲동해어장 공동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보도문 채택 <p>박선숙 청와대 대변인, 북핵문제 해결계기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차 장관급 회담 결과에 대해 “이번 합의가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p>김대통령, 대선 후보들과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수석을 참석시켜 각각 제 8차 남북장관급 회담 결과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시 이뤄진 한미간 북핵문제 협의 결과를 설명 	<p>대남전통문,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북측 위원장, 남측의 대북 비료 10만톤 지원 수송완료 관련 사의 표명</p> <p>태권도 시범단(단장 : 황봉영 조선태권도위원장, 총 41명, 10.23-26) 서울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은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합의대로 북측 태권도시범단과 북측 경제시찰단(단장 :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총 18명, 10.26-11.3)을 서울에 파견 남측 태권도 시범단 방북 : 9.14-17, 대한태권도협회 구천서 회장 등 50명 	<p>유엔, 대북지원 요청액 81%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인도지원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WFP, UNICEF를 비롯한 NGO 등 14개 기관의 대북 지원금 모금실적은 지난 8일 현재 올해 목표 2억5천800만달러의 81.5%인 2억 100만여달러로 집계 <p>국무부의 필립 리커 부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리가 우방과 공유하고 있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조치들에 관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3	<p>- 김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설명</p> <p>국방부장관, 북 우라늄탄 개발 진척</p> <p>- 이준 국방장관은 23일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8월에 와서 고농축 우라늄탄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것이라는 첩보를 받았지만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핵무기로서의 기능 발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p> <p>북한 태권도 시범단(단장 : 황봉영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41명, 서해직항로를 통해 23일 오전 9시53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p>		<p>도시미츠 일 외무성 부상, 핵문제 진전 없이 북한과 대화 불가</p> <p>- “북한을 둘러싼 안보 문제는 국제 사회의 큰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관심사이기도 하다”고 언급</p> <p>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북한의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접수했다고 공개</p>
10.24	<p>김대중 대통령, 제10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p> <p>- 제10차 APEC 정상회의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림.</p>	<p>평방, 미국을 한반도 평화 파괴 주범으로 비난</p> <p>- 미국은 우리의 위협을 계속 문제로 삼아 대조선 적대시 강경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p>	<p>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EC 정상회담 참석 계획을 취소</p> <p>- 모스크바 인질사태로 인해 참석 취소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4	<p>- 출국인사말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확고”하며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p> <p>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6개국 국회 국방위원장 연례 회의 개최를 제안</p> <p>한적, 금강산 실무접촉제의</p> <p>-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위원장 장재언)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10.31-11.2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p>	<p>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 방북중인 베트남 군총정치국 대표단과 만나 환담</p> <p>-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p>	<p>후쿠다 일 관방장관, 납치 생존자 5명 북 귀환 거부 * 기자회견</p> <p>- 북한에서 일시 귀국한 납치생존자 5명을 일단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의 가족을 일본에 보내줄 것을 북한에 요구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p> <p>미, 한·일·중·러와 북핵 조율</p> <p>-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및 제네바 기본합의서 참여국들과 집중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선외교적 해결을 강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5	<p>석동연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p> <p>-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p> <p>남북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관련, 회담일정 및 장소 변경 합의</p> <p>- 이와 함께, 동일 대남전통문을 통해 북측은 국토환경보호성 김병철 국장을 새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단장으로 임명함을 통보</p>	<p>외무성 대변인, 북 미에 불가침조약 제의</p> <p>- 미 특사는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목적으로 농축우라늄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모든 대화는 파국상태에 들어갈 것임.</p> <p>-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약속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며</p> <p>-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의 위협 제거”라고 밝힘.</p> <p>-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협상과 억제력의 방법도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음.</p> <p>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기자회견에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기초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자는 입장 강조</p>	<p>최성홍 외교부장관과 파월 미 국무장관,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긴급 외무회담을 갖고 북핵사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p> <p>- “북한 핵개발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힘.</p> <p>오기 일본 국토교통상,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납치생존자 및 그들의 북한내 가족들의 귀국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제1보”라고 설명</p> <p>맥코맥 미백악관 대변인, 북한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 일축</p> <p>-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이 자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해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했다고 강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5		<p>중통, 조일평양선언의 이행은 국교정상화 실현의 담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평양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정부 사이의 회담이 29일과 30일에 진행되게 됨. - 북한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며 역사적으로도 먼 옛적부터 서로 왕래하면서 관계를 맺어왔음. - 지난 한세기동안 북일관계는 불화와 대립으로 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으며 이것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북-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 나라로 서로 의중계 지내며 공존, 공영해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이익,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되고있음. - 조일평양선언의 정신과 기본원칙의 존중과 성실한 리행은 조일회담의 성과와 국교정상화실현의 중요한 담보로 됨. 	<p>부시 미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왔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p>세계식량계획(WFP), 국제사회에 20여 만의 대북 식량지원을 긴급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서해안 지역주민들의 식량 지원을 위해 7만 2천t의 곡물이 필요하며, 2003년 1/4분기 식량지원을 위해 13만t의 곡물 원조가 절실하다고 밝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6	<p>북한 경제시찰단(단장 :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18명, 오전 10시 25분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p> <p>지난 23일 방한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 41명, 서울 공연을 끝내고 26일 오후 3시 고려항공편으로 서해직항로를 거쳐 귀환</p> <p>남북,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대표단 명단을 각각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남측 수석대표 : 윤오수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북측 단장 : 최현구 내각 광명성지도국 처장 -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남측 수석대표 : 김창세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북측 단장 : 김병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 30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릴 예정임. 	<p>김영남, 인질 억류사건 관련 푸틴에 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원칙적 입장임. <p>북한대표단(단장 : 외무성 정태화 순회대사), 평양을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9-30일까지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재개되는 북일 수교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 <p>오금철(상장) 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군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p>	<p>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북 핵무기계획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해체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핵무기를 위한 고농축우라늄 생산 프로그램을 즉각적이고 뚜렷한 방식으로 폐기하는데 달려있다”고 밝힘. <p>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미국의 주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미국이나 북한 누구에게서도 북핵 프로그램을 입증해주는 증거를 얻지 못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6	<p>대북 지원 비료 10만이 12항차분 하역됨으로써 모 두 북측에 전달</p> <p>- 지원된 비료 10만은 ▲ 복합비료 5만5천t ▲이 삭비료 2만5천t ▲요소 비료 1만5천t ▲유안비 료 5천t 등으로 구성</p>		<p>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마하일 카시야노프 러시아 총리에게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무기 계 획 포기 설득을 위 한 국제 사회의 노 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p>
10.27		<p>주한미사령부, 함경남도 장 진호 인근 지역에서 22일 미 군유해 11구 추가 발굴 발표</p> <p>- 발굴된 유해들은 미 공군 수송기편으로 평양을 출 발, 일본의 요코타 공군기 지로 옮겨질 예정</p>	
10.28	<p>대한적십자사, 오후 관문 점을 통해 지난 23일 남 측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 4구를 북측 조 선적십자회에 인도</p> <p>김대중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p> <p>-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 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중국 의 입장을 재확인</p>	<p>리명수 작전국장 겸 총참모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 평양을 떠나 블 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군 사령부에 도착</p> <p>중방,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강조</p> <p>-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조미 사이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비롯해 위협을 제 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를 취해야 함.</p> <p>조평통, 선군정치 당위성 강</p>	<p>APEC, '북한 핵개 발 프로그램에 대한 APEC 정상성명' 채 택</p> <p>-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의 평화와 안전 에 중요하며, 역 내 모든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함 을 지지함.</p> <p>- 우리는 북한의 핵 저지를 지지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8		<p>조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선군을 통하여 배격하려는 대상은 철두철미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외세이지 남조선이 아니라고 발표. - 미국의 오만무례한 책동에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한 배격을 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APEC정상들)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한 약속을 명시적으로 준수하기를 촉구하며,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 채택 <p>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북핵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p>
10.29	<p>김대통령, "이제 공은 완전히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귀로에 미국 시애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p>방한 4일째인 북한 고위급 경제시찰단, 건설중인 경부고속전철을 시승하고 대덕과학단지과 구미 LG 전자 등을 방문</p>	<p>겐나디 파데예프 러시아 철도장관, 평양을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KR의 개선 문제과 TSR과의 연결 방안 등을 논의키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문 <p>평방, 북 미에 불가침조약 체결 거듭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1957년 6월 신무기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겠다고 선포했다고 주장 	<p>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일 수교 교섭 재개를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줄곧 양국관계가 개선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왔다"고 강조 <p>북한과 일본, 29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수교협상을 2년 만에 재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9	<p>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이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전후 남북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힘.</p>	<p>노동신문 논평,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은 조선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데 대한 중대한 제안을 내놓았음. - 가장 합리적인 핵문제해결방도인 조미불가침조약 체결제안을 반대하면서 핵문제해결이요, 협상이요 한다면 그것은 파렴치한 현실기만 책임회피로밖에 될 것이 없음. - 우리의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임. - 미국과의 공조나 부르짖고 반공화국대결이나 고취해나설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명백함. - 미국은 우리의 이 혁명적 의지와 기질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하며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나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즈키 가쓰나리 일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납치 문제와 핵개발을 비롯한 안전보장 문제를 교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발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애리 플라이셔 미국 백악관 대변인, 북한이 생존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 -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한 사태 해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0	<p>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핵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노력에도 반대하며, 북한의 어떠한 시도와 계획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p>김대통령,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 보고연설을 통해, 북한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3국 합의를 바탕으로 핵문제 해결을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임. - 이번 상황을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의 기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함. <p>남측 대표단, 항공편으로 중국 심양을 거쳐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회의 참석을 위함. 	<p>중방,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리명수 작전국장)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 평양으로 귀환 보도</p> <p>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일본인 미귀환자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향방문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아 새로운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음. <p>중방, 선군정치 적극 옹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북남관계가 활성화되며 통일운동이 거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도 선군정치의 결과임. - 선군을 통하여 배격하려는 대상은 철두철미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외세이지 남조선이 아님. <p>중방, 홍성남 내각총리 만수대의사당에서 러시아의 겐나지 파데예프 철도장관 일행과 환담 보도</p>	<p>일, 북핵문제는 안전보장 문제의 일환으로 당연히 교섭할 사안임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방장관은 30일자 회견에서 "북-일 평양 선언에도 적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는 수교교섭의 중심적인 과제"라고 강조 <p>북-일 수교협상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측 수교교섭대표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없었지만 북-일선언에 입각해 인내를 가지고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 - 북한과 일본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1	<p>적십자회담 실무접촉, 금강산에서 개최</p> <p>- 11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p>	<p>중·평방, 평양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 제5기 40차 전원회의를 열고 조직강화 문제 등을 토의 보도</p> <p>평방,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강조</p> <p>- 미국이 선 핵계획 포기론을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논리이며, 우리의 제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표현임.</p> <p>중동 논평, 미국은 <선택포기>주장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발표</p> <p>-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느니,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느니 하는 불순한 여론을 증폭시키면서 선택포기주장을 전면내 내세우고 있음.</p> <p>- 미국이 미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핵대결에 몰아가려는 호전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기의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p>	<p>박의춘 주러 북한 대사, 핵보유권리 주장</p> <p>- “우리는 미 대통령 특사에게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더 강한 무기도 보유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언급</p> <p>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 정례뉴스 브리핑에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 교섭을 재개하고, 양국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촉구</p> <p>북한, 납치문제관련 일본요구 거절</p> <p>- 북일수교 교섭에서 2차 납치조사단 파견 등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수교교섭 일본대표가 31일 밝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체안을 외면하고 계속 핵위협을 감행해 온다면 그에 대응한 조치가 따르기 마련임. - 결국 선택포기주장은 새로운 충돌만을 몰아올 것임. 	<p>일본외상, 일-북 관계 정상화 부정적 시각 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일 수교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이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계획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일-북간 관계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노동신문,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선 핵계획 포기론을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논리이며, 우리의 제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표현임. <p>북한철도상과 러시아교통상, 회담 / 철도연결문제에 대하여 의견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김용삼철도상과 러시아연방 겐나지 파제예브교통상사이의 회담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음. -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철도연결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조선철도성 김룡강부상 등이 교통성 부상 올라지미르 싸조노브를 비롯한 러시아 교통상일행이 회담에 참가하였음. <p>중통 논평, 선군옹호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남조선의 극우익보수 세력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매문지들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고 	<p>최진수 주중 북한대사,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해주면 우리는 미국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해줄 수가 있음. - 우리는 미국의 요구대로 핵포기를 먼저 선언할 생각이 없음. <p>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핵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임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확산조약의 지속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각국의 안보는 이 문제의 성공적 해결에 달려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조국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편승하여 반통일열기를 더욱 올리고 있음.</p> <p>-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주는 애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옹호하여야 할 것임.</p>	<p>국무부의 필립 리커 부대변인, 기자회견에서 KEDO의 실무자 회담이 10.30 ~ 11.1까지 뉴욕에서 열렸다고 밝힘.</p> <p>- 우리는 북한이 서명한 국제합의들에 따라 지키게 돼 있는 기존의 약속들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정권에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흥정하지 않을 것</p>
11. 2	<p>정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분야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책방향을 논의</p> <p>- 김 대통령은 북한이 조속히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도록 남북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p> <p>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종료</p> <p>-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p>	<p>평방,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의 정당성 강조</p> <p>- 조-미 기본합의문은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반영하여 동시행동조치로 맞물려져 있음.</p> <p>- 미국의 일방적인 선 핵포기 요구는 조-미 적대관계를 무장충돌에로 이끌어가는 것이 됨</p> <p>북한경제대표단, 평양 출발</p> <p>- 북-쿠바 정부간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p>	<p>일본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북한의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발표</p> <p>- 북한이 2003년 2월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리는 제5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에 104명의 대표단(임원 37명, 선수 67명)을 파견한다고 밝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	<p>- 12월중 건설착공, 1단계 100만평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협력,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 남측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 등 7개항의 합의문 발표</p> <p>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10.31-11.2, 평양) 종료</p> <p>- 2003년 1월 제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 채택</p> <p>적십자회담 실무접촉(10.31-11.2, 금강산), 합의없이 종료</p>	<p>리광근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이 평양을 출발</p> <p>독일의 냉동쇠고기 기증식이 남포항에서 진행</p> <p>- 독일은 4회에 걸쳐 27,000톤의 냉동쇠고기를 북한에 제공</p> <p>겐나디 파제예프 러시아 철도장관 일행,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p> <p>북-러, 평양에서 「조선 동해선 철도 개건 및 현대화와 관련한 양해문」 체결</p> <p>- 김용삼 북한 철도상과 겐나디 파제예프 러시아 철도장관이 서명</p>	
11. 3	<p>김석수 국무총리, 4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p> <p>- 3국은 한, 중, 일을 의미함.</p> <p>북한 경제시찰단(단장: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8박9일의 남한 방문일정을</p>	<p>외무성 대변인, 불가침조약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타결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 주장</p> <p>* KCNA 회견</p> <p>-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은 새로운 충동을 불러오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데로 떠밀 뿐이며, 불가침조약의 필요성 강조</p>	<p>일본, 한반도 비핵화협정 체결 희망</p> <p>-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개발 포기 촉구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	<p>마치고 3일 13시5분 싱가포르 대한항공 641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찰단은 출국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시라고 밝힘. 	<p>평방,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결렬 책임 남한에 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문 발표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이번 접촉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말았다고 비난 <p>중통,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결렬 책임에 대한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에 참가하였던 남측대표들은 막판에 와서 돌연히 돌아갈 배의 출항시간이 되었다느니, 서울과 통신연락이 되지 않아 문건합의를 보기 어렵다느니, 합의를 보지 않고서라도 그냥 돌아오라는 서울의 지령이 왔다느니 하면서 합의문 발표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이번 접촉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말았음. - 남측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p>시에드 하미드 알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포함한 아세안의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은 아세안과 동티모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정세는 아세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p>미국, '선택포기 후 협상재개' 재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핵개발계획을 폐기하는 행동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함. - 이로써 미국은 핵포기가 선행되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재천명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4	<p>남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남북사건 이후 연좌제와 보호관찰제, 고문 등으로 이중 고통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p> <p>통일부, 북한 선 핵포기 수용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4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등을 통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되, 한국의 안정과 남북의 공존, 번영을 위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임을 밝힘. <p>통일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의 방북 신청과 관련,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최근 권 후보측에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힘.</p>	<p>노동신문, 불가침조약 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불가침조약 체결을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를 침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p>북-중 친선협회 대표단(단장: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p> <p>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원군미풍 열성자대회’ 개최</p>	<p>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석수 국무총리, 고이즈미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문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는 북핵문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실현 등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p>ASEAN+3 정상회의, ‘의장발표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핵무기 금지를 촉구하는 의장발표문을 채택하였음. -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5	<p>정세현 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 주최 2002 협동연구학술회 축사를 통해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p> <p>-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북측이 조속히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함.</p>	<p>평방, 홍성남 내각총리는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인도적 구호 물자 지원에 사의 표명 보도</p> <p>평방, 핵 문제는 결코 북과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조선 민족 대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p> <p>- 미국의 핵 소동에 민족 공동의 힘으로 맞서야 함.</p> <p>중방, 미국이 조-미 불가침 조약 체결 제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p> <p>- 조-미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조미관계는 교전관계로부터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될 것임.</p> <p>- 미국이 주장하는 선 핵포기 후 대화 주장은 우리에게 절대로 접수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p> <p>동티모르와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p> <p>중·평방,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성과없이 장기화 될 경우 「미사일발사 연장조치의 재검토」를 시사</p>	<p>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초청으로 11.2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베이징을 거쳐 서울에 도착</p> <p>중립국감독위원회 회원국 3국, 한반도 평화를위해 기여하겠다는 입장 표명</p> <p>-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원국 3국(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연례 활동평가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6	<p>정세현 통일부장관, 경남대 북한대학원, 경실련 통일협회, 한국NGO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남북화해를 진실로 바란다면 핵문제 해결 이외의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개발은 경제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스스로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9.11테러 후 달라진 국제질서를 볼 때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임. <p>11.2-5 평양을 방문하고 서울에 도착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프레스센터에서 방북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조치를 취하면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쪽으로 인식변화가 있었음.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정책임을 밝혔음.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인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였음.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미국은 조-미 기본합의문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기본합의문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고 않고 있음. <p>노동신문 정론, 선군시대의 제일미풍 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의 역사가 흘러 오늘까지 원군의 자랑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열린 대회에 있어 보지 못하였음. <p>전국 원군미풍 열성자대회 개최 및 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의 전인민적·전사회적 전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대회 규모로 최초 개최 	<p>이준 국방부장관, 더글러스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5일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합의 <p>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중국 당국에 억류됐던 일본 NGO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의 가토 히로시 사무국장, 11시30분 오사카 부근 간사이공항을 통해 귀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6	<p>북 민족화해협의회, 제주도민 250여명 방북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영석 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부 이사장은 6일 이달 하순경 5박6일 일정으로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환경단체, DMZ를 통과하는 동해선 철도 건설로 이 지역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노선을 해안에서 떨어진 내륙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찾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의 핵침략책동에 대해 선군정치 옹호 및 대단결, 선군정치가 미제의 핵침략책동에 대한 남조선까지 포괄한 전민족적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는 애국애족 정치임을 선전 - 온 나라에 인민군대를 적극 옹호하고 사랑하는 기풍을 더 잘 세워 나감으로써 영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p>중방,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선 핵포기 후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강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제안을 반대하는 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포함하여 조-미 사이에 얽혀져 있는 그 어떤 매듭도 풀 수 없을 것임. <p>조선노동당 중앙위,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회에 축전</p>	<p>6일 내한한 더글러스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내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대북관계를 설정할 때 다른 다양한 분야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다른 국가와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점 이해시켜야 함.
11. 7	<p>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들어가 한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15명, 필리핀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p>	<p>중방,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선 핵포기 후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강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제안을 반대하는 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포함하여 조-미 사이에 얽혀져 있는 그 어떤 매듭도 풀 수 없을 것임. <p>조선노동당 중앙위,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회에 축전</p>	<p>6일 내한한 더글러스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내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대북관계를 설정할 때 다른 다양한 분야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다른 국가와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점 이해시켜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7	<p>한적 서영훈 총재, 북적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금년도 제10차 대북지원계획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이유식 등 총 1억 2,500만원 상당 	<p>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조-러어업공동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 (단장:김규락 수산성 부상), 평양을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조로어업공동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참가할 수산성 김규락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로어업공동위원회 우리측 대표단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음. - 비행장에서 수산성 이재권 부상과 조선주재 러시아연방대사관 무역참사 쎬르게이 료우슈깁이 대표단을 전송하였음. <p>민민전 중앙위 선전국,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대한 민족공조대처 등 남조선 각계각층에 대한 14개항 당면투쟁구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6 민민전 상무위 비상확대회의의 개최 이후 발표하게 됨 <p>노동신문 논평, 미국의 불공정한 일방주의적 논리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에게 대하여 매우 불손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한미연합대비태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은 물론 다른 관계국들과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방법으로 논의 중임. <p>일본, 일본인 사망자 8명에 대한 조사를 재개해줄 것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정식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부국장은 유엔인권위 산하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에 참석, 남북 사망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 <p>부시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초기에는 이라크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부시집단은 우리의 핵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피우며 그릇된 논리로 저들의 일방주의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관철시키려고 압력공세를 강화하는 데로 나가고 있음. - 미국은 우리가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더 큰 외교적,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느니, 현 시점에서 대조선 경제제재완화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느니, 북조선의 태도에 따라 압박의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심히 건드리는 망발을 탕탕하였음. - 미국은 근시안적시각과 사고관점, 독선적인 입장과 자세를 바로 잡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에 나서야 함. 	<p>발하는 것이 세계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라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키려고 하고 있음.</p> <p>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한, 중, 일 3국과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p> <p>유럽의회, 'KEDO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즉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우라늄 농축계획의 진상을 밝혀야 함. -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11. 8	<p>한-일, 제네바합의 유지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8일 도쿄에서 양자협의 	<p>평방, 불가침조약 체결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p> <p>평방, 불가침조약 체결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p>	<p>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차관, 북한은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8	<p>를 갖고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p>	<p>평방,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불가침조약 체결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를 침략하겠다는 태도의 발로라고 주장 <p>「조선종교인협의회」 고찰단(단장:장재인), 러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을 위반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능력을 추구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11. 9	<p>11.6부터 평양에서 시작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은 금강산지역에 연결,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남측은 기반시설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해운협력 및 동해어장 공동이용 관련 실무접촉개최, 경제협력 4개 합의서발효 등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 <p>김대중 대통령,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 당면한 북한 핵문제도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가운데 평화적 방법으로 확실</p>	<p>중방,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은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한반도의 핵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할 것임. <p>중통 논평, 핵관련 미 국방성차관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외면하고 선택포기주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전쟁집경으로 몰아간다면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임. 	<p>한·미·일 3국, 9일 도쿄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고 북핵사태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대북 중유제공 사업의 일시중단 문제를 논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9	<p>하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p> <p>‘남북자 송환촉구 한국자유총연맹 권기대회’가 9일 오후 충남 논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권정달 총재 등 전국 청년회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p>	<p>「북한-태국 친선의원단 대표단」(단장:계영삼 농업과학원장), 태국 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p> <p>10.17 북한 거주 일본인 납치 생존자 5명의 일본 일시귀국에 동행한 북한 적십자사의 이호림 부서기장 등 2명, 북한으로 돌아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생존자 5명의 일본 귀국은 1-2주 정도였으나,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불가침조약 체결은 미국 자체에도 이로운 것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침조약 체결은 조선반도 안전보장의 법적 기틀이고 조미간 교전관계 해소의 기본열쇠라고 지적 	
11.10	<p>통일부, 정부의 관광경비보조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금강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지난 10월말 현재 49만3천91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p>	<p>홍성남총리, 이탈리아수상에 게 위문전문 / 지진과 화산분출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각 총리 홍성남은 이탈리아공화국 수상 쉴비오 베를루스꼬니에게 위문 전문을 보냄. - 전문은 이탈리아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지 	<p>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0	<p>TCOG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 한미간 이견조율을 위해 방한</p>	<p>진과 화산분출로 인하여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그와 그를 통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고 지적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은 이탈리아정부와 인민이 재해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p>홍성남총리, 세네갈수상에게 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남은 세네갈공화국 수상으로 이드리싸 섹크가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었음. -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믿음을 표시하고 그의 새 직무수행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함. <p>중앙TV, 반미고취 선전화 대량제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반미의식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고취할 선전화를 대량 제작하고 있음. 	<p>는 동안 북한은 협의를 깨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CNN 방송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우리는 현재 군사력으로 위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을 침공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러한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1	<p>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타워호텔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상임위원 합동 회의를 갖고 '북핵 포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핵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핵개발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나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화의 중요성 강조 <p>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 일 외상,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회담을 갖고 KEDO 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현실적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함</p>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이 거꾸로 된 논리와 그릇된 대화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문제는 외면하고 본질상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 조-일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핵문제로 회담 진전에 장애를 조성함. - 일본이 그릇된 대화자세를 가지고 거꾸로 된 논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 조-일회담이 장기성을 띠면 우리의 미사일발사 보류가 재검토되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임. <p>중통, 각계 인민들 미국에 분노 표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만난 각계 인민들은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대조선압살책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격분과 분노를 표시하였음. -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노두철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의 끊임없는 대조선적대시정 	<p>뉴질랜드, 북핵계획 폐기때까지 원조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 참석차 서울에 머물고 있는 필 고프 외무장관은 11일 "북한이 핵 비확산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 <p>유럽연합(EU)-러시아 정상회담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1	<p>김대중 대통령,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가시적 조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에 참석중인 대표단과 주한 외교사절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연설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은 조속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p>북핵문제 조율을 위해 도쿄-서울-베이징을 순방중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오후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면담</p> <p>14일로 예정된 KEDO 집행이사회 참석을 위해 우리측 대표단(단장: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뉴욕으로 출국</p> <p>모스크바에서 한-러 국방장관 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위험한 군사행동 자제, 유사시 즉각 통신 개설과 해당국 군의 지시에 순응, 협정이행과 보장을 위한 양국 합참간 정례 협의체 운영 등에 합의 	<p>책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라고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많은 핵무기를 끌어 들였고 1994년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악의 축으로, 핵공격 대상으로 지목해 놓고 우리의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음. -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주권은 생명과 같으며 자주권을 유린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강호가 말함. - 미국은 자주정신을 표방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핵문제를 걸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현실적으로 위협해 나가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2	<p>정세현 통일부장관,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서울지역대표위원 연찬회에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p> <p>- 특히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진행중인 남북 대화와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p>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이 주장한 미사일위협이 허위기만적이라고 주장</p> <p>-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들어 대면서도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허위 기만성과 침략적 정체를 보여 주는 것임.</p> <p>중방, 서해상에서 두차례에 걸쳐 남한 해군 함선들이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비난</p> <p>중·평방, 11.11-12 동부전선, 11.1-5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근처에 탱크, 장갑차 등을 끌어들이었다고 비난 보도</p> <p>세계식량계획(WFP) 집행국장 제임스 T 모리스 일행이 평양 도착</p> <p>중통, 북-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축전을 교환했다고 보도</p> <p>노동신문, 「우리는 다른 길을 모른다」 제하의 정론 발표</p> <p>-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 오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끝까지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요구대로 살아 나갈.</p>	<p>미·일, 11.11-22 일본 규슈와 간토지방에서 합동군사훈련 진행</p> <p>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 차관보, 북한 핵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p> <p>중국, 북-미간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구</p> <p>- 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관련 당사자들이 기본합의를 계속해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힘.</p> <p>한국 정부 대표단 (단장:김세호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철도협력기구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사무국 방문</p> <p>- 타데우스 쇼스다 의장 등 집행부를 만나, 남북한의 TKR 진행상황과 유럽연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2		<p>북-러 친선공원 착공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대사와 북-러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북-러 친선공원 착공식은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러시아대사와 북측 인사 참석 	<p>계획을 설명하고 가입절차 등을 문의</p>
11.13	<p>정세현 통일부장관, '시민회의 CEO 조찬포럼'에서 "대북 중유지원은 내년 1월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임. <p>합동참모본부, 공식 브리핑에서 남한측이 군사도발 행위를 했다는 북한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해군 고속정이 NLL을 넘은 적이 없으며, 11~12일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근처에 겨울철 보급로 공사를 위해 불도저 등 장비를 북 	<p>중방, 미국이 "2008년부터 일본과의 공동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요격미사일 전개사업 개시계획 확정" 주장</p> <p>리도섭 홍콩주재 북한총영사, "전쟁과 대화 모두 준비돼 있으나 대화를 더 원한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과 생존권을 존중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고조된다면 우리의 방어력을 준비할 것 <p>국가문헌국 대표단,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문헌분야에서의 협조 협정」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린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문헌국 대표단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문헌분야 협정 체결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3	<p>측이 장갑차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p> <p>통일부, 금년 1~10월의 남북교역액은 441,016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329,728천달러에 비해 33.8% 증가했다고 발표</p> <p>11개 시민단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양측이 제네바 합의 준수를 재천명하고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재개해야 함. - 대북 중유지원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함. <p>현대아산, 1,026회의 항해만에 총 금강산 관광객수가 13일 50만명을 돌파해 500,278명을 기록했다고 발표</p> <p>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서울행동계획'과 '반테러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폐회</p>	<p>중통, 선군정치는 조선의 기본정치방식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혁명영도 방식임. -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적대, 혁명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결단성은 군사적 위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민주주의정치와 인덕정치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고 값높은 삶과 행복을 누리게 한다면 그러한 정치를 가장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 선군정치임. -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과 사회주의정권 하에서 선군정치보다 위력한 정치방식은 없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4	<p>KEDO 집행이사회 한국 대표인 장선섭 경수로기 획단장, 워싱턴에서 잭 프리처드 미국 대표, 슌즈키 가쓰나리 일본 대표, 장 피에르 랭 EU 대표와 사전회담을 갖고 중유중단 문제를 논의</p> <p>석동연 외교통상부 대변인, 보도자료를 통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대북 중유 지원은 내년 1월 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유 공급 문제와 관련, 현재 한·미·일 3국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음. <p>이준 국방부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장관,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방법 해결 합의</p> <p>KEDO 집행이사회 종료 후 한국 대표인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기자회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유 공급을 북한 핵개발 폐기와 연계해 긍정 	<p>중방, 11.11 시작된 미-일 합동군사연습 비난</p> <p>평방, 백남순 외무상은 평양만수대 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제임스 T. 모리스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담화</p> <p>평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팔레스타인 국가선포 14돌 즈음 아라파트 대통령에게 축전 발송</p>	<p>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 대북 중유 공급 문제와 관련, "12월 이후 중유공급 문제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발언</p> <p>세계 무역센터협회(WTCA), 컨소시엄 형태의 대북 지원 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졸리 WTCA 총재는 14일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면 북한 스스로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 <p>KEDO 집행이사회, 뉴욕의 KEDO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을 12월분부터 중단 -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4	<p>적인 조치를 유도한다는 데 이번 결정의 참뜻이 있으며 12월분 이후의 중유지원 중단 가능성을 부각하자는 것은 아님.</p> <p>- 다음달 전반기 차기 집행이사회 때 북한의 대응을 평가해 경수로 지원 등 다른 KEDO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임.</p>		<p>제거해야 함.</p> <p>- 앞으로 공급여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음.</p> <p>-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은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도전임.</p> <p>- 동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것임.</p>
11.15	<p>김형기 통일부 차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보훈학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북핵 문제 조속 해결을 강력히 촉구</p> <p>- 김형기 통일부차관은 한국보훈학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은 핵위협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로부터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p>	<p>김정일, 장택민에게 축전</p> <p>- 중방,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에 선출된 후진 타오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유임된 장쩌민에게 축전을 보냄.</p> <p>평방, 외세와의 공조는 반역 행위라고 비난</p> <p>- 민족공조 다시 강조</p>	<p>부시 미 대통령, KEDO의 대북성명 지지성명 발표</p> <p>-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의 국제 약속 위반을 묵과하지 않을 것을 경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 없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제거할 것 촉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5	<p>박선숙 청와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해 조속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p> <p>-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관계국 정부들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대화 계기 등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설득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임.</p> <p>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 성명 발표</p> <p>-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 하에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p>	<p>- 미제의 무모한 핵전쟁 도발소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는 새 전쟁의 위험이 짙게 드리우고 있음.</p>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미국이 비열한 모략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p> <p>- 조선반도 핵 위기가 생겨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며 그 해결방도는 조미 사이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길 밖에 없음.</p>	<p>11.11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5차 생물무기협약(BWC) 평가회의 후속회의(의장:티보 토스 헝가리 대사),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고 폐회</p> <p>- 2003: BWC에 규정된 생물무기 개발금지를 위해 필요한 국내 조치 도입과 유해물질의 안전과 감독을 위한 국내 장치 마련에 합의함.</p> <p>- 2004: 생물학, 세균 무기와 질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능력배양과 전염병 퇴치관련 기존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국제적 제도 개선책 마련에 합의</p> <p>- 2005: 과학자들의 행동강령 채택 등을 연차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합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6	<p>북한 경비정 1척, NLL 침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참모본부는 우리측 고속정이 출동하자 13분만에 북측 해역으로 돌아갔으며 이 과정에서 쌍방간 충돌은 없었다고 밝힘. 	<p>철도성 대변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측은 북과 남의 검증인원들의 명단을 제기하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북남동·서해 철도·도로연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나가고 있음. - 지난 9월 북남 군부 책임자들이 서명한 합의서에서도 북남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적 문제들을 북과 남이 협의처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음. <p>북한 경제시찰단(단장: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남한 방문(10.26-11.3)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p> <p>외무성 대변인, KCNA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발사 재고려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조-일 평양선언의 핵심사항인 과거청산 공약을 먼저 짓밟기 시작한 이상 우리도 미사일발사 문제에서 더 이상 아량을 보일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함. 	<p>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대북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과 다른 미래를 가지기를 희망하며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 - 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제거를 촉구 <p>제임스 T. 모리스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4박 5일 북한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내 주민 640만명이 굶주리고 있음. - 14일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면담하고 식량지원 등을 논의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7		<p>평방, 미국을 '국제적 합의와 협정들을 파기한 장본인' 제하로 비난하며 불가침조약 체결제안의 수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말로는 핵 군축에 대해 표방하면서도 행동을 정반대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고의적인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고 엄중한 경제적 난관을 겪게 되었음. <p>평방, '무력압살을 노린 강도적 주장' 제하로 부시 미 대통령 16일 성명 일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의 발언은 뒤집어 놓은 침략타령이라고 해야 할 것임. <p>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철도·도로 공사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은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어떤 문제에도 간섭할 명분이나 조건이 없으며 여기에 끼어들어 허가 따위를 운운할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음. 	<p>아베 신조 일본 국방부장관, 대북 중유공급 동결 결정과 관련 일본 분담금인 "10억 달러를 동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8	<p>정세현 통일부장관,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KEDO 합의문이 요구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에는 핵폐기 이후 국제사찰까지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언급</p> <p>방한중인 제임스 T. 모리스 WFP 사무총장, 김형기 통일부차관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스 사무총장은 “올 11, 12월 두달동안 북한 서해안 주민들의 식량지원을 위해 7만2천t, 2003년 1/4분기 식량지원을 위해 13만t의 곡물 원조가 절실하다”면서 우리 정부에 지원 요청 <p>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개될 수 있도록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남북 상호방문 검증절차에 대한 유엔사의 제동으로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말하고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결단을 요구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지뢰제거 검증인원 명단 통보 요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우리와 미군측은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할 데 대한 정전협정 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그런 만큼 미군측이 철도·도로연결 관련 인원들의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에 대해 간섭할 명분이 없음.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일 공동 MD체제 수립 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의 계획들이 계속 추진된다면 우리의 미사일발사 보류도 재검토될 수 있음. <p>중방,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철도·도로 공사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리구역내 철도·도로연결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는 조-미, 북-남 군부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북과 	<p>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주요 공여국들로부터 받은 인도지원 총액은 10.27현재 188,116,039달러 상당이라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가운데 한국의 대북 지원은 가장많은 65,500,000달러로 전체 34.82%를 차지 - 2003년도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위해 225,291,675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p>천수이벤 대만 총통,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위한 일본의 노력 치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참·중의원 대표단을 집견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고 총통실이 성명을 통해 밝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8	<p>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및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개최</p>	<p>남 사이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여기에 미국이 개입할 하등의 근거와 명분이 없음. <p>노동신문, 미국을 국제적 합의와 협정을 파기한 장본인이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핵무기전과방지조약, 조미기본합의문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미국의 허위날조선전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깎아 내리고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보려는 비열한 책동이라고 규탄 -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우고 내외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신문은 폭로 -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함. 	<p>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북핵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북한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핵무기 개발권 주장을 크게 걱정하고 있음. - 북한 지도부가 NPT를 성실히 지키기를 기대 - 1994년 제네바합의 참여자들이 자제심을 갖고 자신들이 만든 국제적 의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기를 기대 <p>마수드 하이더 유엔 인도지원조정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는 900만명에 이르렀던 북한의 식량지원대상자를 600만명으로 감축하였다고 말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9	<p>김대중 대통령, 조영식 통일고문회의 의장,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등 통일고문 및 관계자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은 핵을 확실히 반대하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화로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p>지뢰검증인원 통보 문제 관련, 유엔사가 남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측 검증단 명단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해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19일 "DMZ 지뢰 제거 검증을 위한 군사분계선 월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p>노동신문 논평, 외세 공조를 비난하고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강조</p> <p>노동신문, "압력과 고립전술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제하의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을 외면 반대하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력과 고립전술에 매어 달린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한 조치를 따라 세우지 않을 수 없음. <p>김정일 국방위원장, '전국 援軍미풍열성자대회(11.5-6, 평양)' 참가자들을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전사,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물심량면으로 성의껏 원호함으로써 온 나라에 원군의 대하가 더욱 세차게 굽이치도록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음. <p>교육성 대표단(단장:변영립 교육상), 중국을 방문</p>	<p>쿵취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촉구 <p>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의 페르 스티그 뮐러 외무장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 불포기시 EU-북한간 관계 재검토 경고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0	<p>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본부장 김상철),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자 17명이 중국 난닝에 억류중이라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 17명은 11.13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를 거쳐 베트남 국경을 넘다가 베트남 국경수비대에게 붙잡혀 추방된 뒤 현재 난닝시 평상 변방무장경찰대에 억류되어 있음. <p>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이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 발표 <p>금강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이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 - 경의선은 11.29-30에 공동측량 	<p>중방, 지뢰해제 검증인원 명단통보 관련 미국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는 수많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내왕했지만 유엔군측은 어느 한번도 내왕자 명단이라는 것을 요구한 바 없었음. <p>중방,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만이 적대관계 해소와 핵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도라고 거듭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의 압력과 핵위협 압살책동이 강화될수록 더욱 강위력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갖출 것임. - 조-미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핵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것이며 미국의 안보상 우려도 자연스럽게 가셔질 것임.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최근 중부전선에서 실시한 한미연합군의 '2002 연합 대화력전 훈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비난</p>	<p>리언 J. 라포트 주한 미군사령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ROTC 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남북간 경의선과 동해선 복구를 지지한다고 밝힘.</p> <p>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은 지지하고 불리한 것은 반대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0	<p>합참, 14시 41분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북방 3.5마일 해상에서 NLL을 넘어 아군 초계함이 경고 포격을 가하자 14분만에 북측 해역으로 퇴각했다고 밝힘.</p>		
11.21	<p>김대중 대통령, 김민하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 의장과 해외지역협의회장 단 11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는 7천만 민족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북한의 핵개발은 조속히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음. - 북한 핵문제는 남북관계의 큰 장애이지만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p>남북자단체 회원들, 김호식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 남북자 전담부서 설치와 가족들에 대한 생계 지원 등을 촉구</p>	<p>외무성 대변인, KEDO의 중유공급 중단결정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결정은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대응 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한다는 조-미 기본합의문 제1항에 대한 여지없는 기만임. -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 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함. <p>평방, 유엔군사령부의 검증단 명단통보 요구 관련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비열한 행위' 제하 비난 보도</p>	<p>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외무성에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함. -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북간 국교 정상화는 불가능한 것임. <p>쿵취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미 기본합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촉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자 487명 중 436명이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한측에 납치된 어부임. - 김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참석하는 각종 국제세미나에서 남북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변 <p>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도민 262명이 5박6일간 북한을 방문, 평양 및 묘향산 등지를 시찰한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5 11:00 대한항공 815편 전세기를 이용, 서해 직항노선을 따라 북한 방문 예정 <p>한적 서영훈총재, 북적장재인위언장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금년도 제11차 대북지원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이불, 아동복 등 총 9억 4,000만원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의 파괴를 노린 미국의 비열한 행위로 정전협정은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빈 종잇장으로 남아 있음. - 정전위원회라는 것도 사실상 명색만 남아 있을 뿐임. <p>평방, 북한 해군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11.20 우리 해군이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포격을 가한 것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민군 해군 경비정을 향해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 - 12일과 13일, 16일과 19일을 비롯해 11월에 들어와 서만도 5차에 걸쳐 15척의 전투함선들을 우리측(북한) 영해에 불법 침입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p>미국 CIA, 북한의 핵개발 관련사항에 대해 미측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CIA는 북한이 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핵무기 외에 추가로 몇 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빠르면 5년내에 완전가동이 가능한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중임 - 이미 약 2년 전부터 농축우라늄에 기초한 핵폭탄 제조작업에 착수했음을 명시하였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2	<p>김대중 대통령, 이팔호 경찰청장과 모범경찰관 1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국도 협력해야 함. <p>방일중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도쿄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 -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p>해군,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범 사태가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 - 앞으로 이런 도발 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북측에 있음을 경고 	<p>러시아의 소리, 북한은 '02.12.1부터 국내 외화결제 의 기본 수단으로써 미 달러를 포기하고 유로화로 넘어갈 것이라고 조선무역은행이 통보했다고 보도</p> <p>북한, 지원된 중유사용 용도 점검을 위한 KEDO대표단의 입북을 금지</p>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살인마에 대한 용납못할 비호두둔' 제하로 미 8군사령부의 '여중생 장갑차 치사사건' 피고에 대한 무죄선고 비난</p> <p>중방,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핵문제 관련 호소문 채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핵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임. <p>중통 논평, 미 국무장관의 핵국제화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무장관 포웰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우리의 핵공격사정권에 들어 있으므로 이들이 평양의 핵개발을 더욱 우려해야 할 것이라느니, 북의 핵개발포기를 이웃 나라 	<p>정세현 통일부장관, 일본 외무성에서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대, 외교 압력을 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 특히 남북대화, 북일 수교교섭 채널 등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2	<p>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위한 제1회 채용박람회, 이북5도청 통일회관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에 참석한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탈북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을 갖는 것인만큼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p>대북지원 제주산 감귤 전체 물량 4천t 가운데 1차분 1천t을 실은 「티안후산」호, 제주항 출발</p>	<p>들에 맡길 것이라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의 이 제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주변국들을 들먹이는 것은 우리를 침략할 정치, 군사적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공작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음. - 미국은 비열한 모략을 견어치우고 조미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해 나와야 함. 	
11.23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미간 핵합의를 파괴상태에 빠뜨렸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은 중유제공을 12월부터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며 이런 조건에서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백하다고 강조 - 우리는 결전을 선택할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 핵소동에 초강경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p>아베 신조 일본 관방 부장관,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납치 생존자 가족의 귀국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 생존자 가족들의 귀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교섭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은 끝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3		<p>중통,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변인,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호소 지지 담화 발표</p> <p>노동당 대표단(단장:김태종 부부장),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 방문</p>	
11.24	<p>차영구 국방부 정책보좌관,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상호검증 관련 기자회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 실태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이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거부로 무산되었음. - 지뢰검증작업과 무관하게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임.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파월 미 국무장관의 11.7 AP통신 회견(중국·러시아도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안에 있음)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와 중국, 러시아 사이에 쐬기를 박고 이 나라들을 저들의 핵압력소동에 끌어들여려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음. - 미국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함. <p>중방, 미국의 공식계층(국방성 부장관·미사일방위국장)의 북한 미사일 위협설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송은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을 무효화하고 군사적 침공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속셈에서 나온 궤변이라고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설을 비난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5	<p>김대중 대통령, 강원도민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북핵 조속 폐기 촉구</p> <p>통일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관련 공동측량 참여자 명단을 교환하였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 공동측량에는 우리측이 15명(단장: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북측은 12명(단장:박정성 철도성 국장)이 참여 - 동해선 공동측량은 11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 <p>통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앞으로 동법의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어,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과 함께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p>평방, '금강산관광지구 지정('02.10.23)'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채택('02.11.13)'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p>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 결정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이번에 우리에게 대한 중유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매우 불손하고 오만한 행위임. - 우리는 조-미 기본합의문이 체결된 후 8년 동안 커다란 전력손실을 보면서도 핵동결을 계속 유지하여 왔음. <p>중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 위생부대표단(단장:장문강 부장)과 담화</p> <p>평방, 기상수문국대표단 중국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방문하는 허창숙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상수문국대표단이 평양 출발 	<p>러시아 외무부, 북핵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과 워싱턴 당국이 건설적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라며,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 <p>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11월중 북-일 수교교섭 재개는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5	<p>제주도민 262명,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따라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5 11:00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공항 출발, 12:50 평양 순안비행장 도착 	<p>북한-중국, 평양에서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 협조 2002~2003년도 집행계획서” 조인</p>	
11.26	<p>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 (북-미 관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 YTN 과 인터뷰에서 지뢰 제거 검증 관련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으로 유엔사의 개입을 이유로 들어 지뢰 제거 상호 검증을 중단 - 유엔사는 사전 승인 방침을 고수할 것임. <p>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동측량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에서 남북이 공동측량을 실시, 철도와 도로 연결지점과 연결높이를 확정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 우익세력의 납치문제 강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관계 개선 및 현안 문제 해결의 선행 공정으로 과거청산 문제가 풀려야 함. - 납치 문제는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시에 본질상 해결을 본 것임. <p>노동신문, ‘핵무기를 몰아오는 장본인’ 제하의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비핵국가인 우리로서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노동신문은 핵무기를 몰아오는 장본인 제하로 미국이 핵사태를 일으킨 범인이라고 주장 	<p>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북일 수교 교섭 관련 기자회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되며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 - 주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앞이 보이는 어려울 것임. <p>알렉산더 버쉬보우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모스크바 미 대사관에서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협의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6		<p>교육성 대표단(단장:변영립 교육상),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 도착</p> <p>파키스탄 주재 신임 대사에 김원규 임명</p>	<p>- 북한이 NPT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p>
11.27	<p>통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통관·통신·검역 등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착공을 위한 임시통행로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남북간 합의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 <p>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작업 재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2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28일 지뢰 제거 작업 재개하자고 통보 - 우리측은 유엔사와 협의 후 이를 수용 	<p>중방, '개성공업지구 지정' 및 '개성공업지구법 채택'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지정은 11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개성공업지구법 채택은 11월 20일에 이루어졌음.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북한 생화학무기 개발 주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통령 특사 켈리와 회담에서 우리측은 생화학무기 개발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혀 없음. -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새 전쟁 도발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계획적인 책동임. <p>노동신문, '피의 대가를 기어 이 받아내야 한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여중생 미군장갑차 치사사건" 관련자 무죄선고 비난</p>	<p>찰스카트먼 KEDO 사무총장, 뉴욕에서 아사히신문과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개발 계획을 이유로 중유 공급이 동결된 북한이 언젠가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 -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도 재검토될 수 밖에 없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7	<p>황영수 국방부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무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양측은 지난 10.25 판문점 군사실무회담에서 '11월 중 북측 지역에서 2차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 북측이 11.13 전화통지문을 통해 '행정상의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통보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음. 	<p>중방,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제4차 재조 일본인여성들의 고향방문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중 실현하기로 한 고향방문을 일본측은 아무 설명도 없이 12월에도 실현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인도주의 문제가 그 어떤 불순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11.28	<p>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 (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 용산기지에서 군사분계선 월선 관련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유엔사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려 든다면 금강산 육로 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르면 다음 주 지뢰 제거가 끝난 뒤 	<p>교육성 대변인, "여중생 미군 장갑차 치사사건" 관련자 무죄선고 비난 담화 발표</p>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위협성이 높은 국가로 발표한데 대해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공화국 고립 압살 야망을 실현해 보자는 것 - 우리는 테러와 아무런 인연도 없을 뿐 아니라 테러 행위를 반대 	<p>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외무부 아시아 제1국장, 북핵관련 이타르-타스 통신과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NPT에 가입해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 -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는 북-미를 포함한 당사자들 간의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8	<p>철도·도로 연결작업이 시작될 때 작업의 차질이 가시화될 것임.</p> <p>통일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관련 공동측량 참여자 명단을 교환하였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공동측량에는 우리측이 15명(단장: 손봉균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북측은 12명(단장:박정성 철도성 국장)이 참여 - 경의선 공동측량은 11월 29일부터 30일 양 일간에 이루어질 전망 	<p>중방, 핵위협의 장본인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들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음. -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미국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조성되어 왔음. <p>조선종교인협의회 고찰단(단장:장제언 회장),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p> <p>러시아 과학원 대표단(단장: 니콜라이 도브레조프 부원장), 평양 도착</p>	
11.29	<p>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 용산기지에서 군사분계선 월선 관련 연합뉴스와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든 행위는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유엔사의 법적 관할권인 월선 승인권 인정 	<p>노동신문 논평, 지뢰제거작업 상호검증 관련 남측 언론의 보도 태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책동으로 지뢰제거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으며, 철도·도로연결 공사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음. -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려 한 것을 보면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은 흑백을 가려보지 못할 정도로 분별 	<p>IAEA, 정례 이사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 결의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지난달 요구한 바 있는 해명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9	<p>하지 않는 북측의 부정적인 태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p> <p>정세현 통일부 장관,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린 제8회 북한농업생산기반 세미나에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보다는 꾸준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함. - 대북 퍼주기 논란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음. <p>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공동측량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10-14:15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에서 공동측량을 실시, 철도와 도로 연결지점과 높이를 확정 <p>김대중 대통령,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Les Echos)와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지금 안전보장과 경제회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p>을 잃었음.</p> <p>중방 시사논평, MD수립을 위한 미-일 공동연구, 미-일 공동군사훈련, 이시하라 발언 등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평양선언의 정신과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음. - 미사일발사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데 더 이상 아량을 보일 필요를 느끼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 <p>러시아 외무성, 북핵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확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핵 비확산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보장할 것을 촉구 - 북-미 대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음. <p>세계식량계획(WFP), 긴급구호활동 보고서 제48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서해안 지역 취약인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9	<p>대외,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대로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이 북한의 군을 통솔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일과 상대해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음. 		<p>300만명에 대한 11월 식량배급이 중단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4분기 식량배급을 위해서는 약 10만t의 곡물과 옥수수와 콩 혼합물, 분유, 설탕 등과 같은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발표.
11.30	<p>정세현 통일부 장관,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주지식경영포럼 초청 강연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기초공사가 거의 끝난 만큼 남북관계는 앞으로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됐고 이젠 대화 분위기도 무르익었음. <p>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11.25 방북했던 제주도민 257명, 11.30 18:15 대한항공편으로 제주공항 도착</p>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여중생 미군 장갑차 치사사건” 관련 남한 사법·경찰 당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사법당국은 자기 인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 만행에 대해서는 법적 추궁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 처형하고 있음. 	<p>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시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대화는 진전이 없는 상태이지만, 베이징 주재 대사관과 다른 채널을 통해 항상 대화를 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	<p>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 절차 관련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 절차를 과거의 전례처럼 간소화하기로 합의 	<p>남북 철도·도로연결분과 북측단장, 제임스 솔리건 소장 발언(철도·도로의 남침 목적 이용)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빗장을 지르려고 하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음. - 우리의 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만무례한 간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p>중방, 미국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p> <p>북·리 과학원, 평양에서 회담록에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근 북한 과학원 부원장과 니콜라이 도브레조프 러시아 과학원 부원장이 참석 	<p>아베 신조 일본 국방부장관, TV 프로그램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특정 종류의 제재가 현 단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12. 2	<p>남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12.6 -8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동의전통문 접수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 우익세력의 언행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도 미사일 발사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데 더 이상 아량을 보일 필요가 없음. 	<p>일본 외상,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탈북자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논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주한 미군 사령부 부참모장의 발언(철도·도로의 남침 목적 이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의 승인이나 사전허가를 받아서 해결할 일이 아님. - 북남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미제의 오만무례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p>노동신문, “반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제하의 사설 발표</p> <p>데이비드 슬린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 제정</p> <p>백남순 외무상, 라오스 창건 27주년을 기념 북한주재 라오스 대사관에서 열린 기념연회에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친선협력관계 강화 <p>중방, 백남순 외무상, IAEA 결의문 채택(11.29) 관련 모하메드 알 바라데이 IAEA 총국장에게 서한 발송</p>	<p>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 도쿄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북핵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우리는 북한 핵시설 해체를 확증할 수만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함. <p>론 크레이너 미국 무부 차관보, 미국 기업연구소(AEI) 개최 세미나에서 탈북자 문제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2주후 중국과 개최할 인권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방침 - 미국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들이 북한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송환하지 말도록 중국에 요구하고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대변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음. -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2002. 11. 29 부 결의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접수할 수 없음. <p>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총서기와 장쩌민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 	<p>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계획 폐기 선행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계획을 폐기할 때만이 그들이 외부 세계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p>중·러 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개발 포기 및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 준수 촉구
12. 3	<p>통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12.11-13 서울에서 남북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를 개최기로 합의했다고 발표</p>	<p>평방, 노동신문을 인용하여 한-미 행정협정 철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부분은 미군의 전례 없는 범죄비호에 특권을 부여한 불평등 조항임.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새해 국방예산 중 핵무기개발비용(\$1,500만) 포함 비난</p>	<p>릭 코르시노 WFP 북한담당 지부장, 평양에서 2억100만 달러 상당의 추가 긴급원조 촉구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월 이후 300만명에 달하는 굶주린 여성과 노약자들에게 필요한 원조가 중단됨으로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핵압살 소동이 위협계선을 넘어섬. -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비상히 위태롭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음. <p>평방,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제하의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 규정을 들고 나와 민족 내부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아 보려고 책동함. <p>원산-금강산 사이 철길 구조물에 대한 조-러 공동조사사업 시작</p> <p>노동당 대표단(단장:정하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쿠바 아바나에서 쿠바 공산당(단장:와 롤란드 알폰소 보르에스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회담</p> <p>노동신문, 미사령부 부참모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군사령부를 제쳐놓고 	<p>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인 원조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p> <p>국제적십자사, KEDO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 결정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이미 심각한 연료난으로 인명 손실을 입는 등 고통을 겪고 있음. - 특히 운송수단에 쓰일 연료가 부족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p>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국방부 정례 브리핑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 체제가 주민에게 현재 자행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말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는 북남관계가 진전할 수 없다는 관문점 조미장령 급회담 미군측 대표인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 제임스 쏘리건의 발언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국토를 이으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무례한 간섭이라고 지적하였음.</p> <p>-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온 겨레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미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p>	<p>- 미국이 현재 취하는 정책과정은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 북한이 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자각케 하고 지금과는 다른 길로 들어서도록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려는 것임.</p> <p>와타누키 다미스케 일본 외교협회 회장, 비상용 비축식량 대북지원 사용 논란 책임져 사임</p>
12. 4	우리측, 동해선 임시도로 공사 완료	<p>중방, 미국의 조-미 기본합의문 위반 비난</p> <p>- 중유제공 이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미국은 조-미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유린</p> <p>인민문화궁전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특별총회 개최</p> <p>- 반미투쟁에 총력,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투쟁, 반통일 세력 배격, 6.15공동선언 고수, 북·남·해외의 3자연대 강화 등 5개</p>	<p>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 IAEA 사찰 요구에 대한 북한의 거부 관련 정례 브리핑</p> <p>- 북한의 고립주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사례</p> <p>- 북한의 고립주의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해칠 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 위협이 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5	<p>도리안 프린스 주한 EU 대표부 대사,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EU와 관계 개선이 촉진될 것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 원조, 민간 문화교류는 계속될 것 <p>제34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간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함에 합의하는 등 12개 항의 공동성명 발표 	<p>항의 결의문 채택</p> <p>노동신문, 미국의 핵위협소동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 미국이 또다시 북조선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이면에는 여러모로 타산된 흉악한 속셈이 깔려 있으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 - 미국이 우리의 핵위협에 대해 계속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데는 핵문제가 세계적 관심이 쏠리는 예민한 문제인 것만큼 잘하면 우리를 세계면전에서 위협국가, 핵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저들의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을 손쉽게 이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결론적으로 미국의 광란적인 북조선핵위협소동은 핵문제를 구실로 저들의 핵선제공격책동을 정당화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비열한 모략소동인 것임. 	<p>리처드 그로브 힐즈 국제적십자사연맹 동아시아대표단장,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모금될 아시아·태평양지역 호소액의 17%를 북한지역 보건, 식수, 위생사업에 배정할 예정 - 내년도 사업에는 북한의 의원 및 병원 난방용 연료공급도 포함 <p>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일본 국민방문을 마치면서 교도통신과 한반도 정세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해 개발중인 대량파괴 무기의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과 나머지 자유세계의 입장을 지지 - 유엔이 이라크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기를 기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5			<p>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12.5 정례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의 핵사찰 요구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
12. 6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일본의 납치 피해자 보상문제 제기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다면 조-일 평양선언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음. <p>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북측 단장, 남측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5-17 금강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자고 제의 <p>조국통일연구원, 반미백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6.15공동선언의 전면부정, 대결과 전쟁채동, 대북 경제봉쇄 및 질식작전 등을 펴고 있음. - 우리 민족은 미국의 횡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 	<p>조지 부시 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반도 상황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준수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힘. <p>방한 예정이던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하원의원 일행 5명, 반미시위 등을 이유로 방한 일정을 취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7	<p>북측에 인계된 북한 유류 바지선, 다시 NLL 남쪽으로 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t급 바지선 삼광-5-번호(12.6 기관 고장으로 서해 NLL을 넘어 표류)가 북측 해역에서 예인되던 중 밧줄이 끊겨 12.7 14:00경 백령도 북쪽 4마일 해역에서 NLL을 넘어 다시 우리측 해역으로 표류 <p>북한 유류 바지선, 대청도 북쪽 해안에 좌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참모본부는 12.8 해군이 삼광-5-번호의 구조에 나섰으나 선원들이 “상급기관의 지시가 없어 선내에서 대기하겠다”면서 구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 	<p>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 평양 떠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원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김화효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 비행장에서 사회과학원 김화종부원장이 대표단을 전송하였음. 	
12. 8	<p>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대표단 명단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김성진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엄중식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등 3명 - 북측 : 김춘근 민경련 서기장 외 2명 	<p>평방, '죄악의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일본의 과거죄행과 최근 우익세력들의 남치자문제 선결주장 등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한 문제는 일본의 과거청산이라고 촉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8	<p>12.6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된 개성공단건설 실무 접촉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6-30사이 착공식에 앞서 개성-문산간 임시도로 개통,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 등 공동보도문을 발표 		
12. 9	<p>통일부, 제2차 남북해운 협력실무접촉을 12.25-28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p> <p>대한직십자사, 북측이 12.6 제의했던 12.15~17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 14:10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북측에 전달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주러·중 미국대사의 북한 핵개발 계획설 언급 및 미-일 안보협의회 개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한반도 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 행동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임. - 핵소동과 압력공세를 강화한다면 우리는 그에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임. <p>중방, 미국의 북한 핵위협 소동은 고의적이고 비열한 모략이라고 비난</p>	<p>방일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북핵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IAEA의 노력에 맞춰 한반도를 비핵화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같은 생각은 미국도 공유하고 있음. <p>IAEA 사무총장, 도쿄 핵무기 사찰강화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가 안된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효과적인 사찰이 필요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9			<p>마메도프 러시아 외무차관,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중국 자문회의'에서 북핵 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긴장 해소 위해 북-미 양측이 성실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
12.10	<p>러시아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도입시 북한 경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자원부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은 12.10 4100km길이의 파이프라인 노선은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과 중국을 거쳐 서해를 통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 	<p>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의 제1차회의 대표단 평양 출발</p> <p>범청학련 북남·해외공동집회, 북측본부 의장단 성원들과 중앙위원·해외동포 청년학생들 참가하에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성명을 통해 반미, 반전과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촉구 - 공동성명은 북, 남, 해외 청년학생들이 여중학생들을 살해한 미군살인마처벌과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나가며 6. 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함. 	<p>제2차 한-러 교통협력위원회(12.9-10) 참석차 방한한 블라디미르 사조노프 러시아 철도부 차관,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에는 북한 철도 재건, 북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날 것이며 비즈니스 플랜과 국제 컨소시엄을 공표할 계획 <p>IAEA담당 일본 대사, 북한에 파견된 IAEA 전문가와 북한 당국 사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급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0		<p>평방, '일본 특유의 철면피성' 제하의 노동신문 논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우익보수세력의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요구 운운은 과거청산을 유야무야 회피하려는 의도임. - 납치자 문제보다 과거청산이 선결임. <p>노동신문, 일본의 납치피해자 보상주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의 우익적인 고위 관리가 한 텔레비전프로에 출연하여 우리가 납치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문제해결의 중심도, 선후차도 가려보지 못하는 우익분자들이 일본정부의 요직에 틀고 앉아 정치적 추태를 부리며 조일관계 개선에 차단봉을 치려 하는 것은 일본의 허점 	<p>중국을 방문중인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청화대에서 한 연설에서 북핵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 <p>북한 화물선 「소산(sosan)」호 나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동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965km 떨어진 인도양에서 스페인 해군 함정에 의해 정선된 뒤 나포됨. - 미 해군의 폭발물 처리반(EOD)요원 등 전문요원들이 선체 수색
12.11	<p>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서울에서 개최</p> <p>황영수 국방부 대변인, 좌초된 바지선 선원 10명 17:00 NLL을 통해 북측에 인계 발표</p>	<p>중방, 남한 전투함선과 어선들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1 9시경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남쪽 영해 깊이 2척의 전투함선과 5척의 어선이 침범 	<p>페데리코 트릴로 스페인 국방장관, 북한 선박 나포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해군의 프리깃함이 소코토라 섬 동쪽 해상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선은 암초에 걸려 좌초된 상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처리할 방침 	<p>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남측 사법당국 「범민련 후원회의 밤」 행사참가 해외동포들의 입국 불허관련 규탄 담화 발표</p> <p>전국범무일꾼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성남 총리, 계웅태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등 참석 <p>김정일, 115군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를 시찰함. - 김정일은 중대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음. -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 등이 동행 <p>노동신문, 미국의 전략에 경각심 제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의 세계제패전략과 반테러전쟁에 경각성을 높이고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이룩하자고 강조 	<p>에서 문제의 화물선을 발견, 정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의 고성능 탄두를 갖춘 재래식 스커드미사일이 발견됨. <p>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북한 화물선 억류 해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산호를 억류 수색한 것은 그 화물선에 국기가 걸려있지 않았고 테러범들이나 잠재적인 테러국가로 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p>일본 외상,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 선박 나포 관련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 표명</p> <p>미 백악관, 'WMD 대응전략 발표' 및 '모든 수단 동원 및 압도적 군사력 사용 대응' 천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2	<p>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가진 뒤, 석동연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정부입장'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비확산조약,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 - 정부는 앞으로 북측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관계국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이 문제에 대처할 것 	<p>외무성 대변인, 핵시설재가동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 - 핵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음. <p>범민련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결의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 책동 분쇄, 조-미 불가침 조약 체결 투쟁, 6.15공동선언의 고수 이행, 북-남-해외의 3자연대 강화 <p>조평통 대변인, 제34차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관련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한 호전광들의 이번 전쟁모의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임. - 남조선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민족적 위업에 등을 돌려대고 미국의 압력에 끌려 다니며 그 무슨 군 	<p>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장관, 북한 핵문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도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가 갖고 있는 우려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함. <p>국제적십자연맹, 대북지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2004년 대북 인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743만909 스위스 프랑의 예산지원을 요청 <p>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관련 입장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합의를 깨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 <p>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기자회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2		<p>사적 제재에 가담해 나 선 반역행위에 대해 전적 인 책임을 지게 될 것 임.</p> <p>김정일, 평남 토지정리사업 현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을 현지에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 인민군차수 리용무, 조선로 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 임비서 리길송, 조선인민군 상장들인 리병삼, 심명수, 농업성 부상 최상벽, 평안 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 장 박영훈과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이 영접함. <p>중통 논평, 남한의 반미 기운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정계, 사회계, 종교 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살인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데 항의하여 미국대 통령 부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 부 산 등 남조선전역에서 대 규모집회와 시위가 동시다 발적으로 연이어 벌어지고 있음. -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응단 을 내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취할 다 음 조치는 가시 적이고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핵무기 프로 그램을 폐기하는 것임. - 우리는 북한이 서 명한 조약이나 합 의를 지키도록 하 기 위해 협상을 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지도 않을 것임. <p>류젠차오 중국 외교 부 대변인, 정레 브 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 를 지지하고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 쓰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이 경 제적 어려움에 처 했을 때 북한을 지원해 왔으며 앞 으로도 계속 지원 할 것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3	<p>경인항운노동조합,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선언 관련 성명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인천항을 통한 북한 물자 지원 선적을 중단하기로 결의 <p>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채택없이 종료</p> <p>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토머스 허바드 주한 美대사를 만나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후속대책 협의</p> <p>김대중 대통령,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부시 美대통령과 전화 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냉정히 대응해 나가야 함.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북한 화물선 억류 관련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파렴치한 해적행위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하며, 우리 선원들과 짐배에 끼친 모든 정신 물질적 손상에 대하여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함. - 우리와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스파냐가 미국의 장단에 맹목적으로 놀아나 해적의 하수인노릇을 한 것은 자기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움. <p>노동신문 논평, 미국의 북한 불가침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침 체결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지배층의 발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임. -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강도적 수법으로 핵합의를 무효화시킨 진범인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음. - 조미핵합의를 끈질기게 위반한 저들의 범죄행위에 그 어떤 타당성이라도 있는 듯 	<p>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들은 모두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외교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근간이 되고 있음. <p>러시아 외무부, 북한 핵시설 재가동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유 공급 중단 때문에 핵 프로그램 동결을 취소할 것이라는 북한 발표에 대해 깊이 우려함 <p>후쿠다 야스오 일관방장관,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 발표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파기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3		<p>한 인상을 풍겨 보자고 미국이 대조선 핵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p> <p>중동 논평, 미국의 태도 주시할 것이라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최근 또다시 우리가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였다고 결코 들면서 핵포기가 없는 한 조미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며 우리에게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일토당토않은 망발을 연이어 늘어놓고 있음. -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음. 	<p>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에 협력하고 이 협정에 따른 IAEA의 임무수행을 방해할 일방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 <p>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봉인과 감시조치들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봉인이나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됨.
12.14	<p>김대중 대통령,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철폐함과 핵시설의 동결해제 등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 	<p>노동신문 논평, 미국의 조-미 기본합의문 위반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 재개는 기본합의문 이행을 완전히 그만둔 미국의 일방적이며 전횡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당한 자주적 대응임. <p>이제선 원자력총국장, 12.12,</p>	<p>덴마크의 페르 슈티히 뮐러 외무장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한의 핵동결 해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EU간 관계의 미래는 북한의 기존 약속 준수여부에 달려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4		<p>12.14 모함메드 엘 바라데이 IAEA 총국장에게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된 우리의 모든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최단 시일내에 전부 걸어내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대북 군사적 공동대응” 등과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 새로운 군사적 제재를 가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 것임 	<p>모하마드 엘 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CNN과의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북한이 봉인이나 감시카메라를 제거할 경우 그것은 그들의 비확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그 경우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야할 것
12.15	<p>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2.15-17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는 “인도적인 사안의 해결 위해 핵문제로 불거진 지금의 정세가 도움 안된다는 점 지적하겠다” 고 언급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미국의 경험관련 회담 방해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협력제도 분과 제1차 회의가 결실없이 된 것은 미국의 남한 당국에 대한 강압과 남북관계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 때문 	<p>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무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 및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안보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5	<p>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12.15-17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진행</p> <p>경의선과 동해선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완료</p>	<p>조평동 대변인, 핵동결 조치 해제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생산을 위해 핵동결 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미국에 책임이 있음. 	
12.16	<p>김대중 대통령, 이준 국방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입장은 핵은 반대하되 전쟁을 통해서나 냉전체제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는 것임. -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 <p>박선숙 청와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남북간 대화와 함께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해결 노력도 진행될 것 	<p>외무성 대변인, 국제적 인도주의 협조와 관련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국제기구들과 여러 기증국들의 협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할 것이지만 정치적 부대조건이 붙은 협조는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 것임. <p>개성공업지구건설 분과 북측 대변인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경제협력제도 분과 제1차 회의 결실없이 끝난 것, 미국의 간섭 책동 <p>중·평방, "위험천만한 군사적 대결기도" 제하의 노동신문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은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책동으로 하여 현재 허울만 남아 있음. - 한반도 위기 사태를 막는 유일한 방책은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 체결임. 	<p>아베 신조 일본 국방부장관, 북한 핵동결 해제 선언 관련 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은 아님. - 일본, 경수로 건설 비용의 책임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 없음. <p>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필리핀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함. <p>미 국무장관, 미 국무부 장관, 일본 외상, 방위청 장관, '2+2'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6		<p>중동 논평, 납치문제를 거론하는 일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본정부의 일부 반공화국세력들이 납치문제를 가지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한편 그 무슨 공작선사건이니 각성제밀수니 뭐니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신의없이 행동한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하고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개발 등 제반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 애리 플라이서 백악관 대변인, 정레브리핑에서 북핵 관련 언급 -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한반도 핵화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
12.17	<p>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2.15-17,금강산)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 등의 공동보도문 발표 	<p>평방, 남북철도·도로연결 분과 북측 대변인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협력제도 분과 제1차 회의가 미국의 방해와 간섭 책동으로 하여 공회전됨. -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p>미일 '외교·방위 각료급 안보협의회' 개최, 대북공동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포기 - 탄도미사일 관련 제반활동 중단 촉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7	<p>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15-17,금강산)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 개통, 차량운행기본합의서 조속발효,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2003년 1월 중순 평양 개최 등 4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p>중방,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 우익의 납치문제 제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극우익세력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소동이 미국의 사주 밑에 감행되고 있음. -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 <p>평방, 예멘 무칼라항에 입항한 화물선 선장 기자회견 내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음. - 미국은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선원들과 짐배에 끼친 정신, 물질적 손상에 대해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p>유리 발루에프스키 러시아 합참차장, 러-중 군사협력 회담차 베이징 방문중 북핵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제조했다라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p>알렉산드로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북핵 관련 인테르팍스 통신과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북한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국가들은 갖고 있지 않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음. <p>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북한 핵개발 재개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한반도 위기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순기능적인 지원을 기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8	<p>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 경의선 임시도로 25일 개통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남북이 25일 까지 임시도로를 완공해 26-30일 착공목표인 개성공단에 장비를 보내도록 의견을 모았음. -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과 조선아태간 12.20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사전답사 일정도 합의했음. - 제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되었음.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군사적 제재 방안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임.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이지스함 파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해외팽창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허물며 해외전쟁 수행권을 국제사회계 앞에서 점차 기정사실로 만들어 세계에 대한 패권적 야망을 이루어 보자는 것임. <p>중·평방, 남북 임진강수해방지 분과 북측 대변인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까지 끼어들어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는 것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자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 행위임. 	<p>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도쿄에서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남북 대화 촉진과 북일 대화를 지지하며,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음.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국무부에서 크리스 페튼 EU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등과 회담후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하였다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말함. - 북한의 대미, 대 EU 관계는 북한이 계속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9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조-미 기본합의문 파괴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의 대답을 회피하면서 군사적 제재를 공언하고 있음. -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우리는 구태여 미국에 대화를 구걸할 생각 없음. <p>중방, '노골적인 해적행위' 제하의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화물선 나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침해이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대한 유린임. - 미제는 우리 짐배에 대해 감행한 해적행위에 대하여 사죄해야 하며 모든 정신, 물질적 손상 보상해야 함. 	<p>일본인 납치피해 생존자 5명,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일본 잔류를 희망하는 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잔류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릴 것임. <p>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유럽회의 의장국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네덜란드 총리, 로마노 프 로디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공동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동결한 핵 활동을 재개하려는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
12.20	<p>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나가 겠음.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미국의 화물선 나포행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무역거래를 가 지고 미사일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역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임. 	<p>러시아 외무부 북미 국장, 북한 핵개발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발언은 모순된 것이었으며 러시아의 생각은 북한의 핵계획 보유 여부와 관련, 미국판단과 다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저지른 엄중한 해적행위에 대해서 우리 공화국에 사죄하고 선원들과 짐배에 끼친 모든 정신, 물질적 손상 보상 필요 <p>러시아 교통성 기술지도단(총35명), 북한 철도성과 원산-금강산간 철도구조물 공동조사 완료(12.3- 20)</p>	<p>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핵 관련 요미우리 신문과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최대한의 외교압력을 북한에 행사해 핵개발 계획 포기를 요구해 나갈 것임.
12.21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경협제도 제1차 회의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우리의 핵동결 해제조치를 시비하기 전에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에 하루빨리 응해 나와야 할 것임. <p>평방, 노무현 대통령 당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민족의 염원이 반영된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세력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p>중·평방, 원산-금강산 사이 철길 구조물 조-러 공동조사 사업 종료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조사는 12.3-12.20 진행되었으며, 공동조사와 관련한 문건 채택 	<p>루이스 핀터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원자로 봉인 제거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동결된 핵시설을 재개하지 않도록 촉구 - 핵시설 재개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해야 하고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2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북한의 핵동결 해제 관련 전화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함. 	<p>조선중앙통신사,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그 무슨 실무협상 재개로 시간을 끌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 -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작업을 즉시 개시하게 되었음.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의 정당성 역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동결 해제는 정정당당한 대응조치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하는 것임. 	<p>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북한의 원자로 봉인 제거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유감이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베이징 외교루트를 통해 전달할 방침임. <p>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의 원자로 봉인 제거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연료봉에는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이 포함돼 있어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해 우려됨. <p>IAEA, 북한의 원자로 봉인 제거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설치된 봉인 제거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3	<p>14: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논의 <p>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이 12.22 수조에 저장된 [사용후 연료봉]에 대해서도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조치를 취한데 대해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의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행위로써 이에 깊은 유감을 재차 표명함. -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것과 이제까지 취한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조치를 즉각 원상복구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임. 	<p>김정일 위원장, 방북중인 유리 미하일로비치 루즈코브 모스크바 시장 일행 접견 및 만찬</p> <p>노동신문 논평, 한반도의 핵문제는 일본이 참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 아님. - 한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우리의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함. <p>철도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p> <p>중통 논평, 정치적 부대조건 붙은 지원 거부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다음 번 식량제공은 전국개방 등 조건부들을 수용할 평양의 용의에 달리게 될 것이라는 도전적인 국무성 성명까지 발표 -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국제기구들과 기증국들의 사심없는 협조에 대하여는 호의적으로 대하고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를 고립압살 	<p>유엔인도지원국(OCHA), 대북지원금 조성 관련 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UNICEF 등 14개 기관의 대북지원금 모금실적은 12.8 기준으로 올해 목표 2억4천600만 달러의 88.8%인 2억1천900만여 달러로 집계 <p>일본 외무성 대변인, 북한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관계국,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북한의 핵관련 시설 동결유지 및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 대응 요구 <p>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방장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 움직임에 대해 "실수하지 말 것" 경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3		<p>하기 위한 정치적 부대조건이 붙은 협조는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 것임.</p>	<p>러시아 외무부, 북한 핵실험실 봉인 제거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장비를 제거하는 북한의 일방적 행동을 유감스럽게 생각 -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무 엄격히 준수 바람.
12.24	<p>문성묵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전날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해 북측과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남아 있음. - 남북은 회담결과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기로 의견집근 <p>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경제를 회복시키 	<p>이타르-타스,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장과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 양 도시간 협력 의정서에 서명</p>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미국의 2004년 미사일 방어망 배치 발표를 위협한 군사적 조치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멸적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임. <p>남북장관급회담 대표 최성익, 조선신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금년도 남북관계를 긍정평가하고 내년도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p> <p>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1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p>	<p>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봉인 제거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는 위협이나 파기된 약속에 응해 대화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p>일본 외상과 중국 외교부장, 북한 핵문제 관련 전화 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자쉬엔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4	<p>는 데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선 절대로 동조할 수 없음</p> <p>우리측, 경의선 임시도로공사 완료</p>	<p>민주조선, 미국의 미사일거래 논의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미사일생산과 수출 문제로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관련한 문제임. - 미국은 이를 통하여 지구상의 최대무기상인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조금이라도 가리우며 우리의 미사일거래문제를 극력 여론화하여 반공화국 압살을 위한 국제적인 압력분위기를 마련해 보려 꾀하고 있음. 	<p>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핵시설 봉인해제 조치와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1994년 기본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으로 기대함 <p>IAEA, 북한의 영변 3개 핵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봉인 제거 및 감시장비 작동중단조치 실행 확인</p>
12.25	<p>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 접촉, 12.25-28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접촉에서는 지난 제1차 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간 선박의 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서산호 수색을 악랄한 해적행위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항시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이미 전에 명백히 밝혔음. - 우리 선원들과 짐배에 끼친 모든 정신, 물질적 손실에 대하여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p>겐나디 파테예프 러시아 철도장관, 12.25 러시아와 남북한 철도 행정 책임자간 '3자 협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 현안 논의하기를 요청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6	<p>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핵동결 해제 활동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NPT, IAEA 안전조치 협정, 북-미 제네바협정 등 여러 국제적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서 우리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 	<p>중·평방, 사회주의 헌법 발표 3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참석하에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자는 김일성의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해 주신 때로부터 우리 조국이 걸어온 30년의 노정은 김일성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사회주의 재연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하여 온 자랑찬 연대이라고 지적함.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서산호 검색을 날강도적인 행위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미사일 수출은 외화획득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 - 미국이 미사일과 그 기술을 대대적으로 수출하여 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무기수출의 장본인, 전파위협을 장본인으로 주장 - 미국의 속셈은 우리에게 국제규칙위반자라는 딱지를 붙여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정당화하고 외 	<p>IAEA 대변인, 북한의 핵 연료봉 장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영변 원자로로 새 핵연료봉을 계속 옮기고 있으며 오늘까지 1천개의 새 핵연료봉을 장전 <p>세계식량계획(WFP), 북한 구호활동 관련 긴급보고서 51호 인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1/4분기 대북 구호활동을 위해 구호식품 82,300t이 확보돼야 함 <p>고이즈미 준이치로 日 총리, 북한의 영변 실험용 원자로 건물내 연료봉 반입 관련 언급</p> <p>IAEA, 핵물질이 핵무기 및 여타 핵폭발장치에의 전용여부 등의 검증 불가능 상황에 대한 2003-1차 IAEA 이사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6		<p>화별이공간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자는 데 있다고 강조</p>	<p>러시아 외무부, 알렉산드로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박의춘 주러 북한 대사간 면담 후 성명 발표</p> <p>- 러시아측은 북측에 IAEA와의 지속적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북-미간 건설적인 대화를 역설했음.</p>
12.27	<p>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동결 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 채택</p> <p>-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는 핵동결 장치의 일방적 해제행위에 반대하며 조속히 원상회복시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p> <p>- 북한의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적 수단과 방법에 의해 해결돼야 함.</p>	<p>중방,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IAEA 사찰단원 추방 통보</p> <p>- 중단하였던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완공하게 되며 이 발전소들이 운영되는 때에 나오게 될 수많은 폐연료봉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소도 가동시키게 될 것임.</p> <p>- 사찰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음.</p>	<p>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북한내 대사관 개설 계획 보류 언급</p> <p>- 우라늄 농축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본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우리가 그들과의 외교적 관계 구축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님.</p> <p>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이 서한을 통해 IAEA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한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7	<p>주한 유엔군사령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내 경기관총 반입 관련 공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정전위원회가 12.21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12.13과 12.16~20 반입이 관측된 무기는 경기관총으로 분류된 73형 7.62mm 기관총임. -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북쪽 100~400m 구간에 있는 진지들에 이같은 무기를 설치하는 것 관측 <p>북한의 IAEA 사찰관 추방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개최 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증폭시키는 심각한 행위로서,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 <p>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북핵사태와 관련 언급</p>	<p>중통 논평, 미국의 동시전쟁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방장관 램스펠드가 12월 23일 이라크, 북조선과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이에 앞서 17일에는 미국방정책위원장 리차드 필이 북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정부는 군사적 방안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쟁폭언을 함. - 만약 미국호전분자들이 상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날뛰면서 감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결연히 떨쳐나 침략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임. 	<p>대해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요원들이 영변에 남아 필요한 봉인과 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구 <p>클레어 버컨 백악관 대변인, 북한의 IAEA 사찰단원 추방 결정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미국은 위협이나 파기된 약속에 응해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 <p>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북한의 IAEA 사찰요원 추방 결정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화학실험실의 재가동은 핵무기 제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지 못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7	<p>-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응분의 대응을 해야 하고, 공조를 통해 면밀히 대응할 것</p>		
12.28	<p>이준 국방부장관, 북한 핵사태 관련 국회 국방위에 출석 보고</p> <p>-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는 플루토늄 추출 강행으로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존</p> <p>-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군사행동에 유의하고 있고 도발에 대비, 확고한 한미연합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p> <p>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 접촉 종료</p> <p>- 12월 25일부터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15개항의 '남북 해운합의서'에 가서명</p> <p>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과 북핵사태 관련 전화 통화</p>	<p>중·평방, 미국의 반복 적대정책 규탄 평양시 군중집회 진행 및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연설 보도</p> <p>-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우리의 핵동결 해제조치는 남한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p> <p>-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 하고 있는 북남 대화와 교류, 협력사업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p> <p>중통, 논평을 통해 감시카메라·봉인 제거는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p> <p>- 전력생산을 위해 핵시설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즉시 제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조-미 기본합의문을 난폭하게 위반한 데 있음.</p> <p>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발표</p>	<p>멜리사 플레밍 IAEA 부대변인, IAEA 직원들의 북한 철수 발표</p> <p>- 북한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사찰관 잔류 허용 요청 서한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영변 핵시설 주재 사찰관들에게 직접 오는 31일까지 철수할 것 요구, IAEA가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음.</p> <p>북한에 상주하던 IAEA 사찰관 3명중 1명 북한철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지난 23일 북남군 사실무회담에서 동·서해 지구 북남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할 수 없도록 남조선당국을 강박 - 미군은 군사분계선 통과는 정전협정에 따라 저들의 승인 하에서만 해야 한다고 고집했음. 	
12.29		<p>외무성 대변인, 핵문제 관련 미국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효력을 임시정지 시켰음. - 하지만 미국이 기본합의문까지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특수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음. <p>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미국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또다시 저들 스스로가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전협정을 들고 나와 북남 임시도로 통행과 관련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할 수 없게 하였음.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폭스 TV에 출연하여 북핵 문제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선제 공격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 미국은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위기감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 <p>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베이징에서 주룽지 중국 총리와 회담후 북핵 관련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9		<p>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주한미군의 환경오염행위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시에서의 산림파괴, 서울에서의 기름유출 등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차라테리 사건 위로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회에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에 대해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함.
12.30	<p>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가 경색되면 될수록 햇볕정책은 유효하며 우리가 햇볕정책을 가지고 북한을 유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p>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계룡대에서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 시 북핵 관련 언급</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남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남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며 가로막아 나선 것은 내정 간섭적인 강권행위임. <p>중방, 시사논평을 통해 미국 고위 관리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관리란 린스펠드 국방장관과 리처드 쿨 국방정책위원장을 의미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30	<p>- 경우에 따라선 위험하지 않은 다양한 대응도 해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한다는 전제 위에서임.</p> <p>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p> <p>- 북한 핵동결 장치의 조속한 원상회복, 조건없는 핵개발 포기과 IAEA 사찰 수용, 북한 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공조 및 평화적 해결 노력 등을 촉구</p> <p>김석수 국무총리, 북핵 사태와 관련 국회 본회의에 출석 답변</p> <p>-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북한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p>	<p>- 핵시설의 동결을 해제한 것은 미국이 조미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서 생긴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득불 취한 정당화 조치임.</p> <p>철도성 대표단(단장:김용강 철도성 부상), 러시아 방문후 귀환</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32호, 미국의 1년간 행적 비난</p> <p>- 조평통 서기국은 미국이 지난 1년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장애를 조성해 온 것과 관련하여 보도 제832호를 발표함.</p> <p>-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단합하여 미국의 오만하고 횡포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의 운명, 자주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때임.</p> <p>- 북과 남의 온 거래는 굳게 단합하여 전 민족적인 반미항전으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 내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31	<p>정세현 통일부 장관,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중무식에서 북핵 관련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은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을 초월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토대로 추진해야 함. - 특히 한미공조는 북한 핵문제 등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p>박의춘 주러 북한 대사, NPT 탈퇴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 이같은 환경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미보유국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하는 NPT를 이행할 수 없음. <p>민주조선, 일본의 핵문제 거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평양선언은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데 대해 사죄하며 조선과 일본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쌍방이 현안사항을 해결할 데 대한 문제,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갈 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확인함. - 조선과 일본이 진실로 가까운 이웃이 되자면 조일평양선언을 통해 상호합의된 문제해결에 신의 있게 나와야 함. 	<p>IAEA 사찰관 2명 전원, 북한의 추방 통보에 따라 베이징을 통해 북한 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발 고려항공 151편으로 10:00 베이징 공항 도착 <p>조지 W.부시 미 대통령, 북핵관련 공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외교적 대결이라 생각 - 이 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p>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 북한의 IAEA 사찰단 추방 관련 독일 라디오와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IAEA 사찰단 추방 조치는 NP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항변

南北對話年表

(2002. 1. 1~12. 31)

發行日：2003年 6月 發行

發行處：統一部 南北會談事務局
(dialogue.unikorea.go.kr)

印刷處：성림D&P (☎2263-5931)

